

# 도끼 한국사

## 한국사 8종 교과서, 최근 공무원 문제 사료 모음집

1강 역사란 무엇인가  
2강 구석기, 신석기 시대  
3강 청동기, 철기 시대  
4강 고조선  
5강 여러 나라의 성장  
6강 고대 정치 1 (삼국시대 왕)  
7강 고대 정치 2 (가야, 통치체제)  
8강 고대 정치 3 (삼국 통일 과정)  
9강 고대 정치 4 (통일 신라)  
10강 고대 정치 5 (발해)  
11강 고대 경제  
12강 고대 사회  
13강 고대 문화 1 (불교 문화)  
14강 고대 문화 2 (유교 문화)  
15강 고대 문화 3 (고분, 문화 예술, 일본문화 전파)  
16강 중세 정치 1 (10세기 상황, 고려 전기 왕)  
17강 중세 정치 2 (통치체제)  
18강 중세 정치 3 (문벌 귀족 사회)  
19강 중세 정치 4 (고려 대외 관계)  
20강 중세 정치 5 (원간섭기, 고려 멸망과정)  
21강 중세 경제 1 (토지제도)  
22강 중세 경제 2 (수취제도)  
23강 중세 사회  
24강 중세 문화 1 (불교 문화)  
25강 중세 문화 2 (유교 문화)  
26강 중세 문화 3 (과학기술, 예술)  
27강 근세 정치 1 (15세기 왕)  
28강 근세 정치 2 (16세기 정치상황)  
29강 근세 정치 3 (통치체제 1)  
30강 근세 정치 4 (통치체제 2)  
31강 근세 정치 5 (대외관계)  
32강 근세 경제 1 (토지제도)  
33강 근세 경제 2 (수취제도)  
34강 근세 사회 1 (신분제도)  
35강 근세 사회 2 (사회정책)  
36강 근세 문화 1 (유교문화)  
37강 근세 문화 2 (각종 서적)  
38강 근세 문화 3 (과학 예술)  
39강 근대 정치 1 (조선 후기 왕)

40강 근대 정치 2 (통치체제)  
41강 근대 경제 1 (수취제도)  
42강 근대 경제 2 (상업, 수공업, 화폐)  
43강 근대 사회 1 (신분제 동요)  
44강 근대 사회 2 (항전, 농민봉기, 종교)  
45강 근대 문화 1 (성리학 논쟁, 양명학, 실학)  
46강 근대 문화 2 (국학)  
47강 근대 문화 3 (서민문화와 예술)  
48강 흥선대원군 개혁 정책  
49강 강화도 조약 및 부속 조약  
50강 개화정책 추진과 반발  
51강 임오군란, 갑신정변  
52강 동학농민운동  
53강 갑오개혁, 을미개혁  
54강 독립협회, 광무개혁  
55강 항일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56강 열강의 경제 침탈과 구국운동  
57강 사회의식 변화, 근대문물 수용  
58강 근대 교육, 국학, 문예  
59강 일제 국권 피탈과정  
60강 식민통치체제, 경제 수탈 정책  
61강 1910년대 민족운동  
62강 3.1운동, 임시정부  
63강 국내항일투쟁, 의열투쟁  
64강 항일무장 투쟁  
65강 실력양성운동, 노동, 농민 운동, 사회적 민족운동 전개  
66강 민족문화 수호운동, 국외 이주 동포 활동  
67강 8.15 광복, 좌우대립  
68강 좌우대립  
69강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70강 6.25 전쟁  
71강 이승만 정부(1공화국), 장면 정부(2공화국)  
72강 박정희 정부(3공화국, 4공화국)  
73강 전두환 정부(5공화국)  
74강 6공화국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75강 통일 정책  
76강 경제 정책  
77강 북한의 변화  
78강 사회 문화 변화





## CHAPTER

## 01

## 역사란 무엇인가

## ||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2016년  
국가직 9급

## CHAPTER

## 02

## 구석기, 신석기

## || 신석기 시대

- (1) 기원전 8000년경에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는 차차 따뜻해졌지만, 기원전 5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기후가 추운 편이었다. 후빙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기원전 5500년경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는 기후가 따뜻하여 소나무 숲에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가 첨가되어 현재와 비슷한 산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 (2)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달걀 모양의 뾰족한 밑 또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 (3) 신석기 문화층에서는 수습 기의 집터가 드러났다. 집터는 모래땅에 깊이 60~70cm의 움을 파고 지은 반움집으로 둥근 꼴이 대부분이다. 집터 한 가운데에는 강돌을 돌려 만든 화덕 시설이 있고,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얹어 지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유적에서 나온 나무 숯을 이용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은 기원전 4200 ~ 기원전 140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기원전 8000년경에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는 차차 따뜻해졌지만, 기원전 5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기후가 추운 편이었다. 후빙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기원전 5500년경부터 3000년경까지는 기후가 따뜻하여 소나무 숲에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가 첨가되어 현재와 비슷한 산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 무렵의 한반도는 대략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서해안에서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7미터쯤 낮아 사람들은 현재의 해안선 보다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생활할 수 있었다.

2008년 법원직  
2014년 경찰2차

## CHAPTER

## 03

## 청동기, 철기

## || 미송리식 토기

- (1) 미송리식 토기는 밑바닥이 납작하고 몸체는 볼록한 편이며 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져 그 생김새가 마치 표주박의 아래위를 잘라버린 것처럼 생겼다. 토기는 청천강 이북의 평안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길림성·요령성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 대체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납작한 밑 향아리 양쪽에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청천강 이북, 길림, 요령 일대에 분포한다.

2007년 법원직

2012년 해양경찰

## II 반구대 암각화

<p>국보 제 285호로 지정된 암각화이다.</p> <p>최근 이 <b>유적의 보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b></p> <p>사슴, 고래, 거북, 물고기, 호랑이 멧돼지, 곰,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모습 등과 함께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장면 등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p>	2012년 경간부
---	-----------

## II 철기시대 유물

<p>(1) 비파형 동검은 요령, 만주,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b>세형동검은 대부분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b></p> <p>(2)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은 <b>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b>이 출토된 층에서 발견되거나 그 아래층에서 발견되었다.</p> <p>(3) 철제 유물이 발견되는 층에서 <b>명도전 · 오수전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b></p>	2009년 9급 국가직
---	-----------------

# CHAPTER 04 고조선

## 01.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 고조선

#### II 단군 신화

<p>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인간 세상에 뜻을 두었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니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므로 천부인 3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b>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 불렀다.</b> 그가 바로 환웅천왕이다. <b>풍백, 우사, 운사</b>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b>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b>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神) 환웅에게 기도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신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곰은 그것을 먹은 지 삼칠일 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없었다.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자주 단수(檀樹)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b>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b> <b>요임금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b>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궁홀산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의 호왕이 즉위한 기묘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였다. 『삼국유사』</p>	교과서 수록 비상, 두산 천재, 리베르
<p><b>참고</b></p> <p>제왕운기의 단군신화</p> <p>옛적에 신인이 <b>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b>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고 단군이라 불렀다. 때는 <b>요임금 첫 해였다.</b> 누가 처음 나라를 세워 풍운을 이끌었는가? <b>석제의 손자로서...</b>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는데, 조선의 땅을 차지하여 왕이 되었다. 1038년을 다스리다가 아사달에 들어가니, 신이 되어 죽지 않은 까닭이다.</p>	

## II 8조법

<p>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대개 <b>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b>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b>여자는 모두 정숙하고 신의가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b> 농민들은 나무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한서』 지리지</p>	교과서 수록 비상, 교학사 두산, 리베르 기출 2012년 지방직 2015년 경찰
--	---



## || 고조선 멸망 후 법조항의 증가

군을 설치하고 초기에는 관리를 요동에서 뽑아 왔는데, 이 관리가 백성이 문단속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장사 하러 온 자들이 **밤에 도둑질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졌다.** 지금은 금지하는 **법이 많아져 60여 조목이나 된다.**  
『한서』 지리지

교과서 수록  
천재

## || 고조선과 연과의 대결

위략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주가 쇠하고 연이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면 동쪽으로 땅을 빼앗으려 하자, 기자의 후손 **조선후도 또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쳐서 주 왕실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대부 예가 간언하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예를 서쪽으로 파견하여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도 전쟁을 중지하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쳐서 2천여 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만에 이르러 국경을 삼았으니, 마침내 조선은 쇠약해졌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중국과의 교류

- 중국의 제(齊)와 교역하였다. 『관자』
- 중국의 연(燕)이 왕을 칭하며 고조선을 치려하자, 고조선 역시 왕을 칭하며 도리어 연을 치려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연에서 장수 진개를 보내 조선 서쪽의 땅 2,000여 리를 빼앗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고조선의 관제와 사회 구조

좌장군(순체)이 …… 급히 조선을 공격하였다. 조선상 노인, 상 한음, 장군 왕검 등이 서로 모의하기를 …… 모두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위만의 망명과 위만조선 건국

조선왕 만(滿: 위만)은 옛날 연(燕)나라 사람이다. 처음연의 전성기(연 소왕, 기원전 311~279)로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의 바깥 변방까지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부속시켰다. 연왕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로 돌아가자, 위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 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빈땅인 상하장에 살았다.** 점차 진번과 조선의 오랑캐 및 옛 연, 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 주변의 소읍을 침략하여 굴복시키니, 진번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사기>> 조선 열전

진나라 때 진승 등이 거병하여 온 천하에 반기를 드니 연, 제, 조 지역의 백성 수만인이 조선으로 피난하였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북상투를 하고, 오랑캐의 복장으로 와서 왕이 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천재

조선 후(侯) 준(준왕)이 분수를 모르고 왕을 칭하다가 **연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자, 그 측근 신하와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한(韓) 당에 들어가 스스로 한왕이라고 불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을 때에, **조선의 상(相)인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간언하였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가니 2천여 호의 백성이 따라 나섰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천재

## 1. 부여

### 부여의 위치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읍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사방 2천 리가 되고 호수는 8만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부여의 왕권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 꾸어야 한다.'라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두산
--	--------------	-------------------------

### 사출도, 귀족과 평민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모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우가·저가·구가·대사·대사자·사자가 있다. 부락에는 호민이 있으며, 하호라 불리는 백성은 모두 노복(奴僕)이 되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 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 적군이 침입하면 제가들이 몸소 전투를 하고, 하호는 양식을 저다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교학사 두산 2017년도 경찰기출
---	--------------	---

### 고구려, 백제, 발해의 부여 계승

○ (고구려는) 옛날에 <u>시조 추모(동명)왕</u> 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하느님)의 아들이 었고 어머니는 하백(물의 신)의 따님이였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	교과서 수록 천재
○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	『삼국사기』	
○ (538년 성왕은) 도움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칭하였다.	『삼국사기』	
○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속일본기』	

### 부여의 제천행사

은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u>영고</u> 라 한다. 이때는 형벌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2017년 국회직
---	-------------------------------

### 부여의 의복

국내에 있을 때의 옷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만든 큰 소매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 여우, 살행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으며,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	--------------	--------------------------

### 부여의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이는 흉노의 풍습과 같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 부여의 법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b>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b>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부여에 대한 중국의 시선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b>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해</b>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는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부여의 경제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는 적당하지만 <b>오과(五果)는 나지 않는다.</b>	교과서 수록 교학사, 리베르
『삼국지』 위서 동이전	

## 2. 고구려

### 주몽의 남하

<b>주몽이 졸본 부여에</b> 이르렀다. 그 왕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왕이 죽자 <b>주몽은 왕위를</b> 이었다. …… 왕(주몽)이 비류국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 왕 송양이 보고 말하기를 …… “나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 그대가 나에게 붙는 것이 어떤가.” 하자 왕이 분하게 여겨 말다툼하고 또한 서로 활을 쏘아 재주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대항할 수 없었다. …… 36년 여름 6월에 송양이 항복해 왔다.	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일부)
『삼국사기』	

### 고구려의 위치

<b>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예맥과, 동쪽은 옥저와, 북쪽은 부여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b>	교과서 수록
『삼국지』 위서 동이전	

### 고구려의 자연 경제, 성품

한도의 아래에 도읍 하였는데 면적은 <b>사방 2천리가 되고 호수는 3만이다.</b>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b>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한다. 좋은 전지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b> …… 그 나라 사람들의 성질은 <b>흥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교학사 리베르
『삼국지』 위서 동이전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으니, 그 이름을 <b>부경</b> 이라 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삼국지』 위서 동이전	

### 관직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b>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b>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 모든 대가들도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자·조의·선인은) 마치 중국의 경이나 대부의 가신과 같은 것으로, 회합할 때의 좌석 차례에선 왕가의 사자·조의·선인과 같은 열에는 앉지 못한다.	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부여와 고구려

동이의 옛말에 의하면 <b>(고구려는) 부여의 별종</b> 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같은 점이 많았으나, 그들의 기질이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제천행사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b>동맹</b> 이라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두산
--	--------------	----------------------

그 나라의 <b>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혈(陰穴)</b> 이라 부른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陰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강 위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석에 모신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	--------------	--------------

## 혼인제도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b>여자의 집에서 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b> 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더불어 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작은 집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서옥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
---	--------------	---

## 3. 동예와 옥저

### 옥저의 위치

<b>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 동쪽은 넓은 바다에 맞닿아 있다.</b> 그 지형은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길어 (원문 :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다) 천리 정도나 된다. <b>북쪽은 읍루·부여와, 남쪽은 예맥과 접하여 있다.</b>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	--------------	-------------------

### 옥저의 지배자

호수는 5천호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長帥)가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	--------------	-------------------

### 옥저의 민머느리제

그 나라의 <b>혼인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b> 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리베르 지학사
--	--------------	-------------------------------------

### 옥저와 고구려 풍습

그들의 말은 고구려와 대체로 같지만 경우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음식·주거·의복·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 옥저의 가족공동무덤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櫛)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온 집식구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로써 모양을 새긴다. 또 **질속에 쌀을 담아서 곽의 문 곁에다 엮어 매단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

## || 고구려의 옥저 복속

나라가 작고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는 그 지역 인물 중에서 대인을 두고 사자로 삼았으며, 상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또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통괄 수납케하였다**. …… **그들(동옥저 사람)을 노복(奴僕)처럼 대우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옥저의 경제

옥저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동예의 위치

**동예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에 접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호수는 2만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동예의 종족

노인들은 예로부터 스스로 일컫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미래엔, 교학사

언어와 법속이 고구려와 거의 같았으며 의복은 달랐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동예의 지배층

대군장이 없고 한대 이래로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동예의 무천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교학사

## || 동예의 책화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교학사, 비상  
리베르, 지학사

## || 동예의 족외혼

**동성(동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 동예의 경제

낙랑의 <b>단궁</b> 이 그 지역에서 산출된다. 바다에서는 <b>반어의 껍질</b> 이 산출되며, 땅은 기름지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다. 또 <b>과하</b> 만가 나는데 후한의 환제 때 현상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삼베(마포)가 산출되며 <b>누에</b> 를 <b>쳐서</b> 옷감을 만든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비상, 리베르

## 4. 삼한

### 삼한의 위치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왜와 접경한다. 면적이 사방 4천리 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b>마한</b> <b>돌째</b> 는 <b>진한</b> <b>셋째</b> 는 <b>변한</b> 인데, <b>진한</b> 은 옛 <b>진국</b> 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삼한의 지배자

(삼한에는) 나라마다 각각 장수(長帥)가 있어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b>신지</b> 라 하고, 다음은 <b>읍차</b> 라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	-------------------

### 목지국

<b>마한</b> 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b>진왕</b> 으로 삼았다. (진왕은)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였다. 『후한서』	교과서 수록 천재
--	--------------

### 경제

변한과 진한의 토지는 비옥하여 <b>오곡과 벼</b> 를 <b>심기에</b>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계절제

해마다 <b>5월</b> 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탁무(鐸舞)와 흡사하다. <b>10월</b> 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	------------------------------

### 소도와 천군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b>천신</b> 에 <b>대한 제사</b> 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b>천군</b> 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그것을 <b>소도</b> 라 한다. (그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그 지역으로 <b>도망 온 사람</b> 은 <b>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b>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이 <b>소도를 세운 뜻은 부도(浮屠)와 같으나</b> , 행하는 바의 좋고 나쁜 점은 다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두산, 비상 리베르
---	---

### 대외 교류

(진·변한이란) 나라에서 <b>철</b> 이 생산되는데 <b>한, 예, 왜</b> 에서 모두 와서 가져간다. 사고팔 때에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b>그것을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b>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대방)군에서 왜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 바닷길로 가는데, <b>한국</b> 을 거치면서 <b>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b> , <b>그 북쪽 해안인 구야한국(가야 연맹 중 한 곳)</b> 에 이르니, 7천여 리이다. 비로소 바다를 건너 1천여 리를 가면 대마국(쓰시마 섬)에 이른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CHAPTER

## 06

## 고대정치 (1)

## 삼국 및 가야의 성립과 발전

## 1. 고구려의 발전

## Ⅱ 태조왕의 정복 활동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 조내를 정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 …… 주내를 정벌하고 그 왕자 을음을 사로잡아 <b>고추가</b> 로 삼았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삼국사기』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해(동해)에 이르고 남으로 는 살수에 이르렀다. …… 왕이 군사를 일으켜 <b>요동 서안평을 습격하고,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 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리베르
--	--------------------

『삼국사기』

## Ⅱ 광개토 대왕의 신라 지원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 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 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 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 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口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	-------------------

『광개토 대왕릉 비문』

## Ⅱ 장수왕 대외 외교

(고구려는) 배를 타고 바다로 다녀서 사신왕래가 항상 있었다. 또한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지만 그들은 강성해 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북위에서는 여러 나라 사신이 거쳐하는 집을 두었는데 남제의 사신이 첫째이고, 고려(고 구려)가 그 다음이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눌지왕 3년 고구려 왕이 자신을 보내 와서 우리 임금님께서 대왕의 아우 보해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다는 소 식을 듣고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별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하였다. 이에 왕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여 화친을 맺기로 하고 <b>아우 보해를 고구려로 보냈다.</b>	공무원 기출 - 삼국유사 -
---	--------------------

## Ⅱ 고구려의 천하관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 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	-------------------

『광개토 대왕릉 비문』

고려대왕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며 서로 수천(守天 : 하늘을 지키)하기 위해 동으로 (왔다).	『충주 고구려비 비문』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 다른 해석(지학사) 고구려 대왕 할아버지왕의 명령으로 신라 매금(왕)과 더불어 영원토록 형제가 같이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 동이 매금의 옷을 내려주었다.	『충주 고구려비 비문』	

## 제가회의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b>제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b>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비상, 리베르
--	-------------------

## 대대로와 고구려 왕권

고구려 관제에서 가장 높은 것은 <b>대대로</b> 이다. (당의) 재상같이 나랏일을 총괄하여 주재한다. 3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적격한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순순히 내어놓지 않으면 군사를 이끌고 싸워 이긴 자가 차지하였다. 이때 왕은 궁궐 문을 닫고 지켜 볼 뿐이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두산
---	--------------

## 율령반포

소수림왕 3년에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2. 백제의 발전

### 백제의 건국 설화

주몽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b>비류와 온조</b> 라고 했다. 주몽은 부여에도 아들 유리를 두었는데 그가 고구려로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마침내 <b>온조는 한강 하류에 이르러 도움을</b> 정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두산
---	--------------

### 고이왕의 관등, 관복제 정비

<b>내신좌평</b> 을 두어 왕명 출납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b>내두좌평</b> 을 두어 물자와 창고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b>내법좌평</b> 을 두어 예법과 의식을, <b>위사좌평</b> 을 두어 숙위 병사를, <b>조정좌평</b> 을 두어 형벌과 송사를, <b>병관좌평</b> 을 두어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 6개 좌평은 모두 1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 극우는 16품이었다. ……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 리베르
--	------------------------------

### 백제의 요서 진출

백제국은 본래 <b>고려(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1,000여 리에 있었다.</b> 그 후 <b>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였다.</b> 백제가 통치한 곳을 <b>진평군(진평현)</b> 이라 한다. 『송서』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b>백제 또한 요서, 진평 2군을 점거하고 백제군을 설치하였다.</b> 『양서』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 전의 할아버지 수(근구수왕)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 <b>쇠(고국원왕)의 목을 베어 달아났습니다.</b> 이로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다보지 못하였습니다. 풍씨(북연의 황제)가 운수가 다해 그 남은 세력이 (고구려에) 들어가자 점차 강성해져 드디어는 우리가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b>속히 한 장수를 보내어 신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 22담로

521년 여류(무령왕)이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달아 격파했다고 하였다. …… 모두 <b>22담로</b> 가 있는데, 왕실 자제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양직공도』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성왕의 한강 유역 수복

백제 성명왕(성왕)이 몸소 무리와 신라, 임나(가야)의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한성의 땅을 차지하고,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는데, 모든 6군의 땅으로서 드디어 옛 땅을 수복하였다. 『일본서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백제의 정사암 회의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 이름을 서너 명 써서 상자에 넣어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 열어 보고 이름 위에 인(印)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정사암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칠지도 명문

(앞면) 태△ 4년5월 16일은 병오인데, 한낮에 백 번 제련한 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나아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 하다. △△△△ 상서로우리라. (뒷면)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부러 왜왕 지(旨)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3. 신라의 발전

### || 신라의 왕호 변천

(기원전 57년) 시조 성은 박 씨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 거서간은 진의 말로 왕이며 혹자는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4년)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다. …… 차차웅은 방언으로 무당을 가리킨다.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이를 경외하여 부르게 되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24년) 유리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 (탈해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치아가 많다고 한다. 떡을 물어 시험해 보니 유리의 치아가 많으므로 그를 받들어 이사금이라 하였다. …… 연장(나이)을 기준으로 후계를 이었으므로 이사금이라 칭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417년) 눌지 마립간이 왕위에 올랐다. 김대문이 말하였다. “마립이란 방언에서 말뚝을 이른다. …… 왕의 말뚝은 중심이 되고 신하의 말뚝은 그 아래에 배열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립간을 왕의) 이름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503년)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 이제 여러 신하가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신라의 관등제

유리왕 9(서기 33)년에 17등급을 두었다. 1위 이별찬, 2위 이척찬(이찬), 3위 집찬, 4위 파진찬, 5위 대아찬인데, 여기서부터 이별찬까지는 진골이라야만 이 벼슬을 받을 수 있었다. 6위는 아찬으로, 4종 아찬까지 있다. 7위 일갈찬, 8위 사찬, 9위 급별찬, 10위는 대나마인데, 9종 대나마까지 있으며, 11위는 나마로, 7종나마까지 있다. 12위 대사, 13위 사지, 14위 길사, 15위 대오, 16위 소오, 17위 조위이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내물왕의 대외 확장

17대 내물 마립간, 왕이라고도 한다. …… 왜인이 대패하여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그들을 거의 다 죽였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법흥왕의 공복 제정

법흥왕 7년(520)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과 붉은색, 자주색으로 위계를 정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강릉)의 정동쪽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100리로, 자연의 험준함을 믿고 신라에 항복하지 아니하였다. 이 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 사령관이 되어 생각하되,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무력으로써 항복시키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하고, 이에 나무로 만든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맹수를 놓아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관산성 전투

백제의 왕 명농(성왕의 이름)이 .....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성왕 32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신라는 명왕(성왕)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 얼마 후 고도(도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기를 .....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이고 구덩이에 파묻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CHAPTER 07 고대정치 (2)

## 1. 가야의 발전

### 대가야의 건국 설화

본래 대가야국이였다. 시조 이진아시왕부터 도설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16대 520년이었다. 최치원의 "승려 이정 전기"에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교과서 수록 금성
---	--------------

### 가야의 건국 설화

천지가 개벽한 뒤로 가야 지방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또한 왕과 신하도 없었는데, 단지 아홉 추장이 각기 백성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 아홉 추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 얼마 뒤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싸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 보니 황금색 알 여섯 개가 있었다. ..... 열 사흘째 날 아침에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 보니 여섯 알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 아이들은 나날이 자라 십 수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의 요임금, 눈동자는 우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만이를 왕위에 추대하고 수로라 하였다. 그가 곧 가락국 또는 가야국 왕이며, 나머지 다섯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



## 가야의 외교

가라국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 국왕 하지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 가라 왕 하지가 먼 동쪽의 바다 밖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받으니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한다.”라고 하였다.  
『남제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금관가야 멸망

금관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삼국사기』

공무원 기출  
2017 경간부

### CHAPTER

# 08

## 고대정치 (3)

### 1. 수당전쟁과 삼국통일

#### 을지문덕의 시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고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구나.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 하기를 바라노라.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살수대첩

하루에 일곱 번 싸워 모두 이긴 우문술의 군대는 살수를 건너 평양 근처까지 들어와 진을 쳤다. 을지문덕이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자 우문술은 수의 군대가 피로하고 지쳐 평양 함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철수하고자 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이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 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천 7백 명뿐이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소정방이 신라를 침공하지 않은 이유

신라는 임금이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아버지와 형처럼 섬기고 있으니 나라는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계백

왕이 대신들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또 당과 신라 군대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에 나아가 신라군과 싸우게 하였다. 네 번을 싸워 모두 이겼으나 군사 수가 워낙 적고 힘이 다해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다. 계백도 그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 18일에 의자가 태자와 웅진 방령의 군사 등을 거느리고 웅진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연정토의 신라 투항

고구려의 지위 높은 신하 연정토가 열두 개 성 763호, 인구 3,543명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므로 정토 및 수종관 24인에게 의복, 식량, 주택을 주어 서울과 성읍에 안주시켰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평양성 함락

계필하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 밖에 도착하고 이적의 군사가 뒤따라 와서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 하였다. <b>보장왕 장이 연남산으로 하여금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고 이적에게 항복하였다.</b> 그러나 <b>연남건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수비하며 대항하였다.</b> …… 5일 뒤에 승려 신성이 성문을 열었다. ……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렀으나 죽지 않았다. 당의 군사가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 나당 연합

<b>춘추가</b> 무릎을 꿇고 “신의 나라가 멀리 바다 한 구석에 있어,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b>백제가 강성하고 교활하여 침략을 일삼아 왔습니다.</b> 더구나 지난해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깊이 침입하여 수십 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으며, 우리 사신이 당으로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어, 그 흉악한 무리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육로와 수로를 거쳐 당을 섬기는 일도 다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b>태종이 깊이 동감하고 군대의 파견을 승낙하였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왜군에 대한 문무왕의 명령

(문무) 대왕이 왜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과 너희 나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강역이 나뉘어 있는데 …… 무슨 까닭으로 금일 <b>백제와 함께 죄악을 저질러 우리나라를 도모하는가?</b> 지금 너희 군졸은 나의 손아귀에 들어 있으나 차마 죽이지 않겠다. 너희는 돌아가 이것을 너희 왕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가는 대로 두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나당연합군의 왜군 격퇴

(나당 연합군이) <b>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모여서 동시에 주류성으로 가다가 백강 어귀에서 왜군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서 다 이기고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태우니</b>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찌르고 바닷물이 붉어졌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북쪽은 정벌을 당하고 서쪽은 침략을 당하여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었다. …… <b>선왕(김춘추)께서 백성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의 귀중한 몸을 잊으시고, 바다를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보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그 본의는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었던 원수를 갚고 백성의 죽게 된 목숨을 보전코자 함이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리베르, 천재
--	------------------------------

사악함을 벌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고), <b>삼한을 통합하여 땅을 넓혔으며,</b> 창해에 살면서 위세를 떨치시니 ……  『청주 윤천동사적비(686)』	교과서 수록 금성, 금성
--	------------------

<b>김춘추가 김유신과 함께 신통한 계획으로 힘을 합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웠으므로 묘호를 태종이라 하였다.</b>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

## || 당의 신라 병합 야욕

선왕(무열왕)께서 정관 22년(648)에 …… (당은) “두 나라를 바로잡으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b>왕(무열왕)은 (김)유신과 함께 신비한 계책과 큰 힘으로 삼한을 통일하여 사직에 큰 공을 이룩하였다.</b>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별세하였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 왜를 정벌한다지만 실은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 불안해하였다. ……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b>(웅진도독부에)</b>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

<p>다른 종족을 끌어들이고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바이거늘. 슬프다! 우리나라 역사가여! 이를 아는 자가 매우 적구나. .... 태종대왕 김춘추에 이르러 이 일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고 수완을 다하여 마침내 이 일을 이룬 뒤에는 득의양양하였다. 반만큼이라도 혈기를 가진 자라면 이를 욕하고 꾸짖는 게 옳으며 배척하는 것이 옳거늘, 오늘날 그 본말을 따지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 통일의 실마리를 연 임금이다.'라고 한다. 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통일하고 일본도 통일하며 기타 동서 여러 나라들을 빠짐없이 통일하였더라도 그 공으로 그 죄를 덮지 못하는데 하물며 삼국 통일의 공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으리오.</p> <p>『독사신론』</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교학사, 천재 리베르</p>
<p>신라 통합 때 당나라 병사를 몰아낸 직후에 국토를 한반도 중앙으로 옮겨 사방을 제압했다면 고구려의 옛 땅도 수습할 수 있고, 요변(遼番), 부여의 땅도 우리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b>신라 왕과 신하의 잘못된 의지로 서북 일대의 땅을 모조리 헌 신 버리듯이 함으로써 거란과 여진이 크게 일어나게 하였다.</b> 이리하여 신라 시대가 끝나고 고려 7백여 년에 이르도록 영토 안에 가시가 제거되지 못하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게 되었다.</p> <p>『동국지리지』</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CHAPTER

# 09

## 고대정치 (4) - 통일신라

### 1. 신라 중대

#### || 문무왕의 업적

<p>전쟁에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상을 내리고, 내외의 관직과 작위를 골고루 나눠 주었고,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을 인수(人壽)의 터전에 살게 하였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덜어 주니, 집집마다 넉넉하게 되어 민생이 안정되고 국내에 근심이 없어졌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천재</p>
--	---------------------------

#### || 삼한 일통

<p>대왕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b>삼한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b>, 백성은 두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 못했으나,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민족통합 정책

<p>문무왕 13년(673) 백제 사람에게 관직을 주었으며 그 관등은 본국(백제)에서 재직하였던 관직에 버금가게 대우하였다. 신문왕 6년(686) 고구려인들에게 경관을 주었는데 그 본국(고구려)의 관품에 헤아려 주었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p>문무왕 10년(670) 안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봉하였다. .... '왕(안승)은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옛 영광을 잇고 영원히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처럼 섬겨야 할 것이다.' .... <b>문무왕 20년(680) 보덕왕 안승에게 예물을 주고 왕의 여동생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b></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김흠돌의 난

<p>16일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정이고, 죄진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상중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b>반란 괴수 흠돌, 홍원, 진공</b> 등은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제 마음대로 위세를 부렸다. 흉악한 무리를 끌어 모으고 궁중 내시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 군사를 모아 이 무도한 자들을 없애려 하였다. 어떤 자는 산골짜기로 도망가고 어떤 자는 궁궐에 와서 투항하였다. 철저히 수색하여 잔당들을 모두 잡아 죽였고 두목들도 소탕하였다. 마지못하여 취한 조치였으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니 미안한 생각이야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교학사 공무원 기출 2017년 법원직 2017년 서울시</p>
---	--

## || 상수리 제도

(문무)왕의 서제인 거득공이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거사의 모습을 하고 여러 지방을 거쳐 무진주에 이르니 주리(州吏) 안길이가 그를 비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 이튿날 아침 거사가 떠나면서 말하기를 “나는 서울 사람으로 이름은 단오이며, 집은 황룡과 황성 두 절 사이에 있으니 서울에 올라오면 찾아 달라.”라고 하였다. 거득공은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다. <b>나라에서는 매년 각 주의 향리 한 사람을 서울 안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b> 안길이가 지킬 차례가 되어 서울에 왔다. …… “무진주에 사는 안길이가 상공을 뵈러 왔습니다.” 거득공이 그 말을 듣고 쫓아 나와 손을 붙잡고 궁으로 들어가 공의 부인을 함께 불러내어 잔치를 열었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

## 2. 신라 하대

### || 신라 말의 정치 혼란과 장보고

희강왕 3년(838) 봄, 상대등 김명 등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꾸며 왕의 측근을 해치니 왕은 자신이 온전치 못할 것을 알고 궁중에서 목을 매었다. 한편 민애왕이 즉위한 다음 해인 839년 김양은 병사를 모아 <b>청해진</b> 으로 들어가 우징을 만났다. 아찬 우징은 김명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이의 원수를 갚고자 <b>장보고에게 군사를 요청</b> 하였다. 마침내 839년 <b>김양의 군사가 민애왕을 시해</b>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해공왕 대의 왕위 계승 분쟁

<b>해공왕 4년 7월 3일에 대공 각간의 적도(도둑 무리)가 일어나자 왕도 및 5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우게 되어 크게 어지러워졌다.</b> 대공 각간의 집이 망하며 그 지에 있던 보물과 비단 등을 왕궁으로 옮겼다. …… 난리는 석달이 지나서야 그쳤다. 상을 받은 사람도 대단히 많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무수하였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 || 김헌창의 난

헌덕왕 14년 3월, <b>용천주 도독 헌창은 그 아비 주원이 앞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b> 무진, 완산, 청주, 사벌주 등 4주의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	-------------------

### || 장보고의 난

문성왕 8년(846) 봄 청해진에 있던 <b>궁복은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b> …… 무주 사람 <b>염장</b> 이라는 자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하는 척하고 청해진에 몸을 의탁하였다. …… 궁복이 술에 취하자 그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신무 대왕이 잠저에 있을 때 협사 <b>궁파(장보고)에게</b> 말하기를, “내겐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그를 없애 주고, <b>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대의 딸을 왕비로 삼겠소.</b> ”라고 하였다. 궁파는 이를 허락하고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군사를 일으켜 수도로 쳐들어가 일을 성공시켰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헌덕왕 대의 농민 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헌덕왕 7년(815) 8월</b>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b>기근이 있어 도적이 일어나니 군사를 내어 토평하였다.</b></li> <li>- 헌덕왕 8년 흉년과 기근으로 당의 절동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었다.</li> <li>- 헌덕왕 11년 3월 초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왕이 여러 주군의 도독과 태수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li> <li>- 헌덕왕 13년 봄에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자손을 팔아 살아갔다.</li> </ul> <p>『삼국사기』</p>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진성여왕 대의 농민 봉기

진성여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b>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교학사
(진성여왕 10년) 도적이 나라 서남 방면에서 일어나 붉은 바지를 입어 구분하니, 이를 적고적이라 불렀다. 그들은 주현을 무찌르고 서울(경주) 서부 모량리까지 쳐들어와 민가를 약탈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교학사

## ||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 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b>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b> 『삼국사기』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으나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공무원 기출 2017년 경찰 1차
---	---------------------------------------

## CHAPTER

# 10

## 발해

## || 유득공의 발해고

부여 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 …… 대체 대씨라는 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소유하였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김씨가 망하고 대씨가 망하게 되니 왕씨가 그 땅을 거느리고 고려라 하였다. 그 남쪽에 있는 김씨의 땅은 완전한 채로 있었으나 그 북쪽에 있는 대씨의 땅은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혹은 여진에 들어가고 혹은 거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발해고』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지학사, 두산 리베르, 금성 미래엔
이런 때에 고려를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 자는 마땅히 먼저 발해사를 편찬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여진을 꾸짖으며 “어찌하여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하고는 장군 한 사람을 보내어 가서 되찾았으면 토문강 이북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발해사를 가지고 거란을 꾸짖었으면, 압록강 이북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마침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이북과 압록강 이서가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여진과 거란을 꾸짖으려 하여도 문서가 없다. <b>고려가 약소국이 된 것은 발해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b> 『발해고』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발해의 주민 구성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모두 토인으로 촌장을 삼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그 다음 촌은 자사라고 하며, 그 아래는 백성들이 모두 수령이라 한다. 『유취국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천재 리베르
--	--------------------------

## || 대조영의 발해 건국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가족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 와 살았다. 696년에 거란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켰다. 대조영은 말갈족장 결사비우와 함께 각각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망명하였다. …… 당의 측천무후는 장군 이해고를 시켜 대조영과 결사비우 무리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해고는 먼저 결사비우를 무찌르고 대조영을 뒤쫓았다. 이에 대조영은 고구려와 말갈 무리를 연합하여 대항하였다. …… 마침내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대조영이 굳세고 용맹스러워 말갈 및 고구려 유민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미래엔(일부) 금성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동류를 끌어모아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발을 붙이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

무예(무왕)가 알립니다. “열국을 보태고 제번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였으며, 부여의 풍속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속일본기』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옛날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쳐 없었는데 그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되었다.	『상태사시중장』	교과서 수록 천재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대조영은 본래 속말 말갈 사람인데 고구려에 붙은 사람이다.	『신당서』	교과서 수록 천재

## ||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

수당 시기에 우리나라(중국) 동북의 송화 강, 헤이룽장 강 유역에서는 말갈족이 살고 있었다. …… 7세기 말에 말갈족의 한 갈래인 속말말갈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다. 후에 당 현종은 그곳에 주를 설립하였으며 그들의 수령을 도독으로 삼고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때부터 속말말갈 정권은 ‘발해’를 호로 하였다.	『7학년 중국 역사』	교과서 수록 두산
속말 말갈은 중원 봉건 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7세기 말 속말부의 수령 대조영이 정권을 수립하였다. 개원 초에 현종은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봉하여 홀한주를 통할하게 하고 홀한주 도독으로 제수하였다. 이로부터 속말 말갈은 발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에 편입되었다.	『중국 고대사(중국 교과서)』	교과서 수록 천재

## || 발해의 황제 칭호(정호 공주 묘지석)

공주는 대흥 56년(792) 여름 6월 9일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나이는 36세였다. 이에 시호를 정호 공주라고 하였다. …… 황상은 조회마저 금하고 비통해 하시며 침식을 잊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중지하였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 지금 보내온 글을 보니 …… 천손이라는 참람한 칭호를 써 놓았다. ……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구생(장인-사위) 관계를 칭하였으니, 이는 예를 잃은 것이다.	『속일본기』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 발해와 신라의 관계

무왕 14년(732), 왕은 장군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당 현종은 태복 원외랑 김사란을 신라에 보내 군사를 출동시켜 발해의 남경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는 군사를 내어 발해의 남쪽 국경선 부근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발해가 군사를 등주에서 철수하였다.	『신당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 원성왕 6년(790) 3월에 일길찬 백어를 북국(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헌덕왕 4년(814) 9월에 급찬 승정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정안국

981년 정안국의 왕 오현명이 여진의 사신을 통해 표문을 올렸는데, “신은 본래 고구려의 옛 땅에 자리 잡았던 발해의 유민으로서 한쪽 귀퉁이에 웅거하여 …… 본성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송서』	교과서 수록 금성
---	------	--------------



## || 무왕 외교

**발해왕이 아웁니다.** 산하(山河)가 다른 곳이고, 국토가 같지 않지만 어렵פות이 풍교도덕(風敎道德)을 듣고 우러르는 마음이 더할 뿐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대왕은 천제(天帝)의 명을 받아 일본의 기틀을 연 이후 대대로 명군(明君)의 자리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발해왕은 황송스럽게도 대국(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 (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習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 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기출  
2017년 국회

## CHAPTER

# 11

## 고대 경제

### 1. 고대의 경제

#### || 삼국시대의 귀족과 농민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먹는 자가 1만 명이나 되며,** 하호(평민)는 먼 곳에서 쌀, 난알, 물고기, 소금 등을 저서 날라다 대가에게 공급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교과서 수록  
천재

위략에 이르기를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하호들은** 세금을 바치며 노비와 같다.

『태평어람』

교과서 수록  
천재

#### || 농경의 장려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에게 하늘이나 다름없이 귀중한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전야(田野)를 널리 개척하라.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가을 7월에 사신 열 사람을 파견하여, 주주나 군주로서 공무에 근실하지 못하여 농토를 많이 묵히는 자를 몰래 살피 벼슬을 낮추거나 거두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서시와 남시의 증설

동시전은 지증왕 9년(508)에 두었다. 감은 2명이다.  
서시전은 효소왕 4년(695)에 두었다. 감은 2명이다.  
남시전 또한 효소왕 4년(695)에 두었다. 감은 2명이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식읍

(246년) 왕이 나라를 복구한 다음 공을 논의하였는데, **밀우와 유유가** 첫 번째였다. 밀우에게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옥구에게 **압록 두돌하원을 주어 식읍으로** 삼도록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고구려의 조세 수취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은 (삼)배 5필, 곡식 5석이였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데, 열 사람이 가는데 1필을 내었다. 집집마다 부과하는 세금은 **상호가 1석이고, 그 다음 호는 7두, 하호는 5두였다.** 『수서』 다른 해석(지학사)  
호(戶)마다 1석의 조(租)를 내며, 차등호는 7두, 하등호는 5두를 낸다.

교과서 수록  
금성, 지학사

**부세는 비단, 베 및 곡물로** 내는데 그 가진 바에 따르며, 빈부를 헤아려 차등 있게 내도록 한다.

『주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II 고구려와 북방 민족의 교역(침묵 교역)

고구려에서 담비가 산출된다. 어떤 짐승이 함께 구덩이 속에 사는데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고 키는 3척이다. 능히 담비를 잡을 수 있고 손칼을 좋아한다. 그 습속에 사람이 담비 가죽을 얻고자 하면 칼을 그 구덩이 입구에 던져 놓는다. 그 짐승은 밤에 구덩이를 나와 담비 가죽을 칼 옆에 놓아둔다. 기다리던 사람이 가죽을 가져가면, 그 후에 비로소 칼을 집어 간다. 『이원(異苑)』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통일신라 귀족의 경제 기반

재상의 집에는 녹(綠)이 끊어지지 않고 노비가 3천 명이며 갑옷 입은 병사와 소, 말, 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가족은 바다 속에 있는 섬에서 방목하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았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 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당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리베르 천재(일부) 미래엔, 금성
---	---

## II 통일신라 시대 이슬람과의 교류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주국들로 갈라져 있다. 그곳에는 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도론 및 제왕국 안내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금성
--	-------------------

그곳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정착하여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곳은 매우 풍족하고 이로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금이 너무 흔해서 신라 사람들은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줄도 금으로 만든다. 『지리학 총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두산 미래엔
--	--------------------------

중국의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공기가 맑고 땅이 기름지며, 주민의 성격 또한 양순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떠나려 하지 않는다. 『창세와 역사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신라는 중국 맨 끝에 있는 엄청 좋은 나라다. 그 나라는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고 땅이 비옥해서 불구자를 볼 수 없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물을 뿌리면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 전염병이나 질병도 드물며 파리나 갈증도 적다. 다른 곳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신라에 오면 곧 낫는다. 『여러 나라의 유적과 인류의 소식』	교과서 수록 두산
--	--------------

## II 발해의 특산물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포(베), 옥주의 면(누에솜), 용주의 주(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환도의 오얏, 낙유의 배가 있다. 『신당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II 청해진 설치

흥덕왕 3년(828) 여름 4월에 청해 대사 공복(장보고)은 …… 귀국하여 왕을 알현하고 졸병 1만 명을 이끌고 청해에 진을 세웠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II 장보고의 활약

적산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였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을 적산 법화원이라 하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 장(보고)대사의 교관선이 단산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공무원 기출 2017년 9급 지방직
--	---------------------------

장보고가 살아 있을 때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비단을 주고 그 대가로 물건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이제 장보고가 죽어 물건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속일본후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장보고의 상단이 가지고 온 물건은 임의로 민간에 맡겨 교역할 수 있게 하라. 다만 백성들이 한도를 어기고 앞 다투어 구매하여 가산을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속일본후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장보고 대사의 교관선(무역선) 두 척이 (산둥 성) 적산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입당구법순례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흥덕왕 사치 금지령

왕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위와 아래가 있고, 벼슬에도 높고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습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의 아비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하여 예절이 분수에 넘치는 데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날 법에 따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그래도 만약 일부러 범하는 자는 진실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공무원 기출  
2017년  
경찰기출

## CHAPTER

# 12

## 고대 사회

## || 진대법

7월, 서리가 내려 곡물이 상하니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겨울 10월에 왕이 질양에서 사냥하실 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우는 것을 보고 어째서 우느냐고 물었다. 대답하되 ‘신은 가난하여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수 없고 한 되, 한 말의 양식도 얻어 쓸 수 없어 읍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아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이러한 극한 지경에 이르게 하니 나의 죄다.’ 하고 의복과 먹을 것을 주어 살아가게 했다. 그리고 곧 내외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늙고 병들었거나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조사하여 구제토록 하였다. 또 소속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꾸어 주고 겨울 10월에 갚게 하는 상설 규정을 만드니 내외가 크게 기뻐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비상

## || 삼국시대 평민의 생활(효녀 지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서른둘이 되도록 시집가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거리가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고 때로는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먹을 것을 얻어 드렸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자 가난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종이 되어 쌀 10여 석을 받았다. 딸이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가 ..... 소리 내어 울고 딸도 울었다. .... 이때 효종랑이 지나가다 ..... 지은을 산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양민으로 풀어 주었다. ....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조 500석, 집 한 채를 내려 주고 잡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두산, 미래엔

## || 고구려의 형벌

반란을 꾀하거나 반란한 자는 사람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경쟁적으로 불태우게 하였는데, 시체가 불에 타서 문드러지면 다시 목을 베었다. 그 가족은 모두 노비로 삼았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금성

## || 백제의 법률

모반, 퇴군 및 살인자는 목을 베고, 도둑은 유형에 처하며 훔친 물건의 2배를 징수한다. 결혼한 부인이 간통하면 그 신분을 박탈하고 남편집의 종으로 삼았다.

『주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반역자는 그 가족과 재산을 몰수하고, 살인자는 노비 3인을 제공하면 속죄되며,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 액수의 3배를 배상하고 금고형(평생 벼슬길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받는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백제 정사암회의

호암사에는 (가) (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공무원 기출 2017년 9급 지방직
--	---------------------------

## 신라의 화백회의

국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한다. 이를 화백이라 한다. <b>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 되지 못하였다.</b> 『신당서』	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
--	------------------

## 신라의 재상

원화 7년(812)에 중흥(애장왕)이 돌아가니 재상 김언승을 세워 왕(헌덕왕)으로 삼았다. …… 아울러 재상 김승 빈 등 세 사람에게 문극(두 갈래 창)을 내려 주었다. 『구당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화랑도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이른다. …… 그 내용은 3교를 포함해 인간을 교화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b>노나라 사구의 가르침</b> 이며, 인위적으로 일을 만들지 않고 자연의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b>주나라 주사 의 근본</b> 사상이고,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b>축견태자의 교화</b> 와 같다. 『난랑비서문』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세속5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으로써 임금을 섬긴다.</li> <li>- 효로써 부모를 섬긴다.</li> <li>- 믿음으로써 벗을 사귈다.</li> <li>- <b>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b></li> <li>- <b>살생을 가려서 한다.</b></li> </ul>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 설계두

설계두는 신라 사대부집(귀족가문) 자손이다. 일찍이 친구 네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며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하였는데 계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b>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먼저 골품을 따지므로</b>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는 멀리 중국에 가서 세상에 없는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스런 관직에 올라 의관을 차려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측근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b>무덕 4년 신사(621)에 배를 타고 당으로 갔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지학사, 비상
--	-----------------------------

## 집을 짓는 기준

<b>진골의 방은 길이와 폭이 24척을 넘을 수 없으며 …… 6두품의 방은 길이와 폭이 21척을 넘을 수 없고 …… 4두품부터 백성까지 방은 길이와 폭이 15척을 넘지 말아야 한다.</b>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 골품의 강등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속성은 김씨로 <b>태종 무열왕의 8대손이다.</b> …… 아버지는 범청으로 <b>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서 득남(6두품)이 되었다.</b> 『낭해화상탑비』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최치원과 골품제

<p><u>최치원이 당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u> 전후에 난세를 만나서 처지가 곤란하였으며, 모함을 받아 죄에 걸리겠으므로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다시 벼슬할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u>세속과 관계를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u> 숲 속과 강이나 바닷가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며 책을 벗어나 자연을 노래하였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Ⅱ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의 생활

<p>왕이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경주)의 민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u>집의 지붕을 기와로 이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밥을 숯으로 짓고 나무로 짓지 않는다</u>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니 민공이 대답하기를 “신도 일찍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천재(일부)</p>
--	----------------------------------

<p>신라 전성 시대의 서울(경주)에는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방(坊), 55리, 35개의 <u>금입택(金入宅: 부유한 큰 저택)</u>이 있었다. 이것은 남택, 북택, 오비소택, 본피택, 양택, 지상택(본피부), 재매정택(김유신의 종택), 북유택, 남유택(반향사 아랫마을), 대택, 빈지택(반향사 북쪽), 장사택, 상앵택, 하앵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양부 남쪽), 한기택(법류사 남쪽), 비혈택(법류사 남쪽), 판적택(분향사 윗마을), 별교택(개천 북쪽), 아남택, 김양종택(양관사 남쪽), 곡수택(개천 북쪽), 유아택, 사하택, 사랑택, 정상택, 이남택(우소택), 사내곡택, 지택, 사상택(대숙택), 임상택(청룡사 동쪽으로 못이 있음), 교남택, 향질택(본피부), 누상택, 이상택, 명남택, 정하택이다.</p> <p>『삼국유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미래엔(일부) 천재(일부)</p>
--	--

<p><u>봄에는 동아택, 여름에는 곡량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이다.</u> 제49대 헌강왕 때에는 성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추녀가 맞닿았고 담장이 이웃집과 이어졌다. 노래와 풍류 소리가 길에 가득 차서 밤낮 그치지 않았다.</p> <p>『삼국유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금성 천재(일부)</p>
--	--------------------------------------

## Ⅱ 발해 여성의 지위

<p>부인은 모두 사납고 투기하였다. …… 거란, 여진 등 여러 나라에는 …… 양인이 <u>모두 작은 부인이나 시종드는 계집종을 거느렸으나 오직 발해만이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u></p> <p>『송막기문』</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고구려의 불교 수용

소수림왕 즉위 2년 .....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375년 2월에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안치하고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두었다. 이것이 해동 불법의 시작이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391년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받들고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금성

## 백제의 불교 수용

제15대 침류왕이 즉위한 갑신년(384)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신라의 불교 수용

조정신하들은 (법흥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 절을 세우겠다는 왕의 높은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 .... 이차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신이 거짓으로 왕명을 전하였다고 문책하여 신의 머리를 베시면 만민이 모두 굴복하고 감히 왕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대왕(법흥왕)이 분노하여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 집집마다 부처를 공경하면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불도를 행하면 불법의 이익을 얻었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아도는 263년(미추왕 2)에 신라로 가서 왕성의 서리에 머물렀다. 아도가 대궐에 들어가서 불교를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라 하여 꺼려하였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에 일선현 모례의 집에 숨어 살았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금성

## 왕실 불교(왕즉불 사상)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백정(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이고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다. ....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으로 갈문왕 복승의 딸이다.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용모였고,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깊고 굳세었으며, 지혜가 밝아서 사리에 통달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불교의 업설

종공이 삭주 도독에 임명되어 삭주로 가는 도중 죽지령(고개)에서 길을 정성껏 닦고 있는 거사를 만났다. 공은 거사를 크게 칭찬하였고 거사 또한 공을 존대하였다. 그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공은 거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날 거사는 죽고 공은 아이를 얻었다. 공은 거사가 자신의 아이로 환생하였다고 확신하고 이름을 죽지라 하였다. 죽지랑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올라 (김)유신공과 함께 삼한(삼국)을 통일하고 4대에 걸쳐 재상이 되었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 불교의 대중화

<p>아간 귀진의 집에 옥면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면 마당에 서서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였다. 주인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 매일 버 두 섬을 찜도록 시켰다. 그녀는 버를 초저녁에 다 찜고 절에 가 염불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옥면 낭자는 법당에 들어가서 염불하라.”라는 외침이 있었다. …… 법당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의 음악이 들리더니 옥면이 솟구쳐 대들보를 뚫고 지나갔다. …… 그녀는 진신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큰 빛을 비추었고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삼국유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일심 사상

<p>일심이란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b>세계의 원을 이루면서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정신 실체</b>를 가리킨다.</p> <p style="text-align: right;">『십문화쟁론』</p>	<p>교과서 수록 천재</p>
<p>크다고 말하고자 하니 속이 없는 곳에 들어가도 남음이 없고, 작다고 말하고자 하니 밖이 없는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있다고 하자니 비어 있고, 없다고 하자니 만물이다 이것을 타고 태어난다.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으므로 억지로 대승이라 하였다. …… 이 논(論)을 지어서 …… 도를 닦는 자에게 온갖 경계를 없애 ‘일심’으로 되돌아가게 하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승기신론소』</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원효의 아미타 사상

<p>원효가 이미 계를 잃어 설총을 낳은 뒤로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소성 거사라 이름 하였다.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생김새가 진귀하고 기이하여 그대로 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화엄경의 ‘일체에 걸림 없는 사람은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구절을 따다 ‘무애’라고 이름 지었으며, 노래를 지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각지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돌아다녔으니, 가난한 사람이나 원승이처럼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들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b>나무아미타불</b>’을 칭하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가 크도다.</p> <p style="text-align: right;">『삼국유사』</p>	<p>교과서 수록 비상, 교학사 공무원 기출 2017년 법원직</p>
--	--

## || 화엄일승법계도

<p>하나 가운데 일체의 만물이 다 들어 있고, 만물 속에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가 곧 일체의 만물이고, 만물은 곧 <b>하나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b>. 한 작은 티끌 속에서 시방(十方)이 있는 것이요, 한 찰나가 곧 영원이다. 양에 있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이며, 공간은 시방으로 너르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한 작은 티끌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에 있어서 영원한 것도 한 찰나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화엄일승법계도』</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공무원 기출 2017년 경관부</p>
<p>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해 이름도 형상도 없어 일체를 여의었으니/ 깨달은 그것이지 다른 경지가 아니다 진성(眞性)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니/ 자성(自性)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론다. <b>하나 안에 일체요, 모두 안에 하나/ 하나가 곧 일체요, 모두가 곧 하나이다.</b></p> <p style="text-align: right;">『화엄일승법계도』</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혜초의 시

<p>달 밝은 밤에 고향 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 편에 편지 한 장 부쳐 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 들리는구나 <b>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b> 일남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p> <p style="text-align: right;">『왕오천축국전』</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황룡사 장륙존상

신라 제24대 진흥왕 때 ..... 바다 남쪽에 어떤 큰 배가 하곡현 사포(지금 울주 곡포)에 와서 정박하였다. 조 사해 보니 공문서가 있는데 “서천축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분을 ..... 배에 실어 바다에 떠나보내 니 ‘인연 있는 국토에 도착하여 장륙존상을 이루기를’ 축원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 대건 6년 갑오(574) 3월 에 장륙존상의 주조를 완성하였다. .... 황룡사에 안치하였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바둑과 불교

(고구려 승려)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온 것 같이 하여 백제로 들어왔다. 이때 백제 근개루왕이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였다. ....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 보니 과연 국수였다. 이에 그를 높여 최고 손님으로 삼고 매우 친하게 지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CHAPTER

# 14

## 고대 문화 (2)

## 삼국의 동질성

- (신라와 중국의) 언어는 백제인의 통역을 거친 뒤에야 통하였다. - 백제의 언어와 복장은 대략 고구려와 같았다. 『양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임신서기석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쓴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유지하고 과실이 없게 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한다. 만약 이 일을 잃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 얻을 것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기꺼이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별도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한 바 있다. 시(詩)·상서(尙書)·예(禮)·전(傳)을 3년 안에 차례로 습득하겠다 맹서하였다. 『임신서기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	-------------------------

## 역사서 편찬

근초고왕 30년(360), 옛 기록에는 “이때에 와서 박사 고흥이 처음으로 서기를 썼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진흥왕 6년(545),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폄(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이것을)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 국사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영양왕 11년(600), 대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옛 역사를 요약하여 신집5권을 만들었다. 나라 초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이 사실을 100권으로 기록하여 이름을 유기라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깎고 고친 것이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독서삼품과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을 능통히 알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上)으로 하고,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中)으로 하고,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下)로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천재
--	-------------------



## || 국학

<p>국학은 예부에 속한다. 신문왕 2년에 설치하였다. …… 교수하는 법은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으로 나누어 학업을 닦게 하였는데, 박사나 조교 1인이 예기, 주역, 논어, 효경을 가르치고,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을 가르치며,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가르쳤다. …… 모든 학생은 관등이 대사 이하로부터 관등이 없는 자이며, 나이는 15세로부터 30세까지 모두 이를 충족하였다. 9년을 기한으로 하되, 우둔하여 향상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며, 재주와 그릇됨이 성취할 만하되 미숙한 자는 9년을 넘어도 재학하게 하여, 관등이 대나마나 나마에 이른 다음에 내보낸다.</p> <p>『삼국사기』</p>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최치원의 도당 유학

<p>(최)치원이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2세가 되어 장차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할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라고 하였다.</p> <p>치원이 당에 이르러 스승을 좇아 학문을 배우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 원년 갑오(874)에 예부시랑 배찬 아래에서 한 번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선주의 율수현위에 임명되었다.</p> <p>『삼국사기』</p>	교과서 수록 지학사 공무원 기출 2017년 법원직
--	--------------------------------------

## CHAPTER

# 15

## 고대 문화 (3)

## || 성덕대왕 신종

<p>신종이 완성되니 형상은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용의 음성 같아 위로는 하늘 꼭대기까지 꿰뚫고 아래로는 땅속까지 통하였다. 보는 자는 기이하다고 칭송하고 소리를 들은 자는 복을 받았다.</p> <p>『성덕대왕 신종 명문』</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p>왕이 군신에게 의논했는데, 신하들이 “백제에서 공장을 청한 연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에 청하였다. 공장 아버지가 명을 받고 와서 목재와 석재를 경영하였다.</p> <p>『삼국유사』</p>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p>(자장율사가) 신라에 돌아오고자 종남산의 원향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선사가 “내가 관심으로 그대의 나라를 보매, 황룡사에 9층의 탑을 세우면 해동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자장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 나라에 알렸다.</p> <p>『황룡사 9층 목탑 찰주 본기』</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불국사와 석굴암 : 김대성 설화

<p>옛날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너무 가난하여 마을에 사는 부자 복안이라는 사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어느 날 승려가 복안에게 흥륜사 법회에 시주하기를 권하자 복안이 베 50필을 바쳤다. 승려는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게 되고 안락과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 축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대성이 …… 어렵게 마련한 밭을 흥륜사 법회에 보시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 대성이 죽은 그날 밤 재상 김문량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새겼다. “모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의 집에 환생하리라.”라는 소리가 지붕에서 크게 들렸다. 그 후 김문량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다가 7일 만에 폼다. 그 손바닥 안에 ‘대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쇠불이가 있었다.</p> <p>『삼국유사』</p>	교과서 수록 두산
--	--------------

## 천문관측

<p>- 4월 그믐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p> <p>- 5월에 다섯 행성(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일자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임금의 덕이요, 나라의 복입니다.”라고 속여서 고하였다.</p> <p>『삼국사기』</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고구려 복식

<p>고구려왕은 파란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으로 만든 옷을 입고 흰 비단으로 만든 관을 쓴다. 가족끼리는 모두 금테를 둘렀다. 대신은 푸른색 비단 관을 쓰고 …… 서민은 거친 털옷을 입고 고깔을 쓴다.</p> <p>『신당서』</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최치원의 '가을밤 빛속에서'

<p>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리나니/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적구나 창밖에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발해 왕효령의 시

<p>주인이 변청에서 잔치를 여니/ 상경에서처럼 심히 취하였네. 아마 우사도 성의를 안 듯/ 단비가 촉촉이 내려 나그네 마음 적시네.</p> <p>『문화수려집』</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발해 양태사의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p>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 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 <b>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b> …… 생각하고 또 생각하네 마음은 이미 그대에 젖어 있는데 또 들리누나 괴로운 이 마음 차라리 잠들어 꿈속에서 소리 찾아 가고 싶은데 다만 근심으로 잠 못 드누나</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미래엔</p>
--	-------------------------------

##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

<p>스이코 일왕 20년(612)에 백제에서 귀화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과 몸에 모두 흰 반점이 있어서 문둥병 환자 같았다. …… 저에게는 조그만 재주가 있는데 산악의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의 모형과 오교(중국풍 돌다리)를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노자공이라 불렀다. 다른 이름은 지기마려라 한다.</p> <p>또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오(吳)에서 배워서 기악무를 출 수 있다고 하였다. 곧 사쿠라이(櫻井)에 안치하고 소년을 모아 기악무를 배우게 하였다. 이때 마노노 오비토데시, 이마키노야 히토사이몬 두 사람이 그것을 배워 그 춤을 전하였다.</p> <p>『일본서기』</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도왜인 : 세오녀 이야기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조류를 따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일본 사람들은 연오를 보고 비상한 사람으로 여겨 왕으로 삼았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히 여겨 찾다가, 남편이 벗어 놓은 신발을 보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그전처럼 세오를 싣고 갔다. 일본 사람들이 놀라 왕께 아뢰자 왕이 부부를 만나게 하였고 세오를 귀비로 삼았다. 『삼국유사』

교과서 수록  
비상

### CHAPTER

# 16

## 중세 정치 (1)

### 1. 후삼국과 고려 건국

#### || 견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이씨였는데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이니 농사로 자활하다가 후에 가업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 한 달 사이에 무리가 5천 명에 이르자 드디어 무진주(광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게 말하였다. “당 고종이 신라의 요청을 들어 장군 소정방을 보내 배에 군사 13만을 싣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의 김유신이 잃은 영토를 다시 찾고자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쳐 멸망시켰다. 내 이제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목은 분함을 씻지 않겠는가?” 하고 후백제 왕이라 스스로 칭하고, 관부를 설치해 직책을 나누었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 궁예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 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궁녀였는데 그 성명은 잘 알지 못한다. 혹자는 제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 유모가 궁예를 안고 도망하여 숨어서 온갖 괴로움을 겪으며 그를 양육하였다. …… 복원의 도적 집단 괴수 양길에게 의탁하니 …… 군사들과 고생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주고 빼앗는 일에는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었다. …… 왕이라 자칭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신라가 당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옛 도읍 평양은 오래돼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궁예의 미륵 정치

궁예가 미륵불을 자칭하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가사를 입었다.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로 삼아 외출할 때는 항상 흰말을 탔는데 말갈기와 꼬리를 고운 비단으로 장식하였으며 소년 소녀로 하여금 깃발, 일산과 향기 나는 꽃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고 비구 승려 200여 명을 시켜 범패를 부르며 뒤를 따르게 하였다. 또한 불교 경전 20여 권을 지었는데 그 말이 요망하여 모두 바른말이 아니었으며, 때때로 반듯하게 앉아 불법을 강설하였다. 승려 석총이 이를 평하기를 “모두 사특한 설과 괴이한 말이니 교훈이 될 수 없다.”라고 하자 이를 듣고 노하여 철퇴로 쳐 죽였다. 『삼국사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왕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왕건은(는) 나주에 10년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어느날 진 위쪽 산 아래에 다섯가지 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 가보니 샘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 그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여인이 버들잎을 띄워 주었는데, 급히 물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여인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분이 장화왕후 오씨부인이고, 그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무(武)가 혜종이 되었다.

교과서 수록  
천재  
공무원 기출  
2017년 법원직

## || 견훤의 귀순

견훤이 막내아들 능예, 딸 애복, 애첩 고비 등을 데리고 나주로 달려와서 고려에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장군 유금필 …… 등을 시켜 전함 40여 척을 가지고 바닷길로 가서 견훤을 맞이하게 하였다. 견훤이 들어오자 (태조는) 다시 그를 상부(尙父: 아버지처럼 높인다는 뜻)라고 불렀으며, 남쪽 궁궐을 주고 지위는 모든 관리의 위에 있게 하고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 또한 금과 은을 주고 노비 40명과 10필의 말을 주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왕건의 귀부

듣건대 왕공(왕건)은 문(文)으로 백성을 안정시키고 무(武)로 포악함을 금하므로 사방에서 왕건의 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 하니 나는 왕공에게 귀부하고자 한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신라 말 호족 공직이 아들 직달에게 묻은 내용』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궁예, 견훤 왕건

“신라는 그 운이 끝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자 온갖 도적들이 고슴도치의 털과 같이 일어났다. 가장 심한 자가 궁예와 견훤 두사람이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이면서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품고 도읍에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 베기를 짐승 죽이 듯, 풀 베듯 하였다. 두 사람은 천하의 극악한 사람이다. 궁예는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짓이다. (중략)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왕건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왕건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사람일 뿐이었다.”	공무원 기출 2017년 국회
---	--------------------

## 2. 태조의 정책

### || 태조의 사성 정책

(김)순식은 강원도 명주 사람이다. 그는 그 고을의 장군으로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아 태조가 걱정하였다. 시랑 벼슬을 하는 권열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형이 아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순식의 아버지 허월이 지금 중이 되어 내원에 있으니, 그를 파견하여 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순식이 큰아들 수원을 보내 항복하자, 태조는 그에게 왕씨 성을 주고 땅과 집을 주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 || 태조의 혼인 정책

태조 신혜 왕후 유씨는 …… 유천궁(개경 부근 정주 출신 호족)의 딸이다. 유천궁은 큰 부자여서 고을 사람들이 장자(長者) 집이라고 불렀다. 태조가 ……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말을 쉬고 있는데 왕후(유씨)가 길 옆 시냇가에 서 있었다. 태조가 그녀의 얼굴이 덕성스러움을 보고 …… 그 집에 가서 숙박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태조 왕건은 부인 29명을 두었는데, 황해도와 경기도 출신이 12명이고, 그 밖에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도 고루 퍼져 있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태조의 사심관 제도

신라 왕 김부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도 이를 본받아 각각 그 본 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

### || 태조의 기인 제도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서 인질로 삼고 또 그 고을 일의 자문에 대비하니 이를 기인이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



## || 태조의 서경 개척

태조는 신하들에게 “ <b>평양의 옛 도읍이 황폐해진 지 오래되어 잡초가 우거지고 여진인의 사냥터로 변해 버렸다. 백성을 이주시켜 국경을 튼튼하게 하도록 하라.</b> ”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 태조의 연호 사용

포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b>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로</b> 고쳤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 || 태조의 발해 유민의 포용

<b>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b> 그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특히 원보의 품계를 주어 백주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면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의 관리들에게는 작위를, 군사들에게는 토지와 주택을 각기 차등 있게 주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 훈요10조 (1조)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b>모든 부처의 도움</b> 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닦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청축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공무원 기출 2017년 법원직
---	-------	--

## || 훈요10조 (2조)

둘째로, <b>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b>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천재, 미래엔 리베르, 지학사
--	-------	--

## || 훈요10조

셋째로,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옛날 단주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위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b>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넷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b>중국 풍습</b> 을 본받아 문물 예약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b>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추는 필요는 없다.</b> 그리고 <b>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b>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두산, 리베르 미래엔, 천재 지학사
--	-------	--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b>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b> 마땅히 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천재 미래엔, 지학사 리베르
--	-------	-------------------------------------

여섯째로, <b>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b>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천재, 미래엔 리베르, 지학사
--	-------	--

### 3. 광종의 정책

#### || 광종의 노비 안검법

명하니 <u>노비를 안검(按檢)하여 시비를 분별하게 하니</u> ,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품이 크게 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왕비가 간절히 간하여도 듣지 않았다. 『고려사절요』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두산
--	------------------------------

#### || 광종의 과거제 실시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u>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u> 이때부터 문풍이 일어났고 그 법은 대체로 당 제도를 따른 것이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광종의 황제국화

- <u>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고쳤다.</u>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교학사
--------------------------------------	-------------------

- <u>광종 원년 정월 광덕이라는 연호를 공포하였다.</u>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4. 성종의 정책

#### || 시무28조 (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이익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많아서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u>청컨대 외관(지방관)을 두소서.</u>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비상, 두산, 리베르, 미래엔, 천재, 지학사
---	---

#### || 시무28조 (9조)

우리나라는 태조 이래로 귀천을 물론하고 마음대로 옷을 입어서 관직이 비록 높더라도 집이 가난하면 공복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화려한 비단을 사용하였습니다. …… 원하건대 백관으로 하여금 조회에서는 …… <u>제대로 된 공복을 갖추어 입도록 하고 …… 서인은 무늬 있는 고운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거친 명주로 된 옷만 입을 수 있게 하소서.</u>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시무28조 (10조)

승려들이 지방에 왕래하면서 여관과 역에 머물고, 지방의 아전과 백성을 매질하여 대접의 소홀함을 꾸짖습니다. 아전과 백성들은 승려들이 왕명을 받들고 나왔는지 의심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니, 폐단이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u>승려들이 여관과 역에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십시오.</u>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천재
---	------------------

#### || 시무28조 (11조)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악,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밖에 <u>거마, 의복의 제도는 우리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u>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	-------------------



## || 시무28조 (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거로우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겹게 하소서. 또한 각종 우상을 받드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며 한 번 쓴 다음에는 곧 파괴하여 버리니 .....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이것을 쓰는 것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비상, 리베르 미래엔, 천재
--	---

## || 시무28조 (14조)

임금께서는 날마다 근신하시어 교만하지 말고, <b>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공손함</b> 을 생각하며, 혹시 죄지은 자가 있거든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법에 따라 결정한다면 태평의 대업을 저절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시무28조 (16조)

세상 풍속이 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소원에 따라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 바 그 수가 심히 많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의 승려들은 자기의 주택을 영조하고자 서로 다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 <b>공사에 백성을 징용하기를 나라의 부역보다도 더 급하게 부리므로 백성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b> 바라건대 이런 일을 엄금하여 백성의 고역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시무28조 (19조)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시무28조 (20조)

<b>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b> 몸을 닦는 것은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천재, 미래엔 리베르, 지학사
--	---

## 5. 황제의 국가 고려

## || 황제의 나라 고려

<b>해동 천자이신 지금의 황제에</b>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리라.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온 천하가 한집안이 되니 <b>천자의 성스러우심이라.</b>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b>왕이 원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태조를 배향하였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1034년 6월) 황성 주작문의 복도에 벼락이 쳤다. 동여진의 영새장군 이구도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b>(환구단에) 제왕이 친히 제사지낼 때에는</b> 태자나 공작, 후작, 백작이 2번째 술잔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태위가 마지막 술잔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1. 문벌 귀족 사회

### || 음서의 범위

조상의 공로로 벼슬을 주는 것은 다 나이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였는데, **목종이 즉위하여 명령하기를 “5품 이상 문무관의 아들에게는 음직을 준다.”라고 하였다. 현종 5년 12월에 명령하기를 “양반으로서 현직 5품 이상인 관원의 자손이나 혹은 아우나 조카 중에서 한 사람에게 벼슬을 시킬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

(이자연의 손자이고 이자겸의 사촌인) **이자덕은 …… 독서와 불교를 좋아하였다. 음서로 경시서승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승진하여 중서시랑 평장사가 되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좌주 문생제

**문생이 좌주를 대할 때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예를 차린다. ……** 평장사 임경숙은 네 번 과거의 시험관이 되었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문하에 벼슬을 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고 …… (유경이) 문생을 거느리고 들어가 뜰아래에서 절하니 임경숙은 마루 위에 앉아 있고, 악공들은 풍악을 울렸다. 보는 사람들이 하례하고 찬 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보한집』

교과서 수록  
금성

### || 선망의 대상, 관료

나는 시골에서 쓸쓸히 지내니/ 세파의 곤궁함을 어찌 견디리.  
목 내밀고 한번 나가고 싶으니/ 부디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소.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비상

## 1. 이자겸의 난

### || 문벌귀족 이자겸의 횡포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왕태자와 대등한 대우를 받았다. 자신의 생일을 왕과 같이 인수절이라고 부르고 ……**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며 사방에서 음식 선물이 들어와 항상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고 자기 집 종들을 풀어놓아서 남의 마차를 약탈하여 자기 물자를 수송하였다.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수레를 부쉬 버리고 말을 팔아 버리니 길이 시끌벅적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공무원 기출  
2017년 7급 국가직

### || 경원 이씨와 왕실의 혼인

**공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 모두 임금에게 시집갔다. 맏딸은 연덕 공주(인예태후)로 왕비이며, 태자(순종)와 국원후(선종)가 그 아들이다. 둘째는 수령공주(인경현비)가 되었으니 조선후가 그 아들이고, 셋째는 승경공주(인절현비)이다. 대대로 번성함을 이어서 가문의 명성이 빛난 것은 글자가 생겨난 이래로 공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자를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이자연 묘지명』

교과서 수록  
리베르



## 2.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 묘청의 난

<p>황주첨이 묘청과 정지상의 뜻에 따라 칭제 건원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인종 13년에 묘청이 서경을 거점으로 난을 일으켰다. …… 이들은 국호를 대위라 하고, 건원하여 연호를 천개라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서경 세력의 주장

<p>묘청 등이 건의하길, “신 등이 볼 때,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라,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가히 천하를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폐백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 36개국도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왕이 지세를 보고 궁궐을 신축하게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공무원 기출 2017년 서울시 2017년 국가직</p>
--	--

<p>정지상도 서경 사람인데 그들의 말을 깊이 믿고 수도의 업운이 이미 쇠진하였으며 궁궐이 다 타 없어졌으나 서경은 왕기가 있으므로 왕이 옮겨 앉아서 이곳을 수도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연호를 세우자고 청함은 우리 임금을 높이는 정성에 근본한 것이니 태조와 광종이 연호를 세운 일이 있고 신라와 발해도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대화’라는 말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정지상과도 같지 않았음은 폐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

<p>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사연구초』</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금성</p>
---	---------------------------------------

## 3. 무신 정권

### || 무신정변의 배경

<p>대장군 이소응은 무인이지만 얼굴이 수척하고 힘도 약하였는데, 다른 장수와 수박희를 하여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문신 한회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후려갈기자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왕과 모든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 정중부가 날카로운 소리로 한회를 꾸짖었다. “이소응이 비록 무관이나 벼슬이 3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는가.” 왕이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래서 말했다. 이고가 칼을 빼고 정중부에게 눈짓하였으나 정중부가 그만두게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p>
--	---------------------------

<p>사람들을 시켜 길에서, ‘문관의 관을 쓴 사람은 비록 서리라도 모조리 죽이고 씨도 남기지 말라’라고 외치게 하였다. 사졸들이 봉기하여 …… 50여 명을 찾아내어 죽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p>정중부는 대궐을 지키던 경비 장교였다. 어느 날 내시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니 정중부는 그를 잡아 때리고 욕하였다.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 화가 나서 인종에게 말하여 정중부를 매질하려고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왕은 정중부의 사람됨을 뛰어나게 여겨 몰래 도망시켜 화를 면하게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최충헌의 봉사10조

<p>최충헌(崔忠獻)이 최충수(崔忠粹)와 함께 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엿드려 보건대 <b>적신 이의민(李義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b>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신기(神器)를 흔들려고 했으므로 재앙의 불길의 성하여 백성이 살 수 없었습니다. <b>신 등이 폐하의 위령을 힘입어 단번에 쓸어버렸으니</b>, 원컨대 폐하께서는 낡은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태조의 바른 법을 한결같이 따르셔서 중흥의 길을 빛나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서 아뢰나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p>제1조 <b>길일(吉日)에 새로 지은 궁궐로 들어갈 것.</b> 제2조 <b>필요 이상의 관원을 도태시킬 것.</b> 제3조 <b>토지 점유를 시정할 것.</b> 제4조 조부를 공평히 할 것 제6조 <b>승려를 단속하고 왕실의 고리대업을 금할 것</b> 제9조 비보 이외의 사찰을 없앨 것</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금성 공무원 기출 2017년 기상직</p>
--	---

## || 최우의 정방 설치

<p><b>최이(최우)가</b> 일찍이 조정 선비의 등급을 매길 때, <b>문장에 능하고 실무에 능한 것을 제일로 삼고</b>, 문장에 능하나 실무에 능하지 못한 것을 다음으로 삼았으며, 실무에는 능하나 문장에 능하지 못한 것을 또 그 다음으로 삼고, 문장과 실무에 모두 능하지 못한 것을 하등으로 삼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절요』</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p><b>고종 12년에는 최우가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여러 관리를 선발해 배치하였는바 문사를 뽑아 여기에 소속시키고 '비척치'라고 불렀다.</b> 옛 법에 의하면 이부는 문관의 선발을 담당하고, 병부는 무관의 선발을 맡았는데, 관리들의 근속 연월 수를 고려하며 그 근면과 태만을 구별하고 공로와 허물을 표준하며 재능의 유무를 평가하여 다 서면에 기록하여 두고 이것을 정안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가지고 중서성에서 승진과 해직에 대해 논의하고 왕에게 보고하면, 문하부에서는 왕명을 받아 집행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무신 정권의 강화도 생활

<p><b>최이(최우)가 왕족과 고관들을 불러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비단으로 산더미같이 장막을 만들고</b> 가운데 그네를 매었다. …… 악공 1,350여 명이 모두 호화롭게 단장하고 뜰에서 연주하니 거문고와 북, 피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악공에게 각각 은 3근씩 주고 기녀, 광대에게도 각각 비단을 주니 그 비용이 엄청났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절요』</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무신 정권 당시 농민의 처지

<p><b>장안의 부호한 집에는/ 구슬과 패물이 산같이 쌓였는데</b> 절구로 찼어낸 구슬 같은 쌀밥을/ 말이나 개에게도 먹이며 기름처럼 맑은 청주를/ 종들도 마음껏 마시네! 이 모두 농부에게서 나온 것/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로세 …… 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데/ <b>농부들을 어찌 못 먹게 하는가?</b></p> <p style="text-align: right;">『동국이상국집』</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망이 망소이의 난

<p><b>우리 고향(명학소)을 현으로 올려 주고 수령까지 보내 백성을 위로하더니, (붕기 해산 후) 곧 군사를 보내 우리 고을을 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니</b>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공무원 기출 2017년 국회직</p>
---	--



공주 명학소 사람 망이, 망소이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 산행병마사라 스스로 일컫고 공주를 공격하여 무너뜨렸다. 정부는 지후 채원부와 낭장 박강수 등을 보내 도적들을 달래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김사미 효심의 난

명종 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소굴을 틈 김사미와 초전에 웅거한 효심인데,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각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로 하여금 장군 이 지순, …… 등을 지휘해 토벌에 나서게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만적의 난

신종 원년, 사노 만적 등 6명이 북산으로 나무하러 가서 노비들을 모아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인, 계사년 이래로 천한 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왕후장상이 어찌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으랴. 시기만 잘 만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우리라고 채찍 아래에서 뼈 빠지게 천한 일만 하겠느냐!”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丁)자를 새기어 표식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우리들은 흥국사 북도로부터 격구장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모여들어 북 치며 소리 지르자. 그러면 대궐 안에 있는 환관들이 반드시 안에서 응할 것이며, 관노들은 대궐 안에서 처단할 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성안에서 봉기하여 최충헌 등을 죽이고 이어 각각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천인 호적을 불살라서 우리나라에 천인이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지학사, 금성 두산
---	---

## CHAPTER

# 19

## 중세 정치 (4) - 고려 대외 관계

### 1. 거란과의 관계

#### || 만부교 사건

10월에 거란 사신이 낙타 50필을 가지고 왔다. 태조가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약속을 배신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처럼 도리가 없는 나라와는 친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고 그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 두었더니 모두가 굶어 죽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	-------------------

#### || 서희의 거란 대책

거란군이 강성한 것을 보고 선뜻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삼각산 이북의 땅은 고구려의 땅인데, 저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요구한다면 다 주겠습니까? 더구나 땅을 떼어 적에게 주면 만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서희의 외교담판

<p>소손녕 :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는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 나라가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다. 또, 가까운 우리와 사귀지 않고 송나라와 가까운 까닭은 무엇이나? 오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영토를 할양하고 조공을 받으면 무사하게 될 것이다.</p> <p>서희 :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국호를 고려라 부르며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양국의 국경을 따진다면 너희 나라의 동경도 본래 우리 영토인데 어찌 침식이란 말이나?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영토인데, 여진족이 우리 몰래 이곳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그들은 완고하고 간사하여 너희 나라와 통로인 육지는 물론 바닷길도 막고 있어 교통이 막히고 있다. 만약, 여진을 쫓고 우리 국토를 되찾아 성을 쌓아 재침을 막고 통로가 트이면 어찌 감히 수교하지 않겠는가? 『고려사』</p>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교학사
--	-------------------------------------

## || 거란과의 관계

<p>왕가도는 “거란이 화호하고 선물을 교환하나 매양 병탄하려는 뜻이 있다. 이제 그 임금이 죽고 부마가 동경에서 반란하였으니 이때를 타서 압록강가의 성과 교량을 헐고 억류된 고려의 행인을 돌려주기를 청하여 만일 제의를 거절하면 절교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저들이 이미 우리말을 듣지 않으니 통호하지 말자.”라는 찬성 의견보다는 “만일 지금 절교하면 반드시 화가 생길 것이니 통호를 계속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국왕은 “사신 파견은 중지하되 거란의 연호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비상
---	--------------

## || 거란인의 귀화

<p>위초는 본래 거란인이다. 명종 때 산원 동정이 되었다. 아버지 위영성이 나쁜 병에 걸렸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자식의 살코기를 쓰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위초가 곧 다리 살을 베어 경단 속에 섞어 넣어 먹이니 병이 조금 나았다. 왕이 이를 듣고 명령을 내리기를, “위초의 효행은 고금에 으뜸이다. …… 위초의 효행은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두산
--	--------------

<p>왕(예종)이 남경에 이르니, 거란의 귀화인으로 남경 경역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거란의 가무, 잡희를 연주하여 어가를 맞이하였다. 왕이 어가를 멈추고 이를 관람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송과 거란에 대한 외교관계

<p>왕(문종)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송나라와 통하려 하였다.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어 변경에 위급한 일이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난 경술년에 보내온 거란의 외교 문서에 ‘<u>동으로는 여진과 결탁하고 서로는 송나라에 왕래하니, 이는 무슨 계책을 꾸미려는 것인가?</u>’라고 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악이 흥왕한 지가 벌써 오래라 상선들이 끊임없이 중국을 오가며 귀중한 보배들이 들어오고 있사오니 송에서는 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거란과의 국교를 영원히 끊지 않으려면 송과 사절을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금성
---	--------------

## 2. 여진과의 관계

### || 고려인이 본 여진족

<p>풍속이 흉노와 같아서 모든 부락에는 성책이 없고, 산과 들에 흩어져 살며, 문자가 없이 언어나 노끈 매듭으로 언약과 증거물로 삼았다. 그 지방에는 돼지, 양, 소, 말들이 흔하며, 말은 우수한 것이 많고 어떤 것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것도 있었다. <u>사람들은 사납고 날쌔다. 아이 때부터 활을 잘 다루어</u> 그것으로 새와 쥐를 쏘며, 크면 활을 잡고 말을 달려 전투를 연습하여 강한 병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부락이 제각기 뿔내어 그들을 통일시킬 수가 없었다. <u>그 지역이 서쪽으로는 거란에 닿고 남쪽으로는 우리나라와 이웃하여 있으므로 일찍이 거란과 우리나라를 섬겨 왔다.</u> 『고려사』</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윤관의 별무반 조직

<p>“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은 말을 탔고 우리는 보행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u>별무반</u>을 만들기로 하여 문무의 산관, 서리부터 …… 말을 기르는 사람들 전부는 <u>신기군</u>에, 말이 없는 자는 <u>신보군</u>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 20세 이상의 남자로 과거 공부를 하지 않는 청년은 모두 신보군에 배속시키고 …… 또 승려를 선발하여 <u>항마군</u>을 편성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동북 9성의 반환

<p>여진의 추장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해마다 와서 분쟁을 벌였다. …… 성이 험하고 견고해 좀처럼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수비하는 전투에서 아군이 많이 희생되었다. …… 이에 <u>왕은 신하들을 모아 의논한 후 9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u> 『고려사』</p>	교과서 수록 금성
--	--------------



## || 금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

<p>금이 새로 요를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형제의 나라로 조약을 맺고자 청하였다. 대신들은 격렬하게 안 된다고 말하였고 그 사신을 목 베어 죽이자는 사람도 있었다. 김부익이 홀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깊이 생각해 보니 한이 흥노에 대해서나 당이 돌궐에 대하여 속국으로 칭하였고, 혹은 공주를 시집보내는 등 그들과 화친할 길이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지금 송과 같은 대국도 거란과 더불어 서로 백숙이니 형제이니 하면서 대대로 화친하고 지내 왔습니다. 천자의 높음은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지만, 이처럼 오랑캐 나라에 굴복하여 섬기는 것은 이른바 ‘성인은 잠시 원칙을 버리고 권도로서 처사하여 국가를 보전한다.’라는 좋은 계책입니다. …… 신이 엿드려 원하건대, 왕께서는 길고 멀리 내다보는 계책을 생각하셔서 국가를 보전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p>
<p>인종 4년 대부분 신하들은 사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옛날의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입니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인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리베르</p>

## 3. 송과의 관계

### || 송의 고려 인식

<p>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고려인이 수차례에 걸쳐 조공해 왔는데 근래 16-17년간에 관청에서 그들을 접대하고 물품을 하사하는 데 쓰인 경비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 우리 조정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고려는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고려의 사절들은 이르는 곳마다 산천의 지형을 그리고 서적을 구매합니다.</p> <p>『동파전집』</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고려에서 활약한 귀화인들

<p>쌍기는 중국 후주 출신으로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 광종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한림학사로 발탁하였고, 그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의 아버지 쌍철도 후주의 관직을 그만두고 고려에 귀화한 후 재상 벼슬을 지냈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p>주저는 송나라 사람으로 목종 때에 상인을 따라 고려에 들어왔다. 글재주와 문서작성이 뛰어나 현종 때에 예부 상서까지 승진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4. 몽골과의 관계

### || 충주성 전투

<p>처음 충주 부사 우종주가 매번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관 유흥익과 틈이 있었는데, 몽골병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어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유흥익은 노비군과 잡류 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였다.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흥익은 양반 별초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다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 별초만이 힘을 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p>
---	-------------------------------

### || 삼별초

<p>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날짜를 정하여 기일 내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삼별초는 다른 마음이 있어 다르지 아니하였다. 왕이 삼별초를 해산하고 명부를 가져오게 하니, 삼별초는 명부가 몽골에 전해질까 두려워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배중손과 노영희 등은 난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마구 죽이니, 국가를 지키려는 자는 격구장으로 모이라고 외쳤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가 노략질하므로 김방경이 몽골군과 함께 격파하였다. 적장 김통정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 숨었다. 유존혁은 남해 현에 머물면서 연해 지방을 노략질하다가, 삼별초가 탐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배 80척으로 따라갔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세조 구제

<p>첫째,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p> <p>둘째, 사신은 오직 원 조정이 보내는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한다.</p> <p>셋째,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려 조정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p> <p>넷째,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p> <p>다섯째,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p> <p>여섯째, 몽골에 자원해 머무른 사람들은 조사하여 돌려보낸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원과의 교류

<p>충선왕이 원의 수도 저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권당을 짓고 서적을 읽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움을 삼았다. 이윽고 말하기를 “경사(원의 수도)의 학자는 모두 천하에서 선발된 사람들인데,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고 이제현을 불렀다. 그가 원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요수, 염복, 원명선, 조맹부 등이 모두 왕 주위에 모여 교유하고 있었다. 이제현은 그들과 상종하여 학문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요수 등은 그를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p>
<p>이곡(이색 아버지)은 충숙왕 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복주 사록 참군이 되었다가 충혜왕 원년에 예문 검열로 옮겼다. 충숙왕 후 원년에 정동성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고 드디어 원의 제과(외국 사람이 보는 과거)에 발탁되었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제과에 합격한 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낮은 성적이었다. 그런데 이곡의 답안은 시험관의 높은 평가를 받아 제2등으로 뽑혀 재상의 추천으로 한림 국사원 검열관에 임명되었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고려 속의 몽골인

<p>그 시조는 인후(印侯)인데 …… 그는 몽골 사람으로 원 이름은 후라타이라고 하였다. 충렬왕 1년 충렬왕의 비이며 원의 황녀인 제국 공주를 시종하여 고려에 와서 귀화하였다. 그는 충선왕 1년 평양군으로 봉해지고 자의도 첨의사사가 되었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5. 명 및 일본과의 관계

### || 최영의 요동 정벌 추진

<p>최영이 모든 재상과 정료위(명이 통보한 철령 이북에 세워질 통치 기구)를 공격할 것인지 또는 화친할 것인지를 논의하자, 모든 재상들이 화친을 요청하자고 하였다. …… 최영이 모든 관리를 모아 철령 이북의 땅을 떼어 주는 여부를 논의하자 관리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우왕은 최영과 비밀리에 요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고, 최영은 이를 권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이성계의 요동 정벌 반대론

<p>이성계는 처음부터 요동 정벌에 반대하여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4불가론을 올렸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우려가 있으며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아교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p> <p>『고려사절요』</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지학사</p>
--	----------------------------------

### || 고려 말 왜구의 침입(진포 대첩)

<p>우왕 6년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 전라, 경상도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의 장수를 파견하였는데, 고려군은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웠다.</p> <p>『고려사절요』</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CHAPTER

## 20

## 중세 정치 (5) - 원간섭기

## 1. 원 간섭기

## || 친원 세력

조인규는 나면서부터 영특하였고, 자라나 공부하여 글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라에서 나이 어린 소년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 몽골어를 배우게 하였는데, 조인규도 여기에 선발되었다. …… 3년 동안 몽골어를 공부한 결과, 마침내 능통하게 되었다. 원의 황제 앞에서 통역을 잘한 것으로 유명해져 나중에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윤수의 아버지 윤양삼은 무뢰배이기에 강화도에서 사형을 당하였다. …… (윤수는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에 들어갔다. 충렬왕이 몽골에 있을 때 …… 매와 사냥개로 총애를 얻게 되었다. (왕이) 즉위하자 윤수는 심양에서 가족을 데리고 귀국하여 응방을 관리하면서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악한 일을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기철 등은 기항후의 힘을 믿고 욕심을 부리고 방자하였으며, 그 친척들도 교만하고 횡포하였다. …… 기철의 친척 아우인 기삼만이 세력을 믿고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하여, 남의 전토를 강탈하였으므로 …… 투옥하였더니 20일 남짓해서 죽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관제의 격하

문하부는 나라의 온갖 정무를 맡아 본다. 문하부의 낭사는 임금에 대하여 충고를 하며, 임금의 명령이 백성에게 불편한 것일 때는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주는 일을 맡는다. 건국 초기에는 내의성이라고 하였는데 성종 원년에 내사문하성이라고 고쳤고, 문종 15년에는 중서문하성이라고 고쳤다. 충렬왕 원년에는 상서성과 중서문하성을 합쳐서 첨의부를 설치하였다. 5년에 원에서 첨의부에 정4품의 도장을 보내 주었으며 7년에는 원에서 첨의부의 품계를 높여 종3품으로 하였다. 19년에는 원에서 첨의부의 명칭을 도첨의사사로 고치게 하고 또 품계를 2품으로 올리게 하였다. 공민왕 5년에 다시 중서문하성으로 고치고 상서성은 따로 설치하였다. 11년에 또다시 도첨의부라 하였다가 18년에 문하부로 고쳤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원의 고려 국왕 교체

원에서 유수 보수와 전 이문낭중 장백상 등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을 전하기를, “이미 1월 3일에 상왕(충숙왕)의 복위를 명하였다.”라고 하니, (충혜)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장백상이 국새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왕은 원으로 갔다. 『고려사절요』	교과서 수록 두산 공무원 기출 2017년 기상직
---	-------------------------------------

## 2. 공민왕의 개혁 정책

## || 공민왕과 기철

공민왕이 어느 날 행성으로 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였다. 기철이 임금과 말을 나란히 하며 이야기하려고 하자, 왕이 호위 군사를 시켜 앞뒤로 갈라놓고 곁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공민왕의 반원 정책

왕이 원 연호의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교서를 내렸다. “근래에 나라의 풍속이 일변해 오직 권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니, 기철의 일당이 임금조차도 무시하고 마구 위세를 부려 나라의 법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부터는 ……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기강을 정돈함으로써 조종이 세운 법을 회복해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쌍성총관부 수복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고 (쌍성)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망쳐 버리니 화주, 등주 …… 등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지역은) 고종 이후 원이 차지하였는데, 이대 와서 모두 수복한 것이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신돈

신돈은 어려서 승려가 되었다. 이름은 편조이고 …… 신돈은 어머니가 신분이 천해서(계성현 옥천사의 여종) 승려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항상 산속 방에 거처하였다. …… 이승경이 이 모습을 보고, “나라를 어지럽힐 사람이 이 승려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정세운도 요사스러운 승려라며 죽이려 하여 공민왕이 몰래 피신시켰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신돈의 성품이 사냥개를 무서워하며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또 호색 음탕해서 늘 검은 닭과 흰말을 잡아먹고 양기를 돋우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신돈을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Ⅱ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두기를 청하여 스스로 판사가 된 다음 전국에 방을 붙여 알리길,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풍속이 되었다.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조상 대대로 지어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를 권세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 이미 토지 주인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그대로 가지며, 또는 백성을 노비로 삼았다. 향리, 역리, 관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모두 숨어들어 크게 농장이 설치되니,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위게 하며, 홍수와 가뭄을 부르고 질병도 그치지 않는다. 이제 전민 변정도감을 두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서울은 15일, 각 도는 40일 이내로 그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기한을 지나 일이 발각되는 자는 조사하여 다스리되, 거짓말로 호소하는 사람은 도리어 벌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명령이 나오자 권세가와 힘 있는 자들이 빼앗은 많은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지학사, 금성
---	---

## CHAPTER

# 21

## 중세 경제 (1)

### 1. 고려의 토지 제도

#### Ⅱ 민전에 대한 양전사업

호부가 보고하길, “(경상도) 상주가 관할하는 중모현, …… (경기도) 장단이 관할하는 임진, 임강 등 현에서 민전의 많고 적음과 비옥하고 메마른 (땅의 파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를 다시 측량하십시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역분전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 제도를 설정하였는바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가 높고 낮은지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지, 공로가 크고 작은지를 참작하여 역분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전시과

개간된 토지의 수효를 총괄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토지를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군인), 한인에까지 일정한 과(科)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등급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을 주었다.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반납하였다. 군인은 나이 20세가 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였다.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땅을 물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에 소속되었다.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땅은 반환하였다.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자와 전사한 자의 아내에게도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금성
---	------------------------

## 시정 전시과

경종 원년에 직관, 산관 각 품의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관품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지 않고 인품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지학사
---	--------------------------

## 개정 전시과

<p>목종 원년 …… 12월에 문무 양반과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 전 100결, 시 70결, 내사령, 시중, 제2과 전 95결, 시 65결 내사 문하시랑 평장사, 치사시중 …… 제18과 전 20결 …… 여기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 17결을 주기로 하였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식으로 제정하였다. 『고려사』</p> <p>이 전시과는 18등급으로 나누었지만 제18과 아래에 따로 한외과(限外科)를 두어 전지 17결을 지급하였으며, 이전에 왕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p>	교과서 수록 지학사 공무원 기출 2017년 경찰간부
--	---------------------------------------

## 공음전

<p>문종 3년 5월에 공음 전시법을 제정하였는데, 1품은 문하시랑 평장사 이상에게 전지 25결과 시지 15결을 주며, 2품은 참지정사 이상에게 전지 22결과 시지 12결을 주고, …… 이것을 자손에게 전해 내려가게 하였다. 『고려사』</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CHAPTER

# 22

## 중세 경제 (2)

### 1. 고려의 수취 제도

#### 조세의 기준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를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어려워니 ……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조세의 부과

미전을 점검하고 조세와 공납을 고르게 정하는 목적은 국가 경비를 마련하게 하고 녹봉을 넉넉히 주고자 하는데 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북계는 본래 사전이 없었고 관에서 조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전란, 수해, 가뭄에 대비한 곡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용창과 우창은 평소 열지 않는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조운 제도

고려 초에 남도의 주군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다. …… 또 서해도 장연현에 안란창을 설치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왜가 검모포(부안)에 침략하여 전라도의 조운선을 불태웠다. 이때 왜구에 막혀 조운이 통하지 못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국역의 기준

나라 제도에 나이 16살이 되면 정(丁)으로 삼아 비로소 국역에 복무하고 예순이 되면 역을 면해 준다. 주군에서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만들어 호부에 바치면, 병사를 징발하고 역을 조절하여 뽑는 일은 호적으로 뽑아 정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 공물과 역

예종 3년 2월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 현에서는 상공 이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이를 고통으로 여기어 날이 갈수록 점점 도망을 친다.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그 공물과 부역의 다소에 대하여 해당 계수관들에게 물어 적당히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동, 철, 자기, 종이, 먹 등 여러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품의 징수가 극도로 과중하므로 장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피한다. 해당 관청에서는 각각의소에서 바치는 별공, 상공 물품의 다소를 적당히 정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지학사, 금성
--	------------------------------

## || 공물의 대납

(문종 20년) “여러 주현에서 매년 상례로 공납하는 소가죽과 힘줄, 뿔은 베폴써 값을 계산하여 대납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충렬왕) 22년 5월에 중찬 홍자번이 백성에게 편리한 일을 조목별로 상서하기를, “…… 근래 지방에서 사고가 많아 공물을 납부하는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 관청의 관리와 모리배들이 먼저 자기의 물건을 바치고, 그에 대한 문서를 받아서 지방에 내려가 그 값을 과도하게 받고 있습니다.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이것을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차 공납 : 이규보 ‘차에 대한 시에 화답하다’

옛 추억 짜릿하여 콧등이 시큰해라. 윤봉의 이 차는 냄새 아직 미약하나, 남쪽에서 맛보던 그런 차와 비슷하네! 그러면 화계 기슭에서 찾아 따던, 그날의 그 광경을 이야기 하세 관리를 집집마다 싸다니며, 늙은이 젊은이 닥친 대로 끌어내어 천아만야 높은 곳에 아찔하게 올라가서, 잎을 따고 말려서 멀고 먼 서울까지 어깨로 지고 나르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호적 등록

수도에 사는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들의 자제들이 요역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의) 본관이 있는 친척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 사실과 이름이 헛갈리니, 지금부터 수도 사람이 지방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일을 엄격히 금지한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요역 회피

근래 전쟁을 겪으면서 정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므로 정인들이 하던 천한 일을 녹봉을 받는 관리 등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역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서로 회피하고 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고려의 운하 건설

그 아래를 지나는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초에 부딪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큰 횃불을 태워 밤하늘을 휘황하게 밝혔는데, 바람이 아주 거세져서 배가 흔들려 거의 앓아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교학사
안흥정 아래의 바닷길은 물살이 거세고, 또 험한 암석이 있어서 자주 배가 전복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소대현 경계로부터 물길을 파면 배의 운항이 빠르고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만약 다 파서 바닷물을 통하게 하면 해마다 조운이 험한 안흥량을 건너지 않을 것이니 …… 돌이 물밑에 있고 또 바닷물이 왕래하여 파는 대로 곧 막혀 공사가 쉽지 않아 결국 이루지 못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태조의 민생 안정책

임금(태조)이 명을 내리기를 …… (몰락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수 있으랴. <b>백성에게 3년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사방에 떠돌아 다니는 자는 농토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사면을 단행하여 함께 휴식하게 하라</b> 하였다. 『고려사절요』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2. 고려의 농업 발달

### || 고려의 농지 분포

<b>평지가 적기 때문에</b> 산전을 많이 만드는데 그 지형의 높낮이가 있어 지형을 따랐기에 경작하기가 무척 힘들며, 멀리서 바라보면 사다리나 계단과 같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교학사
<b>압록강 이남은 대개 산이고, 비옥하여 묵히지 않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목화 재배

문익점은 ……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얻어와 장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심었다. 처음에는 재배 방법을 몰라 거의 다 말라 버리고 <b>한 그루만 남았는데 3년 만에 크게 불었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농업 진흥

<b>때에 맞추어 농사를 권장하고 힘써 제언을 수축하여 물을 저장하고 물을 대게 하여, 황무지가 없도록 하여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하라.</b>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개간 장려 정책

<b>진전(황폐해진 경작지)을 개간하여</b>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 <b>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둘째 해부터는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b> 공전의 경우에는 삼 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사 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금성
--	------------------------------

## 수차의 사용 주장

<p>밀직제학 백문보가 상소를 올렸다. “(중국) 강남 지역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서 <b>수재와 가뭄을 근심하지 않는 것은 수차의 힘 때문입니다.</b> 우리나라에서는 도랑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알지만 <b>수차로 쉽게 논에 물을 댈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b> 그래서 논 아래에 개천이 있고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내려다볼 뿐이지 퍼 올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묵혀 버려진 땅이 10에 8, 9나 됩니다. 마땅히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려 <b>수차를 만들게 하고, 만드는 방법을 본받고 배우게 하면 민간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b> 이것이야말로 가뭄에 대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제일 좋은 대책입니다. 또 <b>백성이 직파법과 이앙법을 함께 힘쓰게 한다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곡식의 종자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 교학사</p>
---	---------------------------

## 3. 고려의 상공업 발전

### 소 수공업

<p>내가 맹성(평북 맹주)에 수령으로 나갔을 때 도독부의 문서를 받았는데, 궁궐에서 쓸 <b>먹 5천정</b>을 만들어 올리라는 것이었다. 다음해 봄까지 납부해야 하기에 급히 말을 타고 공암촌에 이르렀다. 백성을 독려하여 송연 100곡을 채취하게 하고 일 잘하는 기술자를 모아 직접 일을 감독하여 두 달 만에 마칠 수 있었다. <b>얼굴과 옷에 모두 그을음이 묻어 있어 다른 곳으로 가서 씻는 고생을 오래 한 후에 성으로 돌아왔다.</b> 그 후 먹을 보면 비록 한 마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감히 소홀히 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파한집』</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상업의 장려

<p><b>숙종 7년</b> 9월에 왕이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사민(사농공상)은 저마다 자기 직업에 전문으로 종사하는 것만이 참으로 국가의 근본이 된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서경에서는 민간 풍습이 상업에 힘을 쓰지 않아 백성이 이익을 얻어 내지 못한다고 하니, 유수관은 화천별감 2명을 대신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b>날마다 시장과 상점들을 감독하게 하여 상인들로 하여금 모두 매매 교환을 장려하여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최영의 물가 통제

<p>경성에서 물가가 폭등해 장사꾼들이 털끝만한 이해를 다투는 형편이었다. <b>최영이 이를 증오해 시장의 물품은 우선 경시서에서 가격을 정해 세인(稅印)으로써 표시한 후에 비로소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b> 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자는 쇠갈고리로 등의 힘줄을 걸어서 죽인다고 공포하고 커다란 쇠갈고리를 시장에 내걸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벌벌 떨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공방전’과 화폐의 주조

<p><b>공방</b>은 사람됨이 밝은 등글고 안은 모지며 때에 따르며, 변화에 따라 처신하는 데 뛰어났다. …… 백성과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며 곡식을 천하게 하고 <b>돈을 중하게 해서 백성들이 근본(농업)을 버리고 작은 이익(상업)을 따르게 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서하집』</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화폐 사용 장려

<p>목종 5년 7월에 왕이 명령하여 말하였다. …… 성종이 옛 법제에 따라 조서를 내리어 돈을 만들게 하였다. <b>수년 동안 만든 돈궤미가 창고에 가득 찼고 쓰기에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대신들에게 축하연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좋은 날을 택하여 통용시켰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은병(활구)

(숙종) 6년 4월에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백성이 돈을 사용하는 것의 유리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중묘에 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b>은병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의 지형을 따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해동통보

(숙종) 7년 12월에 왕이 명령하였다. “…… 주조한 돈 1만 5천 관을 재추와 문무의 양반과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돈 통용의 시초가 되게 하고, 돈에 새기는 글은 <b>해동통보</b> 라고 하라.”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화폐 정책

숙종 9년 7월에 주, 현에 명령하여 미곡을 내어 <b>주식점(酒食店)을 열게 하여 백성들에게 사고팔고 할 것을 허락하여 화폐의 유리함을 알도록 하였다.</b> 당시 화폐가 유통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백성들이 가난하여 활발하게 통용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	-------------------

## || 화폐 사용 저조

대개 그 풍속이 점포는 없고 오직 한낮에 시장을 벌여 남녀노소, 관리, 공장들이 저마다 가진 것으로 교역하고, 화폐는 쓰지 않았다. <b>오직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필이나 냥에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일용품은 쌀로 치수를 계산하여 되값는다.</b> 그러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긴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금성
--	--------------

## || 화폐 사용 폐지

왕(목종)이 하교하기를, “선왕께서 규범에 따라 조서를 반포하여 화폐를 주조하게 하니 …… <b>철전이 화폐로 끊이지 않고 통용</b> 되었다. 그런데 최근 시중 한언공이 상소하기를, ‘…… 지금 선왕의 정책을 계승하여 철전을 사용하게 하고 추포(성긴 베)의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유통 양식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결국 나라에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원망만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b>근본에 힘쓰는 마음을 되살려 철전(화폐)의 사용을 중단시키고자 한다.</b> 차와 술, 음식, 쌀 같은 물품을 파는 점포들이 장사하는 데에는 예전처럼 철전을 사용하고, 그 밖에 <b>백성이 사사로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토산물을 임의로 쓰도록 하라.</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 || 사원 경제

어떤 비구니가 공주에게 흰 모시를 바쳤는데,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같이 얇았고 꽃무늬도 수놓아져 있었다. 공주가 시장의 상인들에게 보이니 이전에도 보지 못하던 물품이라고 말하였다. 비구니에게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자, “제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b>공주가 그 여종을 달라고 요구하자 비구니는 하느수 없이 공주에게 바쳤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4. 고려의 대외 무역

### || 벽란도

<b>조류를 따라 예성항에 이르자,</b> 정사와 부사는 신주(중국 사신이 탄 큰 배)로 옮겨 탔다. 낮 12시쯤 정사와 부사가 …… (송 황제의) 조서를 봉안하였다. 1만 명이 되는 고려인들이 병기, 갑옷 입은 말, 깃발, 의장물을 가지고 해안가에 늘어서 있고 구경꾼이 담장같이 둘러섰다. …… <b>벽란정으로 들어가</b> 조서를 봉안하고 그 일이 끝나자 지위에 따라 나누어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다음날 육로를 따라 왕성(개경)으로 들어갔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벽란도 풍경

조수는 밀렸다가 다시 밀려가고/ 오고 가는 뱃머리는 서로 잇대었구나. 아침에 이 누각 밑을 떠나면/ 한낮이 안 되어 남만 하늘에 이른다. 사람들은 배를 물 위의 역마라고 하는데/ 바람처럼 달리는 준마도 이것만 못하네.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지학사, 금성
---	-------------------

## || 송나라 상인과의 교류

송의 상인 유성 등 49명이 왔다. 처음에 명주 사람이 두도제, 축연조 등이 상선을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명주에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에 편지를 부쳐 그들을 머물도록 하자고 하였더니 이때 유성 등이 와서 자기 나라 황제의 지시에 의한 공문을 명주 고을에 전하였다. 그 공문에는 “두도제 등을 자기 생각대로 머물러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충혜왕이) 남공신을 시켜 포목 2만 필과 금, 은과 보초(원의 화폐)를 가지고 원의 유와 연 지방에 가서 무역하게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제국대장 공주는 일찍이 잣과 인삼을 중국 강남으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 후로는 내시들을 각처에 보내서 그 물건을 구하였고, 비록 그것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까지도 받아들였으므로 백성이 심히 괴로움을 받았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아라비아 상인

이달에 대식국의 열라자 등 1백 인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대식국은 서역에 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대식국 상인 보나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담당 관리에게 명을 내려 숙소에서 잘 대우하게 하고, 돌아갈 때에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려 주었다. 『고려사절요』	교과서 수록 두산
---	--------------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가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소문이 가게 밖으로 나명들명 하면 다로러거디러 조그만 새끼 광대 네가 한 말이라 하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쌍화점』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	----------------------

중국상인 : 당신들은 고려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소? 고려상인 : 말을 몇 마리 끌고 왔소이다. 중국상인 :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을 가져왔소? 고려상인 : 인삼, 모시와 삼베도 조금 있소, 얼마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상인 : 지금은 파는 물건이 없어 비싸게 사려 해도 살 수가 없소. 당신 인삼은 어디 인삼이오? 고려상인 : 내 것은 신라삼이오. 중국상인 : 신라삼이라면 더욱 좋지요. 파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고려상인 : 내 당신 도움으로 물건을 사겠소. 붉은 술 100근, 유리구슬 갓끈 500개, 큰 바늘 100쌍, 족집게 100개, 털모자 100개, 말총갓 100개, 얼굴 분 100갑, 얼굴 연지 100근, 수놓는 바늘 100쌍, 대추 나무 열레빗 100개, 큰 참빗 100개, 가죽 바늘집 100개, 크고 작은 칼 100벌, 치마에 다는 칼 10개, 장기 10벌, 바둑 10벌, 가위 100개, 송곳 100개, 큰 저울 30벌, 작은 저울 10벌을 사겠소. 또 굵은 무명 100필, 금을 넣어 짠 무늬 없는 비단 100필, 또 어린 아이의 작은 방울 100개, 또 회암(주희)이 주를 단 '사서집주'를 사고, 다시 모시, 상서, 주역, 예기, 군신고사, 자치통감, 한원신서, 표제소학, 정관정요, 삼국지평화를 한 부씩 사겠소. 『노걸대』	교과서 수록 비상
---	--------------



## CHAPTER

## 23

## 중세 사회

## 1. 고려의 신분 제도

## Ⅱ 귀족들의 기호 생활

차약송은 기흥수에게 '공작새가 잘 있는가?'라고 물었다. 기흥수는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구멍에 걸려 죽었다.'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모란 기르는 방법**을 물으니 이에 대해 차약송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Ⅱ 차를 즐긴 사람들 : 이연종 '차를 보내 준 것을 사려하다'

봉함 뜯어 **보랏빛 찻잎**을 보기도 전에 종이에 배인 향내 벌써 코를 찌르네  
구리쇠 화룻가에 차의 운치가 행여 깎일까 염려되지만  
한창 타는 불로 끓이기를 손수 시험했네.  
술바람이 술에 들어 쇠쇠하니, 듣기만 해도 마음과 귀를 맑게 하는구나.  
**찻잔에 가득히 맛이 짙으니**, 마시자 시원하여 골수를 신선으로 바꾸는 듯하다.

교과서 수록  
비상

## Ⅱ 문벌 귀족의 호화 생활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에 그 인근의 백성을 모아서 소나무와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 등과 기이한 꽃과 이  
**채로운 풀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괴석을 사용해 섬돌을 만들었다.  
어느 날 왕이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누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  
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공경들의 저택이 십 리에 뻗치니 커다란 누각은 춤추는 듯  
서늘한 마루, 따스한 방이 즐비하게 갖춰 있어  
그 벽이 휘황하고 단청이 늘어섰네.  
**비단으로 기둥 사고** 오색 양탄자로 땅을 깔고 온갖 진기한 나무와 이름난 화초들  
봄의 꽃과 여름의 열매, 푸른 숲에 붉은 송이  
그윽한 향내 서늘한 그늘이 한 것 곱게 아양을 떠네. 『보한집』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고려 후기 귀족의 토지 침탈

**충렬왕 11년** 교지를 내려"제왕(여러 왕족)과 재추, ..... 등이 한전(주인이 없거나 경작치 않는 땅)을 많이 차  
지하기를 바라고, 국가에서도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사패(개간 허가서)를 주었다. 그런데 **사**  
**패를 빙자하여 비록 주인이 있으며 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조차도 모두 빼앗으니 폐해가 적지 않다.** ..... 원래 주  
인이 있었던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권문세족 가문

권부의 아들 **권준, 권고, 권후, 권겸과 사위 이제현 및 종실의 왕도, 왕순(두 명은 왕씨 성을 받음)이 모두 군**  
**(君: 종1품의 작위)으로 임명되었다.** 또 아들인 권중, 권정은 승려였지만 역시 광복군으로 임명되어 세상에서는  
**한집안에 9명이 군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향리

(약목) 군사의 <b>호장</b> 인 인용교위 이원민과 <b>부호장</b> 인 응률, 이성, 풍유, 신언 그리고 호정인 굉운과 부호정인 성현, 관사인 광책 등이 태평 3년 계해년 6월 어느 날 그 탑을 정도사에 안치시키도록 의견을 출납했으므로 ..... 『정도사 5층 석탑 조성 형지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 향리의 신분 상승

문종 2년 10월, “각 주현의 <b>부호장 이상의 손자와 부호정 이상의 아들로서 제술업과 명경업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현지의 수령이 시험하여 서울에 추천한다.</b> 상서성과 국자감에는 수령의 추천을 받은 자들을 심사하되, 시부를 짓는 데 격식에 어긋나거나 경전을 해석하는 데 한두 줄도 읽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추천한 관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이영의 자는 대년이니 안성군 사람이다. <b>아버지 이종선은 안성군 호장으로 있었다. .... 숙종 때 을과에 급제하고 직사관으로 임명되었다.</b>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b>염수안은 영월군의 아전</b> 이었는데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 <b>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도병마녹사가 되었다. ....</b> 충청도, 서북도의 지휘사, 서경 유수를 역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유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부지밀 직사사로 치사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평민의 삶

<b>의종</b> 이 신하들과 함께 중미정 남쪽 연못에 배를 띄우고 취하도록 마시며 <b>마음껏 놀았다. ....</b> 중미정을 처음 지을 때 일하러 나오는 백성은 음식을 스스로 준비해 와야 하였다. 한 일꾼이 매우 가난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밥을 나누어 먹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친한 사람들과 함께 드세요.”라고 말하였다. 남편이 <b>“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장만하였소? ....”</b> 라고 하니, 아내는 <b>“....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사왔소.”</b> 라고 하였다. 남편은 목이 메어 먹지 못하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	-------------------

## || 평민의 삶(윤여형의 상률가)

내 촌집에 들러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늙은 농부 나를 보고 자세히 얘기한다. 요사이 세력 있는 사람들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b>산이며 내로써 한계 지어 공문서 만들었소.</b> 혹은 토지에 주인이 많아서 조세를 받은 뒤 또 받아 가기 실 새 없소. 혹은 홍수와 가뭄을 당하여 흉작일 때에는 해묵은 타작마당엔 풀만 엉성하다. 살을 굶고 뼈를 쳐도 아무것도 없으니 국가의 조세는 어떻게 낼꼬. 몇 천 명 장정은 흩어져 나가고 늙은이와 약한 사람만 남아서 거꾸로 달린 종처럼 빈집을 지키누나. 차마 몸을 시궁창에 박고 죽을 수 없어 마을을 비우고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는다. 『동문선』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향, 부곡, 소의 기원

<b>신라</b> 가 주군을 설치할 때 전장과 호구가 현을 이룰 규모가 아니면 <b>향이나 부곡</b> 을 설치하여 소재 읍에 속하게 했다. <b>고려 때 ‘소’</b> 는 은소, 동소, 철소, 사소(실), 주소(비단), 지소(종이), 와소(기와), 탄소(숯), 묵소, 광소(콩), 자기소, 어량소(물고기), 강소(생강) 등 공급하는 물품에 따라 구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부곡의 승격

<p>유청신의 첫 이름은 비(庇)이며 장흥부 고이 부곡 사람이고, 그의 선대도 모두 부곡의 아전이었다. 우리나라 제 도에는 부곡 아전은 비록 공로가 있어도 5품을 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청신은 …… 몽골어를 익혀 자주 원에 왕의 사명을 받들고 왕래하여 …… 충렬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서 낭장이 되었다. 교하기를, “청신은 조인규를 따라 힘을 다해 공을 세웠으므로 비록 가세가 5품에 한정해야 하나 본인에게는 3품까지 허용하며, 고이 부곡을 <u>고흥현으로 승격하라</u>.”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금성, 교학사</p>
<p>(김윤후는) 원래 백현원의 승려였으나, 적군이 침입하자 인근 <u>처인 부곡의 처인성</u>으로 몸을 피하여 백성을 지휘하였다. 전투를 벌여 <u>적장 살리타를 사살</u>하였다. 이로써 적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군하였다. 정부는 그 공을 포상하여 <u>섭랑장</u>이라는 무반의 직책을 주고 처인 부곡은 <u>처인현</u>으로 승격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p>
<p>충주의 다인철소는 고종 42년 토착인이 <u>몽골군을 막는 데 공이 있어 현으로 승격시켜 그대로 충주의 속현으로 삼았다</u>.</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금성</p>

## 부곡으로의 강등

<p>의종 15년, 감음현에 사는 자화를 비롯한 몇 사람은 인량이라는 관리가 임금과 대신을 저주한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그 죄를 물어 자화를 강에 던지고 <u>현을 강등시켜 부곡으로 삼았다</u>.</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고려 노비의 기원

<p>우리나라의 양민과 천민에 관한 법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태조께서 국가를 창건한 초기에 여러 신하 중에서는 전부터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 본래 노비가 없었던 자는 <u>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얻었거나 혹은 돈을 주고 종으로 삼았습니다</u>. 태조께서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공신들의 뜻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셨던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노비의 처지

<p>노비가 아무리 천하다 하여도 역시 <u>사람인데 보통 재물과 같이 취급하여 공공연히 이를 사고판다</u>. 혹은 말과 소와 교환하는데 말 한 필에 (노비) 2,3명씩 주고도 오히려 말 값에 모자라니, 이는 말과 소를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p>종의 나이가 15세 이상 60세 이하일 때의 몸값은 포 100필로 하고,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50필로 한다. 여종의 나이가 15세 이상 50세 이하일 때는 120필로 하고, 15세 이하와 50세 이상은 60필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금성</p>

## 노비의 신분상승

<p>평량은 원래 평장사였던 김영관의 집 노비로 견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요직에서 권력을 가진 고관에게 뇌물을 주어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까지 얻었다. 그의 <u>처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u>였다. …… 길에서 몰래 <u>처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였다</u>. (그는) <u>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u>.</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비상 금성</p>
<p>고종 45년 2월에 <u>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u>.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대공이 있다 하더라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었을 뿐 관작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u>최항이 집정해서는 인심을 얻고자 처음으로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u>.</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교학사</p>

<p>이의민은 경주 사람인데, 부친 이선은 소금과 체를 파는 직업이었고, 모친은 연일현 옥령사 노비였다. 이의민이 어렸을 때 이선의 꿈에 이의민이 청의를 입고 황룡사 9층탑에 올라갔으므로 이 아이가 반드시 큰 귀인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성인이 되어서는 신장이 8척으로 힘이 뛰어났으며, …… 김자양이 이의민의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경군으로 뽑아 넣었다. …… 이의민이 수박을 잘하였으므로 의종이 사랑하였으며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하였다. 정중부의 난 때 이의민이 살해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 그리하여 이의민은 중랑장으로 되었다가 즉시 장군으로 승진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p>
<p>조원정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노비였다. 정중부의 난 때에 이의방을 도운 공으로 장군을 지냈다. 명종 때에는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장군이 되었으며 동서북면 병마사를 지냈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p>강윤소는 신안공의 집안 노비인데 몽골어를 잘하여 원종에게 총애를 받고 여러 번 원에 사신으로 간 공로로 관직에 나아갔고 장군이 되었다. 임연이 김준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었다. 충렬왕 때 밀직부사와 판삼사사로 승진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2. 고려 시대 사회 제도

### Ⅱ 고려대의 제한

<p>명종 18년 3월 왕이 말하기를 “부강한 양반이 가난하고 약한 백성이 빌린 것을 갚지 못한다고 옛날부터 내려 오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니, 이로 말미암아 생업을 잃고 더욱 가난해진다. 부호들이 가난한 사람의 토지를 겸병하거나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p>공민왕 5년 6월 왕이 명하기를 “이자에서 또 이자가 생기니 가난한 백성은 자녀를 팔기까지 하니 심히 불쌍하다. 감찰사 등은 마음을 다하여 살펴서, 무론 이자에서 또 이자를 취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켜라.”라고 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Ⅱ 고려 의창

<p>서해도 안찰사가 왕에게 “황주와 봉주는 작년에 홍수가 나서 논과 밭이 떠내려가고 문혔기 때문에, 지방 주민이 굶주리고 궁핍한 생활을 하니 의창을 열어서 그 곡식으로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왕이 이에 동의하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3. 고려 시대 가족 생활과 여성의 지위

### Ⅱ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박유의 상소)

<p>박유가 …… “본국은 원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처를 하나 두는데 그치며,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다른 처를 두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청컨대 여러 신하, 관리들이 여러 명의 처를 두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연등회 날 저녁에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고 따라 갔다. 한 노파가 박유를 손가락질하면서 “여러 명의 처를 두도록 하자고 요청한 자가 바로 저 늙은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가리키게 되어 거리에 붉은 손가락이 묶음처럼 보였다.</p> <p>『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금성 지학사</p>
<p>고려의 옛 풍습에 혼인 예법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자손을 낳으면 외가에서 자라므로, 외친의 은혜가 무거웠다. 이에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장례 시에는 모두 30일 동안 휴가를 주었다.</p> <p>『태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직한림 이규보는 돌아가신 장인 대부경 진공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가르침을 받을 분이 없었습니다. 공에게 오자 친히 가르치고 격려하셨으니 분발해서 사람이 된 것은 공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아! 슬픔입니다. 옛적 친영은 부인이 사위에게 가는 것이므로 부인의 집에 도움받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인과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 모든 것을 부인의 집에 의지하니 장모와 장인의 은혜가 친부모님 같습니다. 아! 장인이시여. 저를 돈독하게 대우하시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를 두고 돌아가시니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명산 기슭에 무덤을 쓰고 영원히 이별합니다. 혼령이시여! 저의 소박한 제사를 흠향하십시오.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II 고려 여성의 재혼

순비 허씨는 공암현 사람으로 중찬 허공의 딸이다.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으나, 그가 죽자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허씨가 왕비로 즉위하자 순비로 책봉되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의붓아버지가 가난을 이유로 공부시키지 않고 ..... (이승장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며 고집하기를 “.....내가 전 남편과의 의리를 저버렸지만, (남편의) 유복자가 다행히 잘자라 학문에 뜻을 둘 나이가 되었으니, 그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학에 입학시켜 뒤를 잇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무슨 낯으로 전 남편을 보겠어요?”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승장을) 설성재에서 공부하게 하니, 전 남편의 옛 학업을 뒤따르게 한 것이다.

『이승장 묘지명』

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

## II 재산 상속

남매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린 남동생에게는 검은 옷 1벌, 갓 1개, 신발 1켤레, 종이 1장만 남겨 주고 모든 재산을 누이에게 물려주었다. 남동생이 성장한 후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여 재판을 신청하였다. 이 재판은 몇 년을 끌다가 손변이 재판을 맡게 되었다. 손변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같은데 어찌 다 자라 결혼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야박하겠는가? 어린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누이밖에 없으니, 만일 누이와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주면 동생을 사랑함이 덜하여 잘 보살피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물려준 옷과 관을 갖추어 입고서 상속의 몫을 찾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종이를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익희에게 따로 노비 40명을 물려주려고 하였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의 외아들이라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따랐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 4. 고려의 풍속

### II 공녀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뽕혀서 서쪽(원)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해가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 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슬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심지어 병들어 죽는 이도 한둘이 아니었으니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수령 응주 묘지명』

교과서 수록  
지학사

### II 향도

대체로 이웃 사람끼리 모여 회합을 가져 적으면 7-9인이요, 많으면 100여 인이 되며, 매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신다.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향도끼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혹은 상여 줄을 잡아 주거나 무덤을 만들어 주니 참으로 좋은 풍습이다.

『용재총화』

교과서 수록  
비상

이 향을 지니고 있다가 미륵여래에게 봉헌 공양하니, 청정법을 깨닫고 윤회를 끊어 불퇴지(수행 과정에서 이미 얻은 공덕을 잃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는 지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교과서 수록  
두산

## 고려의 목욕 풍속

<p>옛 사서에 고려에 관한 내용을 실어 그 풍속이 다 깨끗하다 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매양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의관을 언덕 위에 놓고 물 구비 따라 벌거벗지만, 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의복을 빨고 김이나 베를 표백하는 것은 모두 부녀자의 일이었지만, 밤낮으로 일해도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화봉사고려도경』</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CHAPTER

# 24

## 중세 문화 (1)

### 1. 불교 문화의 발달

#### 균여

<p>이 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p>	<p>공무원 기출 2017년 서울시 7급</p>
--	--------------------------------

#### 의천의 출가

<p>문종이 하루는 여러 아들에게 “누가 승려가 되어 부처를 공양하고 공덕을 닦겠느냐?”라고 하니 왕후가 일어나 “신이 승려가 될 뜻이 있지만, 오직 임금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의천의 교관겸수

<p>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u>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대각국사 문집』</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공무원 기출 2017년 지방직</p>
---	--

#### 지눌의 불교계 비판

<p>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u>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여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u></p> <p style="text-align: right;">『권수정혜결사문』</p>	<p>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비상</p>
---	----------------------------------

#### 지눌의 정혜쌍수

<p><u>정은 본체이고 혜는 작용이다.</u>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조국사 법어』</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 지눌의 정혜결사문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열 명의 사람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u>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u> ,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공무원 기출 2017년 지방직
『권수정혜결사문』	
한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마음을 깨달았다. <u>깨닫고 나니 깨달음은 오직 한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u> ,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권수정혜결사문』	
<u>지혜</u> 는 불심을 올바르게 믿는 법력에서 시작하여 더욱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믿음과 이해가 바르지 못하고 수행이 깊지 못하면서 혼미하게 앉아 조는 것을 선(禪)이라고 여긴다면 어찌 신통이 저절로 발현하겠는가?	교과서 수록 비상
『권수정혜결사문』	

## || 요세

그는 <u>묘종초</u> 를 설법하기 좋아하여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를 닦기를 권하였다. …(중략)… 대중의 청을 받아 교화시키고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며, 결사에 들어온 자들이 3백여 명이 되었다.	공무원 기출 2017년 서울시
--	---------------------

## || 연등회

연등회 때 왕이 봉은사에 가서 태조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u>연등을 하는 밤에는 태조의 사당에 행차하여 분향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u>	교과서 수록 교학사
『고려사』	

## || 팔관회 때 부른 노래

문무반이 서둘러 정렬하고 임금님은 옥수레를 타고 깊은 궁궐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네. <u>태양과 달은 하늘의 길 위에 있고 별들은 높이 자마성으로 나아가는구나.</u> 맑은 아악 소리는 하늘을 흔들고, 커다란 만세 함성은 땅을 흔드네.	교과서 수록 금성
『동문선』	

## || 팔관회 개최

(덕종이) 11월에 팔관회를 열고 신봉루에 거둥하여 백관에게 연회를 열게 하고 이튿날 큰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율렀다. 동경과 서경, 양계의 병마사, 4도호부, 8목의 관리가 표를 올려 축하하였다. <u>송의 사절과 동서번, 탐라국에서도 특산물을 바쳤고, 그들에게 풍악을 관람하게 하였다.</u>	교과서 수록 교학사
『고려사』	

## || 팔만대장경

현종 2년에 거란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 현종은 여러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u>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u>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같은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군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과서 수록 천재
『동국이상국집』	

이로 말미암아 몽골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에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남기지 않고 쓸어 갔습니다. …… 간곡히 비는 것은 양철하시어 신통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안팎이 편안하며 대비와 태자가 무강한 수를 누리고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 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법문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 분의 일이라도 갚으려 합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동국이상국집』	

## || 고려 말의 불교 폐단

<p>지금 요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b>불교에 이름을 걸어 놓고 고리대로 생활</b>하거나 농사와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계율의 법문을 어겨도 바로잡는 법규가 없다. 어깨에 걸치는 가사는 함부로 술 향아리 뉘개가 되고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마늘밭이 되었다. <b>장사꾼과 통하여 물건을 사고팔았다</b>. 손님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를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고 난분(불교 행사의 하나)을 더럽힌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고려 말의 불교비판론

<p>부처는 본래 오랑캐이며, 중국과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며 입으로는 선왕의 법을 말하지 않고 몸에는 선왕의 옷을 입지 않으며, 부부, 부자, 임금과 신하의 윤리를 알지 못합니다. …… <b>어리석은 승려들이 거짓말로 꾸며, 삶과 죽음, 빈부와 귀천 등은 모두 부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 임금의 권한을 훔치고 백성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합니다.</b> …… 위로 태조가 물려준 뜻을 이어받고 아래로 유교의 기대에 맞도록 하여 승려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 그들에게 나누어 준 토지는 군자사에서 주관하게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소속된 노비는 도관에서 맡아 각 관청에 나누어 주게 하소서.</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 || 불교와 풍수지리설 비판

<p><b>부처의 도는 청정함과 욕심을 적게 하는 것으로서</b> 근본을 삼는데 만일 백성의 힘을 다 없애면서 불상을 만들고 탑을 쌓는다면, 도리어 부처에게 죄를 얻어 재앙이 따라 이를 것입니다. …… 천시와 지리는 인화(人和)만 같지 못하며, 한때에 잘 다스려지면 또 한때에 어지러워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b>어찌 땅 기운이 쇠하고 성함이 있어 국가의 복이 성하고 쇠함이 있겠습니까?</b>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 4백여 년 동안에 일찍이 삼경을 돌아다녀 거주하였어도, 언제 36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CHAPTER

# 25

## 중세 문화 (2)

### 1. 유교 발전과 역사서 편찬

#### || 최충의 문헌공도

<p><b>최충이 죽은 뒤 시호를 문헌이라고 하였는데,</b>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모두 9재학당에 소속되어 이를 모두 문헌공도라고 불렀다. 의관자제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도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 <b>세간에서는 12사학 중에서 최충의 학도가 가장 성대하다고 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p>
--	---------------------------

#### || 고려의 교육열

<p>민간 마을에 경관(經館)과 서사(書舍)가 두세 개씩 늘어서 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의 자제로 아직 결혼하기 전인 자들이 <b>무리 지어 살면서 스승한테 경서를 배우는 데</b> 아래로 병졸과 아동까지 향선생에게 글을 배운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화봉사고려도경』</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성균관 중건

<p><b>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b>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정주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려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안향의 성리학 수용

성인의 도는 현실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식된 자는 효도하고, 신하된 자는 충성하며, 예의로 집안을 다스리고, 신의로 벼를 사귀며, ..... 그런데 불교는 어떠한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서서 인륜을 가버이 여기고 의리를 벗어나니, 이는 곧 오랑캐 무리다. 요즘 전쟁에 시달린 나머지 학교가 퇴폐하고 선비는 학문을 모르니 배워서 즐겨 읽는다는 책이 고작 불교 서적이고, 그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뜻을 믿으니 심히 가슴 아파하는 바이다. <u>내 일찍이 중국에서 주자가 쓴 책을 보니 성인의 도를 밝히고 불교의 가르침을 물리친 공로가 공자와 짝할 만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의 도를 배우려면 주자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할지니 여러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주자의) 책을 읽기에 힘써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u> 『회헌실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u>안향은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양현고가 완전히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6품 이상 인원들은 각각 은 1근씩, 7품 이하 인원들은 베를 차등 있게 내게 하여 양현고에 돌려주어 그 본전을 남겨 두고 이식만을 가져다 쓰도록 하되 이름을 <u>섬학전</u>이라고 하기를 바란다.”</u> 라고 하니 양부가 이에 동의하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 <u>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주자)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경모하였으므로 드디어 호를 회헌이라 하였다.</u>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 이제현의 성리학 연구

<u>회암(주자)의 시를 본 후 책을 덮어 놓고 감탄하였다. 나같이 (주자의) 뒤에 태어나 배움의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 논의한 것이, 주자와 어긋나지 않았을 줄 어찌 생각할 수 있었을까.</u>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성상 폐하께서는 “ <u>오늘날의 학자들이 중국의 경전과 역사에는 능통하나,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알지 못하니 걱정스러운 일이다.</u> ..... 중국 역사서에 삼국의 기록이 있으나 자세하지 않고, 예부터 전해 오던 고기의 내용은 빠진 내용이 많아 후대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 <u>이에 후대에 남겨 줄 역사서를 만들어야겠다.</u>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	----------------------

## || 동명왕편의 제작 동기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한다. ....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의 이야기였다. .... <u>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기롭고 이상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뒷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u>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천재 공무원 기출 2017년 경찰간부
---	--------------------------------------

## 2. 도교 및 다양한 사상의 발달

### || 생활 속의 도교

태자가 안경공 왕창을 맞이하여 잔치하고 풍악을 울려 밤을 새웠다. 나라 풍속이 도가의 말에 의하여 매번 이 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 마시고 밤이 새도록 자지 않았다. 이것을 ‘경신을 지킨다’라고 한다. 『고려사절요』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별에 드리는 초례문

신이 우매한 자질로서 송고한 지위에 올랐으므로 ..... 신령한 광명을 크게 나타내고 보배의 눈으로 빨리 보살피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수명을 연장하고, 백성들까지 모두 크게 화합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상신일에 환구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축문

하늘의 일은 소리가 없어도 만물이 힘입어 자라나는데, 나라를 지니는 근본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바야흐로 첫봄을 맞이하여 풍년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상제의 혜택이 아니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밑천으로 삼겠습니까?  『동국이상국집』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주몽의 어머니를 모신 동신사

나무를 깎아 여인상을 만들었다. 그 여인은 하백의 딸로 부여왕의 아내라고 한다. <u>그녀가 주몽을 낳았는데,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u>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고려의 민간신앙

고려 사람들은 병이 나서 아파도 약을 먹지 않는다. 오직 귀신만을 섬겨 병을 이겨내려 한다. 본래 귀신을 섬겨 주문과 방술을 알 따름이다. 백성은 재난이나 질병이 생기면 개경 북쪽에 있는 송산 신사에 가서 옷과 말을 바치고 기도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비상
--	--------------

## || 김위제의 남경 천도 주장 : 풍수지리설

‘도선기’에 이르기를, “고려의 당에 3경이 있으니, 송악은 중경이 되고, 목멱양은 남경이 되고, 평양은 서경이다. 11-2월은 중경에, 3-6월은 남경에, 7-10월은 서경에 머무르면 36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 <u>개국 후 160여 년에 목멱양에 도읍한다.</u> ”라고 하였으니, 신은 지금이 바로 정녕 이 새 서울에 순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 교학사
--	-------------------------

### CHAPTER

# 26

## 중세 문화 (3)

### 1. 고려의 예술과 과학

#### || 천문기록

복희씨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관찰하였다. 황제는 앞날의 날자를 추산하였고, 요 임금은 날과 달의 운행을 보고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순 임금은 천문 관측기구로 칠정을 정하였다. 이리하여 천문을 관측하는 방법이 정비되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하늘은 어떤 형상을 나타내어 길흉을 보여주니, 어진 사람은 이것을 본받는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노의 역사서에 따라 춘추를 만들 때 일식과 별들의 변화를 전부 그대로 두고 하나도 삭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 475년 간에 일식이 132회 있었고, 다섯 개의 행성이 다른 별에 접근한 현상과 각종 별의 이상한 현상도 많았다. 이제 역사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사료를 모아서 ‘천문지’를 만든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	-------------------

#### || 고려청자

<u>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u> 근년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예뻐졌다. 술그릇의 모양은 오이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옆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옥으로 만든 술잔 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법에 따라 한 것들이므로 생각하고 그리지 않는다. 다만, 술그릇만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내 소개해 둔다.  『선화봉사고려도경』	교과서 수록 천재
--	--------------



## II 화약 기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최무선은 원의 화약 제조 기술자 이원과 한 마을에 살면서 그를 지극히 대우하여 화약 제조 기술을 어렵사리 알아내 뒤, 많은 실험을 거쳐 화포를 만들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CHAPTER

# 27

## 근세 정치 (1)

### 1. 조선 초기의 정치

#### II 이성계의 즉위

**배극렴** 등이 여러 신하와 함께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자, 태조는 “예로부터 제왕은 천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라며 거절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지 않고 왕위에 오르기를 거듭 권고하니**, 마침내 태조가 마지못하여 …… 대전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태조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II 민본 정치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 옛날에 사해를 다스리면서 천자가 관작을 설치하고 봉록을 지급한 것은 신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인(군주)의 동작과 시설, 명령과 법제는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백성에 근본을 두었다.

『경제문감』

교과서 수록  
천재

#### II 정도전의 재상중심 정치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 있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 임금의 자질은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 그것이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조선경국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 II 태종의 6조직계제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지금 의정부의 권한한 폐단을 없애더라도 권한이 6조로 나누어져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서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일이 막히고 쌓였다.

『태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지학사, 금성  
교학사

#### II 세종의 의정부서사제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일의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6조에 부쳐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의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었다. 그러므로 옛날에 재상에게 위임하던 뜻과 어긋남이 있고,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이조, 병조의 제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

## || 세조의 6조직계제

<p>상왕(단종)이 나이가 어려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 통을 물려받아 군국서무를 아울러 자세히 듣고 헤아려 다 조종의 옛 제도를 되살린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뺀 모든 서무는 6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직계한다.</p> <p>『세조실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p>3정승은 자질구레한 사무를 친히 보지 않고, 육조 판서들이 그 직무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이 옛 제도이다. 이제부터 육조의 공적인 사무는 직접 임금께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세조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왕권과 신권의 관계

<p>함길도 도절제사 김중서가 어머니를 뱉는 일로 부름을 받아 돌아오니, 세종이 사정전으로 불러 보고, 입고 있던 홍단의를 내려 주었다.</p> <p>『세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CHAPTER

# 28

## 근세 정치 (2)

### 1. 사람의 성장과 봉당의 출현

#### || 무오사화의 원인

<p>유자광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내놓았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b>조의제문</b>과 술주시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여러 추관에게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b>김일손의 악은 모두가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b>”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스스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하여 왕께 아뢰기를 “<b>김종직이 우리 전하(세조)를 헐뜯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b> 그 부도덕한 죄는 마땅히 대역으로 논해야 하고, 그가 지은 다른 글도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마땅치 못하오니, 아울러 모두 불태워 버리소서.”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p> <p>『연산군일기』</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 김종직

<p><b>김종직</b>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시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b>지금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b></p> <p>『연산군일기』</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조광조의 사상

<p>아랫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위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b>성상께서 먼저 덕을 닦아 감동시킨다면 아래서도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정치가 지극히 바르게 될 것입니다.</b> …… 공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큰 줄기만 관장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여야 합니다.</p> <p>『중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p>임금은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신하에게 맡긴 뒤에야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서게 됩니다. <b>임금은 하늘과 같고, 신하란 사계절과 같으니</b> 하늘이 행하고 사계절의 운용이 없으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금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신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모든 교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p> <p>『조정암선생문집』</p>	<p>교과서 수록 금성</p>



## II 이이의 조광조 평가

선생(조광조)께서 한번 외쳐, 성왕의 시대로 돌아가자 하셨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자, <b>사람은 붕괴되었고 왕도를 말하는 것마저 시대의 금기가 되고 말았다.</b> 사람들은 다 시기가 성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정암집』	교과서 수록 천재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하고 말았다. <b>그가 도학을 실천하고자 왕에게 왕도의 철학을 이행하도록 간청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비방하는 입이 너무 많아 비방하는 입이 한 번 열리자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행적이 경계가 되었다.</b> 『석담일기』	교과서 수록 교학사

## II 조광조 적려유허비

아, 이곳은 <b>정암 조 선생</b> 이 귀양살이를 하던 집이고 또 생을 마친 곳이다. 아, 지난 <b>기묘년</b> 은 지금으로부터 149년이나 되는데, 학사, 대부는 그 학문을 사모하고 백성은 그 혜택을 생각하되,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잊지 못하고 .....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숙연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아, 이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 타고난 뚝뚝한 마음에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송자대전』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II 현량과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한을 본받아 <b>현량과를 실시</b> 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재를 찾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b>지난번 조광조가 아뢴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관중에서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b> ..... 혹 뒤 폐단이 있을 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었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중종실록』	교과서 수록 리베르

## II 이와 기에 대한 이황의 생각

천하의 사물은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라고 한다. .... 무릇 모든 사물은 능히 그렇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 <b>이는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b> 『퇴계집』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이와 기에 대한 이이의 생각

이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거할 곳이 없다. 이미 두 개의 물건이 아닌즉, 또한 하나의 물건도 아니다. .... <b>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묘하게 결합된 가운데 존재한다. 이는 이이고 기는 기이지만 혼돈 상태여서 틈이 없고 선후가 없으며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일이 없으니, 두 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b> 『율곡집』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군주의 역할에 대한 이황의 생각

후세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는 만백성이 떠받드는 자리인데 스스로 성인인 체하고 오만하고 방종하니, 마침내 어지럽게 되어 멸망하게 되는 것 또한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 바라옵건대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b>먼저 뜻을 세워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나도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b> 『성학십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군주의 역할에 대한 이이의 생각

가만히 생각건대, <b>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b> ,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데는 병을 살피 약을 쓰는 것이 성과를 거두고,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쓰는 데는 상하가 틈이 없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성학집요』	

## II 이조전랑

이조가 권력이 무거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b>3사 관원의 후보 천거는 이조 판서에게 맡기지 않고 낭관(전랑)에게 맡겼다</b> . 이 때문에 이조의 정, 좌랑은 대간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3공, 6경의 벼슬이 비록 높더라도 조금이라도 떳떳치 않은 일이 있으면 전랑이 3사의 여러 관리에게 논박하게 하였다. 조정의 풍속이 엄치를 숭상하고 절개를 중히 여겨 한번 탄박을 받으면 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전랑의 권한은 삼공과 같았다. 이 때문에 상하가 서로 견제하여 삼백년 간 큰 간신이 없었고, 신하의 세력이 커져 제어하지 못하는 난리도 없었다.	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
『택리지』	

## II 동서분당

<b>김효원</b> 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b>심충겸(심의겸의 동생)</b> 이 <b>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효원이 반대하였다</b> . 이때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의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효원의 집이 동쪽 건천동에 있고, 의겸의 집이 서쪽 정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동인의 생각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서인의 생각은 의겸이 공로가 많을뿐더러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느냐는 것이었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연려실기술』	

## II 봉당론

임금(인조)이 말씀하셨다. <b>“무릇 정치를 행함에 있어 끼리끼리 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b> 공(이귀)은 이에 대답하였다. “임금께서 만약 당을 없앤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소인들은 그 틈을 타서 군자를 잘못된 당이라고 모함하여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주자는 ‘임금을 끌어들어서 같은 당원으로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조께서도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b>임금은 오직 어진 사람을 얻어 믿고 맡기실 뿐입니다. 어찌 끼리끼리 만든 당이라고 해서 신하를 의심하여 소인이 들어설 단서를 열어 놓으십니까?</b> ”	교과서 수록 천재
『목재일기』	

## II 봉당에 대한 인식

왕이 이준경이 유언으로 남긴 상소에 “조정 신하들이 봉당을 만들어 마침내 허위 풍조가 형성되었다.”라고 한 말을 보고 크게 놀라 대신에게 말했다. <b>“만약 봉당이 있다면 조정이 어지러워질 것이다.”</b> 이에 대신이 그 의심을 풀어주었는데, 왕도 끝까지 따지지 않았다.	교과서 수록 두산
『선조수정실록』	

이이가 …… 상소하였다. “…… 봉당에 관한 설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취지는 다만 <b>군자의 당인지 소인의 당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일 뿐입니다</b> . 군자라면 무리를 짓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만, 소인이라면 한 사람도 용납해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봉당을 허용하겠습니까.”	교과서 수록 두산
『선조수정실록』	



## CHAPTER

## 29

## 근세 정치 (3) - 통치체제 1

## Ⅱ 대간의 역할

대관은 마땅히 위엄과 명망을 우선해야 하고 **탄핵은 뒤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자는 비록 종일토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 복종할 것이요, 이것이 없는 자는 날마다 수많은 글을 올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천하의 득실, 백성의 이로움과 해로움, 사직의 큰 계획은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재상만이 행할 수 있고, 간관만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간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삼봉집』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비상

## Ⅱ 3사의 역할

- 시정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 **간쟁**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 **궁궐 안에 있는 경적을 관리하고, 문관을 관리하며, 왕이 물을 일을 대비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제학 이상은 다른 관부 관원이 겸한다. 모두 경연을 겸대한다.

『경국대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신문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서울은 주장관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헌부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신문고는 의정부 당직청에 있다**.

『경국대전』

교과서 수록  
비상

## Ⅱ 지방 통치(원악항리처벌법)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항리로서 영세민을 침해하여 도죄(징역형)를 범한 자는, 청하건대 장형을 집행한 후에 영구히 그 도의 잔폐한 역의 역리로 귀속하고**, …… 그 백성을 침해한 항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다시 심리하지 않은 관리도 아울러 법률에 따라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수령 7사

1. **농업을 발전시킬 것**
2. 유교 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3.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4.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5. 때맞추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6. 백성을 편히 하고 **호구를 늘릴 것**
7.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성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

CHAPTER

30

근세 정치 (4) - 통치체제 2

|| 진관체제

국가에서는 처음에 각 도 군사들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 이에 변란이 있으면 각 진관이 소속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돈하여 주장의 호령을 기다렸다. .... 만약 적의 침략으로 **진관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음 진관이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킴으로써 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선조수정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CHAPTER

31

근세 정치 (5) - 대외정책

|| 사대론

오직 어진 자만이 대로서 소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소로서 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대로서 소를 섬기는 자는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소로서 대를 섬기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맹자』

교과서 수록  
미래엔

|| 명으로의 사신 파견

황제께서 후하게 대우하고, “너희 나라 사신의 행차가 왕래하는 데 길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부터는 **3년에 한 번 조회**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태조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명의 태종 즉위 인정

(태종의 즉위에 대해) 명 예부에서 자문을 보낸다. “조선은 본래 예의의 나라이므로 .... 왕위를 전하거나 직위를 승계하는 일은 천리를 어기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없거든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주관하여 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명과 조선의 교류

여러 주변 국가에서 온 사절들은 **조공은 바치고 답례품을 받은** 후 숙소 부근에서 3일이나 5일간 물품을 교역할 수 있다. 조선과 유구의 사신은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대명회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무역소 설치

**경성, 경원 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면 혹은 때 지어 물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야인이 소금과 쇠를 얻지 못하여서 혹은 변경에 불상사가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물물 교역을 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세종의 북방 영토관

옛날부터 제왕들은 국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으니,** 하늘이 만들고 땅이 이루어 놓은 땅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국토를 지키고, 변방 백성이 수비하는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할 뿐이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책봉과 조공

일본 국왕이 박서생 등에게 말하기를, “부왕의 뜻을 이어받아 <b>중국에 조공</b> 하고자 하나, 혹 전날의 일로 구류를 당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청하오니, 돌아가거든 귀국 왕에게 고하여 내 뜻을 중국에 전달하게 하여 먼 곳에 있는 <b>저희 오랑캐도 명 천자의 덕을 입게 도와주소서.</b>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조선 전기 일본과의 교류

국왕의 사신은 <b>날짜에 제한이 없고 여러 영주의 사신 이하는 날짜의 한도를 지나면 일수를 계산하여 식량을 깎는다.</b> 병이 나거나 홍수가 저서짐을 실어 나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머물렀던 곳의 관가에서 증명서를 받아와야 하며, 돌아갈 때도 이와 같다. 『해동제국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계해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도주에게 <b>매년 200석</b>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li> <li>- 대마도주는 <b>매년 50척</b>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 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낸다.</li> <li>- <b>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b>에 머무르는 날짜는 20일로 한정하고, 단지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하고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li> <li>- 고초도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 만호의 허락을 받아 고기잡이를 한 후 어세를 내야 한다.</li> </ul>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조선과 유구의 관계

유구 국왕의 사신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유구는 지난해 예물과 함께 대장경을 하사받았는데 사례를 하려 하나 바닷길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으로 일본 사람 종구를 보내어 다음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물은 침향 40근, 목향 50근, 소목 6천 근, 화석 2천 근, 단향 2백 근, 정향 1백 근이었다. 『세조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조선 전기 외국 사신

저녁에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경복궁에 거동하여 화산봉을 구경하였는데, 유구국 사신과 왜인, 야인(여진인) 등을 불러서 이를 구경시켰다. 『세조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	--------------

## 임진왜란

### || 수군의 활약

대개 왜적은 본시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 내려 오려고 하였는데 이 한 번의 해전(한산도 대첩)에 의해 <b>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 버린 것과 다름없이 되고 말았다.</b> 따라서 고니시 유키나가도 비록 평양을 빼앗았다고 하나 그 형세가 외롭게 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전라, 충청도를 보전하였고, 나아가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해 지역 일대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중흥이 이룩될 수 있었다. 『징비록』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이순신의 활약

<b>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 전선의 수가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b> 『이충무공전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지학사
--	--------------------

## || 의병의 활약

<p>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병사들은 모두 인심을 잃어서 왜란이 일어난 뒤에 군인과 양곡을 독촉하자 백성들은 다 이들을 미워하여 왜적을 만나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 비록 크게 이긴 싸움은 없었지만 민심을 얻어서 국가의 명맥은 이에 힘입어 유지할 수 있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수정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광재우

<p>적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우리들 부모처자는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동네 소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자가 수백은 될 것이니 모름지기 마음을 한가지로 먹고 정진에 둔치고 지키게 한다면 가히 향곡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여진족 자원군 파견 거부

<p>건주의 달자가 2만 명의 병력을 보내 왜적을 무찌르겠다고 청해 오자, 형군문(명군 장수)이 허락하고자 했다. 그러자 양포정(명 사신)이 “만일 달자에게 왜적을 정벌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우리나라(명) 병마의 다소와 조선 병력의 강약은 물론이요, 산천의 형세에 대해서도 모두 세밀히 알게 될 것이니 결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니, 형군문이 중지시켰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훈련도감의 운영

<p>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훈련도감을 별도로 설치하여 화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두어 달 훈련시킨 결과 기량이 늘어서 명의 정예 병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으니 군량 조달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상(임금)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시고 나(유성룡)를 도제조로 삼으시므로, 나는 청하기를 “당속미 1천 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얼마 안 되어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쓰는 법과 창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로써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애집』</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임진왜란의 참상

<p>하루에 죽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길에 가득하고 썩어가는 시신이 하천을 막을 정도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p>남의 나라에 붙들려 있는 지 다섯 해,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고 스스로 죽지 못한 것은 다만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 우리 부모를 다시 보려는 희망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사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p>선조 26년 10월,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으나 성안은 타다 남은 건물 잔해와 시체로 가득하였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인육을 먹기도 했고, 외방에는 곳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났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애집』</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p>
---	---------------------------



## CHAPTER

## 32

## 근세 경제 (1) - 토지제도

## || 고려 말 토지제도의 문란

근래 여러 공신과 권세 있는 집안이 불법으로 증명서를 받아 본래 (자신의) 토지라고 하면서 **산과 하천을 경계 표지로 하여 앞 다투어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가 남의 토지를 차지하여 부자는 밭두둑이 잇닿을 만큼 토지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꽃을 땅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토지를 빌려 일 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해도 식량은 오히려 부족하였고,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손수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작하는 사람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뿐 그 이득을 차지하지 못하니 백성은 더욱 곤궁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다.

『조선경국전』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정지(井地)를 고르게 함은 다스리는 자가 힘써야 할 일이라 합니다. …… 그런데 **조세를 거두는 자가 올 때 토지 주인이 한 집이면 다행이지만, 혹 서너 집이 되거나 일고여덟 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성이 곤궁함은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비상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해져 간혹한 무리가 주군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산천을 경계로 삼아 그 땅을 조업전이라 부르며 서로 빼앗으니, 한 땅에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고 1년에 세금을 여덟, 아홉 차례나 거두어간다.** …… 심지어 남이 대대로 심어 놓은 뽕나무와 집까지 모두 빼앗는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과전법의 시행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살며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 없이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금성

## || 수신전과 출양전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 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출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 || 관수관급제

이전에 과전은 **아버가 죽고 자식이 받은 것은 출양전이라 칭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전해 받은 것은 수신전**이라 칭하여 대대로 그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고쳐 직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세를 거두는 자가 혹 지나치게 받아 원망을 사는 자가 있으니, 만일 **관으로 하여금 거두어서 주게 하면 백성이 수납하는 괴로움을 면하고 지 나치게 거두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성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CHAPTER  
33

근세 경제(2)  
- 수취제도, 농업기술

|| 조선의 경제관

<p>- <u>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 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u>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p> <p>- 농사와 양잠은 먹고 입는 것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시되는 것이다.</p> <p>-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여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u>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피해를</u>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조선경국전』</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농본주의 정책

<p>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u>농사는 입고 먹는 것의 근원이므로, 임금이 정치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한다.</u></p>	<p>『세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p>성세창이 아뢰기를 “세종 임금이 농상(農桑)에 적극 힘쓴 까닭에 수령들이 사방을 돌면서 살피고 농상을 권하였으므로 경작하지 않는 땅이 없었습니다. …… 특별히 지방에 타일러 농상에 힘쓰도록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u>왕이 8도 관찰사에게 농상을 권하는 글을 내렸다.</u></p>	<p>『중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전세의 문제

<p><u>전세에도 여러 명목의 잡세가 있습니다.</u> 백성이 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밭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이익은 부잣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여유가 없어 사방으로 흩어지면 친척을 구박하고 이웃에게 떠안겨 빼앗아 냅니다. 이 때문에 마을이 비어가고 …… 들판은 더욱 황폐해 갑니다.</p>	<p>『중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연분 9등법

<p>옛날에 토지를 맡기고 토질을 분별하던 제도를 본떠, 먼저 여러 도의 토지 품등을 3등급으로 정한다. 경상, 전라, 충청도는 상등으로 삼고, 경기, 강원, 황해의 3도는 중등으로 삼고, 함길, 평안도는 하등으로 삼으며, 또 본디 정하였던 전적의 상, 중, 하 3등에 의거하여 그대로 토지의 품질을 나눈다. <u>각 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써 수세하는 수량을 정한다.</u> …… 이렇게 하면 옛날 10분의 1을 받은 법과 비슷하며, 조선 개국 초기의 수세하던 수량보다 많이 가벼워지게 된다.</p>	<p>『세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세종의 여론 수렴

<p>정부 육조는 물론 각 관사, 서울 안의 전현직 관리, 각도의 관찰사, 수령 및 관리로부터 <u>민간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u></p>	<p>『세종실록』</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전분 6등법

<p><u>모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u>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고 호조와 해당 도, 그리고 고을에 갖추어 둔다.</p>	<p>『경국대전』</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양전 사업

<p>함경도는 다른 도보다 가장 오랫동안 양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연이어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까지 돌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b>양전하러 가는 경차관 수가 무려 40여 명이고</b> ..... 이들을 접 대하는 비용은 모두 이곳 백성이 짊어지는데, .....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b>양전을 강행한다면 백성이 받는 피해는 흉년보다 심할 것이니</b> 어찌 조정이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중종실록』</p>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요역의 실시

<p>우리나라에서 백성을 부리는 <b>법도에는 8월에 1인의 역군을 내게 하고 1년 동안 사역하는 것이 6일에 지나지 않게 하였습니다.</b> 그런데 수령들이 국가에서 백성을 어루만지려는 뜻을 따르지 않고 수시로 백성을 사역하여 자 기의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씁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성종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공물의 납부

<p>각 도에서 중앙 관청에 납부하는 공물을 해당 관리들이 매우 정밀하게 살피면서 모두 품질이 나쁘다 하여 반 아들이지 않고, 대신 도성 안에서 사들인 물품을 납부할 때야만 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b>관청 아전들이 이 과정에서 이득을 노려 다투어 대납을 하면서 원래 공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세종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p>김개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전라도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사다새(물새의 일종)의 살을 약으로 사용하므로 전라도 바닷가 7읍에서 번갈아 진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생산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생 산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1년에 진상하는 것이 한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지방의 산물이 아니므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b>진상할 차례가 돌아오면 백성은 그 값을 징수해서 평안도 산지에 가서 사웁니다.</b> 또한, 서 울 상인이 가지고 있으면 먼저 바치고 그 고을에서 값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명종실록』</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농사직설 서문

<p><b>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b> 예로부터 성왕이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정 사에 힘을 써 더욱 백성 일에 마음을 두셨다. 지방마다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맞 는 게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감사에게 명하여 <b>고을의 늙은 농부들에게 물어 이미 그 효 과가 입증된 것을 아뢰게 하시고</b> ....</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농사직설의 내용

<p>올벼의 물갈이 법은 추수 후 논물을 대기 쉬운 기름진 논을 골라 겨울에 갈고 거름을 넣는다. 2월 상순에 또 갈고 씨레와 가로와 세로로 평평하게 고르고 쇠스랑으로 흙덩이를 깨뜨려 부드럽게 한다. 파종에 앞서 법씨를 물 에 담가 둔다. 3일이 지난 뒤 건져 짚으로 엮은 섬(공석)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둔다. 자주 열어 보아 뜨지 않도록 한다. 싹이 조금 나오면 논에 고루 뿌린다.</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장시의 확산

<p>(장시가) <b>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다음 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b> .... 규정을 마련해 큰 고을은 두 곳에서, 작은 고을은 한 곳에서 한 달에 세 번 모두 같은 날 개시하는 외에는 일체 금지하여 민심을 진정시키소서.</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조선의 신분구조

우리 조선은 명분으로 나라를 세웠다. 지금 사대부라는 이름이 매우 성하고 많은 것은 사람을 뽑아 쓸 때 오로지 문벌만 따졌기 때문이다. …… 종실과 사대부는 조정에서 벼슬하는 집안이 되고, 사대부보다 못한 계층은 시골 품관, 중정, 공조 따위가 되었다. 이보다 못한 계층은 사서와 장교, 역관, 산원, 의관과 방외의 한산인이 되었다. 더 못한 계층은 아전, 군호, 양민 따위가 되었으며, 이보다 더 못한 계층은 공사의 천한 노비가 되었다. <b>노비에서 지방 아전까지가 하인 한 계층이고, 서얼과 잡색이 중인 한 계층이며, 품관과 사대부를 함께 양반이라 한다.</b>	교과서 수록 비상
---	--------------

『택리지』

## || 양인의 다양한 구성

오늘날 양인이라는 자들의 등급은 하나가 아니다. 비록 공이 많고 벼슬을 많이 지낸 집안 후손이 아니더라도 상하와 내외의 구별이 있는 자가 있고, 상하, 내외의 구별을 하지 않아 대대로 상민이 되는 자가 있으며, 몸은 천인이 아니나 천인과 다름이 없는 자도 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세종실록』

## || 양인의 과거 응시

현감 안중손은 …… 과거에 급제하기 전 영남에 집을 짓고 몸소 농사를 지어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하루는 도사 유예신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안중손은 밭에서 일하다가 샷갓에 잠방이 차림으로 호미를 들고 돌아와서 문 앞에서 자리를 깔지 않고 앉았다. 그리고 막걸리를 가져오라고 하여 권하였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패관잡기』

## || 음서

황수신은 항장 “대장부가 홍지(문과 급제자에게 준 증서) 위에 이름을 쓰지 못하면 족히 볼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는 익성공 황희의 아들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출신하였으므로 이같이 말했으니, 대개 이유가 있어 말한 것이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성호사설』

김극개는 문음 출신으로 벼슬길에 오른 지 이제 겨우 4년이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승지로 승진되어 관작의 외람됨이 지난날의 폐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승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래 비우는 것이 합당치 못하나, 어찌 한 사람의 일 때문에 공론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과서 수록 금성
--	--------------

『중종실록』

## || 과거와 관직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초직에 6품직을 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의 이 말은 비록 속되오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비록 과거를 거쳐 들어온 자라도 <b>갑과 제1인이 아니면 6품직을 주지 못합니다.</b> ……”라고 하였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중종실록』



## || 양반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 백성이 넷이다. 그중 <b>가장 귀한 것이 선비인데, 양반이라고도 불리며 그 이익도 막대하다.</b> 농사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문사(文史)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적어도 진사가 된다. 문과 합격 증거인 홍패는 길이가 2자에 지나지 않지만 온갖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돈 자루라 할 수 있다. (양반들이) …… 이웃 소를 가져다 먼저 받을 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김을 매도 누가 감히 거역하겠는가? 『양반전』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 || 16세기 양반 관료의 생활

<p>1568년 10월 20일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간 친구들이 옛날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신의를 저버린 것을 탄식하였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남은 나를 배신할지언정 나는 남에게 배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였다.</p> <p>1569년 10월 19일 새참에 순창 군수 우정노와 진원 현감 이제가 모두 술과 과일을 가지고 찾아왔다. 순창 군수가 준 것은 백미 10말과 중미 10말, 콩 1섬, 누룩 1동, 등유 4되, 청주 1동이, 노루 1마리, 닭 3마리였고, 진원 현감이 준 것은 백미와 중미 각 10말, 콩 10말이었다.</p> <p>1570년 6월 12일 (부인이 보낸 장문의 편지) …… 당신은 몇 달 동안 홀로 살면서 붓끝의 글자마다 그 공을 자랑하였지만, 나이가 60에 가까우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로운 것이지, 결코 내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요. 하기가 당신은 귀한 관직에 있어서 도성의 만인이 우러러보는 처지이니 비록 수개월 동안 홀로 살기 어려울 일일 것이요. 나는 당신이 귀양 가 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방에 돌봐 주는 사람 없이 …… 삼년상을 마쳤소. 당신이 몇 달 동안 홀로 산 공을 내가 한 일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겠소. 원컨대 당신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리도록 하시오. 송씨 아뢰.</p> <p>『미암일기』</p>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서얼의 문과 응시 금지

서얼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법이 아니다. ……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로부터 금고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니 현재 아직 백 년도 채 되지 못한다. …… 양반 사대부의 자식으로서 다만 외가가 미천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금고하여 비록 훌륭한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끝내 머리를 숙이고 시골에서 그대로 죽어 향리나 수군만도 못하니 참으로 가련하다. 『패관잡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서얼의 자손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경국대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중인의 신분

성종 13년 사헌부 대사헌 채수가 “어제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시에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는 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b>무당, 의사, 약사와 통역관은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b> …… <b>의관, 역관의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으로 양반 사족이 될 수 없습니다.</b> …… 동서 양반은 모두 삼한세족입니다. 간혹 변변치 않은 가문 출신도 있지만 모두 과거를 거쳐 오른 자입니다. 어찌 통역관과 의관을 그 사이에 섞여 있게 하여 조정을 낮추고 군자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실록』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지학사
---	--------------------------

## 노비의 일천죽천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의 역을 따른다. 천민이 양인 아내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아버지의 역을 따른다. 『경국대전』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

## 노비의 처벌

주인이 종을 죽인 일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변계량이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데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높고 낮음에도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법은 마땅히 위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법을 행하면 저 무지한 종들이 ‘주인이 형벌을 잘못 쓰면 결국 죄는 주인이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날뛰게 될 것입니다. …… 만일 형벌을 잘못 써서 죽게 한 자가 있으면, 비록 더 엄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금성
--	--------------

## 노비의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릇 노비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노비와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값이 저화 4천 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이다.</li> <li>- 공노비의 경우 노비 1년의 신품은 남자 종이 면포 1필과 저화 20장, 여자종은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다. 이는 모두 사섬시에 납부한다.</li> <li>- 면포 1필은 저화 20장에 해당하며 저화 1장은 쌀 1되에 해당한다.</li> </ul> <p>『경국대전』</p>	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
--	-------------------

## 신분적 차별

왕실 종친인 근녕군 이능과 의성군 이용이 살곶이(지금의 한양대 근처)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 이에 왕이 의금부에 명하여 그의 구사(공노비)에게 채찍 각 40대에 처하게 하고, 병조에 전하기를, “이후로 만약 개인 사냥을 금지하지 못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아들이나 손자, 아내와 첩 또는 노비로서 부모나 가장을 고발하는 경우에 반역 음모와 역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형에 처한다. 『경국대전』	교과서 수록 두산



## CHAPTER

## 35

## 근세 사회 (2)

## || 향약을 세운 이유

효제충신의 도리가 막혀 행하여지지 않으면 예의를 버리고 염치가 없어짐이 날로 심해져서 마침내 오랑캐나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살피 바로 잡는 책임은 유향소에 있다. …… 이제부터 고을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으로 삼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집이나 고을에서 질서를 바로 잡으면 나라에 좋은 선비가 될 것이요, 출세하든지 가난하든지 서로 의지가 될 것이다. 군이 약속을 해서 권할 필요도 없고 벌을 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어기며 예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고을의 풍습을 해치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다. 어찌 벌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향약을 세우는 이유이다.

『퇴계 선생 문집』

교과서 수록  
리베르, 두산  
교학사

## || 예안 향약(퇴계 향약)

-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집안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자, 사건이 관청의 일에 저촉되고 향풍에 관계되는 자, 수절하는 과부를 유혹하고 협박하여 간음하는 자, 이상은 극벌 상, 중, 하에 처한다.
-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자, 본처를 박대하는 자,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친구들과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기풍을 허물고 더럽힌 자, 강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며 침탈하여 다투는 자, …… 이상은 중벌 상, 중, 하에 처한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이이의 서원 향약 조목

- 선행과 악행의 내용을 정해 두고 권선징악의 재료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를 잘하는 것, …… 이른바 악행이란 불효하거나 자애롭지 않은 것, 우애하지 않거나 공손하지 않는 것,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 …… 유사, 색장, 별검(향약의 임원) 등이 사실대로 기록한다.
- 4계절마다 첫 번째 달 초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골라 장내의 향약에 든 사람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연다.
- 민간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계장과 유사가 그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 계장, 유사가 잘못된 사람에게 타일러 소송을 그치도록 한다.

『율곡선생 전서』

교과서 수록  
천재

## || 서원의 건립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중국 제도를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진실로 좋은 일이지만 서원이 설치되었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방의 큰 결점입니다. 주세붕이 처음 서원을 세울 때 세상에서는 의심하였습니다. 주세붕은 뜻을 더욱 가다듬어 많은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물리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서원을 세우는 가르침을 동방에 일으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인가 합니다. ……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서로 다투어서 이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선왕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 이런 곳에는 모두 서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퇴계집』

교과서 수록  
지학사

임인년에 주세붕 공이 풍기 군수가 되어 묘우를 창건하였다. 다음 해 8월에 문성공 안유의 영정을 봉안하고, 갑진년에 문정공 안축, 문경공 안보를 배향하였다. 건물과 제도는 주자가 백록동에 세운 선례를 따랐다. 우리나라의 서원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재향지』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민생 안정책 : 혼인 장려

양반의 딸로 부모를 여의고 혼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정부가 혼수를 장만해 주도록 명하였다. …… 부모 형제가 있더라도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할 수 없어 때를 놓친 자도 있으니, 부모 형제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말고 그 집안의 높고 낮음과 빈곤 여부를 따져, 국고에서 쌀을 내주어 혼수를 마련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도적의 발생 이유

사신은 논한다. …… 저들 도적이 생겨나는 것은 도적질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몹시 시달리다가 부득이 하루라도 더 먹고살기 위해 도적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누구인가? 권세가의 집은 공공연히 벼슬을 사려는 자들로 시장을 이루고 무뢰배들이 백성을 약탈한다. 백성이 어찌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명종실록』	교과서 수록 두산
--	--------------

## Ⅱ 삼강행실도 서문

고금의 효자, 충신, 열녀 중에서 뛰어나게 본받을 만한 자를 가려서 편집하되 일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아울러 시찬을 덧붙이게 하였으나, 그래도 어리석은 남녀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여 이를 인쇄해서 널리 반포하는 바이다.	교과서 수록 두산, 금성
---	------------------

## Ⅱ 삼강행실도 내용

향덕은 웅천주 사람이다. 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데다가 염병이 번졌다. 부모가 굶주리고 병이 들었으며 어머니는 거의 죽게 되었는데, 향덕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 드렸다. 그러나 봉양할 길이 없어 <b>향덕은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고</b> 또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모두 건강을 찾게 하였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자 왕은 벼 3백 석과 집을 하사하였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살인에 대한 처벌

형조에서 보고하였다. “고의로 살인한 광주 죄수 종 오마대와 교하 죄수 백성 구질금과 <b>부모를 구타한 숙천 죄수 종 혼만은 참형에</b> 해당합니다.” 법대로 집행하였다. 『명종실록』	교과서 수록 두산
--	--------------

### CHAPTER

# 36

## 근세 문화 (1)

## Ⅱ 이황의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이 도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 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 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li> <li>• … 다만 옛 현인과 군자들이 성학을 밝히고 심법을 얻어서 도를 만들고 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에게 진술하여, 옛 제왕들의 공송과 기명으 끼친 뜻을 대신하고자 하옵니다.</li> <li>• 4단과 7정은 다 같이 하나의 정감이지만 4단은 인의예지라는 본성에서 발동해 나오고, 7정은 기질에서 발동해 나온다. … 4단은 이치가 발동하여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고, 7정은 기운이 발하여 이치가 타고 올라오는 것이다.</li> </ul>	기출 2014년 지방직
--	-----------------



## II 이이의 사상

- 모두 합하여 **성학집요라 이름 하니**, 마지막으로 도를 전하는 책임을 성상에게 바른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친 말은 아니옵니다. … “신하가 착한 도를 베풀고 사심을 막아서 임금이 혹시나 허물 있는 지경에 빠질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 이기가 원래 떨어지지 아니하며 일물인 것 같으나, 그 구별되는 바는 이는 무위이며, 기는 유위입니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 됩니다. 이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므로 기는 발하고 이는 승합니다.**
-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리의 관계에 있다.** …
- 정사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때에 알맞게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출  
2014년 지방직  
2013년 국가직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쓰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변화하는 데는** 마땅히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을 공으로 삼고, 정성을 미루어 용현하는 데는 마땅히 위아래가 틈이 없는 것을 실제로 삼아야 합니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셔서 반드시 성현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삼대를 본받으십시오. 전심하여 글을 읽으시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시어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리에 맞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이 내 뜻에 순하면 반드시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하시어 곧을 말을 즐겨 들으십시오. 간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어 착한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고, 의리의 귀결을 깊이 살피시며, 몸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남에게 이기려는 사사로움을 버리시면, 일용하는 사이에 실천하는 것이 성실해져 한 가지도 실수가 없을 것이며, 한가한 가운데 마음가짐이 돈독하여 한 가지 생각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성학집요>

## CHAPTER

# 37

## 근세 문화 (2)

### II 훈민정음 해례본 : 정인지의 서문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가 있다. …… 심지어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글로 쓸 수가 있다.

교과서 수록  
천재

### II 한글 창제

최수들의 조서나 판결문을 이두 문자로 쓰면, 글을 모르는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간혹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훈민정음으로 그 글을 써서 읽고 직접 듣도록 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II 훈민정음 서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

## || 훈민정음 창제 반대

우리 왕조는 조종 이래로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지금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b>언문을 창작하는 것을 보고 듣기에 놀랍니다.</b>	교과서 수록 지학사
『최만리의 상소』	

## || 훈민정음 사용 반대

(정창손은) “삼강행실을 반포한 뒤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b>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해야 사람들이 본받을 것입니까.</b> ”라고 하였다. 이에 세종이 말하였다.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로서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선비이다.”	교과서 수록 두산
『세종실록』	

## || 고려사 서문

태조께서는 고려의 왕조는 이미 폐허로 되었으나 그 역사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관들에게 고려 역사를 편찬케 하셨는데 …… 야사들의 각종 기록을 참고하고 관부의 옛 장서들을 들추어서 <b>삼가 3년간 노력을 다하여 힘껏 고려 일대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b> …… 이것으로 역사의 밝은 거울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며, 선악의 사실들을 영원히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단군 인식

조선의 <b>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b> 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입니다.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소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세종실록』	

## || 동국여지승람 서문

책을 펴서 그 일을 따져 보고 지도를 펼쳐 그 자취를 본다면, 태산에 오르거나 황하의 근원을 끝까지 파고들 것 없이 <b>8도의 지리가 마음과 눈에 환하여 문을 나가지 않고도 손바닥을 보듯이 분명히 알 것이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우리글에 대한 자주 의식

우리나라의 문장이 살아 있는 듯 용솟음치니 옛날 어떤 글에 못지않다. <b>이것은 바로 우리의 글이다. 송, 원의 글이 아니고 한, 당의 글도 아니다.</b> …… 삼국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와 문장을 뽑았다. 이치에 맞고 깨끗하고 바른 글과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가려 종류대로 나눠 일백 삼십 권으로 정리하였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동문선』	

## || 동몽선습의 내용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이 귀한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이 되어 이 다섯 가지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금수와 다름없다. 그러하니 아버지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성되며, 남편은 화평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를 공경하며, 벗은 인으로써 서로 도운 연후에야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격몽요결의 내용

다만 <b>아비 된 자는 마땅히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된 자는 마땅히 효도해야 하고,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충성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마땅히 유별하고, 형제간에는 마땅히 우애로워야 하며, 젊은이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서, 일용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라 각기 당연하여야 할 뿐이요.</b>	교과서 수록 비상
--	--------------



## CHAPTER

## 38

## 근세 문화 (3)

## || 정철, 사미인곡

이 몸이 태어날 때임을 좇아서 태어나니, 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임을 (어찌)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기를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옛그제까지는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오르고는 했었는데, 그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전라도 창평)로 내려왔는가. (임 곁을) 떠나올 적에 빗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도 삼 년이 지났구나. 연지와 분은 있지마는 누구를 위해서 곱게 단장할까?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교과서 수록  
비상

## || 칠정산 편찬

일식이 일어났다. 왕이 **흰옷을 입고 인정전 월대 위에서 해가 나오기를 빌었다**. …… 백관들도 흰옷을 입고 관청에 모여서 해가 나오기를 비니 해가 다시 빛이 났다. 왕이 섬돌로 내려와 해를 향해 네 번 절을 하였다. **천체운행을 관측하면서 1각을 앞당겨 예보한 기술관 이천봉에게 곤장을 쳤다**.

『세종실록』

교과서 수록  
두산

## || 악학궤범 편찬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맥박을 뛰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해 준다. 느낌에 따라 소리도 같지 않다. …… 이렇듯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은 왕이 위에서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 바르게 이끄는 것과 거짓되게 이끄는 것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며, 풍속이 반영하고 쇠퇴한 것도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악(음악)이야말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크게 관계있는 것이다**.

『악학궤범』

교과서 수록  
두산

## || 시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 김종서-

교과서 수록  
천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 하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하리라

- 이항-

교과서 수록  
천재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 커늘 짐조차 지실가

- 정철-

교과서 수록  
천재

##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 1. 봉당 정치와 정치구조의 변화

#### Ⅱ 봉당의 폐해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쳐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택리지』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Ⅱ 봉당의 원인

봉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봉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 될수록 봉당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 조정의 봉당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과거를 자주 보아 인재를 너무 많이 뽑았고, ……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써야 할 사람은 많아서 모두 초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우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리베르

#### Ⅱ 비변사 : 김익희의 상소

여진과의 전쟁 때문에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재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거에 대한 판해(안건을 임금이 허가하는 것)나 비변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효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금성

#### Ⅱ 경신환국의 발단

정원로, 강만철이 말하기를 “허견이 말하기를 주상(숙종)의 춘추는 젊지만 몸이 자주 아프시고 또 세자가 없으니, 만약 불행한 일이 있으면 대감(복선군)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고 하니, 복선군(인조의 손자)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 신이 듣고는 송연하여 곧장 고하려고 하였으나, 주상께서 영상을 신임하시므로 무고했다는 죄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까지 주저하다가 감히 숨길 수 없어서 감히 이를 자세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숙종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2. 탕평 정치와 왕권 강화

#### Ⅱ 영조의 탕평 교서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무리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당습에 어긋날까 염려하니 이것이 어찌 충효이겠는가. …… 탕평하는 것은 공이요, 당에 물드는 것은 사인데 여러 신하는 공을 하겠는가, 사를 하겠는가.

『영조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우리나라는 원래 땅이 협소하여 인재 등용의 문도 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인재 임용이 당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공격하여 공론이 막히고 서로를 반역자라 지목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새로 일으켜야 할 시기를 맞아 과거의 허물을 고치고 새로운 정치를 펴려 하니, **유배된 사람은 경종을 헤아려 다시 등용하되 탕평의 정신으로 하라.** 지금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니, 이를 어기면 종신토록 가두어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영조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미래엔(일부)  
금성, 교학사

## Ⅱ 영조의 상연 수렴

**과거 시험장에 임하였을 때에 어떤 여인이 남자 옷을 입고 들어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형조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아뢰자 왕이 하교하기를 “아, 김 소사가 만약 피에 사무치는 억울함이 없었으면 어찌 손가락을 잘라 피로 글씨를 썼겠는가? …… 방자한 뜻으로 법을 업신여긴 관리들을 처벌하고 관련자를 정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김 소사에게는 쌀을 주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정조의 서열 등용

아! 저 **서류(庶流)들도 나의 신하인데,** 그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부도 펴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과인의 허물인 것이다.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02. 세도정치와 사회 변혁의 움직임

### 1. 세도 정치와 사회 불안

#### Ⅱ 과거의 폐단

지금 나라와 백성의 폐단을 말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서둘러서 기필코 고치고야 말 것은 곧 과거의 폐단입니다. …… 만약 그 폐단의 항목을 열거한다면, 거리낌 없이 **남이 대신 글을 짓고 대신 써 주며,** 수중들이 책을 가지고 과장에 마구 따라 들어가고 …… 바깥 장소에서 써 가지고 들어가며 …… 이졸들이 얼굴을 바꾸어 드나드는가 하면 ……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정한 행위들**을 다시 제가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 Ⅱ 세도 정치기의 정치 기강 문란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라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목민심서』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비상

관서 지방에 부유한 이가 많은데 수령은 이들을 잡아들여 불효하였느니 공손하지 못하느니 하는 죄목을 씌워가두고 **뇌물을 받고야 풀어 주는데 뇌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득 악형을 가하기도 한다.**

『연경재총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삼정의 문란 : 애절양

<p>노전 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소리 현문을 향해 슬피 울며 하늘에 호소하네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u>시아비 상복 막 벗고 갓난아기는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u> 삼대가 군적에 실리다니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거리며 마구간 소마저 몰아가네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역 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p>	<p>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p>
--	---------------------------

|| 삼정의 문란

<p>빌려 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해져 <u>봄철에 좀먹은 쌀 한 말 받고서/ 가을엔 온전한 쌀 두 말 바치고</u> 게다가 좀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 하니/ 온전한 쌀 판 돈을 바칠 수밖에 남는 이윤은 교활한 관리 살찌워/ 한 번 벼슬길에 천 마지기 땅이 생기고 백성 차지는 고생뿐이어서/ 굶어 가고 벗겨 가고 걸핏하면 매질이라.</p> <p>『여유당전서』</p>	<p>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p>
---	--------------------------

<p>백성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벌레가 먹고 서리를 맞아 한 톨도 거두지 못했더라도 재상(災傷)으로 처리되는 일 이 없다. 백성이 뇌물만 주면 자색(紫色) 이삭과 붉은 낱알이 100경의 넓은 땅에서 익어가도 재상으로 되지 않 는 것이 없다. …… 체납된 묵은 환곡을 탕감하는 것, 대동미의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재상된 전결에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 체납된 묵은 환곡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윤음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조금의 혜택도 촌민 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대개 정지 또는 연기할 때에 오직 간찰한 아전이 사사로이 써 버린 것만이 정지 또는 연 기되고, <u>촌민에 이르러서는 비록 유망하여 호가 끊어져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데도, 이웃에 징수하고, 그 친 족들에게 징수하기를 성화(星火)처럼 급하게 할 따름이다.</u></p> <p>『경세유표』</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북풍이 소슬하고 해는 서산에 졌는데, 외딴 마을 한 아낙네 하늘에 대고 통곡한다. 나그네 듣고서 그냥 지나치지 못해, 말을 멈추고 물어보니 그 아낙네 하는 말. “제 지아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u>벅속에 아기가 있었지요.</u> <u>천행으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 배내털 마르기도 전에</u> <u>이임이 관가에 보고하여 군역에 충원되었네요.</u>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장정으로 군적에 올려서 군포를 바치라 독촉하여 다시금 문전에 들락날락 어제는 아기를 업고 관가에 점호를 받으러 갔다오. 점호라고 받고 돌아와 보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간장은 짙어지고 역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원한이 뽀골에 사무쳐도 어디 하소연할 데나 있나요? 이 막다른 사정 하늘에나 대고 통곡하지.”</p> <p>『한천유고』</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p>고령의 유학 정재송 등이 상소하기를 “고령은 일개 작은 고을인데 군역의 많음이 큰 고을과 같아서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u>황구첨정과 백골징포의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u> …… 실제 인구가 1천 4백 57명이었는데도 군역이 1천 8백 66명이었습니다.</p> <p>『속종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Ⅱ 민중의 저항

<p>무릇 수령이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아전과 백성 중에서 원한을 품은 자들이 산에 올라가 크게 욕지거리를 하는데, 이를 산호(山呼)라 한다. …… <b>근래 부세가 무겁고 관리가 탐학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모두 난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b> 요망스러운 말들이 동쪽에서 부르짖고 서쪽에서 화답하니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면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목민심서』</p>	<p>교과서 수록 금성</p>
<p>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형세는 나라가 있으나 믿을 것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모인 것이고, 백성을 모으는 것은 재물입니다. 안으로는 왕실과 정부가 모두 텅 비고 밖으로는 미국 창고가 모두 고갈되었으니 녹봉을 계속 지급하기 어렵고 진휼곡은 내주기도 어려우며 백성이 날로 초췌해지고 온 팔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 <b>흰 수건을 둘러쓰고 몽둥이를 든 자가 걸핏하면 1만 명이 넘고, 관가를 약탈하고 관원을 살해하고 재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승정원일기』</p>	<p>교과서 수록 비상</p>

## Ⅱ 홍경래의 난

<p><b>평서 대원수</b>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무릇 <b>관서지방</b>은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예부터 문물이 융성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가문의 노비들조차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b>평안도 놈</b>이라 일컫는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 권신들의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김조순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겨울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과 우박이 없는 해가 없으니, 이 때문에 큰 흉년이 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셀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세상을 건질 성인이 나타났으니 그분은 철기 10만의 군대를 거느리셨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할 뜻을 가지셨다. 이제 격문을 띄워 각 주, 군, 현의 수령에게 보내니, 절대로 동요치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만약 어리석게도 항거하는 자 있으면, 기마병의 발굽으로 무찔러 남기지 않으리니, 마땅히 명령을 따라 거행함이 좋으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패림』</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p>
---	---------------------------------------

## Ⅱ 임술농민봉기

<p>금번 <b>진주 양민</b>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b>우병사 백낙신</b>의 탐욕하고 <b>고약한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b> 그가 부임한 이래 한 짓은 법에 어긋나고 인정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신유년(1861) 겨울 (백낙신은) 병고의 돈 3,800여 냥으로 쌀 1,226석을 장만해 가지고 이를 병고 구폐미라 하여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 가서 가외로 매석에 5냥을 더 받아 모두 6,966냥을 만들어 본전은 넣고 나머지를 먹은 것이 3,166냥이며, ……</p> <p style="text-align: right;">『진주초군작변등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p>경상우도의 단성, 함양, 거창, 성주, 선산, 상주, 개령과 좌도의 울산, 군위, 비안, 안동 등 고을에서는 <b>무리를 지어 일어나 소동을 일으켰는데, 수령을 포위하고 조세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향리들을 쫓아내고 환곡 장부를 빼앗아 버렸다.</b>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가 하면 집을 부수고 재물을 훔쳐갔다.</p> <p style="text-align: right;">『진주초군작변등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p><b>임술년 2월 19일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b>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b>병사(백낙신)</b>가 해산 시키고자 하여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 위에서 그를 빙 둘러싸고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눈앞에서 여러 번 문책하였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고 분을 풀고자 병영으로 병사를 잡아 들어가서는 이방 김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곤장으로 수십 대 힘껏 때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불속에 던져 태워버렸다. …… 백성들은 이어 무리를 나누어 촌으로 나가 마동의 영장 정남성, 성부인, 청강 최진사 세 집을 모두 불태워 부수었다. 듣건대 이 세 사람은 경영이 긴요치 않은 원우에 백성을 절제 없이 부렸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임술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박규수의 상소문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난민들이 일어난 것은 삼정이 모두 문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번번이 탕감할 수는 없으며, 특별히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먼저 한 도에 시험하여 보고 전국에 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철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철종 13년 4월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관리의) 환곡 포탈을 조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문제로 장계를 올렸다. “금번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영에서 포탈된 환곡과 전세 6만 냥 모두를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을 인심이 들끓고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실로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직분을 더럽혀 변란을 일으키게 한 죄를 그냥 봐 넘길 수 없습니다. 조저에서 논의하여 처리 방안을 올리게 하소서. 『철종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 || 임술농민봉기 시 공주부 농민의 요구사항

1. 세미는 항상 7량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2. 각종 군포를 소민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3.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4. 군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거나 환곡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결렴(토지에 부과하여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방식)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5. 아전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할 것. 『용호한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정부의 삼정 대책

전세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전이 급선무이나 일이 아주 커서 급작스럽게 할 수가 없다. …… 군역법을 시행하면서 읍의 대소와 호의 다과를 헤아려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부담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군역이 많은 곳에서 덜어 내어 호수는 많으나 군역이 많지 않은 읍에 옮기도록 한다. …… 환곡의 폐단 중 백징의 문제가 가장 크니 백성의 어려움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명목만 남은 곡식을 모두 탕감하고 실제 수량에 따라 장부를 정리하라. 『일성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2. 사상의 새로운 동향

### || 정감록

금강산으로 옮겨온 산천의 기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뭉쳐져서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의 팔백 년 도읍할 땅이로다.	교과서 수록 천재
계룡산 밑에 도읍할 땅이 있으니, 정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복덕이 이씨에 미치지 못하리라. 다만, 밝은 임금과 의로운 임금이 계속하여 나고, 세상의 운수가 돌아오는 때를 당하여 크게 불교가 일어나고, 어진 정승과 지혜 있는 장수, 불사(佛土), 문인이 많아 왕국에 나서 한 시대의 예약을 빛나게 꾸미리니, 드물게 보는 일이로다. 드물게 보는 일이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황사영 백서

전선 수백 척과 정예 병사 5, 6만을 얻어서 대포 등 예리한 무기를 많이 싣고 우리나라 해변에 와서 국왕에게 글을 보내기를 “우리는 전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므로 선교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달라.”라고 해 주소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천주교 유입

서양서는 선조 말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저명한 관리와 학자들 중에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서양서 보기를 제자도불 같이 하여 서가에 두고 읽었다. 그러나 취한 것은 천문, 역법이었을 뿐이다. 여러 해 이래 사인들이 사신을 따라 연경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해 와 젊은 사람 중에 재기가 있는 자들이 천학지설을 주장하였다. 『벽위편』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천주교 비판

서양의 간특한 설이 언제부터 나왔으며 누구를 통해 전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며 윤리와 강상을 없애고 어지럽히는 것이 어찌 <b>진산의 권상연, 윤지충보다 더한 자가 있겠습니까</b> . 제사를 폐지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b>위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그 부모의 시신을 내버렸으니, 그 죄악을 따져 보자면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b> .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정조실록』

## || 이익의 천주교 비판

<b>‘천주실의’는 리마두(마테오 리치)가 펴낸 책이다. …… 그 학은 오로지 천주를 가장 높이는 것이다. 천주란 유가의 상제이니 천주를 공경하고, 섬기고, 두려워하며, 믿음은 불씨의 석가와 같다. …… 그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으로 먼 바닷길을 건너와 …… 중국의 학자와 고관들이 ……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선생이라 일컬어 감히 거스르지 않으니 역시 뛰어난 선비라 할 것이다. 그러나 <b>그가 축건지교(불교)를 물리침에는 열심이나 마침내 불교와 같이 허망에 돌아감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b>.</b>	교과서 수록 천재
--	--------------

『성호사설』

## || 제사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

<b>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b>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극한 효자라 할지라도 맛 좋은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드릴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써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겠습니까?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상재상서』

## || 천주교의 논리, 진산사건

천주를 부모로 삼았으므로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b>사대부 집안의 신주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주를 문었습니다.</b> 죽은 자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이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을 나라에서 엄히 금지하지 않고 가난한 선비가 제사를 올리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막는 예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니,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은 또 <b>제가 부모상을 당한 뒤에 문상을 금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b>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위문해 주었으니 감사하기에도 겨를이 없거늘 어찌 차마 거절한단 말입니까?	교과서 수록 비상
--	--------------

『정조실록』

## || 동학 창시

(1860년) 4월이라 초5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 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 신선의 말씀이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캐어 물어보았더니 한울님(상제)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한울님이라 하니 너는 한울님을 모르느냐.”라고 하였다. …… “너를 세간에 내어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b>“서도(西道)로써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까?”</b> 하니, <b>한울님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나에게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 나에게 이 부적을 받아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고, 나에게 이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면 너 또한 …… 덕을 천하에 펼 수 있으리라.”</b> 라고 하였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동경대전』

내가 또한 <b>동방에 태어나서 동방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니라.</b> 하물며 땅이 동과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 서쪽이 어찌 동쪽이 되고 동쪽이 어찌 서쪽이 될 수 있겠는가? …… 우리 도는 이 땅에서 받았으니 이 땅에서 먼저 퍼 나가면 자연히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니, 어찌 이것을 서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동경대전』

<b>최제우가 말하기를 “양인이 일본에 들어가 천주당을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또 천주당을 세웠다. 내가 마땅히 그들을 소멸하겠다.”</b> 라고 말하였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일성록』

## 동학의 제사에 대한 입장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고, 오류에 벗어나서 오로지 빨리 죽기만을 바라니 무슨 일인가. 부모 없는 혼령 혼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 천국으로 올라가 무엇할 것인가. 어리석은 소리 말았어라. 『용담유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동학의 사상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한울님을모시고 있으니 <b>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b> 『동경대전』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b>사람이 곧 하늘이라.</b>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눈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최시형의 최초 설법』	교과서 수록 비상, 금성
---	------------------

## 동학의 확산

새재에서 경주까지는 400여 리가 되는데, 그 사이 고을이 무려 10여 개다. 동학 이야기는 거의 하루도 안 듣는 날이 없으며, <b>경주 근처 읍들은 동학의 믿음이 더욱 심하여 동네의 아낙네나 산골의 어린아이도 그 주문을 외우지 않는 이가 없다.</b> 『비변사등록』	교과서 수록 비상
---	--------------

### CHAPTER

# 40

## 근대 정치 (2)

### 병자호란과 북벌론

#### 광해군의 중립외교

요즘 서쪽 변방의 보고를 보건대, 서쪽 변경의 장수와 군사들이 다 적을 격멸하려고 한다니 그들의 의리는 가상하나 먼 앞날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여기에 온 적을 쳐서 얼마간 이긴다 하더라도 달병 3만을 우리나라의 잔약한 군사로서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더군다나 한번 서로 싸우게 되면 광녕으로 향하던 적이 반드시 먼저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다. 옛사람들이 경솔히 행동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의 변화란 무궁한 것이니, 만일 적이 먼저 성을 공격하여 어지럽힌다면 어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b>정세를 살펴 잘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b> 『광해군일기』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광해군이) 전교하였다. <b>“적의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b> 고상한 말과 큰소리만으로 하늘을 덮을 듯 한 흉악한 적의 칼날을 막아 낼 수 있겠는가. <b>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와 마구 짓밟는 날에 이들을 담론으로써 막아 낼 수 있겠는가. 붓으로 무찌를 수 있겠는가.”</b> 『광해군일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군사를 파견하기를 청하였는데 …… 명나라 장수 교일기는 우리나라 군사 만여명을 독촉하여 <b>원수 강홍립 등을 거느리고 그 동쪽을 쳤다.</b> …… 한 오랑캐가 진 앞에 와서 연달아 통역관을 부르자, 강홍립이 곧 통역관 황연해를 시켜 나가서 응접하게 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느냐.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부득이한 것임을 너희 나라에서는 모르느냐.”라고 하니, 드디어 <b>적과 왕래하면서 강화를 의논하였다.</b> 『연려실기술』	교과서 수록 금성
--	--------------



국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1만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했다.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숙달하게 되었노라. 그러니 그대는 명군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광해군일기』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 온 것이 2백여 년이다. 의리로는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조께서 4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어 평생에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기미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장수를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였다.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해에 펼쳐지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의의 나라인 삼한이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치 못하였다. 어찌 그 통분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비상
--	------------------

## Ⅱ 최명길의 주화론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절대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지천집』	교과서 수록 미래엔 교학사
---	----------------------

정묘년 대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지천집』	교과서 수록 두산
--	--------------

최명길이 차자를 올려 하루아침에 오랑캐 기병이 달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척화론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의를 맺어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두 황제의 힘입니다. ……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야 있겠습니까.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두산
---	--------------

## Ⅱ 윤집의 척화론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정온의 척화론

부제학 정온이 상소하여 적의 사신을 목 베고 결전을 준비할 것을 아뢰다. 『연려실기술』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김상헌의 척화론

김상헌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외교문서에 답서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군신 상하가 마음을 굳게 정하여 동요됨이 없이 한 뜻으로 싸우고 지키는 데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효종의 복별론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할 날이 있다. …… 여러 신하들이 내가 군대의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천시와 인사에 언제 좋은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예 포병 10만을 양성하여 자식같이 아껴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만들고자 한다. 그 후에 저들에 틈이 있기를 기다려 불시에 <b>중국으로 쳐들어가면 중원의 의사와 호걸이 어찌 호응하지 않겠는가?</b> 『송서습유』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윤휴의 복별론

병자, 정축의 일로 말하면 하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금수에게 치욕을 당한 것이었는데, 그때 인조 대왕께서는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위해 한번 죽고 싶은 것도 참고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 임진년의 왜란으로 팔도 백성들이 도마 위의 고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명 신중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출하여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 <b>우리나라는 정예한 병력과 화포가 있으니 군대를 더 선발하고 무기를 갖춘 후 노련한 장수를 임명하여 북으로 연경을 향해 진군하면 그들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b> 『갑인봉사소』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송시열의 복별론

명태조는 우리 태조와 더불어 동시에 창업하여 '군신의 의'와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와 충정의 절개를 정하여 거의 300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는 실로 명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b>우리나라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b> 와 백성의 <b>터럭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는 바 아님이 없습니다.</b> 그런즉 오늘날에 있어 원통, 분통하는 자가 천하를 들어도 누가 우리만 하겠습니까? 『송자대전』	교과서 수록 비상, 교학사
--	-------------------

## || 복별론 비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 나라 안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변발하고 호복을 입혀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호란의 치욕)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 <b>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땀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b> 『허생전』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소현세자의 편지

어제 귀하에게서 받은 천주상, 천구의, 천문서 및 기타 양학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기쁘기 짝이 없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러한 것들은 본국에서는 완전히 암흑이라 해야 할 정도로 모르고 있는데, 지식의 빛이 될 것입니다. …… <b>제가 고국에 돌아가면 궁궐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출판하여 학자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b> 그리하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나라가 학문의 전당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우리 백성은 서양에서 배운 과학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담 살의 회고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양 난 이후의 대외관계

### || 백두산 정계비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국경을 답사하면서 여기에 와서 살펴보니, <b>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 || 조선 후기 통신사 기록

(일본의) 관사에 도착하자, 관원은 물론 심부름하는 일본인과 승려들이 종이와 베틀, 먹을 가지고 와서 <b>날마다 글과 글씨를 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붓을 휘둘러 써 주느라 고역을 치러야 했다.</b> 『동사일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CHAPTER

## 41

## 근태 경제 (1)

## 1. 수취 제도의 개편

## Ⅱ 수취 체제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

<p>- 영조 대 박문수의 의견  <u>영염대장 박문수</u>가 대답하기를“(이번 개혁은 전세 제도의) 폐단을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그것을 봉행하는 것은 오로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u>마땅한 수령을 얻는다면 거의 조금이라도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u>”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영조실록』</p>	
<p>- 영조의 의견          (영조가) 하교하기를 “..... 아! 내가 비록 덕이 박할지라도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정사를 조금 아는데, (경차관들이) 경솔하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것을) 어찌 참 은혜라고 하겠는가. (세금 제도가) 비록 고르다 하더라도 여러 고을은 오직 수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팔도에 분부하여 <u>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u>”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영조실록』</p>	교과서 수록 교학사
<p>- 지방 수령의 임무          해당 고을의 수령들에게 분부하여 ..... <u>여러 조항(세금 문제)을 익히 상량하여 하나하나 강구하게 하여 ..... 누적된 폐단을 죄다 제거함으로써</u>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천지 같은 은덕을 입게 한다면, 번거롭게 다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선왕의 정사와 제대로 합치될 것이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p> <p style="text-align: right;">『정조실록』</p>	

## Ⅱ 영정법의 제정 배경

<p><u>국가의 토지는 여섯 등급으로 나누는 법(전분 6등법)이 있고, 세를 거둘 때에는 아홉 등급의 제도가 있다.</u> ..... 그런데 토지의 등급을 나누고 세를 내게 할 대 모두 하하를 따른다. 중상의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되풀이하여 답습하다 보니 <u>마침내 일상적이 규정이 되어 버렸다.</u></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방납의 폐단

<p><u>방납의 폐단이</u> 나날이 심해집니다. ....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방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u>방납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 자기가 낸 물건 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선조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

## Ⅱ 대동법 실시 건의

<p>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한 물건의 값이 3, 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로 1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로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되, <u>토지 1결마다 두 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게 하고 본청은 그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 방납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구입해서 납부하게 하소서.</u></p> <p style="text-align: right;">『광해군일기』</p>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	-------------------

## || 김육의 대동법 확대 건의

<p>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에 두루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b>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호남과 호서 지방에서 시행하면</b>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b>삼남에는 부호가 많은 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b>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동법을 시행하면 대호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이 원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원망이 더 큰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소민의 원망이 큼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p> <p>『효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p>
---	---------------------------

## || 대동법에 대한 토호의 반응

<p>강원도에는 <b>대동법을 싫어하는</b> 자가 없는데 충청, 전라도에는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나,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전라도에는 싫어하는 자가 많은데, 이는 토호가 많은 까닭입니다.</b> 이렇게 볼 때 단지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을 보고 기뻐합니다.</p> <p>『포저집』</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p>
--	--------------------------

## || 대동법 반대론

<p>지방에서 온 사람이 “백성이 모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먼 지방은 경기와 달리 부자들이 가진 땅이 많습니다. <b>10결을 소유한 자는 10석을 내고 20결을 소유한 자는 20석을 내야 합니다.</b> 이렇게 하면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여길 것은 당연합니다. …… <b>대가와 거족이 불편하게 여기며 원망을 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b></p> <p>『인조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대동법 찬성론

<p>부자는 전결이 많으므로 내야 할 양도 많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b>그럭저럭 납부해 온 것을 왜 못 내겠습니까?</b></p> <p>『포저집』</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균역법의 실시

<p><b>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하니</b>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이 있어도 모두 균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b>한 사람의 신포 값이 4, 5냥이니 한 집안의 4, 5명에 모두 소용되는 비용은 20여 냥이나 됩니다.</b> 이들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가진 땅도 없어 모두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아도 10석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마저 절반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하니, 그 나머지로 어떻게 20여 냥이나 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질을 하여도 그것을 마련할 수 없어 마침내는 죽지 않으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거나 죽은 자의 몫을 채울 수 없으니, 이에 <b>백골징포, 황구침정의 폐단이 생겨나고, 일족과 이웃에게 거두게 되니 죄수가 옥에 가득하게 되고 원통하여 울부짖으니 화기를 상하게 합니다.</b></p> <p>『영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p>
--	---------------------------

<p><b>황해도 병영은 포를 2필씩 거두는데, 감영은 1필을 거둔다.</b> 그래서 감영군은 서로 다투어 들어오려고 하고, 병영군은 모두 싫어해 달아나려 한다.</p> <p>『비변사등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p>균액은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아문을 설치하여 갖가지로 색출하여 빠지는 대로 채워 넣어 양민이 모두 없어졌으며, <b>어미젖을 떼자마자 군졸로 편입됩니다.</b> 이에 올해는 전지를 팔고 <b>내년에는 집을 팔고 있으며, 이웃과 친족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어 다른 백성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습니다.</b></p> <p>『현종개수실록』</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p>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양역의 변동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왕이 말하였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호포가 조금 나올 것 같아 1필을 줄이고 호전을 걷기로 하였으나 마음은 매우 불편하다. …… 호포나 결포나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b>결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b>”</p> <p>『영조실록』</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II 결포론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

<p>구전(口錢: 군포 대신 성인에게 돈을 징수)은 한집안에서 거두는 것이니, 이를 거두면 주인과 노비의 구분이 <b>문란해진다.</b> 토지에는 이미 많은 세금이 매겨져 있어 더 부담시키기 어렵다. 호구를 기준으로 거두는 것이나 토지를 기준으로 거두는 것은 모두 문제가 있다.</p> <p>『영조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p>
---	---------------------------

## II 선무군관의 불만

<p>영조 27년 4월 28일 을미 충청도 관찰사 이익보가 상서하다. “<b>선무군관은</b> 국가의 법령에 따라 뽑아 정원을 채우고 이들에게 <b>과거 응시를 허락하여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b> 이들은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니며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며 농사짓는 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대부의 의관을 모방하여 군역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지금 <b>군관이라는 명칭을 주어 군포를 거두니 일반 정군이나 보인과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b> 반드시 모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p> <p>『영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CHAPTER

# 42

## 근대 경제 (2)

### 1. 농촌 경제의 변화와 산업의 발달

#### II 이양법

<p><b>이양</b>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b>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b>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르는 것이 둘째요, 좋지 않은 것은 쉼아 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이다. 어떤 사람은 <b>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니 이를 위험하다고</b> 하나 그렇지 않다. 벼를 심는 논은 반드시 하천이 있어 물을 끌어 들일 수가 있으며, 하천이 없다면 논이 아니다. <b>논이 아니더라도 가뭄을 우려하는데 어찌 이양만 그렇다고 하는가?</b></p> <p>『임원경제지』</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p>
---	---------------------------

<p>여라디야 저라디야 상사로세 이 농사 어서 지어/ 나라님 봉양을 하고 보세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온다 이 <b>배미</b> 저 <b>배미(논)</b> 다 심었으니/ 장구 배미로 넘어가세 다 되었네 다 되었네/ 상사 소리가 다 되었네</p> <p>『진도 지산 농요』</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p>금령에도 불구하고 <b>농민들은 이익을 위해 모내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가뭄이 들면 그만 농사를 망치게 되니 안타깝습니다.</b>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 도에 엄히 타일러 경계해야 합니다.</p> <p>『정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부유한 백성은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적게는 3,4석씩 <b>많게는 6,7석씩 모를 한 꺼번에 붓고 모내기를 하여 노동력을 절약하고 수고를 덜고 있습니다.</b>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여 농사를 짓는다. <b>모내기법은 직접 논에 벼를 심는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5분의 4나 절약이 된다.</b> 따라서 집안에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은 사람들은 경작을 거의 무한으로 할 수 있다. 『성호사설』	교과서 수록 비상
직파는 가뭄을 당해도 한번 비가 오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지만, 모내기는 비를 기다리다가 조금만 가뭄을 만나도 <b>속수무책으로 농사지을 때를 놓친다.</b> 『비변사등록』	교과서 수록 비상
이른바 모내기의 이로우미라는 것은 봄보리를 갈아 먹고 물을 몰아 모내기를 하여 벼를 수확하니 1년에 두 번 농사지음이 그것이다. 『석천유집』	교과서 수록 비상

## II 상품 작물 재배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9곡(곡물)만이 아니다. <b>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b> 한성 내외의 읍과 도회지 주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는 10무(4두락)의 밭에서 수만 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서도 지방 담배, 한산 모시, 전주 생강, 강진 고구마, 황주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의 논에서 나는 수확의 10배에 이른다. 『경세유표』	교과서 수록 미래엔, 천재리베르, 두산금성
<b>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밭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b> 이곳들은 부유한 이들이 이익을 얻는 원천이다. 『택리지』	교과서 수록 교학사

## II 장인 등록제 폐지

사설시, 전함사 등 여러 관청이 지금은 없어졌고, 내자시, 내설시, 사도시 등 관청은 소속 장인이 없어졌다. …… <b>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은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b> 『대전통편』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II 선대제

3월에 삼씨 뿌려 7월에 삼을 찌서/ 닻새 동안 실 잇고 이어 열흘 동안 씻고 씻어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베 짜냈더니/ 잠자리 날개 같아 한 줌 안에 담뱃 들 듯 <b>아깝게도 저 모시,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b> 베값이라 받은 돈은 관청 빚에 다 털렸는데 베 짜는 저 아가씨, 언제 보나 석새삼베/ 그나마 너무 짧은 정강이도 채 못 가리누나 『이계집』	교과서 수록 비상
---	--------------

## II 광산의 민영화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b>은점 설치를 허가</b> 해 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이 점민이 되어 그곳에 모여 살며, <b>은을 캐서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는 대로 물주에게 돌릴 것이니 공사 간에 유익한 일입니다.</b> 『경제야언』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우리나라는 물력(物力)이 부족하고 요역이 매우 무거운데, 매번 나라에서 채굴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b>은광 채굴을 담당하는 관리로 하여금 은혈을 찾아서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락해 주고 세를 바치게 하되, 많고 적음을 적당하게 헤아려 수량을 정한다면 나라의 힘을 허비하지 아니하여도 세입이 절로 많게 될 것입니다.</b> 『증보문헌비고』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민영 광산의 발달

<p>억조창생 모여들어 수천가에 잠겼으니/ 조석연기 창천하니 현운무가 자욱하네 계명성이 자로나니 별유천지 여기로다/ 성영주(제련업주)와 <b>혈주(채광업주)</b>들은 동서남북 몰려들어 편수(제련 노동자) 별패(풍구질꾼) 연군(채굴 노동자) 들은 벌 데같이 날아들어/ 백호동에 혈을 파고 개암같이 출입할 제</p> <p>『동점별곡』</p>	<p>교과서 수록 비상</p>
<p>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b>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b>이 있었다. 두 곳은 금맥이 다하였고, 세 곳만 금맥이 풍성하였다. 금년(1798) 여름 새로이 39개소의 금혈을 팅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비단 도내의 무뢰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이익을 쫓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 그리하여 <b>금점 앞에는 700여 채의 초막이 세워졌고 광꾼과 그 가족, 좌고, 행상, 객주 등 1,500</b> <b>여 명에 이른다.</b></p> <p>『비변사등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금성</p>

## || 광산 개발의 부작용

<p>전 평안 감사 이성원이 아뢰기를 “<b>청천강 이남과 청천강 이북의 각 고을은 곳곳에서 금을 캐는데 심하면 남의 산을 침범하고 남의 밭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백성들도 태반이 금광에 몰려드니</b> 평안도 농사가 근년에 잘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각별히 금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가 답을 내리기를 “…… 요즈음 들으면 여러 도에서 혹 중앙 기관의 관문을 얻어 광산을 열려고 하 는 일이 많다하니, 또한 마찬가지로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p> <p>『정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교학사</p>
--	-------------------------------

## 2.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 서울의 상업 발달

<p><b>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b> 온갖 수공업자가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은 분주한데 수많은 화물이 값을 다투며 수레가 줄을 이었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마포와 한산의 모시 쌀, 콩, 기장, 조, 피, 보리 …… 소에 실은 나무를 사려고 고삐를 끌기도 하고 말 이빨을 보고 나이를 알려는 사람은 허리에 채찍을 쫓고 있으며 눈을 깜빡이며 말 중개인을 부르는 사람도 있네.</p> <p>『한양성시전도가』</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p>
--	---------------------------

### || 도고

<p>광주 삼전도의 부호 손도강은 경강 근처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양주와 광주의 부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천만 금을 마련하였다. 한편으로는 원산의 생산지에서 <b>모든 배를 도고하여 쌓아 두면서 조종하였고,</b> 다른 한편으로는 양주, 포천 등지에서 기다리다가 북어상들로부터 북어를 사서 모아 마음대로 팔고 있다.</p> <p>『각전기사』</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p>요즈음 모리배들이 각각 물화를 차지하여 서로 <b>도고</b>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점차 올라 서울 사람들은 굶 주림을 면치 못하고, 시장 상인들은 생업을 잃을 뿐 아니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 는 현상이 고질화되어 그 폐를 이루 말하기 어렵다. …… <b>서울 안팎의 부유한 자들이 곡식을 쌓아두고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하니, 백성은 풍년에도 굶주림을 면할 수가 없다.</b></p> <p>『비변사등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포구 상업

우리나라는 동서남의 3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b>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 충청도 은진의 강경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바닷가 사람과 내륙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서로 물건을 교환한다.</b> 매년 봄, 여름에 ……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택리지』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 || 통공정책

원래 <b>금난전법은 국역을 지는 육의전이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b> 그러나 근래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상 생활용품을 독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로 운반하는 상품에서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상품에 이르기까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싼 값으로 억지로 사려고 합니다. …… 20-30년 이내에 설립된 작은 시전을 해체하고, <b>육의전 이외의 시전에는 금난전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b>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금성
--	--------------

<b>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시전을 모두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육의전 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b>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자는 벌주도록 해야 한다. 『비변사등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우리나라의 <b>난전을 금하는 법은 오로지 육의전이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b> …… 이에 제각기 가게를 벌여 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는데, 평민들이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은 그 가게를 버리고서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값이 나날이 올라 물건 값이 비싸기가 신이 젊었을 때에 비해 3배 또는 5배나 됩니다.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신해통공에 대한 채제공의 평가

제가 장단 적소에 있을 때 <b>면포 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통공발매(신해통공)의 효과라 하였습니다.</b> 작년 겨울 서울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귀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허생전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b>밤, 대추, 감, 배, 굴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b>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사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b>따라서 과일 값은 크게 폭등하였다.</b>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b>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b>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 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 냥에 이르는 큰돈을 벌었다. 『연암집』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 금성
---	------------------------------------

## || 상평통보의 주조

돈은 천하에 통행하는 재화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누차 행하려고 하였으나 행할 수 없었다. 동전이 토산이 아닌데다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막히고 방해되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 <b>허적과 권대운 등이 시행하기를 청하였다.</b>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b>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b> 왕이 그대로 해당 관청에 명하여 <b>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돈 400문을 은 1냥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b> 『숙종실록』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	-------------------

## || 대외 무역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 <b>부유한 상인이나 큰 장사꾼이 되면 한 곳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데,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청의 연경과 통한다.</b> 몇 년 동안 천하의 물자를 실어다 팔아서 <b>혹 수백만금의 재물을 모은 자</b> 도 있다. 이런 자는 <b>한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은 개성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양과 안주에 있다.</b> 모두 중국 연경과 통하는 길목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이는 배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택리지』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Ⅱ 대청 무역

경원에서 열리는 <b>교역 모습</b> 을 보니 사람과 가축이 바글바글하고 사방에서 다투고 흥정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장시와 다름이 없다.	『북막일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시장에서 거래되는 <b>소 한 마리 가격은 담비 가죽 100장이나 모자 80개에 이르니 우리 측 이익이 몇 배에 달합니다.</b> 또 백미 서너 되와 백동(白銅) 담뱃대를 바꾸니 이익이 열배나 됩니다. 그래도 저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니 <b>추운 지방이라 곡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b> …… 거래할 때에 조선 상인들과 청 상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청 상인들이 얻어맞기도 하는데 크게 다쳐도 감히 고소하지 못합니다.	『북관기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후시

우의정 이복원이 말하기를, “신이 돌아오다 강을 건너 다음에 여러 역관들이 말한 것을 듣고서는 시험 삼아 일 행 중의 역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의주부의 사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소위 <b>후시</b> 는 비록 옛적부터의 법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거행해 온 지가 또한 이미 여러 해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혁파한다면 피차의 사세에 있어서 다소의 장애가 있을 겁니다. <b>준엄하게 의주부에 말하여 외람한 짓을 금단하고 정식 수량 이외에는 불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게 한다면,</b> …… 의주부의 백성들과 송도의 상고들도 또한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Ⅱ 책문 후시

숙종 26년 (청국) 예부에 청하여 <b>중강 후시를 혁파하였으나, 책문 후시는 지금도 행한다.</b> …… 사행이 <b>책문(만주 봉황성 국경 마을)을 출입할</b> 때는 의주 상인과 개성 상인 등이 <b>인삼을 몰래</b> 가지고 인부나 마필 속에 숨겨 물건을 <b>팔고 이익을 꾀하였다.</b> 되돌아올 때는 걸음을 일부러 늦추어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라 한다.	『만기요람』	교과서 수록 천재
---	--------	--------------

## Ⅱ 대일 무역

호조판서 김상성이 아뢰기를, “전에는 품질 좋은 강계삼의 가격이 2냥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값이 아주 뛰 어 아주 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 사대부와 서민은 물론 의원이라도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해도 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 근래 강계에 몰래 들어가 <b>삼을 사들이는 상인들은 동래 왜관에서 매매하기 위한 것입니다.</b>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처벌하는 법은 <b>속대전</b> 에 실려 있으니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비변사등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Ⅱ 중계무역

일본이 이전에는 나가사키에서 (중국) 남경과 무역하였으나 지금은 청국이 무역을 금하였다. 그리하여 <b>조선이 청에서 사들인 백사는 모두 왜관에서 거래되었다.</b> …… 북경에서 은 60냥으로 백사 100근을 구입해서 왜관에 가면 백사 100근의 가격은 은 160냥이 되었다.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 Ⅱ 중계무역의 변화

처음 <b>왜관에서 개시를</b> 허락하였을 때에는 중국의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동래부에서 왜인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자못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왜인들이 장기도에서 출발하여 중국 남경과 직접 거래하니 <b>왜관 개시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b>	『연려실기술』	교과서 수록 지학사
동지사 부사 정준일이 아뢰기를, “청에서 사용할 은이 해마다 늘어 6, 7천금인데 가져간 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왜에서 들어오는 은이 극도로 줄어들고 은광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신분제의 변동

### Ⅱ 신분제 동요

<p>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b>상민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b>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p> <p>『일성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 Ⅱ 공명첩

<p>공명첩을 단속치 않은 전 총융사 이방일을 파직하였다. (이보다 앞서) 병조판서 서유방이 아뢰기를 <b>“지난번에 들으니 북한산성을 쌓을 때에 조정에서 공명첩을 떼어 주었는데, 각 군문의 교련관들이 많은 수가 이를 사들여 옥관자를 달고 다녔습니다.</b> 그들의 의도는 대체로 이를 인연으로 양반이 하는 벼슬을 노려보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병조에서 그 첩지를 거두어 불살라버렸습니다. 각 영문의 대장들이 이를 살피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추고하소서.”라고 하였다.</p> <p>『정조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p><b>공명첩을 전국에 내려 보내 곡식을 사서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b> 이때 해마다 큰 흉년이 들어 저장된 곡식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p> <p>『영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이때(임진왜란) <b>적을 목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고신이나 면천, 면역의 첩을 주었다.</b> 병사를 모집하고 납속을 모집하는 담당 관리가 이 첩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갈 때 <b>이름 쓰는 데만 비워 두었다가</b> 응모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써서 주었다.</p> <p>『선조실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p>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b>장계로 진곡 6만 석과 공명첩 1천 장을 떼어 보내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b> 이어 수령들이 부자들에게서 억지로 빼앗고는 자기가 마련한 것처럼 하는 폐단을 단속하고, 백성들 가운데 재산을 내놓고 나눠 갖도록 권유하는 자는 상을 내린 뒤 등용하라고 하였다.</p> <p>『정조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p>비국에서 아뢰기를, <b>“본도에서 청구한 공명첩 5백 장을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b>하니 <b>윤허하였다.</b></p> <p>『현종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p>“(예조의 보고를 보니) 대구 동화사는 수릉에서 쓰는 향과 탄 및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절인데, 두 번이나 화재를 당하여 모조리 타버렸으므로 <b>공명첩 1,000장을 한하여 내려 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b> 이 절은 신라 때 지은 유명한 절일뿐만 아니라 또 향과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것도 중요하니, 조정에서 마땅히 특례로 곡진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b>공명첩 500장을 만들어 주시어 수리하여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하니 <b>윤허하였다.</b></p> <p>『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몰락 양반 : 양반전

<p>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 하지만 <b>몹시 가난하여 환곡을 타 먹은 지 여러 해가 되어 천 섬의 빚을 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b> …… 그의 아내가 비난하였다. “평생 독서만 좋아했으나 현청의 환곡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양반이란 한 푼 어치도 못된다오.” …… 때마침 그 동네에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들과 상의하였다. “양반이 가난하여도 언제나 존경받고 영광스럽다. 나는 비록 부자이지만 늘 비천하여 감히 말을 탈 수 없고, 양반을 보기만 하면 몸을 구부려 어찌할 줄을 모른다. …… <b>이제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사서 가지도록 하자.</b>”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양반전』</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교학사</p>
---	-----------------------------------

## || 서얼 허통 운동

<p>1769년 <b>이수득이 상소를 올려 서얼허통을 청하였다.</b> “옛날에는 융성한 예와 폐백으로 이웃 나라 선비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b>지금은 법으로 나라 안 인재를 묶었습니다.</b> 그런데도 이들이 등용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b>세족, 명가의 서얼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묶여 있습니다.</b> 인재를 버리고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규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p>황경헌 등 하삼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아뢰다. “작위의 높고 낮음은 조정에서만 써야 할 것이고 <b>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한 집안에서만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b> …… 공사천 신분이었다가 면천된 이들은 벼슬을 받기도 하고 아전이었다가 관직을 받은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데 <b>저희들은 한번 낮아진 신분이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져 영구히 서족이 되어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임에도 그저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정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홍길동전

<p>“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타고나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b>평생 서럽기를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b> 상하노복이 다 천하게 보고, 친척 고두도 손으로 가리키며 아무개의 천한 소생이라 이르오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b>길동이</b> 대성통곡하니, 대감이 마음에 측은하게 여기시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하면 조금이라도 방자할까 하여 꾸짖어 말하였다. “재상의 천비소생이 너뿐만이 아니다. 자못 방자한 마음을 두지 말라. 이후에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눈앞에 용납하지 않으리라.”하시니 길동은 한갓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기술직 종인의 통청 운동

<p>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종인, 서얼의 벼슬길이 막힌 일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원통하고 답답함을 품은 지 이에 몇 백 년이 되었다. <b>서족은 다행히 조정의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한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용되고 있는데, 우리들 중인 홀로 함께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b> 이제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통문을 발하오니 이달 29일 마동에 있는 홍현보의 집에 모여 상의하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상원과방』</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 || 노비 종모법

<p>판부사 송시열이 아뢰었다. “이경역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b>공사노비가 양인 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녀는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청했습니다.</b> 이는 일찍이 이이가 주장한 것인데, 당시 조정에서 막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민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right;">『현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상민층의 신분 상승

<p>정조 10년 1월 정묘,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 돈 많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한다. 간사한 아전, 임장(호적 담당 임시직)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b>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b></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비상</p>
--	---------------------------------------

『일성록』

## || 한양 나들이길이 된 과거

<p>나라의 경사로 과거 시험을 <b>한양에서 시행하였다.</b> 3개 과장에서 열린 문과의 응시자는 <b>모두 111,838명</b>이었 는데 거두어들이는 시원은 38,614장이었다. 무과도 3곳에서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모두 35,891명이 응시하였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정조실록』

## || 균분 상속

<p>무릇 자손에게 유서나 훈계하는 글을 남기는 것, 노비와 전택을 나누는 것은 모두 한집을 다스리는 것이다. ..... 어찌 <b>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외손과 친손을 구별하겠는가. 조부모, 부모의 마음으로 이를 보면 본래 내외의 구별도 없다.</b></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성종실록』

## || 여성의 재가 금지

<p>세상의 도덕이 날로 나빠진 뒤로부터 여자의 덕이 정숙하지 못하여 사족의 딸이 예의를 생각지 아니해서 혹은 부모 때문에 절개를 잃고 혹은 자진해서 재가하니, 한갓 자기의 가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성현의 가르침에 누를 끼친다. .... <b>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라.</b></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성종실록』

## || 재산 상속

<p>우리 집안은 일찍이 제사의 기본방침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따르게 하였다. 정으로 본다면 아들과 딸은 차이가 없으나 <b>딸은 부모 봉양과 제사가 없으니 어찌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딸은 삼분지 일만 주어도 되니</b> .....</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부안김씨우반고문서』



## CHAPTER

## 44

## 근태 사회 (2)

## || 향회의 변질

향회라는 것이 한마을 사족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아래 놀아나는 좌수, 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질암유고』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매향(향임직 매매)

매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향임이나 군임, 면임에 임명하는가 하면, 향안, 교안에 올려 줍니다. 여기에 응하는 자는 모두 국가의 군역을 진 상민입니다. …… 한번 향임이나 군임을 지낸 자나 향안, 교안에 오른 자는 대개 군역과 요역에서 벗어납니다. 군정이 부족하면 중첩되게 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요역이 고르지 못하면 한쪽만 치우치게 고통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금성

## || 사회 변화

근년 이래도 평안도의 풍습과 세속이 점점 변하여 궁술과 마술을 숭상하지 않고 유자를 자칭하면서 마을마다 서당이 서게 되었고, 각 고을마다 사우를 함부로 세워 폐단이 되고 있다. 향교의 교생도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많은 장정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 군역을 피하고 있으나 수령들이 불문에 부치고 있다. 기강의 해이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각별히 금단하라.

『정조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향전

지방 고을의 향전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동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이서 가운데 한쪽으로 쏠리는 자가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의 우두머리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옳다.

『거관대요』

교과서 수록  
천재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며, 이른바 신향은 모두 서리와 품관의 자손으로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근래 신향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향과 마찰을 빚었다. 주자의 영정이 비에 손상되자 신향배들은 구향이 죄를 물을까 걱정하여, 남인에게 죄를 전가할 계획을 세우고는 주자와 송시열의 초상을 숨기고, “남인이 송시열의 영정을 봉안하는 것을 꺼려 야음을 틈타 영정을 훔쳐 갔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교파와 약파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서로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해 갔다. 드디어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졌다.

『목민심서』

교과서 수록  
비상, 두산

CHAPTER  
45

근대 문화 (1)

사회 개혁론의 대두와 문화의 새 기운

1. 성리학의 발달과 실학의 발달

Ⅱ 윤휴의 사상

윤휴는 주자에 반대하고 거슬려서 경전의 체제와 문장을 마구 뜯어 고쳤으며, "중용"에 대해서는 주자가 붙인 주석을 더욱 많이 고쳤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자사의 뜻을 주자가 혼자 알았는데, 내가 혼자 모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사문난적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속종실록』

Ⅱ 유형원의 균전론

토지 경영이 바로잡히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백성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군사 행정에는 도피자를 찾는 폐단이 없어지며, 귀천상하가 모두 자기 직책을 갖게 될 것이므로 민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도타워질 것이다. …… 농부 한 사람이 토지 1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 4경마다 군인 1인을 낸다. 사대부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을 받는다. 내사에 들어간 사람은 4경을 받고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 …… 토지를 받은 자가 죽으면 반납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반계수록』

Ⅱ 유형원

오늘날에 부족한 것은 강론이 충분하지 못한 데 있지 않고, 오직 강론만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 최근 호남의 선비 유형원은 바로 그것을 잘 강구하였습니다. ……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그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 책(반계수록)을 가져다 바치게 하여 전하께서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곧 전국에 나누어 반포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영조실록』

Ⅱ 이익의 여섯 가지 좀

나라를 어지럽히는 폐단이 여섯 가지인데 첫째가 노비 제도요, 둘째가 과거 제도이며, 셋째가 벌열이고, 넷째가 광대나 무당 따위이며, 다섯째는 승려요, 여섯째는 게으른 무리들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성호사설』

Ⅱ 이익의 한전론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보자라는 자도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000결이라도 허락해 준다. ……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 두산 교학사
--	------------------------------------

『곽우록』

Ⅱ 정약용의 정치사상

생각하건대,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폐단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경세유표』



대체 천자는 어찌하여 있게 되었는가? ..... 다섯 가가 하나의 인이 되는데, 다섯 가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인장이 될 것이며, 다섯 인이 일 리가 되는데 다섯 인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이장이 될 것이며, ..... 여러 현 우두머리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제후가 될 것이며, 제후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천자가 될 것이므로, <b>천자란 무릇 군중이 밀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무릇 군중이 밀어서 이룬 것이라면 또한 군중이 밀지 아니하면 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b> 『탕론』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가옥이나 상점에 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공업과 광업, 임업과 어업에 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오로지 농민에게만 세를 부과한다. 이에 일하는 농민의 수는 줄어들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래서야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 토지 10결 가운데 1결은 공전으로 삼고 농민이 경작하게 하며 이외의 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b>군포의 법을 없애고 모든 재원에 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백성의 역을 고르게 해야 한다.</b> 『경세유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정약용의 기예론

하늘이 날짐승과 길짐승에게는 발톱과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과 예리한 이빨을 주고 여러 가지 독을 주어서, 각각 저하고 싶은 것을 얻게 하고, 염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였는데, 사람에게에는 벌거숭이로 유약하여 제 생명도 구하지 못할 듯이 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천하게 해야 할 금수에게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하여야 할 인간에게는 박하게 하였겠는가. <b>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궁리가 있으므로 기예를 익혀서 제 힘으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이다.</b> 『여유당전서』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II 정약용의 여전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b>여전제</b> 를 실시해야 한다. .... 무엇을 여전이라 하는가. 산골짜기와 하천의 형세를 가지고 경계를 그어 만들고는, 그 경계 안을 '여'라 이름한다. <b>1여에는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토지는 여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별을 없게 하며, 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b>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여유당전서』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 금성 교학사
---	------------------------------------

## II 홍대용의 역외 춘추론

공자는 주 사람이다. 주 왕실의 권위가 날로 떨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오나라나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하고 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춘추는 주의 역사책이니, 공자의 입장에서 주를 높이고, 오와 초를 물리치기를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공자가 바다를 건너 구이의 땅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구이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의 도를 역외에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b>안과 밖의 구별과 높이고 물리치는 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역외 춘추가 있었을 것이다.</b> 이것이 공자가 성인이 된 까닭이다. 『의산문답』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홍대용의 세계관

중국은 서양과 180도 경도 차이가 있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b>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b>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다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b>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b> 『의산문답』	교과서 수록 금성
--	--------------

<b>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b> .... 하물며 천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 .... 칠정이 수레바퀴처럼 자전함과 동시에 맷돌을 돌리는 나귀처럼 둘러싸고 있다. 지구에서 가까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해와 달이라 하고, 지구에서 멀어 작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오성이라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다. 『담헌서』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유수원의 상공업 중시

<p>지금 양반이 명분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은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 상공업을 두고 천한 직업이라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간 없고 덕망이 없어 관직에 나갈 수 없음을 안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역에 종사하면서 남에게서 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사는 것이다.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우서』</p>	<p>교과서 수록 두산, 교학사</p>
---	---------------------------

## || 박제가의 소비진흥론

<p>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때문이다. <u>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북학의』</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재물은 대체로 셈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북학의』</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두산, 금성 교학사</p>
--	--

## || 박제가의 북학론

<p>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백 년이 지났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 버린다면 크게 옳지 않다. <u>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취할 것이다.</u> …… 명을 위해 원수를 갚아 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20년 동안 힘껏 중국을 배운 다음, 함께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북학의』</p>	<p>교과서 수록 비상, 교학사</p>
--	---------------------------

## || 박지원의 북학론 : 북학의의 서문을 박지원이 씀

<p>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 만일 배우려 한다면 중국을 두고 어디에 묻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오랑캐들이다.”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꺼려하며, 중국의 옛 법마저 다 함께 얹잡아 무시해 버린다. ……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그럼에도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 <u>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u></p> <p style="text-align: right;">『북학의』</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박지원의 북학론 : 열하일기

<p>이제 사람들이 <u>진실로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중화의 제도를 모조리 배워야 한다.</u>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문화를 고쳐서 발갈이부터 공업과 상업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않음이 없어야 하고, 남이 열을 한다면 우리는 백을 하여 먼저 우리 인민들에게 이롭게 한 다음에 …… 비로소 ‘중국에는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열하일기』</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CHAPTER

## 46

## 근대 문화 (2)

## || 이수광의 역사 연구

동방의 땅은 수천 리에 지나지 않으나, **삼국 이전에는 50개의 나라가 있었으니** 무엇 때문이겠는가. 대저 중국은 땅이 커서 상고 시대에는 사방 백 리 정도의 땅을 가진 나라가 많았고, 주 때에도 1천8백의 나라가 있었다. 동방의 삼국 이전은 상고 시대에 해당하니 50개의 나라가 있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지봉유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이금익의 글쓰기 방법

각 항목마다 인용한 책을 밝혔으며, **축약하기는 하였으나 내 의견을 붙여 논평하지는 않았다.** 동서 당파가 나뉘는 후로 이쪽저쪽의 기록에 혈뜬고 칭찬한 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 한쪽에만 치우치게 편찬한 경우도 많았다. 나는 모두 그대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각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도록 맡겼다. 『연력실기술』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유희의 한글 연구

한자의 음으로 다른 한자음을 표현하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데 한글을 가지고 음을 기록하면 바르게 전해지니 올바른 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한문은 간결하게 뜻을 전하는 것을 중시하니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우나 **한글은 뜻을 그대로 전하여 조금도 의심하는 곳이 없으니** 부녀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언문지』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마테오 리치와 곤여만국전도

비유해 말하자면 역의 수를 헤아려 천체가 운행하는 모양을 살펴보는 일 중에, 중국에는 본래 주비(옛날 산술의 한 가지)가 있었으나 도무지 깨우칠 수 없었는데, **이마두(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서가 우리 나라에 들어옴으로부터 다시 밝혀진 것과 같은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시헌력의 보급

행 호군 한홍일이 차자를 올리기를 “역의 수를 헤아리고 천체를 관측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 주는 일은 제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조의 광수경이 역서를 고쳐 만든 지가 거의 4백여 년이나 되었으니, 지금은 의당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또 **탕약망(아담 샬)이 만든 역서를 본 결과 그것은 더욱 고쳐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감히 ‘개계도’ 및 ‘칠정력비례’ 각 1권씩을 바치오니,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헤아려 결정하여 역법에 밝히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받아들였다. 『인조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동의보감 편찬

전교하기를, “양평군 **허준**은 일찍이 선조 때 의방을 찬집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 1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식을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을 설치해 속히 인출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광해군일기』

교과서 수록  
교학사

## Ⅱ 동의보감 서문

<p>“요즘 조선이나 중국의 의학 책들은 모두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초록들이므로 그대는 여러 가지 의학 책을 모아서 좋은 의학 책을 하나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 산간 벽지에는 의사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약초가 많이 나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이 알기 쉽게 하라.” …… <b>새 왕(광해군)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경술년에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났다. 이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지었으며,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다.</b></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보감』</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Ⅱ 이제마의 사상의학

<p>사람이 낱 대 타고난 장기의 이치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네 가지가 있다.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을 <b>태양인</b>이라고 하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b>태음인</b>이라 한다. 지라가 크고 콩팥이 작은 사람을 <b>소양인</b>이라 하고, 콩팥이 크고 지라가 작은 사람을 <b>소음인</b>이라 한다. …… 태음인은 항상 밖을 살피서 겁내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고, 소양인은 항상 안을 살피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태양인은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급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고, 소음인은 항상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누구나 오래 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수세보원』</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CHAPTER 47 근대 문화 (3)

## 서민 문화의 발달과 문화의 다양화

### Ⅱ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p>양반 : 나는 <b>사대부의 자손</b>인데.  선비 : 아니, 나는 <b>팔대부의 자손</b>인데.  양반 : 팔대부는 뭐냐?  선비 : 아니, 양반이란 게 팔대부도 몰라? 사대부의 갑절이지 뭐.……  양반 : 허허, 그것참 별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비 : 에헴, 그러면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 첫째 지식이 있어야지. 나는 <b>사서삼경</b>을 다 읽었네.  선비 : 뭣이, 사서삼경? 나는 <b>팔서육경</b>도 읽었네.  양반 : 도대체 팔서육경이 뭐냐?  선비 : 나도 아는 육경, 그걸 몰라?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 안경, 약국의 길경(도라지),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이시더.</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교학사</p>
---	-----------------------------------

### Ⅱ 봉산 탈춤

<p>말뚝이 : 쉬이!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b>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시는 양반들이 나오신단 말이오.</b>  양 반 : 야야, 이놈! 무엇이 어째?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 반 : 흐흐흐, 이 생원이라네.</p>	<p>교과서 수록 비상, 두산</p>
---	--------------------------



## || 흥부가

<p><b>흥부</b>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면자 떨어진 헌 망건 밥 풀 관자 노당 줄을 뒷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싹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춘향전

<p>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는 상결인이 되었구나. <b>춘향</b>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오.” “……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가진 재산 탕진하여 부친께서는 학장질 가지고 모친은 친가로 가지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 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두 집 형편 말 아닐세.” <b>춘향</b>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 쏘아 놓은 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까마는 내 딸 <b>춘향</b> 어쩔라나.” 어사는 짐짓 <b>춘향</b> 어미가 어떻게 하나 볼까 하고, “시장하여 나 죽겠네. 내게 밥이나 한 술 주소.” <b>춘향</b> 어미 밥 달라는 말을 듣고, “밥 없네!” 어찌 밥이 없을까마는 화김에 하는 말이었다.</p>	교과서 수록 비상, 두산
--	------------------

## || 호질

<p>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듯한 선비가 있으니 그의 호는 북곽선생이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1만 권이며, 경전의 뜻을 설명하여 엮은 책이 1만 5천권이였다. ……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과부가 살았는데 수절하는 과부였으나 아들 다섯의 성이 각기 달랐다. 어느 날 밤 둘이 같은 방에 있으니 그 아들들은 어진 <b>북곽</b> 선생이 밤에 과부를 찾아올 일이 없으니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 여기고 잡으려 하였다. <b>북곽</b> 선생이 놀라 도망치다가 별판의 거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사설시조

<p>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넘어 님이 왔다 흥면 나는 아니 흥 번도 쉬어 넘으리라.</p>	교과서 수록 천재
--	--------------

<p>이 몸이 살자 하니 물것에 시달려 못 견딜세. 피껍질 같은 가랑니 보리알 같은 수통니 줄인니 갓 갓니 잔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 위에 비파 같은 빈대 새끼 사령 같은 등에아비 각다귀 사마귀 흰바퀴 누런바퀴 바구미 거절이 부리 뽕죽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진 모기 글임애 뽕룩이 주야로 빈 때 없이 물거니 쏘거나 빨거니 심한 당벌리(피부병 일종) 이보다 어려우랴. 그 중에 차마 못 견딜손 유월 복 더위에 쇠파린가 하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해동가요』</p>	교과서 수록 두산
--	--------------

<p><b>두꺼비 피리</b>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b>백송골</b>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뒤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져 버렸구나 마침 나옴기 망정이지 어혈 질 뻘하였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영언』</p>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새타령

<p>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 문전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 올림 비조 못새들이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솟땡이 쑥국 앵매기 두리루 대천의 비우 소루기 수리수리루 에-헤에- 예쁜 새 좌우로 다녀 울음 운다.</p>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정약용의 한시 : 농민의 고달픔

<p>다북썩 캐네 다북썩 캐네/ 다북썩이 아니라 제비썩이네.          명아주도 비름도 거의 시들어 버리고/ 쇠귀나물은 떡잎도 안 생겨          꿀도 땀나무도 거의 타고/ 샘물까지도 거의 말라서          논에는 우렁이도 없고/ 바다에는 조개 종류도 없다네.          높은 분들 살펴보지도 않고/ 흉년이다 흉년이다 떠들어댄다.          가을에 이미 죽을 텐데/ 봄이 되어야만 구제한다네.  <b>남편도 이미 유랑하였으니/ 굶어 죽으면 누가 파문을까.</b>          오오 하늘이여!/ 어찌 이리 무정한고.</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서민 문화의 발달

<p>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읽고자 하는 것은 패설(소설) 따위인데 날로 달로 늘어나며 그 종류도 백 가지 천 가지이다. <b>상인들은 책을 필사하여 대여해 주며 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한다.</b> 부녀자들이 식견이 없으니 비녀를 팔거나 돈을 꾸어서 다투어 빌려 보고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p>	<p>『번암집』</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교학사</p>
---	--

## 전기수의 등장

<p>“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고 있다. 그는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의 소설을 소리내어 읽는다. 월초에 첫째 날은 첫째 다리 밑에 앉고, 이튿날은 둘째 다리 밑에 앉고, 사흘째는 배오개(이현)에 앉고, 나흘째는 교동 입구에 자리 잡고, 닷새째는 대사동 입구에 자리를 잡고, 엿새째는 종루 앞에 자리를 잡는다. 읽는 솜씨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가장 긴요해서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면 문득 소리를 멈춘다. 사람들이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돈을 던져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요전법(극가 돈을 버는 방법)이구나.’라고 한다.”</p>	<p>『추재집』</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CHAPTER

# 48

## 흥선대원군 정치

### 서양 세력의 접근과 흥선 대원군의 정치

#### 1. 서양 세력의 접근

##### 이양선 출몰

<p>금년 6월 26일에 이양선 1척이 정박하여 달려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 문자를 사용하여 이곳에 오게 된 동기를 상세히 질문하였습니다. 그들 대답에 “우리들은 모두 영국 땅에 사는 사람들로 서양포, 유리 그릇, 천리경 등의 물품을 가지고 조선의 산물을 사려고 이곳에 왔으니, 귀국의 대왕에게 알려 우호를 맺어 <b>교역하게 해주기를 바란다.</b>”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지리상으로 몇 만여 리가 되는지 모르는 처지에 망령되어 교린을 핑계하고 교역을 억지로 요구하였으니, 사리에 타당한 바가 전혀 아니고 실로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대처하였더니, 저들도 더 어찌지 못함을 알고 바로 돌아갔습니다.</p>	<p>『순조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p>이양선이 서해에서 부안 앞 바다로 향해 옵니다. 작은 산 덩어리처럼 크고 ..... 배 위에 튀어나온 구멍에서 연기를 토합니다. 마치 날아가는 기구처럼 빠릅니다.</p>	<p>『고군산연혁사』</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이달에 이양선이 출몰하여 스스로 영국의 배라 하면서 이르는 섬마다 곧 희고 작은 기를 세우고, 물을 재는 줄로 바다의 깊이를 재며 돌을 쌓고 회를 칠하여 그 방위를 표시하였다. 『헌종실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함경 감사 조병준이, “저 사람들(러시아 인)이 덕원부 용성진과 대흥부 대강진에 이르러 포를 쏘아 갯가의 백성이 죽고 저들의 배가 때도 없이 오고 감을 낚날이 들었는데, …… 갯가의 백성이 탄환에 맞아 죽은 데에 이르러서는 전례에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철종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함경 감사 이유원이 아뢰기를 “두만강 건너편에서 이상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 그들이 편지 한 장을 던져 주었는데, (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물품을 서로 거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최근에 들어와 …… 물품 거래를 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연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해미 조금진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 한 척은 영국 배라고 하며, …… 그중 영국 상인 대발이라고 하는 자는 일찍이 봄에 와서 물회를 교역하기를 청하였던 자인데, 다시 와서 간절히 청하므로 엄히 타일러서 속히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 || 베이징 함락에 따른 조선의 반응

저희가 베이징에 도착해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전해 들으니 황제는 통저우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북쪽으로 길을 떠났으며, …… 수많은 전각과 정자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며 무너진 담장과 부서진 벽돌만 텅굴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양 오랑캐들은 강화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물러가지 않고 천주당에 머물고 있는데, 그 수가 2백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견별단』	교과서 수록 금성
---	--------------

## 2.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 || 흥선대원군

“궁도령은 궁이나 지킬 것이지 굽실굽실 신발을 질질 끌며 무엇 때문에 재상 집에 나다니는가?” 대원군이 어느 날 세도 재상 김좌근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 마침 그의 심에 있던 호조 판서 심의면이 김좌근에게 대원군을 조롱하며 한 말이다. 『매천야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인재 등용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회의 석상에서 소리를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 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 …… 대개 천 리를 지척으로 삼겠다는 말은 종친을 높이겠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며, 태산을 평지로 깎아내린다는 말은 노론을 억누르겠다는 뜻이다. 『매천야록』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 사창제

사창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면민 중에서 근면 성실하고 넉넉한 자를 택하여 관에 보고한 뒤 뽑는다. 또한 관에서 강제로 정하지 말고 그를 '사수(社首)'라 하여 환곡을 나누어 주고 수납하는 때를 맡아서 검사한다. …… 사수로 하여금 바로 잡게 하며, 창고지기 1명도 사수로 하여금 지역민 중에 잘 선택하여 맡아서 지키고 출납하고 용량을 재게 하는 등 모든 것을 해당 지역의 백성에게 맡긴다. 『일성록』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조선 후기 호포제 반대론

<p>대사헌 이단하가 상소를 올렸다. “호포법을 실시하려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포는 위로는 공경에서부터 아래로는 상민, 천민까지 포를 내지 않는 호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는 부역을 고르게 하는 올바른 길이다. 누가 감히 원망하겠는가. 또 달아나거나 죽은 자,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채워 넣고 이웃과 친족에게 포를 거두는 폐단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합니다. …… 그러나 <b>선비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평생 힘들어 독서한 선비가 무식한 상놈들과 똑같이 취급당하여 포를 바쳐야 하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b>”</p> <p style="text-align: right;">『속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호포제 실시

<p>나라의 제도로써 인정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 대원군은 이를 시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량 한 동리에 2백 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조정의 관리들이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고자 하여, “만약 이처럼 하면 국가에서 충신과 공신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후한 뜻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대원군은 이를 듣지 않으면서, “<b>충신과 공신이 이룬 사업도 종사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 후손이 면세를 받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법에 정한 세금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충신의 본뜻이 아닐 것이다.</b>”라고 하며 그 법을 시행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근세조선정감』</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금성</p>
--	---

<p>조선의 세금 가운데 군포라는 것이 있는데 천하의 세금 중에 이보다 더 악독한 것은 없다. 군포는 4백 년 동안 그럭저럭 시행되었으나 …… 양반 가문, 충신 가문, 효자 및 열녀 가문, 과거 급제자, 현직 관리는 전부 군포가 면제되었다. …… <b>대원군이 의연히 단행하여 군포를 혁파하고 호포를 징수하여, 귀천 없이 국세를 고르게 부담하니 쌓인 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b></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통사』</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홍시형의 호포제 반대 상소문

<p>근래에 호포가 한번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졌습니다.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 천인들이 똑같이 취급되고 <b>상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한탄스럽습니다.</b> 단지 어린아이에 불과한 황구나 죽은 사람인 백골만 불쌍히 여겨 귀천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분이 한번 무너지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호포를 혁파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군액을 바르게 하여 뜻하지 않는 사변에 대비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서원 철폐

<p>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살게 굴지만 가장 심한 곳이 서원이었다. 편지 하나를 띄워 먹도장을 찍을 다음 고을에 보내서 서원 제수전을 바치도록 명하였는데, 그 편지를 받으면 즉시 주머니를 쏟아야만 하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서원에 잡혀가 혹독한 형벌로 위협을 받았고 …… 대원군이 영을 내려 나라 안의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내도록 하였다. …… 사족이 크게 놀라서 온 나라 안이 물 끓듯 하였고 대궐 문간에 나가 울부짖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조정에서는 어떤 변이라도 있을까 하여 대원군에게 간언하기를,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의 기풍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 명령만은 거두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b>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치 않겠다.</b>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에는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형조와 한성부 병사들을 풀어서 대궐 문 밖에서 호소하려는 선비를 강 건너로 몰아냈다. 그리하여 일시에 서원을 철폐시킬 수 있었다. …… 이 때문에 백성들이 춤추고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근세조선정감』</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금성 교학사</p>
--	---

## || 최익현의 서원 철폐 반대 상소

<p>호조 참판 최익현이 상소하기를 “지난 나랏일을 보면 폐단이 없는 곳이 없어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다 미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b>서원 철폐로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끊어졌고, …… 호전(청나라 돈)을 써서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이 어지러워졌습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승정원일기』</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만동묘지기의 위세를 풍자한 노래

원님 위에 감사요, 감사 위에 참판이요 참판 위에 판서요, 판서 위에 삼상이요 삼상 위에 승지요, 승지 위에 임금이요 임금 위에 만동묘지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경복궁 중건 : 원납전과 문세전

경복궁 중건을 시작할 때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달았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백성들은 입을 비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b>“원납전이 아니라 원납전(원망하여 바친 돈)이다.”</b> 이때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도성에서는 문세전을 받았다.  『매천야록』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 || 경복궁 중건 : 원납전

경복궁을 지을 비용과 백성들의 노역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는데, 백성의 노역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안으로는 재상 이하, 밖으로는 수령 이하가 역량에 따라 보조하며, 선비와 서민층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자진 납부하는 자는 상을 주기로 하고 이를 8도에 알리게 하였다. 이미 <b>지금까지 원납이 10만이나 되었다.</b>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
--	-------------------

## || 경복궁 타령

에-에헤이아 얼널널 거리고 방에 흥애로다. <b>을축년 4월 초 3일에 경복궁 새 대궐 짓는데 헛방아 찼는 소리다</b> 조선의 여덟도 좋다는 나무는 경복궁 짓노라 다 들어간다 도편수란 놈의 거동 보소 막통 매고 갈팡질팡 한다 남문 밖에 떡장수들아 한 개를 베어도 큼직큼직 베어라 남문 밖에 막걸리 장수야 한 잔을 걸러도 큰 애기 솜씨로 걸러라 에-나 떠난다고 네가 통곡 말고 나 다녀올 동안 네가 수절을 하여라 에- 인생을 살면 몇 백 년 사나 생전 시절에 맘대로 노세 남문 열고 바라 동당 치니 계명 삼천에 달이 살짝 밝았네 경복궁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 볼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룩하세 도편수의 거동을 보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 <b>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건에 다 들어간다.</b>	교과서 수록 비상
---	--------------

## 3.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 천주교 박해

(의금부에서 판결한 남종삼의 판결문에) …… (천주교 신자 남종삼은) <b>러시아로부터 변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명백하게 근거할 만한 단서도 없는데 요망한 말을 만들어내서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b>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병인양요 때 흥선 대원군이 의정부에 내린 글 : 양이보국책 유시

<p>서양 오랑캐들이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것은 본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몇 백 년간 적들은 감히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지금 상하의 사람들이 만약 의심하거나 겁을 먹는다면 모든 일은 와해되고 나랏일은 그르치게 된다. 나에게 마음속으로 굳게 정한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이 굳은 맹세를 알고 나의 뒤를 따르라.</p> <p><b>첫째, 고통을 참지 못하고서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b></p> <p>둘째, 그들의 해악을 참지 못하고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이다.</p> <p>셋째, 적들이 도성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만약 도성을 버리고 간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p> <p>넷째, 만약 잡술이나 육정육갑 따위로, 또는 귀신을 불러 신기하게 침략자를 물리치고자 하면 이후에 생겨나는 폐단은 사학보다도 더욱 심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용호한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교학사</p>
---	---

|| 병인양요 때 프랑스 장교가 남긴 글

<p>이곳(조선)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혐오스러운 침략자로 인식되었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벨로네 서한

<p>조선 국왕이 프랑스 주교 2인과 선교사 9인 그리고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 <b>조선 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잔살하는 날은 곧 조선국 최후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b>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것이다. 조선을 정복해서 국왕을 책립하는 문제는 프랑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 이에 본관은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이후부터 본국과 조선 간에 전쟁이 있더라도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p>	<p>교과서 수록 비상, 두산</p>
---	--------------------------

|| 병인양요

<p>서양인들이 촌으로 떼 지어 다니며 여인을 욕보이고 세간을 빼앗았다. 남자 옷과 쇠끝, 돈과 양식은 물론이고 소와 닭은 더 좋아하였다. 문을 잠그고 간 집은 다 부수고 대로 불 질렀다. 주인이 있어 대접하고 닭 잡아 주는 자는 칭찬하고 물건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 <b>양현수</b>라는 사람이 순무중군으로 있었다. …… <b>광성보에서 몰래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b> …… 전등사는 높은 산 위라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과 나팔을 불며 좌우에서 총을 쏘았다. 장수가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양인 십여 명이 죽었다. 혼쫓이 난 양인들을 쫓아가니 제 동무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p> <p style="text-align: right;">『병인양요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영종 침사가 오페르트에게 보낸 회답 편지

<p>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b>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b> 또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서 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약탈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어찌 사리상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단지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너희 나라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따름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p>
--	----------------------------------

|| 신미양요에 대한 미국군인의 회고

<p>조선군은 근대적인 무기를 한 자루도 보유하지 못한 채 노후한 전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근대적인 화기로 무장한 미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b>조선군은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b>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그토록 강력하게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p>그들은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울 때는, 모래를 뿌려 침략군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그들은 끝까지 항전하였고, 수십 명은 <b>탄환에 맞아 강물 속으로 뒹굴었다.</b> 부상자의 대부분은 물에 빠져 익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뛰어들면서 목을 질러 자살했다.</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신미양요 후 대원군이 미군 측에 보낸 서한

<p>지난번에 그대들의 선박이 포를 쏘아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호의라고 운운하면서 이런 일을 일으키니 심히 개탄스럽다. 조정에서는 귀국 함대와 관련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명하였다. 그러나 <u>귀국의 배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들어오니, 수비와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군민들이 어찌 좌시하고만 있겠는가? 따라서 지난번의 사건은 그대들이 자초한 일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신미양요 후 정부의 평가

<p>늠름한 충성과 용기가 마치 그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하다. 몸소 칼날을 무릅써 흉악한 적들을 격살하다 수많은 충알을 고슴도치의 털처럼 맞아서 마침내 순직하였으니, 그 혁혁한 절개는 적의 간담을 떨어뜨릴 만하고 군사들의 마음을 고무할 만하다. 그러므로 <u>죽은 진무중군 어재연에게 특별히 병조판서와 지삼군부사를 추증하고 …… 의논하여 시호를 정하도록 하라.</u></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병인,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

<p><u>흥선 대원군에게 이 두 차례의 사건은 개인적 영광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랑이 포수들 및 조선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와 미국 양측에 저항하여 성공하였으며, 그 군대에 손실을 주어 내쫓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u> 중국 장춘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조선인에게 외국인의 무력과 전쟁에서 우수성을 말하였다. 조선인이 벌떡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들의 어떤 무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당신들의 무기를 우습다고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은자의 나라 한국』</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척화비 내용

<p>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를 자손만대에 경계하노라. <u>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u></p>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금성 교학사
--	-------------------------------------

## || 척화비 설립

<p>대원군은 서양인을 가볍게 여겨 ‘저들이 견고한 배와 우수한 무기는 있지만, 병사는 약하여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u>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경고하노라.</u>”라는 돌비석을 새긴 뒤 경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세우게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통사』</p>	교과서 수록 금성
---	--------------

##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 1. 강화도 조약과 문호 개방

#### Ⅱ 일본 외무성 관리의 군함 파견 건의서

우리 힘을 조선에서 행사하기 위해 이때를 좋은 기회로 삼아 금일 1-2척의 군함을 소규모로 파견하는 것은 뒷날 혹은 대규모로 파견해야만 하는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 ..... 삼가 이에 상신하니 빨리 영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Ⅱ 운요호 사건의 의도

지금 그 나라(조선)는 내분 중이며, 쇠국 세력이 아직 강하지 않은 틈을 타 힘을 덜 들이고 일을 쉽게 이루려면 우리 군함 2척을 파견하여 대마도와 그 나라 사이의 바다에 보내어 해로를 측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대일본 외교 문서』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강화도 조약의 체결

우리나라와 일본은 300년 동안 통신사를 교환하고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해 왔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외교 격식을 두고 서로 버티어 왔으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처지에 통상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다. 통상 조약 등의 절차를 잘 협상하여 조치하라.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강화도 조약 (1관 2관)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관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5개월 후 조선 한성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지학사

#### Ⅱ 강화도 조약 (4관)

조선국 부산은 오래전에 양국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이 밖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지학사

#### Ⅱ 강화도 조약 (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할 것이다.

교과서 수록  
비상

#### Ⅱ 강화도 조약 (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지학사



## || 강화도 조약 (9관)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강화도 조약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b>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지학사
---	-------------------------------

## || 재항 후 제물포항

이미 몇 천 년 전에 <b>제물포가 조선의 교역항이</b>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사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 그러나 제물포는 이름만 그럴싸한, 명색뿐인 우두머리처럼 한가로이 졸고 있으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 …… 다른 섬들이나 시가지의 조망에서 격리된 채 인적이라곤 전혀 없는 황량한 그곳에 두 척이 정박하고 있다.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조선책략 내용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조선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아시아)의 형세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대 반드시 조선에서 시작할 것이다. …… 그렇다면 조선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b>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금성
---	-------------------------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관)

<b>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 준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	-------------------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2관)

양국 정부의 외교 대표와 영사는 같은 지위를 갖는 <b>최혜국 대표에게 허용되는 모든 특권 권리와 면제를 차별 없이 갖는다.</b>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b>세금(관세)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권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

일용품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율은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에서는 30%를 넘지 못한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4관)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b>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비상, 두산
---	-----------------------------

||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제9조 2항 조선에서 언어와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프랑스 인들은 우호의 표시로 언제든지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에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 세척 및 일체의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 어떠한 혜택과 특권을 제공하면 프랑스도 똑같이 균등하게 받게 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CHAPTER

50

개화정책 추진과 반발

1. 개화정책의 추진

|| 수신사의 보고서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 차의 화륜이 한 번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가 따라서 모두 구르게 되는데, 천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한 시간에 3-4백 리를 달린다고 하는데도, 차체는 안온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일동기유』	교과서 수록 천재
--	--------------

|| 조사 시찰단의 일본 인식(박정양)

고 종 : 일본의 강약이 어떠한가? 박정양 : 일본은 겉모습만 보면 자못 부강한 듯합니다. .... 그러나 그 속을 살펴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서양과 통교한 이후로는 단지 교묘한 것만 좇을 줄 알고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 진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 이런 사이에 서양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아 감히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한결같이 서양의 제도를 좇아 .... 절차가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조사 시찰단의 보고서(어윤중)

조선의 과제는 하루속히 부강의 도를 얻어 행하여 자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강의 도가 근대적 개혁이며, 만일 이 방법에 의해 부강을 이루지 못하면 이웃 국가의 수모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큼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 조사 시찰단의 일본 인식(홍영식)

고 종 : 일본의 제도가 장대하고 정치가 부강하다고 하는데 살펴보니 이와 같더냐? 홍영식 : 일본의 제도가 비록 장대하나 모두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군정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이룩한 것입니다. 일본이 노력한 바를 갖고 현재 이룩된 것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승정원일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2.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 위정척사론

서양 물건과 사학의 위세로 공맹의 태도는 날로 사라져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진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 전하께서는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하려는 신하를 처단해야 합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p>오늘날 서양인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화친과 전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b>서양인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b>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에 따르면 <b>조선인이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화서집』</p>	<p>교과서 수록 천재</p>
<p><b>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b>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외물에 견제당하거나 흔들림을 경계하시어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b>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b></p> <p style="text-align: right;">『화서집』</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p>

## II 최익현의 개항반대론

<p><b>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b>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한 데 반하여, 우리의 물화는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하고 기이하며 심성을 좀먹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물화와 교역을 한다면 그 양은 틀림없이 1년에도 수만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안지나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하여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라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 <b>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b>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면암집』</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금성</p>
---	---

## II 영남만민소

<p>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어느 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p> <p><b>청은 우리가 신화로 섬기는 바이며</b> 해마다 옥과 비단을 보내는 수레가 요동과 계주를 이었습니다. 신의와 절도를 지키고 속방의 직분을 충실히 지킨 지 벌써 2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 이제 더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p> <p><b>일본은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b> 삼포 왜란이 어제 일 같고 임진왜란의 숙원이 가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땅을 잘 알고 수륙 요충 지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p> <p><b>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b>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p> <p><b>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b>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일성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두산, 금성</p>
---	--

## II 홍재학의 상소

<p><b>대개 서양의 학문은 천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소멸시킴이 심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b> 서양의 물건은 태반이 음탕하고 욕심을 유도하며, 윤리와 강상을 깨뜨리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며, 천지에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서양의 학문과 물건은 귀로 들으면 창자가 뒤틀리고 수컷이 다른 것으로 바뀌며, 눈으로 보면 창자가 꼬이고 위가 뒤집히며, 코로 냄새를 맡고 입술로 그것에 닿게 하면 마음이 변하여 실성하게 되니 이는 곧 그림자가 서로 부딪치고 전염병이 서로 감염되는 것과 같으며, 그 사람의 좋고 싫음이 향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상을 받들지 않는다 해도 예수교의 책을 읽게 되면 성인에게 죄를 얻는 시작입니다. <b>전하의 백성들은 과연 귀와 눈과 코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 안의 실정은 이미 달라졌습니다.</b></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정학을 장려하고 사악함을 막아 기강과 민력을 떨친다면 상하 원근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으니, 그러면 왜와 서양을 막을 수 있게 되며, 북쪽의 러시아도 우리에게 위압될 것입니다.	『일성록』	교과서 수록 금성
--	-------	--------------

## II 제물포 조약

<p>1.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 입회 처단케 한다. 만일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p> <p>3.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p> <p>4.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이 돈은 해마다 10만원씩 5년 동안 완납한다.</p> <p>5.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p> <p>6.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p>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비상 금성, 교학사
--	--------	---

## CHAPTER

# 51

## 임오군란, 갑신정변

## 개화파와 갑신정변

### II 박규수의 통상개화론

전날 강남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청이 서양에서 대포를 사들였으므로 대포를 만들 줄 아는 서양인들이 더 유리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청이 서양 대포를 모방하여 만들어 쓰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유리한 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날에는 청 상인이 화륜선을 빌려 썼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로써 이득을 얻었으나, 오늘날에는 청 역시 화륜선을 모방하여 만들어 다시는 빌려 쓰지 않음으로써 서양인들이 또한 이득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규수의 보고서』	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
---	------------	------------------

지금 우리는 ..... 자주적으로 개국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교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능동적으로 개국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조선은 굴복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환재집』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중국의 서적이 번역되어 서양인이 읽게 되면 혹시 뛰어난 (서양의) 인물이 나타나 크게 깨닫고 하루아침에 웅은 길로 돌아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환재집』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II 오경석의 통상 찬성론

신미년 미국 배가 왔을 때 대원군의 권력은 최고에 있었다. 그때 나(오경석)는 대원군에게 도저히 외교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미국 배는 약간의 포사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그 이래 나를 지목하기를 개항가라고 하여 어떠한 일을 건의하여도 다시는 받아 주는 일이 없었다.	『일본외교문서』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 박규수의 사랑방

<p>“<b>신사상은 박규수 집 사랑방에서 나왔소. 김옥균과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박영호 등이 재동의 박규수 사랑에 모였소</b>…… 연암집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소.”…… 이처럼 박영호는 당시 신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평등론, 민권론이었다고 말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광』</p>	교과서 수록 미래엔
<p>개화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b>김옥균이 우의정 박규수를 방문하니 그가 벽장에서 지구의를 꺼내 김씨에게 보여주었다.</b> 이는 그의 조부인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서 사 가지고 온 것이었다. 박규수는 지구의를 돌리면서 김옥균을 돌아보고 웃으며 “오늘날 중국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고, 저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며, 어느 나라건 가운데로 돌리면 중국이 된다. 오늘날 어디에 정해진 중국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자 여전히 <b>중화사상에 얽매어 있던 김옥균이 박규수의 말에 크게 깨닫고 무릎을 치며 일어났으니 그 결과 갑신정변이 폭발한 것이다.</b></p> <p style="text-align: right;">신채호, 『지동설의 효력』</p>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 || 통상수교론자의 성장

<p><b>나의 아버지 오경석은 조선의 역관으로, 중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따라 중국을 자주 왕래하였다.</b>…… 평상시 가장 친교가 있는 친구 중에 의관 유흥기라는 분이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중국에서 가져온 ‘<b>해국도지</b>’와 ‘<b>영환지략</b>’ 같은 각종 서적을 주며 연구를 권하였다. 그 뒤 두 사람은 사상적 동지로서 결합해 조선의 정세가 풍전등화라 탄식하고 언젠가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의하였다. 어느 날 우리나라의 개혁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b>오경석은 먼저 동지를 북촌의 양반 자제 중에서 구하여 혁신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오세창의 회고』</p>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금성
---	-------------------------

## || 온건 개화파의 주장

<p>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유포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b>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술뿐이기 때문에 그 기술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b> 과학 기술 문명은 인간의 도리에 해롭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배워야 합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서적에 과학 기술 무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구하여 활용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윤식의 상소문』</p>	교과서 수록 천재
<p>단지 부강하다고 해서 자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우리의 정교(정치와 교화)를 닦고 우리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여 외국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실로 자강을 하는 데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수신사 김홍집이 귀국 후 고종에게 한 말』</p>	교과서 수록 미래엔
<p>옛날의 범선과 오늘의 증기선은 선박의 예와 지금이 다릅니다. 옛날의 소나 말이 끄는 수레와 오늘의 증기 기차는 차의 예와 지금이 다릅니다. 옛날의 파발과 오늘의 전선에 의한 통첩으로 순식간에 왕래하며 마치 서로 얼굴을 마주봄과 같은 것은 역전의 예와 지금이 다릅니다. <b>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서양 법의 편리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옛 제도의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전적으로 쓴다면 부강의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b></p>	교과서 수록 미래엔
<p>군신. 부자. 부부. 봉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道)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의 편민 이국(便民利國)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器)가 됩니다. <b>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b>…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서양법의 편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옛 제도의 불편하고 우둔함을 전적으로 쓴다면, 이것은 부강의 도(道)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준재를 널리 선발하여 기계 제조의 관리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b>해외에 출입케 해서 제조법을 배워오게 하여 급속히 그 효용을 보게 하면,</b> 그 뛰어난 기술이 어찌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없다 하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윤선학의 상소문』</p>	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

## Ⅱ 임오군란 후 고종의 개화의지

서양 나라들과 수호를 맺는 것은 점점 사교에 물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 서양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서 멀리해야겠지만, <b>서양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백성을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b> 『임오군란 후 김윤식이 기초한 교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b>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b> 더구나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침략을 막고 저들이 넘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 이미 서양과 수호를 맺은 이상 <b>서울과 지방에 세워 놓은 척양에 관한 비문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모두 뽑아 버리도록 하라.</b>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지금 통상과 교섭을 하고 있는 이때에 관리나 천한 백성의 집을 막론하고 다 크게 재화를 교역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부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농, 공, 상의 자식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다 같이 진학하게 한다. <b>오직 재능과 학식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할 것이요, 출신의 귀천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b>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비상

## Ⅱ 급진 개화파의 주장

조선이 이전부터 스스로를 청의 속방으로 여겨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나라가 발전할 희망이 없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에 <b>첫째로 해야 할 일은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을 수립하는 것이다.</b> 독립하려면 정치와 외교를 자주자강해야 한다. 그러나 <b>청을 섬기는 현재의 정부로서는 불가능하다.</b> 김옥균, 『조선개혁의견서』	교과서 수록 천재
오늘날의 급선무는 반드시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b>문호를 개방하고 이웃국들과 친선을 도모</b> 하는 데 있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실사구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오늘날 우주의 운세가 크게 변하여 모든 나라가 서로 교통하여 화륜선이 바다에 오가며 전선이 전 지구에 설치되었고 금, 은을 캐어 기계 등을 만들어 민생의 일용에 편리한 것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b>각각의 절실하고 중요한 정치와 기술을 찾아보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이다.</b> 『치도약론』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b>김옥균은 나라가 빈약한 원인이 일반 민중에게 기술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상류 계급 인사들의 무지와 물지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b> 그는 “우리나라를 구하자만 민중을 교육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임버릇처럼 나에게 말했다.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교과서 수록 미래엔

## Ⅱ 김옥균의 탄원서

<b>문벌의 폐하고 인재를 골라 중앙 집권의 기초를 확립하여 백성들의 신용을 얻으시고 널리 학교를 설립하여 인민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옵소서.</b> 외국의 종교를 유입하여 교화를 돕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1886, 『동경매일신문』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갑신정변의 전야

지금 천하대세는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은 날로 위급해지고 있으며, <b>청과 프랑스 사이에는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b> 청과 일본 역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 전부터 서양 여러 나라의 동양 각국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b>만약 옛 법도만을 굳게 지킨다면 곧바로 위기가 닥쳐와 거의 망하게 될 것입니다.</b> 『대한계년사』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14개조 정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홍선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b></li> <li>2. <b>문벌을 폐지</b>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li> <li>3. <b>지조법을 개혁</b>하여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li> <li>4. <b>내시부를 없애고</b> 그 가운데 재능 있는 자는 등용할 것</li> <li>5.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li> <li>6.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li> <li>7. <b>규장각을 폐지할 것</b></li> <li>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li> <li>9. <b>해상공국을 폐지할 것</b></li> <li>10. 그동안 유배, 구속된 사람들은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li> <li>11. 4영을 합쳐 1영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b>근위대를 설치할 것</b></li> <li>12. <b>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b>하게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li> <li>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소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li> <li>14. <b>의정부,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b>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할 것</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p>
--	---

『갑신일록』

## || 갑신정변에 대한 윤웅렬(윤치호 아버지)의 평가

<p>임금을 위협한 것은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것이니 실패할 첫째 이유이다. <b>외세를 믿고 의지하였</b>으니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 실패할 둘째 이유이다.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여 변이 안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니 실패할 셋째 이유이다. …… <b>숫자가 적은 일본군이 어찌 많은 청군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b> 이것이 실패할 넷째 이유이다. …… 이미 <b>여러 민씨와 임금께서 친애하는 신하들을 죽였으니</b> 이는 왕과 왕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임금과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서 그 자리와 세력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실패할 다섯째 이유이다. …… 일이 반드시 실패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한스럽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윤치호 일기』

## || 갑신정변에 대한 백성의 인식

<p>전에는 …… 개화당을 꾸짖는 자도 많이 있었으나,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감히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b>정변을 겪은 뒤부터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이른바 개화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충의를 모르고 외국인과 연결하여 나라를 팔고 겨레를 배반하였다.”</b>라고 말하고 있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윤치호 일기』

## || 갑신정변에 대한 김윤식의 평가

<p>나는 임오군란 때 청병을 따라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청은 우리나라에 자주 내정 간섭을 하였다. 나는 청나라 당으로 지목되었고, 청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분노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b>김옥균은 일본 당으로 지목되었다.</b> 그 후 일이 허사로 돌아가자 세상은 그를 역적이라 하였는데, 나는 정부에 몸을 담고 있어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다른 나라에 있지 않았고, 애국하는 데 있었다.</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p>
--	--------------------------

『속음청사』

## || 갑신정변에 대한 박은식의 평가

<p>개화당의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갑신정변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b>일류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 그처럼 크나큰 착오를 저질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b>이라고 하였다. 어찌 일본인이 진심으로 김옥균을 성공하게 하고, 성의 있게 조선의 운명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 일본이 이를 이용하여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권하고 원조까지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조선과 청의 악감정을 도발하여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한국통사』

|| 갑신정변 직후 김옥균이 고종에 보낸 글

당시 외국의 힘을 빌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당시 안팎의 사정으로 보아 부득이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폐하께서도 아시는 바가 아니옵니까?	교과서 수록 비상
--	--------------

|| 유길준의 중립화론

<p>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는 것이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지위는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왕이 책봉을 받던 일은 벨기에에도 없던 일이었다. ……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대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전략도 될 것이다.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유길준전서』</p>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두산 금성
--	------------------------------------

|| 텐진 조약

<p>1. 청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군대를 철수한다.</p> <p>3. 장래 조선국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 일 양국 혹은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요할 때에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며 잔류시키지 못한다.</p>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교학사
--	--------------------------

|| 한성 조약

조선은 국서를 일본국으로 보내어 사죄의 뜻을 알린다.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린다. 일본 공사관의 증축을 위해 2만 원을 지불한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CHAPTER

## 52

## 동학농민운동

##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 1. 동학 농민 운동

## || 보은 집회 때 동학교도가 서울에서 파견된 어사에게 보낸 글

왜양을 물리치려는 창익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체포하고 소탕하려고 합니까? 지방관의 병폐는 이미 심해져서 저 무고한 백성을 모두 도탄에 빠지게 하니 목숨 귀하기는 다 같은데 어찌 이리 잔인합니까? 또한, **왜양이 우리 임금을 위협함이 극에 달했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음으로 막는다는 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보은 집회에 대한 어윤중의 보고

탐욕이 멋대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분개하여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그들을 따랐으며, **바깥 오랑캐들이 우리의 이익의 원천을 빼앗는 것을 분하게 여겨 함부로 큰소리치던 자들이 그들을 따랐고**, 탐욕스러운 장수와 속이 검은 아전에게 학대를 당하여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자들도 그들을 따랐습니다. …… 상민과 천민이 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취어』

교과서 수록  
금성

## || 삼례집회의 요구

**우리들의 뜻은 선사(최제우)의 지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함입니다.** 선사의 가르침은 오직, 유불선이 도를 합하여 충군효친하며 지성사대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을 정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 지목하는 병폐는 물보다 깊으며 불보다 사납습니다. 수령부터 이서, 군교, 향간, 토호까지 우리들의 가산을 탈취하여 자기 재산처럼 여기며 살상, 구타, 능멸, 학대함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천도교창건사』

교과서 수록  
두산

## || 전봉준이 제시한 조병갑의 횡포

첫째, **만석보** 밑에 다시 보를 쌓게 하고, 진황지를 개간시키면서 그 때마다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둘째, 부자들에게도 2만 냥을 강제 징수했다. 셋째, 강제 징수는 **조병갑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울 때도 계속되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대동미를 징수할 때 좋은 쌀은 16말씩 금전으로 징수하고 조정에 상납할 때는 나쁜 쌀로 바꾸어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만석보

목숨을 빌었다/ 맨땅에 엎드려/ 이제 와서 그 흙탕물 어찌 두고 보랴.  
원한 쌓인 만석보 삼으로 찍으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소리소리 쳤다.  
**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를 허물어라**/ 터진 못둑 밀치며 핏물이 흐르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얼싸안고 울었다.

양성우, 『만석보』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사발통문 내용

<p>다음과 같이 <b>격문을 사방에 보내니</b>, 두루 읽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라. 매일같이 난을 이야기하던 민중들이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사람이라도 살아 있겠는가”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道人)들은 앞으로의 할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b>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의 집을 도소(都所 : 본부)로 정하여</b>,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b></li> <li>1. 군기창과 화약고(무기고)를 점령할 것.</li> <li>1.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못살게 한 향리들을 징계할 것.</li> <li>1. <b>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쳐들어갈 것.</b></li> </ol>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p>
--	-----------------------------------

## || 새야 새야 파랑새야

<p><b>새야 새야 파랑새야/</b>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1차 봉기 때의 격문

<p>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b>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물고자 함이라.</b>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동학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두산 지학사</p>
---	---

## || 농민군 4대 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li> <li>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li> <li>3.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는다.</li> <li>4. <b>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앤다.</b></li> </ol> <p style="text-align: right;">『대한계년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p>
--	---

## || 고부 전투

<p>밤이 깊어지자 적(농민군) 진영은 조용해졌고 포성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관군은 의아스러워하며 소나무로 헛불을 만들고 장작을 쌓아 불을 붙이자 진중이 대낮같이 환해졌다. …… 갑자기 공을 뿜듯이 포성이 들리더니 포탄이 발아래 떨어지자 관군은 마치 삼이 쓰러지듯 엎어지고 넘어졌다. 적이 삼면을 포위하고 서쪽 한 면만을 열어 놓고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p> <p style="text-align: right;">『오하기문』</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황룡촌 전투

<p>적(농민군)은 위에서 아래로 관군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홀연히 <b>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밀고 나왔다. 둥그런 닭 집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였다.</b> 밖으로 창과 칼이 빠죽하게 꽂은 것이 고슴도치와도 같았고, 아래에는 두 개의 바퀴를 달아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관군은 총탄과 화살, 돌을 쏘았지만 모두 대나무 통에 막혀 버렸다. 적은 대나무 통 뒤에서 총을 쏘며 따라오다가 고향을 지르며 뛰어들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오하기문』</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전주성 점령

<p>때가 오시쯤에 이르자 장터 건너편 <b>용머리 고개</b>에서 일성의 대포 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 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판을 뒤엎었다. 장꾼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되어 <b>서문과 남문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는</b> 바람에 동학군들도 이들과 섞여 문안으로 들어서며 함성을 내지르고 총질을 했다. …… <b>순식간에 성안에도 동학군 소리요, 성 밖에도 동학군 소리다.</b></p> <p style="text-align: right;">『동학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II 폐정개혁안 12개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반감을 없애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li> <li>2.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하여 모두 엄벌에 처한다.</li> <li>3. 횡포한 부호들은 엄벌에 처한다.</li> <li>4.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징계한다.</li> <li>5. <u>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앤다.</u></li> <li>6. 모든 천인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u>백정이 쓰는 평량감을 없앤다.</u></li> <li>7. <u>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가를 허락한다.</u></li> <li>8. 규정 이외의 모든 <u>잡다한 세금은 일체 거두지 않는다.</u></li> <li>9. 관리 채용에는 <u>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u></li> <li>10. <u>왜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u></li> <li>11. 공사채를 불문하고 농민이 이전에 진 빚은 모두 무효로 한다.</li> <li>12. <u>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u></li> </ol>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미래엔</p>
---	-------------------------------

『동학사』

## II 집강소 설치 직전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운사를 혁파</u>하고 이전과 같이 각 읍에서 조세를 상납하게 할 것</li> <li>- <u>군전관을 혁파</u>할 것</li> <li>- <u>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쫓아낼 것</u></li> <li>- 각 읍에 1천 냥 이상 조세금을 횡령하였으면 그 아전을 사형에 처하고 친족에게서 거두지 말 것</li> <li>- 봄가을 두 번의 호역전은 이전과 같이 매 호 2냥씩으로 할 것</li> <li>- 각종 항목의 결세액은 평균 분배하되 마구 건지 말 것</li> <li>- 포구에서 사사로이 미국 무역하는 행위를 엄금할 것</li> <li>- 각 읍 수령이 부임지에서 묘를 쓰고 전답을 사들이는 일을 금지할 것</li> <li>-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서울에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행상하지 못하게 할 것</li> <li>- <u>보부상의 작폐가 많으니 혁파</u>할 것</li> <li>- 각 읍에서 아전을 임용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임용할 것</li> <li>- 간신이 권력을 농간하여 국사가 나날이 잘못되니 <u>매관매직을 처벌</u>할 것</li> <li>- 대원군이 국정에 간여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것</li> </ul>	<p>교과서 수록 비상, 교학사</p>
---	---------------------------

『대한계년사』

## II 집강소의 활동

<p>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길에서 갓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 '너도 양반이냐며 갓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 <u>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천민에서 면해 줄 것을 강요</u>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무렵 노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화를 피하기도 하였다. .... 간혹 양반 중에는 주인과 노비가 함께 적을 추종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u>서로를 '점장'이라고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 백정이나 재인들 또한 평민이나 양반과 더불어 평등한 예를 행하였다.</u></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오하기문』

## II 장태의 사용

<p>관군이 바라보니 어떤 커다란 물체가 굴러오는데 뒤에는 보졸 수천 명이 엮드려서 몰아오고 있었다. 관군 측이 총을 쏘아 대니 죽은 자가 무수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싸맨 사람들이 일어나서 총을 소고는 다시 엮드렸다. .... 관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쳤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금성정의록』

## II 2차 봉기의 목적

<p>금년 칠월 개화당이 왜국을 끌어들이 밤을 타서 서울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여 ..... 생령이 도탄함에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들어 왜적을 소멸하고 사직을 편히 보전하려 하는데 ..... 조선 사람 끼리라도 도는 다르나 척왜척화는 거리가 일반이라 .....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동심협력하여 큰일을 이루게 할 일이다.</p> <p>『경군과 영병, 이서 시민에게 고시함』</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II 항일 의병을 표방한 농민군

<p>경군과 영병에게 고시한다. 우리 동학 교도가 의병을 일으켜 <u>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잘 다스리고 사직을 안전하게 보존하려 한다.</u> 매양 의병이 이르는 곳에 병정과 군교가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 싸우니 비록 승패는 없으나 인명이 서로 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리요. .... <u>함께 왜적을 물리쳐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아니하게 동심협력하여 큰일을 이루게 할지라.</u></p> <p>『동학난 기록』</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II 2차 봉기

<p>(관군과 일본군이) 산등에 한 줄로 서서 한꺼번에 사격을 한 다음 산 속에 숨었다. 적이 다시 고개를 넘으려 하면 다시 산등에 올라 일제 사격을 하였다. 이같이 하기를 40-50차례 하니 <u>시체가 산에 가득하였다.</u></p> <p>『갑오관보』</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p>우리나라 총의 사정거리는 100보 정도에 불과하지만, <u>일본 총의 사정거리는 400-500보도 더 되었다.</u> 불이 총대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 불을 붙이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따라서 비록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계속 쓸 수가 있었다. 적과 수백 보 떨어진 거리에서 적의 총탄이 미치지 못할 것을 헤아린 다음 비로소 총을 쏘았으므로 적은 뻘히 쳐다보면서 감히 한 발 쏘지 못하였다.</p> <p>『오하기문』</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II 전봉준 공초

<p>문: 작년 1월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 하는데 무슨 사연으로 그리하였는가?          답: 그때 <u>고부 군수가 정액 이외에 가혹하게 수탈한 것이</u> 수만 냥인 고로 민심이 억울하고 통한스러워 의거를 하였다.          문: 고부에서 봉기할 때 동학이 많았는가? 농민이 많았는가?          답: <u>동학과 농민이 합세했으나, 동학은 적었고 농민이 많았다.</u>          문: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다시 봉기하였는가?          답: 그 후에 <u>장흥 부사 이용태가</u> 안핵사로 본 읍에 와서, 의거한 인민을 동학도로 통칭하고 체포하여 그 집을 불태우며,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살육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문: <u>1894년 9월 다시 봉기(2차 봉기)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u>          답: <u>일본이 개화라 칭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u>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충군애국 하는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하고 일본인과 접전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p> <p>『동학난기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두산 지학사</p>
---	---

## II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박은식의 평가

<p><u>동학당은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u> 대부분이 배우지 못하고 미천한 오합지졸들이었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분풀이와 폭정에 대한 응징은 행하였지만, <u>담력과 학식이 부족하였던 탓에 중양정부의 개혁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u></p> <p>『한국통사』</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II 전봉준의 절명시

<p>때를 만나 천하도 다 내 뜻과 같더니/ 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라/ 나라 위한 붉은 마음 그 누가 알까.</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2. 갑오개혁

### || 조선은 일본의 이익선

<p>바야흐로 열강이 각축하는 시대에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려 한다면, 오로지 주권선(영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반드시 나아가 이익선을 지키고 항상 요충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 <b>우리나라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 ……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는 날은 곧 조선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b></p> <p style="text-align: right;">『외교 정략론』</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교정청 설치

<p>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b>교정청</b>을 설치하여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및 몇 가지를 개혁하니 <b>모두 동학당이 주장해 온 바의 일이다. 자주 개혁을 점차 추진하기를 바랐으므로 일본인들이 끼어들음을 막고자 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속음청사』</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미래엔</p>
--	------------------------------------

### || 군국기무처

<p><b>군국기무처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의논한다. 총재 1명은 총리대신이 겸임하고, 부총재 1인은 의원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이고, 서기관은 3인인데 1인은 총리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한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1차 갑오개혁 때의 법령 일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후 국내외의 공사 문서에 <b>개국 기원</b>을 사용한다.</li> <li>2.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b>계급을 타파</b>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li> <li>4. 죄인 자신 이외의 일체의 연좌율을 폐지한다.</li> <li>6. <b>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b>한다.</li> <li>7. <b>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b></li> <li>8. <b>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b>한다.</li> <li>18. 퇴직 관리의 상업 활동은 자유의사에 맡긴다.</li> <li>20. 각 도의 각종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미래엔, 금성</p>
--	---------------------------------------

### || 갑오개혁과 일본의 간섭

<p>조선 정부도 10년 이래 내정 개혁을 필요를 느끼고 점차적으로 개혁에 착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아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차에 <b>남도에 민란</b>이 발생하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민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때에 조정 회의에서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해 대군주 폐하로부터 엄중한 칙령도 내려졌으며 계속해서 <b>교정청</b>을 설치하고 위원들을 임명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일신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b>귀 공사가 지금 대군을 주둔시키고 기한을 정해서 개혁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은 자못 내치에 간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일 수호 조규 제1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b></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정부가 일본공사에게 보낸 문서』</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흥범 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할 것</b></li> <li>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li> <li>3. 대군주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비와 후궁, 종친이 간여하지 못하게 할 것</li> <li>4. <b>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b></li> <li>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할 것</li> <li>6. 인민에 대한 조세 징수는 법령으로 정해서 함부로 거두지 말 것</li> <li>7. <b>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b></li> <li>8. 왕실 비용을 출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li> <li>9. 왕실 비용 및 각 관부 비용은 1년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p>
--	--

<p>10. 지방 과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p> <p>11.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보고 익히게 할 것</p> <p>12. <b>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행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b></p> <p>13. 민법과 형법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p> <p>14.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세상에 퍼져 있는 선비를 두루 구해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p> <p style="text-align: right;">『구한국 관보』</p>	
--	--

## || 고종의 분노

<p>제2차 개혁 시기에는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b>고종의 권력이 극도로 제한되었다.</b> 이로 인해 고종은 크게 분노하여 “대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체를 바꾸어 새로 공화 정치를 만들든지, 또는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갑오개혁에 대한 일본의 입장

<p>나는 처음부터 조선 <b>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이상 하등의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b> 또 조금의 의협 정신으로 십자군을 일으킬 필요성을 발견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내정개혁이란 무엇보다도 일본의 이익을 주안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되, 이 때문에 굳이 우리의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나는 처음부터 조선 내정의 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 <b>각별히 중요시하지 않았고,</b> 또 조선과 같은 현 국가 상태에서 과연 만족스러운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건건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p>
--	---------------------------

## || 갑오개혁에 참여한 유길준의 고백 : 삼치론

<p>지금 조선의 개혁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선인 된 자에게는 <b>세 가지 치용(삼치)</b>이 있다. 삼치란 스스로 개혁을 행하지 못해 귀국의 권박을 받았으므로 본국 인민을 향하여 <b>부끄러움</b>이 그 하나이며, 세계 만국에 대하여 <b>부끄러움</b>이 그 둘이며, 후세 자손에게 <b>부끄러움</b>이 그 셋이다.</p> <p>지금 이 삼치를 무릅쓰고 세상에 나설 면목이 없으나, 오직 개혁을 잘 이룸으로써 독립을 보존하고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화의 실효를 거두어 보국안민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다시 오래 된 폐단을 그대로 행한다면, 장차 또 한 번의 권유와 다그침을 초래해 국가가 앞으로 어떠한 지경에 이를 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장차 이 점에 힘써 국민들이 마음으로 따르면 개혁의 일을 성공할 수 있고, 만일 이에 통하지 못해 다만 권면을 행할 뿐이라면 아마도 성공할 날이 없어 난이 먼저 일어날 듯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유길준이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교학사</p>
--	-----------------------------------

## || 갑오개혁에 대한 반대 : 신기선의 사직소

<p>자립을 잘하는 나라는 먼저 자립할 형세를 닦고 그 명색에 급급하지 않으며, 개화를 잘하는 나라는 먼저 개화하는 실속에 힘쓰고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지금 <b>다른 나라와 외국 군대가 대궐에 침범하고 요충지에 주둔하고 생사존망이 남의 손아귀에 쥐여 있는데, 한갓 개국 연호나</b> 내세우면서 세상에서 제가 잘났다고 하면 자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일성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을미사변의 진상

<p>러시아와 조선 왕실이 굳게 손잡고 온갖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일도양단, 한쪽의 손을 잘라내어 양쪽이 서로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수가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b>왕실의 중심 인물인 민비를 제거함</b>으로써 러시아와 조선의 결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수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바야카와 히데오, 『민비 시해 사건의 진상』</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을마사변

<p>이날 동이 틀 무렵 일본 병사가 일제히 고함을 지르고 총을 쏘며 광화문을 통해 들어와서, 몇 갈래 길로 나뉘어 <b>건청궁</b>으로 향했다. …… 일본병은 계속해서 대군주와 왕후가 머무는 전각에 이르렀다. 일본 장교는 ……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 자객들은 여러 방을 샅샅이 조사하여 마침내 조금 더 깊은 방 안에서 <b>왕후를 찾아내고는, 칼날로 찍어 내려 그 자리에서 시해했다.</b> …… 곧 바로 자객의 지휘로 …… 왕후의 시신에 석유를 끼얹고, 그 위에 땔나무를 쌓고서 불을 질러 태워 버리니, 다만 몇 조각 해골만이 남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계년사』</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단발령

<p><b>15일에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명하여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b>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법을 반포한 이래 소문이 점점 퍼지더니 10월 중에 일본 공사가 왕을 위협하여 조속히 머리를 깎도록 하였으나 왕은 인산을 마친 뒤로 미뤘다. 이때 유길준과 조희연 등이 일본군을 인도하여 궁성 주위에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니 고종은 긴 한숨을 들이쉬며 정병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이에 정병하는 가위를 가지고 손을 놀려 왕의 머리를 깎았다. ……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하고 노해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며,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어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매천야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b>모든 남자는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으라는 시행령을 선포하였다.</b> 성문마다 파수꾼과 군졸들이 배치되었다. …… 남자들이 갖은 예외 없이 벗겨지고 가위가 나와 상투를 잘랐다.</p> <p style="text-align: right;">『구한말 비록』</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단발령에 대한 반대

<p>우리나라는 단군과 기자 이래로 편발의 풍속이 점차 <b>상투의 풍속</b>으로 변화하였으며 머리칼을 아끼는 것을 큰 일처럼 여겼습니다. <b>이제 만약 하루아침에 깎아버린다면</b>, 4천 년 동안 굳어진 풍습은 변화시키기 어렵고 억만 백성의 흥흥해하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어찌 격동시켜 변란의 계기가 되지 않을 줄을 알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CHAPTER

# 54

## 독립협회, 광무개혁

### 01.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 1. 대한 제국

##### || 청제를 주장하는 권달섭 등의 상소

<p>대체로 자주의 ‘자’와 독립의 ‘독’ 자의 뜻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혼자 마음대로 하는 데에 있지, 여기에 물어보고 저기에 따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b>자주적인 우리나라는 마땅히 황제라고 불러야 하는데</b>, 어째서 크게 보배로운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십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유

오직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권 행사를 행하게 되었다.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하였다. <b>내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백악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b>	교과서 수록 금성
--	--------------

『고종실록』

## || 황제 즉위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끝내자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고유제를 지냈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환구단에 올라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장문의 곤면을 성상께 입혀 드리고 씌워 드렸다. 이어 <b>옥새를 올리니 상이 두세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b>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 삼무도, 삼고두, 산호만세, 산호만세, 재산호만세를 창하였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고종실록』

## || ‘광무’ 연호의 제정

<b>나라에서 연호를 정하는 것은</b> 기년하자는 것이고 또한 천하에 신뢰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높이 부르고 오래도록 밝게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만대가 흘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b>금년을 광무 원년으로 하되,</b> 장례원에서 받은 길일에 의거하여 8월 16일에 조서를 반포하는 큰 의식을 거행하라.	교과서 수록 천재
---	--------------

『고종실록』

## || ‘대한’ 국호의 제정

고종이 말하기를,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를 정하여 써야 한다. ……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b>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b> 또한, 매년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	-------------------

『고종실록』

## || 대한민국 국제

제1조 <b>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b>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b>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지니고 있다.</b> 제4조 대한민국 신민이 군권을 침해하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5조 <b>대한국 대항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b> 제6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한다. 제7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행정 각 부의 관제를 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공포한다. 제8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문무 관리의 출척과 임면권을 가진다. 제9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과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
--	--

『고종실록』

## || 지계아문 규정

제1조 <b>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와 군의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다.</b> 제10조 대한 제국 인민이 아닌 사람은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단 개항장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관계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그 가격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계를 발급한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관보』



## || 토지 측량 건의서

전국의 지방을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구역의 지질을 측량하여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치입니다. 무릇 우리나라는 구역이 크고 토지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나뉘만 있지 지질의 측량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 지금에 이르러 정치를 유신한 때에 어찌 일대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건대 금일의 급한 업무가 <b>토지 측량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기에 이 일을 의정부 회의에 상정합니다.</b> 『각부청의서존안』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2. 독립 협회

### || 독립 협회 창립

우리나라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땅이 적고 …… 오랫동안 남의 아래에 있어 …… 그 문의 이름을 <b>영은</b> 이라 하고 그 관을 <b>모화</b> 라고 부르는 것에 뜻 있는 선비는 비분 탄식하였으나 천운이 돌아 이제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 만방으로 어깨를 겨누니 …… 우리 동포 형제 2천만 인구의 행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공공의 의견으로 <b>독립 협회</b> 를 발기하여 전 <b>영은문 유지에 독립문</b> 을 새로이 세우고 전 모화관을 새로 고쳐 <b>독립관</b> 이라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요, 그 부근의 땅에 독립 공원을 이루어 그 문과 관을 보관하고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지라. 돌아보건대, 그 공역이 커서 큰 비용이 될 것이니 합치지 않으면 성취하기를 기약치 못할 것이요, 이에 알리니 밝게 헤아려 보조금을 다소간에 따라 보내고 본회 회원에 참입할 뜻이 있으면 그를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독립문

지나간 토요일 오후 두시 반에 독립문 주춧돌 놓은 정초식을 독립 공원 땅에서 시행하였는데, 일기도 매우 좋거니와 각색 일이 절차가 있게 되어 갔고 사람이 내외국민 아울러 5,6천 명이 왔더라. 독립문 들어가는 데는 푸른 나무로 홍예를 만들어 조선 국기로 좌우로 단장하고 <b>문 위에는 흰 바탕에 붉은 글자로 '독립문'이라 써 높이 달고, 문에는 독립협회를 훌륭하게 만들어 바람에 흔들리게 하였다.</b>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국내에서 금, 은, 석탄광 등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채굴하여 그 이익을 얻을지니, 하필 외국에 내어주어 몰래 넘보게 하고 흘러나가게 하여, 점점자기 나라는 날로 빈천케 하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요. 그러므로 <b>국내의 철도, 전선과 금, 은, 석탄광 등을 타국인에게 빌려 주고 내어준은 곧 전국을 타국인에게 파는 것이요,</b> 외국인 고문과 교사를 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성실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곧 전체 정부를 타국인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러시아 고문 철폐 주장

지금 있는 러시아 사관과 러시아 고문관이 대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과 대한이 자주하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러시아도 스스로 아는 바이다. 대한의 권리를 지키고 러시아의 정론을 쫓아 <b>러시아 사관과 러시아 고문관을 모두 곧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여 러시아 공사에게 통고하고자 한다.</b> 이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 대한 이천만 동포가 한 가지로 원하는 바이고, 세계 각국도 한 가지로 아는 바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같이 긴급한 형세를 정부에 말하여 전국 인민이 원하는 대로 통하도록 하자.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의회 개설 상소

만약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허다한 <b>민회</b> 가 있어 정부 대신일지라도 실정이 있으면 전국에 널리 알려 민중을 모이게 하여서 질문이 있고 논쟁과 탄핵이 있으며 …… 육대주와 동등하여 만국과 나란히 하는 것은 폐하의 권리이고, 폐하의 백성이 되어 폐하의 강토를 지키고, 그 정치를 거슬리고 법률을 어지러이 하는 신하가 있어서 종사를 해롭게 하면 탄핵하여 성토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b>흔히 말하기를 민권이 성하면 왕권이 반드시 손상된다 하오나 사람의 무식함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b> 오늘날에 이와 같은 민의를 없애게 한다면, 정치, 법률은 따라서 무너질 것이오며, 어디서 무슨 화가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온데, 폐하께서는 홀로 이에 미쳐 마음을 쓰지 않으실 이유가 있사옵나이까. 『윤치호 등의 상소문』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	-------------------------

## || 박성춘의 연설 : 관민공동회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튼튼하지 못하나, 많은 장대로 받치면 매우 튼튼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미래엔
---	----------------------

『대한계년사』

## || 헌의 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과 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li> <li>2. 광산, 철도, 석탄, 산림, 차관, 차병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li> <li>3.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개인 회사)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li> <li>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li> <li>5. 칙임관(1-2품의 최고 관직)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li> <li>6. 장정(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li> </ol>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
--	--

『주존본안 제3책』

## || 중추원 신관제(1조)

<p>제1조 중추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사항</li> <li>3) 칙령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문의하는 사항</li> <li>4)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에 대해 문의하는 사항</li> <li>5)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li> <li>6) 인민이 건의하는 사항</li> </ol>	교과서 수록 천재
---	--------------

『주의』

## || 중추원 신관제(3조)

제3조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옵서 문서로 임명하시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전에 의해 임명하시고, 의관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가 일찍이 있는 자로 회의하여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 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할 것	교과서 수록 천재
--	--------------

『주의』

## || 고종의 만민공동회 반대

짐이 민회의 일로 이미 칙유를 내렸으니 만일 우둔한 무리들이 두려워할 줄 모른 채 다시 <u>지난날의 버릇을 답습하여 삼삼오오 거리에 모여 모임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u> 파수 순검과 순찰 병정으로 하여금 규찰하여 즉시 금지시키도록 하라. 또한 방청한다는 핑계로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자들도 역시 금단하라.	교과서 수록 금성
--	--------------

『고종실록』

## || 독립 협회의 한계 : 제국주의와 서양 문명에 대한 인식

우리는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한 데 대해 아무런 유감이 없다. 중국 관리 중 몇 사람은 반대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환영할 것이다. …… 역사는 우리에게 서양 문명이 모습을 나타내는 곳마다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었음을 알려 준다. …… 우리는 그날이 곧 와서 서양 문명이 아시아 전 대륙에 관철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온 땅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것을 바란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독립신문』



## || 독립 협회의 한계 : 민중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 .....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실시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에 속하는 것이다.**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독립 협회의 한계 : 동학 농민군과 의병에 대한 비판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둔 미흡한 일이 있으면 기껏 한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뢰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세를 하니 본래 일어난 까닭은 권력자들의 불법한 일을 분히 여겨 일어나서 고을 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인데 불법한 일을 저희들이 행하니 그건 곧 **비도이다.**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교학사

### CHAPTER

# 55

## 항일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 1. 국권피탈에 대한 저항과 항일 의병 운동

#### || 안중근 심문서

검 사: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안중근: 나는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하겠다. **나는 의병의 참모총장으로 독립 전쟁을 하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다.** 따라서 나는 형사법이 아니라 전쟁 포로이다.

『나라사랑』

교과서 수록  
천재

####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일왕이 러일 전쟁을 선전 포고하는 글에 **“동양 평화와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라고 하였다. ....슬프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강점하였다.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어 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동양이 일치단결해서 막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당연한 형세를 무시하고 같은 동양의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친구의 정을 끊어, 서양 세력이 애쓰지 않고 이득을 얻게 하려 한단 말인가.

『동양 평화론』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 || 민영화의 유서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하는 가운데 모두 멸망하려 하는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가?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2,000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더욱 더 분발하여 힘쓰기를 더하고 그대들의 뜻과 기개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주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둡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아,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마라. 대한 제국 2,000만 동포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대한매일신보』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교학사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지난날 이등 후작(이토 히로부미)이 한국에 오자 어리석은 우리 국민이 …… 크게 환영하였더니, 천만 뜻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의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즉, 그렇다면 이등 후작의 본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였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 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들을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대한매일신보』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 을사오적

**매국노 이근택**의 아들은 한규설의 사위였는데, 그 딸이 시집갈 때 하녀 한 명을 데리고 갔다. 이근택이 대궐에서 돌아오며 숨이 차서 땀을 흘리며 부인을 대하였다. 그는 을사늑약을 맺은 일을 말하며 “내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 하녀가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부엌칼을 집어 들고 뛰어나오면서 소리쳐 말하기를 “**이근택아! 네 놈이 대신이 되어 입은 나라의 은혜가 어떤 것인데, 나라가 위태함에 죽지 않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내 비록 천인이기로서니 어찌 개돼지의 종이 되고 싶겠는가?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만 토막으로 참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며 다시 한규설의 집으로 도망쳐왔다.

『매천야록』

교과서 수록  
미래엔

##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의 주장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여 각국에 대한 국제 교섭의 권리를 강탈하였다. 한국은 자주국인데 어쩌서 일본이 한국의 국제 교섭에 간여하여 우리나라 황제의 명을 받든 사절단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귀국 총통 및 대표는 위기에 빠진 약소국을 돕고 조력을 베풀어 **우리 사절단을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시키고 모든 호소를 허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과서 수록  
금성

## 만국 평화 회의 제출 공고사

일본인들은 황제 폐하의 재가 없이 **한일 협상 조약(을사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에 무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한 제국 황제 폐하의 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박탈당한 데 대하여** 우리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대한 제국과 우방국의 외교 단절은 대한 제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들이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인들의 음모를 폭로하여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대표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중재를 간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들은 미리 감사드리며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황현의 절명시

<p>난리를 겪다 보니 백두의 나이가 되었네          여러 차례 목숨을 버리려 했으나 그러지를 못하였네.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가물가물 풍전등화만이 창천(蒼天)을 비추네.          묘사스러운 기운이 가리워 제성(帝星)은 옮겨가고,          궁궐은 침침하여 날이 새기도 더디구나.          조칙(詔勅)은 지금부터 다시는 없을 것이라,          옥같은 한 장 종이에 눈물이 천 줄이로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는데  <u>무궁화 삼천리는 이미 망하였도다.</u>          가을 등불 밑에 책을 덮어놓고 옛날을 생각하니,          인간 중에 글자 아는 사람이 되기도 어렵도다.          일찍이 나라를 지탱한 반치의 공로도 없었으니          다만 선을 이룰 뿐 충(忠)은 되지 못하리라.          마침내 겨우 윤곡(尹穀)을 따르는데 그치고          때를 당하여 진동의 뒤를 밟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노라.</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 유인석의 격문(을미의병)

<p>아! 왜놈들의 소위 신의나 법리는 말할 것조차 없거니와 저 국적 놈들의 몸뚱이는 뉘를 힘입어 살아왔던가. 원통함을 어찌하리. <u>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갚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u> 의관을 찢긴데다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만났으니, 천지가 뒤집어져 우리 고유의 이성을 보전할 길이 없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몸을 금수로 만드니 무슨 일이며,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풀 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 무릇 우리 각도 충의의 인사들은 모두가 임금의 보살핌을 받은 몸이니 환난을 회피하기란 죽음보다 더 괴로우며 멸망을 앓아서 기다릴진대 싸워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암집』</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미래엔</p>
--	-----------------------------------

## || 이강년의 격문

<p><u>머리를 각이고 의복을 바꾸니 나라의 풍속은 오랑캐로 변하였구나.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하니 갑오, 을미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다.</u> …… 저들의 죄를 세자면 하늘도 미워할 것이니 우리 국민 된자 모두가 일어나서 저들을 죽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무릇 의병을 일으킴에 응모한 우리 충의의 자사들은 모두 마음을 다져 먹고 나라에 보답할 뜻을 가졌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활빈당 강령 : 대한사민논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히 방곡을 실시하여 백성을 구제할 것</li> <li>- <u>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할 것</u></li> <li>- 시전을 혁파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눌 것</li> <li>- 일정하게 곡가를 낮추게 하는 법을 만들어 백성을 구제할 것</li> <li>- <u>외국에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u></li> </ul> <p style="text-align: right;">『한성신보』</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p>6. <u>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할 것.</u> 근래 개항장 이외의 곳에 외국 상인의 출입이 심하여 도성의 시민들이 모두 곤궁하게 되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외국 상인을 엄금하고 구빈법을 제정하여 외국 상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류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외국인 스스로가 미국 매입을 그만두게 할 방도가 없어서 나라의 이익과 백성의 영리를 외국 상인에게 넘기게 될 형편이다. 따라서 신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흉곡을 도모할 것</p> <p>13.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을 다른 나라에 주었다고 하는데, 4천여 년 내려온 국가가 다른 나라에 허락된다면 만약 각국이 국토를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양도해야 할 것인가? 도로는 인체의 혈액과 같고 혈액 없이는 삶을 바랄 수 없게 된다. 국내 철도 시설 용지로 인하여 만백성의 살 길과 수확하는 논밭 수만 두락에 손상을 가져온다면 국가의 피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u>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u></p> <p style="text-align: right;">『한성신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최익현의 을사의병 격문 : 포고팔도사민

<p>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을사조약)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b>5백 년 전해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b>, 임금이 없으면 신하가 어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어찌 홀로 보존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갈진대 어찌 한번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면암집』</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p>
---	---

## || 최익현의 을사오적 처벌 주장

<p>저들이 ..... 대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 및 영토를 보전한다고 말한 것이 몇 차례입니까. .... 그 사기와 모욕을 헤아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 저들이 이른바 황실을 보전한다고 하는 것을 폐하께서는 과연 깊이 믿으십니까? ..... 계약서에도 다행히 폐하의 준허와 참정의 인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 한갓 역적들이 억지로 조인한 허위 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 마땅히 우선 <b>박제순 이하 오적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나라를 팔아 먹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정미의병

<p>내가 제천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 더운 날이었다. 눈부신 햇빛이 언덕 위에 나부끼는 일장기를 쏘이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을 비추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 잣더미 위를 걸었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다. 1개월 전까지는 번잡하고 유복하던 촌락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기와 조각과 회색의 잣더미가 줄지어 있었다. .... <b>제천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b> 나는 산길을 따라 이천으로 가는 연도의 마을을 내려다보았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일본의 폭력 수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앞에서 마을이 차례차례로 잣더미로 변한 것을 보았다.</p> <p>..."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b>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b>" .....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자유를 향한 한국의 투쟁』</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두산</p>
--	--

## || 해외동포에 보내는 격문

<p>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간교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우리는 모든 일본인과 그들의 첩자들, 협력 분자들 그리고 야만적인 군대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의 글』</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두산, 교학사</p>
--	--------------------------------------

## || 서울 진공 작전

<p><b>군사장(허위)</b>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썰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국에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군하였다. 대군은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3백 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 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의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돌아오기로 계획하였다. 전군이 모여드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하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마침내 퇴진하였더라. 이때에 사기를 고무하여 <b>서울 진공을 하니, 그 목적은 서울로 들어가 통감부를 쳐부수고</b> 성하(城下)의 맹(盟)을 이루어 저들의 소위 신탁약 등을 파기하여 대대적 활동을 기도함이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 이인영의 효와 충

<p><b>나라에 대한 불충은 어버이에 대한 불효요, 어버이에 대한 불효는 나라에 대한 불충이다. 그러므로 나는 삼년상을 치른 뒤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소탕하고 대만을 회복하겠다.</b></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해산 군인들의 의병 참가

가평, 원주, 제천의 여러 의병 봉기는 모두가 해산병들로 서양 총을 가지고 있고 일찍이 조련을 거쳤으며 규율이 있어 일본군과 교전에서는 살상이 심히 많고 세력이 대단히 장대하여 의병의 수가 4,5천 명이라고 한다. 『속음청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 호남 의병

전라남도 보성군에 사는 담살이 안규홍이 의병을 많이 모집하여 그 고을 안에 머물렀지만 백성에게는 침범하는 일이 추호도 없었다. 『신보』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보성은 안(규홍)의 출신지라 주민들 가운데 배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극히 많고 도리어 안(규홍) 등에게 동정하는 자가 있어 토벌의 효과가 적다. 『폭도사편집자료』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남한 대토벌 작전

사건 발생 초기에는 지방민이 폭도에 동정하고 이를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대는 ..... 책임을 각 마을로 돌려 도륙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여, 충북 제천 지방과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조선 폭도 토벌지』	교과서 수록 천재
---	--------------

## 2. 애국계몽운동

### || 헌정 연구회 강령

1. 제왕의 권위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할 것 2. 정부의 명령은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복종할 것 3.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것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대한 자강회 취지서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強)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 마침내 오늘날 외국인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 자강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다.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지식이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지식을 열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있지 않겠는가?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하나뿐인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자강회월보』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	---

### || 신민회 설립 취지문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났는가? 민습의 완고 부패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어리석고 어두움)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모패(耗敗: 줄고 시들다)에 신수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실업의 조체(凋弊: 시들다)에 신규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 ....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함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의 원하는 바이며 신민회의 품어 생각하는 까닭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다. 『통감부 문서』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비상, 두산
--	-----------------------------

## Ⅱ 신민회 목적의 실행 방법

<p>1조 각소에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전파하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할 것                  2조 신문 잡지와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계발케 할 것                  3조 정미(精美)한 <u>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u>                  4조 각처 학교의 교육 방침을 지도할 것                  6조 실업가에게 권고하여 영업 방침을 지도할 것                  7조 본회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립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8조 본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애국심이 있는 동포로서 일체 단합할 것                  9조 <u>회원이 산재한 각 국역에 연락 기관을 나누어 설치하여 교통 편의에 전적으로 힘쓸 것</u>                  10조 실력을 호가장하여 국체를 완전하게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 신민회 통용 장정』</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p>
--	-------------------------------

## Ⅱ 신민회 독립 전쟁 전략

<p><u>의병 투쟁이 약화되어 가던 1909년 무렵, 신민회의 양기탁 등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논의하고 독립 전쟁 전략을 수립하였다.</u>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p> <p>(다른 해석 : 1909년 봄, 의병 운동이 퇴조할 무렵 신민회의 지도부는 총감독 양기탁의 집에 모여서 전국 간부 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여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군을 창건하기로 결정하고 독립 전쟁 전략을 결정하였다.)</p> <p>1. 독립군 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청국령 만주 일대를 자유 지대로 보고 이곳에 설치하되, 후일 독립군의 국내 진입에 가장 편리한 지대를 최적지로 한다.                  2. 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한다. 자금은 신민회의 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모금한다.                  3. <u>토지가 매입되면 애국적인 인사들과 청년들을 '계획적으로', '단체 이주'시켜 신영토로서의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농업을 통해 경제 자립을 실현한다.</u>                  4. 신한민촌에는 강력한 민간단체를 조직하고, 학교와 교회, 기타 교육 문화시설,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 겸비의 교육을 시행하고 무관을 양성하도록 한다.                  5. 무관 학교 졸업생과 이주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창건한다. 병사는 현대적 군사 훈련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켜 일본과의 정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든다.                  6. <u>독립군이 양성되면 기회를 보아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국내로 진공한다.</u> 이에 맞추어 국내에서는 신민회가 주체가 되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를 통일, 연합하여 일거에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안도산 전서』</p>	<p>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금성</p>
--	----------------------------------

## Ⅱ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p>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새 영토로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를 모집, 파견하여 <u>한인 단체를 일으키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기회를 엿보아 독립 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u></p> <p style="text-align: right;">『105인 사건 판결문』</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p>
---	---------------------------

## Ⅱ 오산 학교 개교식 식사

<p>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조상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본인들에게 내맡길 수 있겠는가?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이다. …… <u>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손을 가르쳐 만분의 일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오산 80년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p>
--	---------------------------------------



## Ⅱ 사회진화론 : 윤희정

<p>&lt;생존의 경쟁&gt; 금일의 생존 경쟁은 도저히 면코자 하여도 가히 면치 못할 것이니, …… <b>개인의 생존 경쟁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 경쟁을 계도치 아니함이 불가하니, 대저 우승열패는 인사의 상이며 약육강식은 현세의 예 이거늘</b> …… 생존 경쟁을 알지 못하면 개인이 능히 노예의 부끄러움을 요행히 면할 자가 없고, 생존 경쟁을 알지 못하면 국가가 능히 판도의 색을 불변할 자가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자강회 월보』</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Ⅱ 애국계몽운동의 한계 : 의병운동 비판

<p>의병 제군의 오늘 이러한 행동이 …… 실은 도리어 동포를 해치고 조국을 상하게 할 뿐이요, 털끝만치도 실효가 없을지니, …… <b>국권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모두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b>, 농부는 농업을 열심히 하고 공장은 공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저축하고 자식을 교육하여 지성을 계발하고 실력을 양성하면 다른 날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가 어찌 억지로 의병을 나무라는 것이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황성신문』</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두산, 금성</p>
---	--------------------------------------

<p>실로 충의의 정성에 격발하여 의병이라 일어나는 자도 있는 동시에, 저 <b>교활한 도적떼와 전일의 부랑 파락호의 못된 무리가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의병을 거짓 칭하는 자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b> 이러한 무리는 이르는 곳마다 만행 폭거만 자행할 뿐이요, 한 점 애국하는 정성이 있으리오. 이러한 무리는 오히려 의병에게 누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의 모욕을 불러들이는 자이니, …… 무기가 날카롭고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학술이 부족하여 전략과 무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병역에 종사할 수 없을지니, 지금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으로 혈기만을 믿고 전략, 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와 교전하고자 함은 부녀자와 아이들이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b>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일체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각기 산업과 교육에 종사하라.</b></p> <p style="text-align: right;">『황성신문』</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Ⅱ 개항기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p><b>친임 책임 정부당</b> 국가 흥망 맡은 후, 망할 일만 하는 것 가통(통탄)하야 못 볼 것  <b>외국 유학 개화당</b> 하이칼라 살죽경, 흰소리만 하는 자 께심하야 못 볼 것  <b>금육관자 완고당</b> 대포 소리 못 듯나, 자손 교육 앓은 것 무식하야 못 볼 것  <b>오합지중 의병당</b> 나라 원수 갑자고, 떠들다가 죽을 뿐 불쌍하야 못 볼 것</p> <p style="text-align: right;">『공립신보의 동요』</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 침투

### Ⅱ 조일수호조규 부록 (2관)

정해진 조선의 통상 각 항구에서 <b>일본인이 토지를 빌려 주거하는 것은 각기 지주와 상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b> 조선 정부에 속하는 토지는 조선인이 관에 내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거주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 Ⅱ 조일수호조규 부록 (4관)

부산 항구에서 <b>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b> 도로의 거리는 방파제로부터 계산하여 <b>동서남북 각 직경 10리 (조선법에 의함)로 정한다.</b> 동래부 중에서는 이정 외라 할지라도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이 이정 내에서 일본인은 자유로이 통행하고 기타의 산물 및 일본 산물을 매매할 수 있다.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비상, 두산
--	-----------------------------

### Ⅱ 조일수호조규 부록 (7관)

<b>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지학사
---	-------------------------------

### Ⅱ 조일 무역 규칙 (6칙)

<b>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	-------------------

### Ⅱ 조일 무역 규칙 (7칙)

<b>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b>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	-------------------

### Ⅱ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전문)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있었으므로 제도와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지금 여러 나라는 벌써 뱃길로 통상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마땅히 <b>바다에 대한 금령을 하루빨리 취소하고, 두 나라 상인들이 똑같이 상호 무역을 하여 함께 이득을 보아야 한다.</b> ..... 이 수륙 무역장정은 <b>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b>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체결된 각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	------------------------------

### Ⅱ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제1조)

<b>청의 상무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의 대관을 텐진에 파견한다.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제2조)

조선 상인이 이미 개항한 청의 항구에서 소유한 일체의 재산 관계의 범치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사람인든 간에 모두 <b>청의 지방관이 법조문에 따라 심판한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고종실록』
--	--



##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제4조)

<p>두 나라 상인들이 쌍방에서 이미 개항한 항구에 가 무역을 할 때에 만일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며 집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하며, 모든 토산물과 규정에 금지되지 않은 물건은 다 팔고 살 수 있도록 승인한다.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b>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간</b>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에 운반하여 상점을 차려 놓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상무위원 및 지방관이 함께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수레와 배 등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미래엔, 비상 두산</p>
---	--

##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의 경제

<p><b>어떠한 벽촌이라고 하더라도 장날에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b> 공주, 강경, 예산 등 시장에는 어디나 20~30인이 와서 장사를 한다. …… 지금까지 안성 시장에는 수원 상인이 많았다. 외국 물품을 인천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 백 명이나 되었다. 요즘 들어 <b>안성 시장에 청나라 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많아졌다.</b> …… 공주, 강경 같은 곳은 자기 집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 전라도 전주 같은 곳은 청 상인이 30명 정도 들어왔다.</p> <p style="text-align: right;">『통상회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p>
---	---------------------------

## || 조일통상장정(제37관)

<p>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b>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b>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금성, 교학사</p>
--	---------------------------------------

## || 조일통상장정(제42관)

<p><b>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b></p> <p style="text-align: right;">『고종실록』</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방곡령 배경

<p><b>1888년 8월 21일 올해 흉작은</b>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도내 모든 군현이 흉작이어서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 <b>장시의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몰라 1석에 거의 1만 전이다.</b> …… 가만히 알아보니 도내에 쌀, 콩과 묵은 곡물 약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만일 이것을 <b>일본 상인이 이전처럼 사서 가져가면 전 도가 굶을 형편이다.</b> 가련한 우리 굶주린 백성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p>	<p>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p>
--	---------------------------

## || 방곡령 통고서

<p><b>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귀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b> 궁지에 몰리고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하다. <b>곡물이 이 출되는 것은</b> 당분간 방지하기 <b>않을 수 없다.</b> 이에 <b>조일 통상 장정 제37조에</b> 근거하여 기일에 앞서 통지하니 <b>바라건대 귀국의 상민들에게 통지하여 음력 을유년(1885년) 12월 20일부터 만 한 달 이후부터는 곡물을 이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b></p> <p style="text-align: right;">『방곡령 관계 서류철 제1권』</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교학사</p>
---	---------------------------------------

## || 황국 중앙 총상회의 외국 상인 내륙 상행위 반대

<p>근일 외국인이 내지의 각부 각군 요지에 점포 가옥을 사서 장사를 하고 또 전답을 구입한다고 하니 이는 외국과 통상에도 없는 것이요 외국인들이 내지에 와서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고 전답을 사들이면 <b>대한 인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모두 돌아가고</b> …… 우리나라 각부 각군 지방에 잡거하는 <b>외국 상인을 모두 철거하게 하고 가옥과 전답 구매를 일체 엄금하여 대한 인민의 상업을 흥왕케 하여 달라.</b></p> <p style="text-align: right;">『독립신문』</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두산</p>
---	---------------------------

## || 한성 은행 광고

<p>본 은행은 중서 광통방전 교환소에 설치하여, 자본금은 4천 주(매주 은화 50원)로 하는데 군자 여러분들은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늘리는 법은 저축과 부동산 및 동산(금은 등 확실한 물건)의 저당 대부이고, 보증인이 확실하다면 저당 없이 대금도 행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1만 엔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자본금이 2천 엔밖에 없다면 상품 적치표를 은행에 저당하면 8천 엔을 대부합니다. 등등</p> <p style="text-align: right;">건양 2년 3월 25일 한성 은행 발기인 김중환, 민영찬, 조재명, 한치조, 이승업, 김영모, 이규정, 김태진, 『독립신문』</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황국중앙총상회 설치

<p>근래 외국인의 상업은 날로 더욱 흥성하는데 자국민의 상업은 날로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서울 안의 상업계는 다 저들이 점유하고 있고 오직 중앙에 겨우 손바닥만큼의 한 조각만이 남아 있으니 …… 이 때문에 총상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승정원일기』</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청일 전쟁 이후의 제물포

<p>1895년 1월 15일, 나가사키를 거쳐 제물포에 닿았을 때 …… 한때 장사가 번창하고 밤낮으로 북소리 징소리 폭죽 소리가 요란하던 중국인 거리는 조용하고 황폐하였으며 …… 거리에 단 한 사람의 중국인도 없었다. …… 일본이 점령한 중국인 거리는 중세 페스트 오염 지역만큼이나 궤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p>현재 <b>러시아가 우리 대만을 향하여 절영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b> …… 그 신하된 자가 만약 조그마한 땅이라도 타국인에게 주면 이는 황제 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대한 2,000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계년사』</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 운산 금광 투자 권유 광고

<p><b>한국은 금광이 풍부히 저장된 땅이다. 거기다 왕은 관대한 지성을 가진 인물로서 미국에게 금광 이권을 주고 싶어 한다.</b> 근대식 시설만 갖추면 톤당 750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은 미화로 일당 5전에서 10전의 저렴한 가격으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은 막대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알렌의 편지』</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백동화 교환 비율

<p>백동화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b>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 당 1전의 가격으로</b> 정부에서 사들이며, 팔기를 원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단 모양과 질이 조잡하여 화폐로 인정치 어려운 <b>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b></p> <p style="text-align: right;">『탁지부령 제1호』</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두산 미래엔, 교학사 지학사</p>
---	--



## Ⅱ 화폐정리사업에 대한 반발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함은 실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라니 이 조치를 무엇이라 평할 것인가. 사실 그 비밀은 제정 이전에 벌써 일부에 누설되어 양화는 점차로 일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악화만을 손에 쥐고 알지 못하여 단두대 위에 끌려온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성상업회의소 의원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화폐정리사업의 폐단

**현재 경제가 공황을 맞아 금융이 막히고 상행위가 끊어져 최근 몇 달 내에 대상인들로 파산한 자가 수십 명이고 그 밖에 도산한 자가 나날이 늘어나 장차 무고한 인민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첫째, 한국 정부가 보조화인 백동화를 무제한으로 남발하여 금융을 문란하게 한 것이요, 둘째, 정부가 남발한 이 악화의 손해를 전부 무고한 인민에게 돌렸으니 이는 불법한 일이요, 셋째, 소위 교환의 수납 방법이 불완전하고 우리나라 상업상 관습으로 순환 유통하는 법을 무시하여 한국 상인 손에는 금융을 불통하게 함이요, 넷째, **신구화 교환의 명령이 갑자기 나와 일반 인민이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강압적 수단으로 독촉하여 수납함이라.**

『항성신문』

교과서 수록  
비상

## Ⅱ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는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는다면, 그 때는 이미 3000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이다. 국토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일 그 액수가 미달할 때에는 응당 자원해서 일원, 십원, 백원, 천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교학사

## Ⅱ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음력 정월 초 9일에 **서상돈 씨 등 달구벌 안팎의 뜻있는 신사 수백 명이 복후정에서 대회를 여니 모인 사람이 남녀노소 무릇 수만 명이라.** 신사 박정동 씨가 연단에 올라 통론하기를 “빛쟁이가 독촉하면 필경 강토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우리 백성은 장차 어디서 기거하여 생활할 것인가.” …… “우리가 일용에 무익한 연초를 3개월 기한으로 끊고 그 비용으로 각자 **1원씩만 모으면 전국 인구에 담배 피우지 않는 부녀자를 제하여도 1,200만 원이 될 것이니 국채를 갚음이 어찌 걱정이라.**” 하니 이에 만장일치로 박수갈채하고 각자 주머니를 풀어 의연금을 내니, 고취하는 소리 소나기에 물이 넘쳐흐르듯 하더라.

『대한 자강회 월보』

교과서 수록  
리베르

## Ⅱ 부인 동포에게 고하노라

우리가 함께 여자 몸으로 규문 안에 있어 삼종지위에 간섭할 일 오랫동안 없었으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듣자하니 국채를 갚으려고 이천만 동포가 석 달간 담배를 아니 피우고, 금전을 모은다 하니** 족히 사람으로 흥감케 할지요, 앞날에 아름다움 있으리. …… **우리는 여자인 까닭에 이 몸에 값진 것이 다만 패물뿐이다.** 하지만 큰 산이 흙덩이를 사양치 아니하고 큰 바다가 가는 물을 가리지 아니하기로, 적음으로 큰 것을 도우리오.

『대구 남일동 7부인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2. 독도와 간도 문제

### Ⅱ 울릉도와 독도

(1022년) 가을 7월 병자일에 도병마사가 여진에게서 약탈을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경북 영해)에 배치하고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어 영구히 그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고려사』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남구만이 전일의 답서를 고치기를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 현의 동해 가 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관 리를 보내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울릉도의 뽕족한 산봉우리와 수목은 내륙 지역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옛 자취와 생산되는 토산물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속중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유상운이 말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일은 이제 명백하게 한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 고 단속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순시자를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속중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고종이) 검찰사 이규원의 하직 인사를 받았다. (고종이) 이때 “울릉도에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 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아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임명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문서 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Ⅱ 일본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

울릉도를 관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질의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울릉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후 별지 서류에서 요약 정리한 바, 1696년 정월 제1호 막부의 평의, 제2호 역관에 의 통보서, 제3호 조선에서 온 서한, 제4호 이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답서 및 보고서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게 올린 품의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질의한 바 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우리나라와 관계없다고 명심할 것 『태정관지령』	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	--------------------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원록 연간에 주고받은 죽도에 관한 서한이 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이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오키 섬을 바라보 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이주(오키 섬)를 한계로 한다. 『은주시청합기(1667)』	교과서 수록 비상
---	--------------

### Ⅱ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 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 향장, 서기, 사령의 수)이 미비하고 …… 세금 을 거두어 먼저 마련할 것 제5조 미진한 제조(여러 조)는 본도 개척을 다한 차제에 마련할 것	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미래엔, 교학사
--	--------------------------------



## ||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

별지 내무대신이 청한 안건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에서 거리가 서북으로 85 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한 형적이 없다. …… 소속 및 섬의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b>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다.</b> …… 이를 우리나라의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생각하여 요청한 바와 같이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심훈택 보고서

<b>울릉 군수 심훈택의 보고서</b> 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본부 바깥 바다 100여 리 밖에 있는데, 4월 4일 진시 가랑에 윤선 1척이 군내 도동포에 다가와 정박하고 일본 관리 일행이 관사에 이르러 말하기를, ‘ <b>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b> ’고 하였습니다. ……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원감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의 보고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미래엔
--	----------------------

보고는 잘 받아 보았다.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하여서 보고하라.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	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미래엔
--	---------------------------

## ||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1954)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일관된 주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일본이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다. …… <b>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b> 이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연합국 자료에 나타난 독도

3. 이 각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와 약 1천여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과 북위 30도의 북쪽 유구(난세이) 열도(구찌노 시마 도서 제외)로 한정되며, <b>우쓰료(울릉)도, 리앙꼬르 암석(다케시마, 독도) 및 헬파트(사이슈 또는 제주도) …… 등은 제외한다.</b>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
--	-------------------

제3항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하였던 한국 본토와 주변의 모든 섬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3.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 이 섬과의 접촉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1946)』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일본 법령에 나타난 독도

구령에 의해 공제 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b>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를 제외한 섬을 말한다.</b> <b>2.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b> 『대장성령 4호(1951)』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간도 영유권 주장

<p>신의 생각에는 하류가 비록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국경을 표시하는 <b>정계비퇴(淸界比退)</b>들이 모두 그와 같으며 <b>토문의 형편</b>이 또 이같이 멀어서 두만강 상류와는 인접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만 이것을 <b>토문정계</b>로 알고 있을 뿐, 당초부터 추호의 거짓도 없으며 듣기에 거슬리는 말로 전력으로 변명하였으나 저들이 말하는 것은 사적으로 <b>도문강의 정원(바른 기원)을 경계로 결정하고자 하였고 신의 말은 정계비퇴를 경계로 입증하므로 서로가 뒤엎쳐서 피차가 모순</b>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한 도면으로 조정에 귀속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후 10여 일 상의한 결과 비로소 초본을 작성하여 조회에서 공적인 열람을 거친 뒤 다시 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p> <p>『청국 파견 덕옥 등과 감계사 이종하 장계』</p>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간도에 관리 파견

<p>내부대신 임시 대리 의정부 참정 김규홍이 제의하였다. <b>“북간도는 우리나라와 청 사이에 끼인 지역입니다.</b>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고을 백성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만 호에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 <b>간도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임명하여 간도에 머물며 사무를 맡아보게 하십시오.</b>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염려하여 보살펴 주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고종이 승인하였다.</p> <p>『고종실록』</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간도 관리사 파견

<p>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전에 <b>분수령 정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에 따라 세를 정해야 할 것인데,</b>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b>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b>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고종실록』</p>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간도 협약

<p>제1조 <b>일본과 청 두 나라 정부는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밝힌다.</b></p> <p>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이를 표시한다.</p> <p>제4조 <b>도문강 이북 지방의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관할 재판에 귀속한다.</b> 청국의 권한은 이상의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및 그 밖의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p> <p>제5조 도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도문강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6조 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를 연결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p> <p>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즉시 효력을 지닌다. <b>통감부 파출소와 문무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시작하여 2개월 동안에 끝내야 하며,</b>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로 제2조에서 열거한 통상지에 영사관을 개설하여야 한다.</p> <p>『순종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비상 교학사
--	-------------------------------------



## CHAPTER

## 57

## 사회 의식 변화, 근대 문물 수용

## 01. 신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 1. 민권 의식의 성장

## || 인권사상

백성마다 얼마만큼 하느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권리 ……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하느님이 세계 인류를 낳으실 때에 사나이냐 아낙네냐 사람은 다 한가지라. 여성도 남성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권을 가져 ……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독립 협회의 민권 보장책

첫째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당하는 일은 어디까지든지 보호할 일 둘째는, 무단히 사람을 잡거나 구류하지 못하며, 잡으려면 그 사람의 죄목을 분명히 공문에 써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죄인을 잡을 일 셋째는, 잡은 후에도 재판하여 죄상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스리지 못할 일 넷째는, 잡힌 후에 가령 24시간 내에 법관에게 넘겨서 재판을 청할 일 다섯째는, 누구든지 잡히면 그 당사자나 친척이나 친구가 즉시 법관에게 말하여 재판할 일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	------------------

## || 여권통문(여학교 설치 통문)

어찌하여 오로지 귀먹고 눈먼 병신 모양으로 구습에만 빠져 있느뇨. 이것이 한심한 일이다. 혹시 이목구비와 사지 오관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 관계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받지 않고 후대를 받음은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에 못지않은 고로 권리도 동일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황성신문』	교과서 수록 비상
이천만 동포 형제가 …… 개명한 신식을 좇아 행할 사이 ……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규(옛날식 규방)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의 벌여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침구에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 『황성신문』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여성권 신장 노력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녀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녀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이들이 문명 개화가 못 되어 이치와 인정은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오. …… 조선 부인네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넓어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이 권리와 같은 줄을 알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부인네들께 전하오니, 아무쪼록 학문을 높이 배워 사나이들보다 행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넓혀 부인의 권리도 찾아라.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두산
--	--------------

## 2. 생활 모습이 변화와 근대문물의 수용

### II 기차의 도입

<p><b>화륜차</b>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b>기관차의 굴뚝 연기</b>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p> <p>『독립신문』</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p><b>경인 철도 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b>하는데 ..... 화륜거 구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에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를 각기 방 한 칸씩 되게 만들어 여러 수레를 철구로 연결하여 수미상접하게 이었는데 수레 속은 상중하 3등으로 수장하여 그 안에 배포한 것과 그 밖에 치장한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더라.</p> <p>『독립신문』</p>	<p>교과서 수록 두산, 교학사</p>
<p><b>남대문 정거장</b>에서 요령 소리가 덜렁덜렁 나며 붉은 모자 쓴 사람이 ‘후상, 후상, 후상 오이데마생까?)부산, 부산, 부산 안 가십니까?)’ 하고 외는 소리가 장마 속 논가에 땀방울이 끓듯 하니, 이때는 하오 <b>십 시 십오 분 부산 급행차 떠나는 때라</b>.</p> <p>『추월색』</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p>(일본인들은) 본래 <b>콜로라도 철도원들에 의해 계획된 서울과의 연결을 미국인들에게 빼앗아 제물포-서울 구간 철도의 주인이 되었다</b>. ..... 이 철도와 함께 일본인들은 제물포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 텐진과 상하이 그리고 더 멀리 서쪽 유럽에서 오는 모든 물품들은 제물포를 거쳐 국내로 들어가야 한다.</p> <p>『한국기행』</p>	<p>교과서 수록 비상</p>

### II 경부 철도가

<p>1. 우렁타게 토한 그덕 소리에 <b>남대문</b>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빨리 부난 바람의 형세 갓흐니 날개 가딘 새라도 못 따르겠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비상</p>
--	---------------------------

### II 철도의 문제점 : 아리랑

<p>아리랑 고개에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를 기다린다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 신세가 웬 말인가 밭은 <b>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b></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세창양행 광고

<p>이번 저희 <b>세창 양행이 조선에서 개업</b>하여 외국에서 자명종 시계, 각종 램프, 서양 단추, 각색 서양 직물, 서양 천을 비롯해 염색한 옷과 선명한 염료, 서양 바늘, 서양 실, 성냥 등 <b>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b> 모든 손님과 상인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나 노인이 온다 해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p> <p>『한성주보』</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신문물 유입에 대한 비판

<p>개화를 한 다음 여러 나라를 맞아들여 환영하고 <b>전권 대사를 파견</b>하였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해마다 억만을 헤아렸다. <b>천하에 기묘한 보화, 완물이 궁정에 가득 차서</b> 넘쳤다. <b>임오, 갑신년의 변을 겪은 뒤에는</b> 항상 어두운 밤에 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b>궁중에 밤마다 전기 등을 수십 개씩 켜 아침까지 환하게 밝혔다</b>. 기타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모두 말하기 어렵다. <b>나라 창고가 이미 비어 어찌할 수 없다</b>.</p> <p>『오하기문』</p>	<p>교과서 수록 금성, 교학사</p>
--	---------------------------



## CHAPTER

## 58

## 근대교육, 국학, 문예

## 1. 근대교육의 발달

## Ⅱ 육영공원 : 교사 길모어의 글

학생은 대부분 상류층 가정의 자제였다. 우리 반에는 3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알파벳부터 시작하여야 했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Ⅱ 교육입국조서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계의 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잘 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밝히는 것은 교육으로 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것과 실용적인 것을 먼저 구별하여야 한다. 이제 짐은 정부에 명령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덕(德)과 건강(體)과 지(智)를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며 독립하며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도다. **지식의 개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교학사

교육에는 방도가 있으니 먼저 허명과 실용을 분별해야 한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의 찌꺼기만 주어 모으고 지금 돌아가는 큰 형편에 어두운 자는 문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쓸모없는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교육하는 강령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내세우는 바이다.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이화학당 스크랜턴 부인의 서약서

미국인 예수교 선교사 스크랜턴은 조선인 박 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는 어떠한 벌이든지 어떠한 요구든지 받기로 함. 나는 당신의 딸 복순이를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서방은 물론 조선 안에서 단 10리도 데리고 나가지 않기를 서약함.

교과서 수록  
천재

## Ⅱ 근대 교육 현장

수업은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한다. 그 사이 식사 시간 외에 오락이 있다. **초등학교는 시골이나 도심의 주택을 사용하는데** ..... 교사와 학생은 의자나 바닥에 앉아 수업한다. 과목 중에 **도덕 기본서 읽기**가 있다. 한글이나 한자로 인쇄된 책자로서, 공자와 맹자 책을 번역하거나 발췌했다. 우화적 조선의 역사, 조선과 세계의 지리, 산수의 4원칙, 즉 가감승제 등을 배운다. **교사는 각 문자의 의미와 필기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크게 소리 내어 반복한다.** 학생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읽는다. 이런 책 읽기는 학교 옆을 멀찍이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다.

『한국에서』

교과서 수록  
두산

## Ⅱ 대한 제국의 교육 정책 : 실용적 교육

우리나라의 인재가 외국보다 크게 못한 것은 아니며 다만 **실용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이 식견이 열리지 못하고 농업과 상업이 흥기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업이 날로 영락하고 나라의 재정이 날로 궁해가고 있다.

1899, 『고종이 반포한 조칙』

교과서 수록  
금성

## 대한 제국의 교육 정책 : 유교 교육

<p>욕심은 하늘에 넘치고 명분과 교화는 쓸어버리듯 없어지며 예법은 크게 무너지고 윤리는 퇴락하였다. …… 아 아! 이것이 어찌 종교가 밝지 못한 데로부터 온 환란이 아니겠는가? …… 이제부터는 <b>집이 동궁과 함께 한 나라</b> <b>유교의 종주가 되어 공자의 도를 밝히고 거룩한 성조의 뜻을 이을 것이다.</b></p> <p>1899, 『고종이 반포한 조칙』</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사립학교령

<p>제2조 <b>사립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함.</b> 제10조 <b>학부대신은 사립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b> 제11조 <b>설립 인가를 얻지 않고 학교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학부대신은 그 사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b></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2. 근대 언론의 발달

### 한성순보 발간

<p>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b>박문국</b>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기재하여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반포하기로 하고, 이름을 '<b>순보</b>'라 하여 <b>견문을 넓히고</b>,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 주고, 상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 새 것에는 어둡고 옛 것만 고집한다면 우물에 앉아 서 제 것만 크다고 하는 격이 될 것이다.</p> <p>『한성순보』</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민지와 신문

<p>민지가 몽매하여 민권이 서지 못하면 그 민은 민이라 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민지가 발달한 후에야 우리나라의 안녕과 민권의 동등이 가능한 것이며, <b>민지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p> <p>『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독립신문 창간사

<p>우리는 조선 대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고로 편당 있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생 각하고 하는 말은 우리 신문 상에 없을 터이요. …… 그러한즉 이 <b>신문은 꼭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요,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히 기록할</b>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요.</p> <p>『독립신문』</p>	<p>교과서 수록 두산, 금성</p>
---	--------------------------

###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평가

<p>신문으로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기타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으나, <b>제일 환영을 받기는 영국인 베델이 경영 하는 대한매일신보였다.</b> 당시 정부의 잘못과 시국 변동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관을 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혀를 툭툭 차고, 각 학교 학생들은 주먹을 치며 통론하였다.</p> <p>『별건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3. 한글과 역사 연구

#### Ⅱ 국어와 국문의 필요 : 주시경

<p>후생들이 (세종대왕의) 뜻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문만 숭상하며 어릴 때부터 이삼십까지 아무 일도 아니하고 한문만 공부로 삼으되, 능히 글을 알아보고 능히 글로 그 뜻을 짓는 자가 백에 하나도 못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한문은 형상을 표하는 글일뿐더러 본래 타국 글이 고로 이 같이 어려운지라. ……전국 인민의 사상을 돌리며 다 넓히려면 불가불 국문으로 각색 학문을 저술하여 번역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다 쉽게 알도록 가르쳐주어야 될지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한문을 구경도 못하였지만 저렇듯 부강함을 보시오. 우리 동방도 4,000여 년 전부터 개국한 2,000만 중 사회에 날로 때로 통용하는 말을 입으로만 서로 전하던 것도 큰 흠절이어늘 국문난 후 기 백년에 사전 한 권도 만들지 않고 한문만 숭상한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신여기지 말고 힘써 그 문법과 이치를 탐구하며, 사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 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라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우』</p>	<p>교과서 수록 리베르, 비상 지학사</p>
--	-----------------------------------

#### Ⅱ 을지문덕전 서문

<p>이 책을 만든 목적은 독자들의 술자리나 차 마시는 자리에 이야깃거리를 제공코자 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명예로운 역사를 통해 못난 자를 경계하고 깨우쳐 주려 함이며, 선조의 위대한 사업을 칭송하여 국민의 영웅 숭배심을 고취하고자 함이고, 또한 이천여 년 전의 일을 한가로이 읊고자 함이 아니라 <b>열성적, 모범적 위인의 행적을 그려내어 이천 년 후 을지문덕과 맞먹는 인물을 기르코자 함이니</b>, 모든 독자는 항상 이에 유념하여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을지문덕전』</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p>
--	--------------------------

#### Ⅱ 독사신론 서론

<p>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b>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b>,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 역사를 쓰는 사람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적고, 정치는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하였는지,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갔으며, 그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b>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b></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교학사</p>
<p>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b>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명이 크지 않을지니</b>,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운진저 …… 금일에 민족주의로 전국의 완고한 꿈을 깨게 하며, 국가 관념으로 청년의 새로운 뇌를 만들어 우수한 자가 살고 열등한 자가 망하는 십자거리에서 어깨들 나란히 하여 한 가닥 아직 남아 있는 국맥을 보존코자 할진대, 역사를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지니</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Ⅱ 신채호의 민족주의

<p>신성한 먼로주의가 백기를 든 후로 오대양 육대주에 이른바 6대 강국이니 8대 강국이니 하는 열강이 모두 온갖 정성으로 제국주의를 숭배하며 앞 다투어 제국주의에 굴복하여 세계 문대가 마침내 하나의 제국주의의 활극장이 되어버렸도다. 그런즉 이 <b>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족주의를 발휘함이 바로 그것이니라.</b></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p>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한 글자가 울리게 할까. 가로되 오직 역사로써 할지니라. ……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피 방울방울이 나라를 위하여 끓게 할까? 오직 역사로 할지니라. 역사가 무엇이기에 그 효능이 이처럼 신성하단 말인가. 가로되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그 국민의 변천 성쇠의 실적이니,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가 흥하는 것이다. …… 오호라 <b>내가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케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지이다.</b> 역사를 읽되 어릴 때부터 읽을지며, 역사를 읽게 하되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읽게 하며, 역사를 읽게 하되 상등 사회뿐 아니라 하등 사회도 읽게 할지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협회회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p>
---	---------------------------

## 4. 문예의 새 경향

### || 해에게서 소년에게

<p><b>쳐-르썩, 쳐-르썩, 싸-아/</b>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뿔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b>쳐-르썩, 쳐-르썩, 척, 튜르릉, 콧.</b></p> <p style="text-align: right;">『소년』</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이인직의 혈의 누

<p>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비스마르크)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 옥련이가 피란 갈 때에 모란봉 아래서 부모의 간 곳 모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난데없는 철환 한 개가 넘어오더니 옥련의 왼편 다리에 박혀 넘어져서 그날 밤을 그 산에서 목숨이 붙어 있었더니, 그 이튿날 일본 적십자 간호수가 보고 야전 병원으로 실어 보내니 군의가 본즉 중상은 아니라. 철환이 다리를 뚫고 나갔는데 군의 말이, 만일 청인의 철환에 맞았으면 철환에 독한 약이 섞인지라 맞은 후에 하룻밤을 지냈으면 독기가 몸에 많이 퍼졌을 터이나, <b>옥련이가 맞은 철환은</b> 일인의 철환이라 치료하기 대단히 쉽다 하더니, 과연 삼 주일이 못 되어서 완전히 평일과 같은지라.</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안국선 금수회의록

<p>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표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안당이 칼이나 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니 다를 것이 무엇 있소. 각국이 평화를 보전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위엄을 빌어서 도덕상으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전혀 병장기의 위엄으로 평화를 보전하려 하니 <b>우리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어서 제 몸을 죽을 것을 피한 것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오.</b></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권학가

<p>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벽상의 괘종소리 들어보시오.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오니/ 인생의 백년 가기 주마 같도다.</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대한제국 애국가

<p><b>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사/</b> 만수무강하사 큰 수명의 수를 산갈이 쌓으시고/위엄과 권세를 천하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5. 종교의 새로운 경향

## || 유교 구신론

나는 대한의 유교계의 한 사람이다. 우리 조상과 또 나의 평생이 공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몹시 컸는데, 현재 공자의 교가 날로 암담해지고 날로 더욱 쇠해가는 정경을 보니 비단 늙은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실로 척연히 땀이 날 정도이다. 그런 때문에 그 원인을 거슬러 연구하고, 잘못된 일을 추측해 보니 **유교계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개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천하의 주의들을 강구하려하지 않고, 내가 어린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나를 구한다는 주의만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는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숭상하는 것이다.

『박은식 전서』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 CHAPTER

## 59

## 일제 국권 피탈 과정

##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

## 1. 일본의 국권 침탈

## || 한일의정서

제1조 한일 양국은 영원히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리베르  
지학사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위 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 || 제1차 한일협약

1.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병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병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고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비상

## || 제2차 영일동맹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제4조 **대영 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제국이 인도 영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일본 외교 연표와 주요 문서』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지학사

## || 포츠머스 조약

제2조 <b>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국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b> 『구한말 조약취찬』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금성
---	------------------------------

## || 가쓰라 태프트 밀약

<p>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p> <p>둘째, 극동의 전반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일본, 미국, 영국 등 3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p> <p>셋째,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p> <p>『미국 역사 사료집』</p>	교과서 수록 리베르, 금성 지학사
--	--------------------------

## || 미국 대통령의 조선 인식(1901)

러시아의 남하 위협을 제거하고 본국의 만주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만주에서 일본의 힘을 러시아와 대등하게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직도 러시아보다 힘이 약한 일본에게 조선을 넘겨주어야 한다.	1. 교과서 수록 2. 교학사
--	---------------------

## || 을사조약

<p>대 일본제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데 이해관계가 같음을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조관을 약정한다.</p> <p>제1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대한제국이 외국에 갖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대 일본제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관리, 국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p> <p>제2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고 대한제국 정부는 이후에 대 일본제국 정부의 중개를 경위하지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한다.</p> <p>제3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대한제국 황제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대한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p> <p>『일본 외교 연표 및 주요 문서』</p>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미래엔, 비상 지학사, 두산 금성
--	---

## || 고종이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

1882년 이래로 아메리카 합중국과 한국은 우호 통상 조약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1904년에 체결한 협정(한일 의정서)에서 서약한 바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 정치를 선언하고 …… 나는 귀하가 지금까지 귀하의 생애의 특성이 아량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여 주기를 바라며, 귀하는 언행이 일치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고종이 험버트에게 보낸 전보

짐은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소위 보호 조약이 총검과 공갈하에 억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미국에 전달하기 바란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한일 신협약

<p>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p> <p>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p> <p>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p> <p>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p> <p>『순종실록』</p>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
---	-------------------------



## || 한일 신탁약 부수 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수위를 담당케 하고 기타를 해대(解隊)할 것 1. 교육이 있는 사관은 한국 군대에 남아 근무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하고 기타는 일본군대로 부속케 하고 실시 연습케 할 것 제5조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임명함 1. 각 부차관 1. 각 도 사무관 『순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비상
--	-------------------------

## || 한국 병합 조약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b>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b>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창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줄 것.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한국의 시정을 모두 담임하고,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순종실록』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	-------------------------

## || 한일 병합의 부당성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임, 조인, 비준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약은 세 절차 중 어느 것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 <b>한국 병합 조약은 순종의 재가를 받거나 서명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b>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일제의 국권 강탈 인식

1910년 8월 이른바 합방 조약을 공포한 날 저녁,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술을 마시며 이렇게 외쳤다. “ <b>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b> 카토나 고니시가 세상에 살아 있다면, 오늘 밤 떠오르는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 『역사로 보는 일본과 한국, 조선』	교과서 수록 두산
---	--------------

## 01. 무단 통치와 민족운동의 시작

### 1.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 Ⅱ 조선 태형령

<p>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b>태형에 처할 수 있다.</b></p> <p>제7조 태형은 태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횃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을 수 없다.</p> <p>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p> <p>제13조 <b>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집행한다.</b></p> <p>시행규칙 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p> <p>시행규칙 2조 집행 중에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총독부 관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Ⅱ 경찰법 처벌 규칙

<p>제1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2. <b>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자.</b></p> <p>7. 구걸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p> <p>8. <b>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b></p> <p>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p> <p>19.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남용하는 자.</p> <p>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p> <p>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p> <p>30.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32. <b>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자.</b></p> <p>49.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는 자.</p> <p>50. 돌 던지기 등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p> <p>64. 관공서의 독촉을 받고도 굴뚝의 개조, 수선이나 청소를 게을리 하는 자.</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총독부 관보』</p>	<p>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p>
--	---

#### Ⅱ 제1차 조선 교육령

<p>제1조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p> <p>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총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p> <p>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도록 한다.</p> <p>제4조 교육은 크게 보통 교육, 실업 교육 및 전문 교육으로 나눈다.</p> <p>제5조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 전문 교육은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 <b>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b></p> <p>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여자 고등 보통 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 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총독부 관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II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금성, 미래엔 비상, 리베르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지를 세우고 지목, 자번호 및 민유지에서는 소유자의 씨명과 명칭을, 국유지는 보관 관청명을 써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 II 데라우치 총독이 도장관에게 내린 훈시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권을 정하는 방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 이와 같이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득실, 이전과 변경을 사문기나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각 사람의 권리를 원용함을 상례로 하였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아주 어려웠다. 이에 특별히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여 지적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조선 통치 삼 년간 성적』

## II 동척의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조선은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다름없고, 작물 종류와 재배 방법도 거의 같다. 단보 당 수확은 보통 현미 2-3 석이다. 토지 가격은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단보당 70, 80엔에서 300엔이다. 일본에서 1단보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선에서는 7단보를 살 수 있다. 토지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다.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는 대개 철도나 일본인 부락 부근이다. 이미 회사가 경작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훗카이도나 사할린 같이 새로 개간된 토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통도 편리하고 수해와 한해 염려도 없다.	교과서 수록 비상, 리베르 지학사
--	--------------------------

『동양 척식 주식회사 30년지』

## II 회사령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리베르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 Ⅱ 채응언의 체포 후 발언

자기 나라를 위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 강도죄로 더럽히지 말고 **내란죄로 처벌하라. 의로서 죽는 것은 기쁨 뿐, 티끌만치도 여한이 없다.**

교과서 수록  
천재

### Ⅱ 대한 광복회 강령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4. 중국, 러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5. 본 회의 군사 행동, 집회 왕래 등 모든 연락 기관의 본부를 상덕태(尙德泰) 상회에 두고, 한만 각 요지와 북경, 상해 등지에 그 지점 또는 여관 등을 두고 연락 기관으로 한다.
6. 일인 고관 및 친일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7.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고등 경찰요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Ⅱ 국외 동포의 동향

국치무망일과 신한촌, 우리가 억만세에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한 날에 **신한촌**의 거류민들은 ..... 밤을 새며 온 촌중에 애통발분의 기상이 가득하였고, 그 각 사회에서는 권업회 안에 모여 연합 대연설회를 열어 격절 강개한 연설이 있었다더라.

『신한민보』

교과서 수록  
금성

### Ⅱ 만주 동포의 삶

**군정서 회의**로 항상 손님은 많았는데, 땃거리는 부족했다. .... 마당의 땡벌 아래에서 땃돌을 돌려 가루를 내고, 또 그것을 반죽해서 국수를 뽑았다. .... 삼시 세 끼 준비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시집은 다음 해에 한번은 감기가 들었으나 누워서 실 수가 없었다. 무리를 했던지 부뚜막에서 죽 솥으로 쓰러졌다. 그때가 열일곱 살, 그러니까 **1923년**이었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교과서 수록  
금성

처음 도착하면 자치구에서 당번들이 나와 누구네 몇 가구, 또 누구네 몇 가구 하며 새로 온 사람들을 돌보게 한다. .... 만주 허허 벌판은 이때부터 흰 옷 입은 우리 민족으로 허영게 덮여 갔다. 멀리서 서로 쳐다만 봐도 든든하였다. 이렇게 되자 **애국지사들이 한인 자치 단체를 만들어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도로 되찾을 때까지 만주 땅에다 하나의 작은 나라를 만들어 운영한 셈이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교과서 수록  
미래엔

**논을 개간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중국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논이 없었다. 우리는 황무지를 우선 전답으로 만들어야 했다. 우리 망명자들이 논을 개간하여 **서간도 땅에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 땅을 고르게 해서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일이 연장도 없고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겐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겨우 잡곡밥 한 공기 남짓 밖에 못 먹는 처지라 배는 항상 고프고 기운도 없었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교과서 수록  
비상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서간도 시종기』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



## CHAPTER

## 62

## 3.1운동, 임시정부

## 1. 삼일 운동

## || 대동단결 선언

용희 황제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 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 대한은 무시(無始) 이래로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한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의 국민성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용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총서』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 || 2.8 독립 선언문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의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고자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오래된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때로는 중국의 정사를 받든 일도 있었지만,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에 불과하였고, 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조선이었다. 한 번도 통일된 나라를 잃고 다른 민족에게 실질적 지배를 받은 일이 없었다. ……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겠지만, 만일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다. ……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리베르  
지학사

1. 본 단체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함
2. 본 단체는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3. 본 단체는 만국 평화 회의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4. 앞의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함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 ||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우리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봉기하라! 독립군아 일제히.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한 번 죽음은 인간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는 하나 되어 부활하니 어찌 일신을 아끼며, 집안 재산을 바쳐 나라를 되찾으면 3천리 옥토는 자기의 소유이니 어찌 일가의 희생이 아까우랴. …… 국민의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하여 황천의 명령을 받들고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한국독립운동사』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두산, 비상  
리베르

## || 3.1 독립 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 금일 우리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있지 아니하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신운명을 개척함이고, 결코 옛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를 샘을 내어 쫓아내거나 배척함이 아니로다. …… 아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

교과서 수록  
교학사, 두산  
지학사

### 3.1 독립 선언서 공약 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li> <li>- <b>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b></li> <li>-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li> </ul>	<p>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3.1운동

<p>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소리/ <b>10년을 참고 참아 이제 터졌네.</b> 3천 리 금수강산 2천만 민족/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 한 소리에 만만세! 조선 독립 만만세! 대한 만만세! 대한 만만세!</p> <p style="text-align: right;">『배달의 맥박』</p>	<p>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p>
--	---------------------------

### 삼일운동의 양상

<p>그 가운데 심한 자는 미리 낫, 팽이, 몽둥이 등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군중이 나가고 물러남은 오로지 지휘자의 명령에 따랐다. 미리 훈련받은 정규병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 이들은 <b>집합하자마자 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기세를 올렸다.</b> 나아가 면사무소, 군청 등 비교적 저항력이 빈약한 데를 습격함으로써 군중의 사기를 높이고 마침내는 <b>경찰 관서를 습격하여 때때로 파괴적 행동에 빠지려 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독립운동사 자료집』</p>	<p>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p>
--	---------------------------

### 제암리 학살 사건

<p>그들(선교사들과 외교관)은 이야기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제암리) <b>교회 터에는 재와 숯처럼 까맣게 타 버린 시체뿐이었고, 타 들어간 시체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다.</b> 곡식 창고와 가축들도 같이 타버렸다.</p> <p style="text-align: right;">『3.1운동 그날의 기록』</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p>
--	--------------------------

### 3.1 운동을 보도한 해외 신문

<p><b>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하였다.</b> 수천 명의 운동 가담자들이 일본에 연행되었다. ……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 운동이 널리 퍼져 나갔으며 수천여 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고 일본이 대규모 헌병대를 추가로 부를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뉴욕타임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p><b>조선의 독립운동은 결코 두세 명의 유식 계급이 벌인 행위가 아니다.</b> 또 과격주의자의 선동도 아니다. 이는 실로 <b>조선 전체의 인민, 모든 종교, 모든 계급에 속하는 남녀 전체의 감정과 의사이다.</b> 다른 나라의 패권 및 군국적 압박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의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뉴욕타임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일제는 한국을 일제의 한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성공하리라고 믿었다. 일본은 한국의 언어를 없애고 옛 전통을 말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b>멀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한국인들의 고난에 찬 절규를 강화 회의가 목숨 해 버릴 것은 확실하다.</b> 알자스-로렌 지방을 해방시킨 우리가 한국인이 영원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됨을 그대로 참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양탕트』</p>	<p>교과서 수록 비상, 지학사</p>
--	---------------------------

<p><b>일본 군대의 잔학성은 극에 달했다.</b> 총살된 자, 찢려 죽은 자의 총수는 3,730명이며 부상당했다가 사망한 자는 4,600명이다. 합계가 8,330명이다. 또 감옥 안에서 죽은 자가 다수일 터이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 또 체포 수감된 자가 2만이 넘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하얼빈 노워스치즈니』</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b>조선인들이 입으로만 독립 만세를 외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행동으로 천부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려는 것인즉,</b> 일본에게 양식이 있다면 마땅히 경애하고 공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유일일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5.4 운동 선언문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정의, 인도, 공정이 세계에 널리 퍼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라던 바가 아니었던가? 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일 비밀 조약, 군사 협정, 기타 불평등 조약을 폐지함이 정당하고 공정하다. 그러나 힘 앞에 정의가 무너져 장차 5대국이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대접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 아드리아 해협을 찾기 위한 투쟁에서 이탈리아 인들도 ‘죽음’을 외쳤다.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독립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모르지기 국가가 망하고 영토를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 국민이 큰 결심을 하여 끝내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는 20세기 열등 민족이며, 인류의 대열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 중국이 사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베이징 학생 토포안면 대회 선언문』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비상, 리베르  
지학사

## || 인도의 반영 운동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 동안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 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3·1 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하였다. …… 조선에서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투쟁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세계사 편력』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 2. 대한민국 임시 정부

### || 대한민국 임시 헌법

아(我) 대한 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고도다. ……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舊韓國)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

『임시 정부 의정원 문서』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 ||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

## II 대한민국 헌법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p> <p>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p> <p>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p>우리는 현재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킬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향후 완전한 독립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b>한국이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놓여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청하는 바입니다.</b> 이 같은 과업의 성취는 한반도를 모든 국가에 이득이 되는 교역의 중립 지대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하한 단일한 강국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게 될 극동에서의 완충 국가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국가 재건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자유를 효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였던 때에 일본이 직면한 위협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p>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b>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b> 이렇게 될 경우 대한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이나 또는 1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침략 정책이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영원히 보전될 것입니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p>우리는 각하(월슨 대통령)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고, 평화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을 지지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평화 회의에 참석한 연합국들이 향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면서 <b>한국을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b>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중립적인 통상 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서 어떤 한 세력의 팽창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p>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b>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b> 이렇게 되면 대한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이나 한 개 국가로 인정하게 하면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침략 전쟁이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영원히 보전될 것입니다.</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

## II 국민대표회의 주비 위원회 선언서

<p>우리들은 과거 수년 간의 경험에 의하여 ‘국민의 대단결’이라 하는 심절한 각오를 얻어 장래를 도모하고, …… 이에 본 주비위원회는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재차 통일적, 조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양대 안건하에 <b>국민 대표회 소집 사항도 주비하고 책임을 부담하여 성립한 것이다.</b></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국민대표회의 선언서

<p><b>본 국민대표회의</b>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 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견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3.1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으니, 자유 독립의 선언과 국권 광복의 의로운 기치는 우리 민족의 순일한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정의 인도의 주장과 민족 자결의 표어는 나아가 국제적으로 공정한 여론을 환기하였도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강도 일본의 흉폭한 검과 창을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안으로는 독립운동의 실질적 통일이 완성되지 못하여 삼천리 강토는 여전히 말발굽 아래 유린당하며 이천만의 동포는 아직도 질곡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도다. <b>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b> 아, 국민적 대단합이 여기에 완성되도다. 운동의신국면이 여기에 전개되도다. 우리 전 국민은 다 나와 동일한 주장과 방침으로 함께 나아갈지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 민족 독립운동 사료(중국편)』</p>	<p>교과서 수록 금성, 비상</p>
--	--------------------------



## || 임시정부의 시련

(국무령제로 바뀐 이후)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명목조차 유지할 길이 막연했다. 청사 가옥의 집세라야 불과 30 원이고 직원 월급이라야 20원 미만이지만 방세 문제로 집주인으로부터 이따금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 당시 나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니 그때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게 된다. 민국 원년으로부터 3, 4년을 지내고 보니 당시에는 열렬하던 독립운동자들이 하나둘씩 왜놈에게 투항하여 귀국했다. 임시 정부 군무차장 김희선과 독립신문사 주필 이광수, 의정부 부의장 정인과 등을 위시하여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 처음에는 열성으로 큰 뜻을 품고 상하이로 온 청년들도 점점 경제난으로 취직하거나 행상 노릇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때 상하이의 우리 독립운동자가 천여 명이던 것이 차차 그 수가 줄어들어 수십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 나는 처음에는 정부 문지기를 하겠다고 청원하였으나 결국엔 노동총판으로, 내무총장으로, 국무령으로, 국무위원으로, 주석으로 중임을 거의 다 역임하게 되었다. 이는 문지기 자격이 진보된 것이 아니라 임시 정부의 인재난 경제난이 극도에 달하여 마치 명예가 쟁쟁하던 집안이 몰락하고 고대광실이 결인의 소굴이 된 것과 흡사했다.

『백범일지』

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

## 3. 민족분열 정책과 산미증식 계획

### ||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의 연계를 추진한다.
5.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 진흥회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금성, 미래엔  
비상, 리베르  
지학사

### || 사이트의 시정 방침에 관한 유고

조선 통치의 방침인 일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대원칙으로 일찍이 정한 바이다. …… 정부는 관제의 행정 시설을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한다.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장을 개정한다. 조선인 임용과 대우를 개선하여 장차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 이는 요컨대 문화적 제도의 혁신에 의하여 조선인을 유도 제시하고, 그로써 그 행복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여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응하여 정치, 사회상의 대응에 있어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 만약 함부로 불온한 언동을 하고 인심을 교란하며 공안을 저해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준엄한 형벌로 가차 없이 다루고자 하니 일반 민중은 양해하기 바란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미래엔  
지학사

### ||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하는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본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법 시행 구역 밖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통용된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산미증식계획 요강

일본 내 쌀 소비는 연간 약 6,500만 석인데 생산고는 약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제국 반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본의 인구는 해마다 약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향상과 함께 1인 소비량도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대세이다. 장래 쌀의 공급은 계속 부족해질 것이고, 따라서 지금 미국의 증수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급무라고 믿는다.	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금성, 리베르
『조선 산미 증식 계획 요강』	

## 4.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정책

### || 황국 신민 서사(아동용)

1. 나는 <b>대일본제국의 신민</b> 입니다. 2.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3. 나는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미래엔, 두산 지학사
--	------------------------------------

### || 황국 신민 서사(성인용)

1. 우리는 <b>황국 신민</b> 이다. <b>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한다.</b> 2. 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 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3.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일본식 성명 강요를 위한 방침

1. <b>창씨를 안 한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b> 2. 창씨를 안 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 질책을 하는 등 그를 증오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애소(슬프게 하소연함)로써 부모들에게 창씨하게 한다. 4. 창씨를 안 한 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총독부 관계 기관에 일절 채용하지 않는다. 5. 창씨를 안 한 자는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으로 단정하고 경찰 수첩에 기록하여 사찰, 미행 등을 철저히 하고, 혹은 우선적인 노무 징용 대상으로 만들고, 혹은 식량, 기타 물자의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지학사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	

### || 학교에서의 황국 신민화 정책

<b>봉안전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사진과 교육 칙서, 선전 칙서를 모셔 놓은 조그만 사당인데, 그 앞을 지날 때면 누구나 최경례(가장 존경하는 뜻으로 정중히 하는 경례)를 해야 했다.</b> 그룹으로 지나갈 때는 한 사람의 호령에 의해서 일제히 절을 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호령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강요된 의식의 거북함을 덜곤 하였다. 한국인이 볼 때 일본인의 습관 중에서 가장 낯선 것이 바로 천황에 대한 지나친 예였다. 교장이 하얀 장갑을 낀 두 손으로 칙서를 머리 위까지 높이 쳐들고 걸어가는 것은 솔직히 꼴불견이었고, 신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절을 하는 것도 관객의 호기심으로 바라볼 일이지 정색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었다.	교과서 수록 천재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 || 이광수의 친일론

조선인은 쉽게 말하면 제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조선인의 동화는 일본 신민이 되기에 넉넉한 정도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b>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고, 이것에 진정으로 조선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b>	교과서 수록 미래엔
『심적 신체제와 조선 문화의 진로』	



## || 김활란의 친일론

<p>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귀한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내지의 어머니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실제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나라에 바쳐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가져야 한다. ……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시대』</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p>
--	---------------------------

## || 박흥식의 친일론

<p>작년 금월 금일 나는 산업 경제계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특히 반도 출신으로서 오직 한 사람으로서 항공하업게도 배알의 광영에 연하였는데 지척에서 용안을 봉배한 때의 감격은 일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b>우리들 산업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공하업신 대어심에 봉부코자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최린의 친일론

<p><b>우리들 반도 민중은 창씨도 하였고 기쁜 낯으로 제국 군인이 되어 무엇으로 보나 황국 신민이 된 것이다.</b> 이제 부터는 있는 힘으로 다하여 연성을 쌓아서 군국의 방패로서 부끄럽지 않은 심신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매일신보』</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국가 총동원법

<p>제1조 <b>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b></p> <p>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p> <p>제7조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p> <p>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의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 법령 집람』</p>	<p>교과서 수록 천재, 교학사 미래엔,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전쟁과 근로동원

<p><b>1944년 4학년이 되자, 개학한 첫날의 조회에서 4학년 전원에 대한 ‘학도 보국 근로령’의 적용을 시달 받았다.</b> …… 내용은 간단하다. 앞으로 1년간 학교에는 나을 필요 없이 각기 지정된 현장에서노동을 한다는 말이다. 이날부터 나는 학생이 아니었다. …… 중학생들은 비행장 닦기, 도로 공사, 군수 화물 나르기, 방공호 파기, 소 개할 건물, 주택 부수기, 군복 세탁 등에 동원되었다. <b>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과의 전공에 따라 총포탄 생산, 비행기 제조, 토목 설계, 군수 주물 공장, 화학 공장 등으로 흩어졌다.</b> 이렇게 흩어진 우리는 …… 그 후 그대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역정』</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징용 노동자 신천수 씨의 증언

<p><b>“일본 제철소에 노무자로 갔다 오면 한국 제철소 기술자를 시켜 준다더라.”</b>라고 친구가 말했다. 귀가 번쩍 뜨인 신씨는 <b>17살에 돈 벌러 간 그곳에서 12시간 막일에 주먹밥 하나를 받았다.</b> 나중이야 취직이 아니라 징용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월급은 없었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육신을 못 쓰도록 만들겠다.”라는 공장에 배치된 순사들의 협박을 들으며, <b>1943년 9월 10일 오사카 일본 제철 공장에서 신씨는 처참한 강제 노동을 시작하였다.</b></p> <p style="text-align: right;">『한겨레 신문』</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증언

12세가 되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장이 나를 정신대에 보냈다. 아오모리 현에서 위안부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큰언니는 내 과거가 알려지면 조카들이 시집도 못 간다고 조용히 지내라고만 한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1943년 1월, 집을 보던 중에 건장한 남자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가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하루 평균 20명쯤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고, 한국말을 하거나 남자 받기를 거부하면 구타를 당하였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어느 날 공장에 갈 직공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b>단순히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모인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린 시골 처녀들이었습니다.</b> 이때가 싱가포르가 함락되던 1942년 4월이었습니다. 20-30명이 짐짝처럼 실려 히노마루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0여 명 정도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처녀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반항을 하면 일본인들은 “나라의 명령이고 천황의 명령이다. 할말 있으면 천황에게 말해!”라고 하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저는 두 달 동안 계속 걸어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워 가족에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네 명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들에게 한 일들은 너무나 지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울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교과서 수록 비상
--	--------------

## ||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2007)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군이 <b>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적 노예로 만든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b>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위안부 관련 고노 관방 장관 담화(1993)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 CHAPTER

## 63

## 국내항일투쟁, 의열투쟁

## 1. 민족 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 운동

## || 실력 양성론

평소 우리가 큰 신뢰와 경의를 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양국 또한 모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문제 때문에 일본 측의 감정을 상하는 일에는 양국이 다 회피하였다. **조선 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므로 우리 조선인은 힘써 교육과 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열중하여 실력 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치안상황』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하여 살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파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또 참으로 사람다운 발전을 희망할 수가 있으리오. 우리 생활에 제일 조건은 곧 이 의식주의 문제, 즉 산업적 기초라. 이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 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못할지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와 같은 각오와 노력 없이 어찌 조선 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리오.

『산업계』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리베르

## || 조선 물산 장려가

1. 산에서 금이 나고 바다에 고기/ 들에서 쌀이 나고 목화도 난다.  
먹고 남고 입고 남고 쓰고도 남을 물건을 나어 주는 삼천리강산  
물건을 나어 주는 삼천리 강산
2. 조선의 동모들아 이천만민아/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아오너라.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재조로/ 우리가 만드려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드려서 우리가 쓰자.**
3. 조선의 동모들아 이천만민아  
자작자급 정신을 잊지를 말고 네 힘것 버려라. 이천만민아  
거기에 조선이 빛나리로다/ 거기에 조선이 빛나리로다.

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 || 조선 물산 장려회 꺾기문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대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

## Ⅱ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비판

<p>물산 장려 운동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이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 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이 아닌가. 또 슬선하여 <b>물산 장려의 실행적 선봉이 된 것도 중산 계급이 아닌가.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b> 그네는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그네는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과 이해가 전연 상반한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저들도 외래 자본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알며, 따라서 저들 신시랑류(新豺狼類)의 침략에 빠져 계급 전선을 몽롱케는 못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두산, 리베르</p>
--	--------------------------------------

## Ⅱ 민립 대학 발기 취지서

<p>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두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아니 된다. .... 교육에도 계단과 종류가 있어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이를 보통교육으로 능히 수여할 수 있으나 심원한 지식과 온전한 학리는 고등교육에 기대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여 <b>유능유위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b> ....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견주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b>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b> 그런데 수삼 년 이래 각지에서 향학열이 힘차게 일어나 학교의 설립과 교육 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함이 많은 것은 실로 우리의 고귀한 자각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가 경하할 일이나 우리에게 아직은 아직도 대학이 없다. ....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만천하 동포에게 민립 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노니, 형제자매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p>	<p>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2. 사회운동의 전개

### Ⅱ 농민들의 처지

<p>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불평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지주들은 너야 굶어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셈으로 한 번 매겨 놓은 <b>소작료는 수확이 좋든 나쁘든 절대로 깎아 주지 않는다.</b></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p><b>소작료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곳은 수확량의 8할 내지 9할까지 받기도 한다.</b> .... 보통은 5할이 평균이다. 그러나 <b>전라북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소작인들에게 수확량의 8할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b> 충청북도 어느 지방도 지주가 소작인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소작료를 올려서 요즘에는 6할 내지 7할에 이르게 되었다.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소작료로 수확량의 8할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p>작년 어느 수리 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00평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작농은 <b>쌀 판매 대금으로 19원 39전을 벌였지만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로 21원 80전을 지출했다고 한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2원 41전이 부족하다.</b> 이 조사 자료는 그나마 쌀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통계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농촌의 실정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평양 인근 지역의 경우 1원 92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농촌의 건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작농조차 이와 같이 부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참담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울부짖고 있으며 마침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광경을 보이고 있다. .... 날로 늘어나는 것은 고향을 등진 농민들이고 <b>소작 쟁의는 매년 증가하여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b></p> <p style="text-align: right;">『동광』</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현진건의 고향

<p>그이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 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개인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u>중간 소작인</u>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u>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u>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각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소작인 선언 : 조선 노동 공제회

<p>사람은 본연의 자유가 있으며 본연의 평등이 있다. …… 현재 소작 제도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확한 곡물의 반 이상이 소작료가 되고 그 밖에 지세, 비료 값, 수리세 등을 일일이 정산하면 소작인의 소득은 0이 될 것이다. 그런즉 오늘날 소작인의 생활 상태는 완전히 비참한 경지에 빠졌다. 소작 문제는 소작인 자체의 자각이 아니면 안 될 것이요, 소작인의 자각은 지금 상태와 같이 산산이 개인의 행동으로 아무 조직적 단체가 없으면 문제의 이해를 연구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 힘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u>소작 문제 해결은 반드시 소작인의 단결이 공고하여야 할 것을 가장 굳세게 신념하고 이에 선언 하노니, 조선의 소작인이여 단결하라. 단결하여야 살 것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소작인들의 주장

<p>농촌의 쇠퇴는 극에 달하여 농민의 생활은 비참하다. …… 조선의 농촌이 이와 같은 참상에 이른 것은 소작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우리 농민의 생활을 빈궁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면 더 성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무엇보다도 소작 제도의 개선을 절규하는 바이다. 소작인들의 요구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소작권을 보장하라!</u> 지주가 자유자재로 경작지를 몰수함에 따라 소작인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li> <li>2. <u>소작료를 인하하라!</u> 소작인이 죽도록 경작에 노력하여 생산이 증가해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개벽』</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암태도 소작 쟁의

<p>지주 문재철과 소작 쟁의 중인 <u>전남 무안군 암태도 소작인</u> 남녀 500여 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에 범선 9 척을 나누어 타고 또다시 목포로 건너와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몰려들어 왔는데 …… 무엇보다도 두려운 죽음을 불구하고 다시 이 법정에 들어온 것은 사할 문제가 이때에 있다 하며, 또는 우리가 결속하기를 이 문제가 해결토록까지 동맹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혈서에 참가한 자가 수십 명에 달하였다 하며, 이번 운동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면 아사 동맹을 결속하고 자기들의 집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폐지하였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조선 노농 총동맹 강령 초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는 노농 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1. 우리는 <u>단결의 위력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때까지 철저히 자본 계급과 투쟁할 것이다.</u></li> <li>1. 우리는 노농 계급의 현재 생활에 비추어 시시각각 복리 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1920년대 소작 쟁의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소작료는 실제 수확량의 40%를 한도로 할 것.</u></li> <li>- 지세,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li> <li>- 지주나 마름의 선물 및 부역 강요에 대해서는 거절할 것.</li> <li>- <u>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을 반대할 것.</u></li> </ul> <p style="text-align: right;">『경남 노동 운동자 협의회 요구사항』</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1930년대 소작 쟁의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 갔다. 그것은 이미 단순히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농민 야학, 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민 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 단체를 조직하여 <b>지주에 대한 투쟁이 정치 투쟁화하는 경향이 생겼다.</b> 『조선 총독부 경무국 비밀 보고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천재
---	-------------------------

## 노동자의 비참한 삶

이 동리(서울 청파동)에는 제면 회사, 간장 공장, 정미소가 있고 고무 공장이 있다. 일반 부녀자들과 어린 유년들은 ..... 주먹만 한 조밥 덩이를 가지고는 햇발이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공장 안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종일토록 마음대로 앉거나 서지도 못하고 먼지를 마시며 뼈가 빠지도록 기계를 돌리며 손발을 움직인 땀과 고통스러운 노동의 유일한 보수는 단돈 삼십 전을 넘지 못하니 자기 한 사람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잡비를 제하고 나면 집안 살림에 보탬 것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노동 쟁의

<b>근래 동맹 파업이 끊일 새 없다.</b> ..... 물론 임금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다. 고용주도 사람이고 직공도 사람인데, 어찌 하여 그와 같은 <b>학대와 저임금을 받고 불평이 생기지 않겠는가!</b> 고용주들!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그대들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손실이 아닌가! 『개벽』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울밀대 위의 강주룡

우리는 49명 파업단의 임금 감하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 직공의 임금 감하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 나는 평원 고무 공장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 감하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b>나는(강주룡) 근로 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구태여 나를 여기서 강제로 끌어내릴 생각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닥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b> 『동광』	교과서 수록 두산
---	--------------

## 장풍 탄광의 노동 쟁의 당시 요구 조건

1. 임금 인상(2할 이상). 단, 여자와 소년은 3할 이상을 인상할 것. 1. 시간 축소 : 8시간제를 실시할 것. 1. 위생 기관을 충분히 설치할 것. 1. 사망 위자료는 일당의 1년분을 지급할 것. 1. 부상자는 본인의 요구대로 치료하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공상 수당을 현 임금대로 지불할 것. 1. 노동조합 조직 운동에 간섭하지 말 것. 1. 무조건 해고 절대 반대. 1. 배급품을 실비대로 제공할 것. 『조선일보』	교과서 수록 금성
--	--------------

## 여성 노동자의 삶 : 유진오의 여직공

옥순이는 제사 공장에 들어온 지 삼 년째 되는 노동자이다. 새벽 네 시 반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b>한결같이 공장</b> 의 '뚜~' 소리에 눈이 번쩍 깨인다. 놀란 사람 모양으로 조금씩 일어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얼굴에 물칠을 하고 밥을 데워 먹고 뽕뜨까지 싸가지고 나오면 어느덧 다섯 시 반이다. 다시 한 번 '뚜~' 소리가 포악한 채찍같이 직공들을 공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 일을 할 때면 아무 생각도 없었다. 온 공장 안에서 덜거덕거리고 돌아가는 기계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이 옥순이의 누, 손가락, 온몸은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소년 운동 선언

첫째, 어린이를 재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게 하라. 둘째, <u>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u> 셋째,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어린이날 기념사

이날은 5월 1일이니 <u>어린이들의 새로운 명절이외다.</u> 이날은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여러 어른이 크나큰 뜻을 가지고 어린이를 위하여 마련하여 놓은 명절이니, 재작년부터 시작하여 전 조선에서 해마다 기념하여 오는 즐거운 날이외다. 아직까지 귀중한 어린이를 위하여 즐거운 놀이를 지어 주지 못하고 반가운 때를 마련하여 놓지 못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둘도 없는 크나큰 명절이외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여성운동

<u>강향란</u> 이라는 기생이 돌연히 머리를 깎고 남자 옷을 입고 정치 강습원에 통학 중이라 한다.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도 그 집안이 기우는 장본이라 하였다. 하물며 여자가 남자로 환형한 그것이야 변괴가 아니고 무엇이리오, 이렇게 천한 물건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장해 버려야 될 것을 ..... 『시사평론』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신여성에 대한 비판

<u>요사이 유행은 커져야 할 것(양산)은 쪼그라들고, 쓸모없는 것(핸드백)만 커지고 있다.</u> 주릿대 치마에 양머리, 잠자리옷(잠옷)에 우산 쓰고, 머리를 풀어 내리고, 간난아이 모자 쓰고, 실크 양말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다. <u>창피 막심이다.</u> 『조선일보』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장난치던 아동배들도 '야 단발 미인 간다 이거 보라!'하고 떠들어대고 <u>가게 머리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도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 멍하니 서서 그들의 가는 양을 유심히 본다.</u> 『별건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나혜석 이혼고백서, 시

사 남매 아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 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u>네 에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더니라.</u>	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	-------------------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u>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도다</u>	교과서 수록 두산
--	--------------

## || 나혜석의 결혼 조건

- 일생을 두고 자신을 사랑할 것 - 그림 그리는 일을 방해하지 말 것 - 시어머니, 전처가 낳은 딸과 떨어져 두 사람만 따로 살 것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근우회 창립 취지문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정신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u>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u>	교과서 수록 비상, 리베르
--	-------------------

## || 근우회 행동 강령

<p>1.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p> <p>2. 일체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p> <p>3. 조혼 방지 및 결혼의 자유</p> <p>4. 인신 매매 및 공창 폐지</p> <p>5. 농촌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p> <p>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p> <p>7.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비상</p>
---	--------------------------------------

## || 조선 형평사 취지문

<p>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니라.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 왔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비천하게 굴종 하였던 자는 누구였는가? 아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러한 비극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어떠했던가? 소위 지식계층에 의한 압박과 멸시만이 있지 않았던가?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본사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 사회의 실정에 대응하여 창립되었으며, 또한 우리도 조선민족 2천 만의 한 사람으로서 갑오년 6월 이후 칙령에 의해 백정이라는 호칭이 없어지고 평민으로 되었던 바, 사랑으로써 상부상조하고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40여 만이 단결하여 본사의 목적인 이 주지를 표방하는 바이다.</p>	<p>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지학사</p>
---	--

## || 형평 운동

<p>나는 21세 때 일본 동경에 있는 명치 대학 법과 3년이였다. 가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을 못하고 귀국하였다. 조선 총독부에 취직하기 위해 경성에 올라가서 ..... 구비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 호적 등본을 교부받아 보니 직업란에 '도한'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 취직을 포기하고 우리들 눈물의 흔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입학에도 호적이 필요하였다. 도한의 자식이란 것을 알게 되면 입학이 거부되고 몰래 입학을 하였다가 탄로가 나면 퇴학 처분을 당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조선 청년 총동맹 강령

<p>1. 대중 본위인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p> <p>1. 조선 민중 해방 운동의 선구가 되기를 기도함.</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3. 민족 유일당 운동 : 신간회

### || 민족 운동의 분화

<p>현하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 운동의 조류요, 또 하나는 사회 운동의 조류인가 한다. 이 두 가지 조류가 물론 해방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왕왕 운동의 방법과 이론적 해석에 이르러서 털끝의 차이로 천리의 차이가 생겨 도리어 운동의 전선을 혼란스럽게 하여 당파적 분규를 소생케 하여 결국은 어부의 이를 취하게 골육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 바가 아니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미래엔</p>
--	----------------------------------

## ||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 선언서

<p>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해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치 아래 모여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바란대! 일반 동지는 깊이 양해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한국의 절대 독립을 주장하라! 민족 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전 세계 피압박 민중은 단결하라!</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p>조선 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b>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b> 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치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 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 의식이 있었던 것이 둘째 원인이다. …… 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b>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b>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들려고 한다. 첫째, 우리 당면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둘째, 조선인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정치적 중심 세력을 만들어 이로써 장래 멀고 먼 정치 운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하여 …… 『동아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p>
---	---

## II 조선 민흥회의 단일 전선 제안

<p><b>조선 민흥회는 조선 민족의 공동 권익을 쟁취하고, 조선민의 단일 전선을 결성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b> 조선 민흥회는 산업 종사자, 종교인, 학생, 지식인 등 전 국민의 단합과 통일을 주창한다. 민족적 통합의 그 목적은 '조선의 해방'에 있다. …… 과거의 운동은 계급 의식이 내연되어 있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운동에서는 계급 운동의 참여자라 할지라도 연합 민족 운동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봉건주의와 독재주의를 타파할 목적으로 자본가들과 뭉쳤던 것처럼, <b>조선의 사회주의자들도 반제국주의 운동에 있어서 공동 권익을 지향하는 계급들의 일체적 동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b> …… 각 계층 간의 권익은 궁극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상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민 전체의 결속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현재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양 진영의 연합의 필요성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b> …… 우리는 중국의 국민당을 본보기로 하여 이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조선일보』</p>	<p>교과서 수록 두산, 리베르</p>
---	---------------------------

## II 정우회 선언

<p>민주주의적 노력의 집결로 인하여 전개된 정치적 운동의 방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에 국한되어 있던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대중적·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전환기에 달한 것이다. 고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종래의 모든 소아병적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의 승리로의 구체적 전진을 위하여 현실적 모든 가능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b>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b> 『조선일보』</p>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II 신간회 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li> <li>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li> <li>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지학사</p>
--	--

## II 신간회의 주장 : 신간회 동경지회 제2회 대회 정책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li> <li>2.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모든 법령의 철폐</li> <li>8. 단결권, 파업권, 단체 계약권 확립</li> <li>11. 소작인의 노예적 부역 폐지</li> <li>14. 최저 임금, 최저 봉급제의 실시</li> <li>17. 일체 학교 교육의 조선인 본위</li> <li>20. 여자의 법률상 및 사회상의 차별 철폐</li> <li>23. 형평사원 및 취업에 대한 일체 차별 반대</li> </ol> <p>『대중신문』</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신간회 해소론

<p>해소 투쟁의 전개는 우익 민족주의자의 정체 폭로와 노농 주체의 강대화에 기반해야 한다. 우익 민족주의자의 정체는 이상 우리의 해소 이론에 의해 폭로되었으리라고 믿는다. …… 소시민의 개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현재의 신간회는 무산 계급의 투쟁욕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b>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농민은 농민 조합에 돌아가서 투쟁해야 한다.</b> …… 신간회의 조직에 쓰던 노력을 산업별 조합의 조직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소부르주아를 고립화, 무력화해 놓고 그들의 비명을 듣고 발악을 보면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삼천리』</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리베르</p>
--	----------------------------------

## || 신간회 해소 반대론

<p>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자. ……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민족 운동과 계급 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립 병진하여야 할 것이요, 그 내부에 영도권이 다른 세력이 섞여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협동하여 일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b>역량을 분산시키거나 제 살 깎아 먹는 식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b></p> <p style="text-align: right;">『비판』</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리베르</p>
---	----------------------------------

## 4. 학생 항일 운동

### || 6.10 만세 운동 격고문

<p>우리는 일찍이 독립과 국제 평화를 위하여 1919년 3월 1일에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 우리들의 국권과 자유를 회복하려 함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일본 전 민족에 대한 적대가 아니요, 다만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로부터 탈퇴코자 함에 있다. …… <b>식민지에 있어서는 민족 해방이 곧 계급 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b> 즉, 식민지 민족이 모두가 무산 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당면한 적인 정복국의 지배 계급으로부터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모든 권리를 탈환하지 않으면 사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6.10 만세 운동 당시의 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li> <li>- <b>학교 용어는 조선어로!</b></li> <li>- 학교장은 조선인이어야 한다!</li> <li>- <b>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b></li> <li>- <b>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b></li> <li>-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li> <li>-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li> <li>-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li> <li>-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li> <li>- 소작제를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납부한다.</li> </ul>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운동가여 단결하라!</li> <li>-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li> <li>-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li> <li>-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li> <li>- <b>일본 물화를 배척하자!</b></li> <li>- <b>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b></li> <li>-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li> <li>-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li> </ul>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박준채의 회고

나는 피가 머리로 거꾸로 치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가뜩이나 그놈들과는 한차로 통학하면서도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 혐오하며 지내 온 터인데, 그자들이 <b>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b> ……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그러자 후쿠다는 “뭐라고 센징 놈이 까불어!” 이 센징이란 말이 후쿠다의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주먹은 그자의 얼굴에 날아가 작렬하였다. 『신동아』	교과서 수록 비상
---	--------------

## ||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의 격문

<p><b>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결기하자! 싸우자! 군세게 싸우자!</b></p> <p>1. 검거자를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1.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1.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1. 직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가시키자. 1. <b>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b> 1. <b>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b> 1.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1.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p>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지학사
---	------------------------------

<p>전투 청년 학생 제군! ……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자!</p> <p>- <b>검속된 학생을 탈환하라.</b> -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라. - <b>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항거하라.</b> - 전국 동맹 파교로 모든 요구를 관철하라. -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광주 학생 독립운동사』</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의열단

그들의 생활은 밝음과 어두움이 기묘하게 혼합된 것이다. <b>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즐기려 했던 것이다.</b>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했으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아리랑』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김상옥 의거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b>김상옥</b> 의 혼령은 지금 어디 가서 있을꼬. …… 쇠망치를 들어서 번 돈과 단련한 팔뚝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수만 원의 돈을 그 일에 바치고 나중에는 <b>효제동 한 모퉁이에서 빗발 같은 탄환을 받으며 비장한 최후를 이루었다.</b> 아, 가슴에 품은 그 뜻은 어디 두고 이제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누웠느냐.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김산의 독백

<p>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 자유. 자유란 말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덩어리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조선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를 원했다. 『아리랑』</p>	교과서 수록 두산
<p><b>내 청년 시절의 친구나 동지들은 거의 모두가 죽어 버렸다.</b> ……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 그들의 무덤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따위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전장에서, 사형장에서, 도시와 마을의 거리 거리에서, <b>그들의 뜨거운 피는 조선, 만주, 시베리아,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지 속에 자랑스럽게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눈앞의 승리를 보는 데는 실패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승리자로 만든다.</b> 『아리랑』</p>	교과서 수록 두산

## II 조선 혁명 선언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미일 전쟁, 일로 전쟁 등 기회'가 거의 천편일률의 문장이었고, 최근 3.1 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 회의', '국제 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이 용기 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의기를 없애는 원인이 될 뿐이었던다. ……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 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백분의 일이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나? ……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하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매국노를 시켜 이 따위 미친 소리를 외치게 하는 것이니, …… <b>문화 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나?</b> ……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교과서 수록 금성
<b>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b> …… <b>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b>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
<b>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나?</b> 너희들이 '동야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조건으로 내건 조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지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b>강도 일본</b> 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외교론이니, ……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관에 던지며 탄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약함을 애걸하여 국가의 존망, 민족 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던다. 둘째는 준비론이니, ……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게 생산 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법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백분의 일에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교과서 수록 금성, 미래엔 두산, 비상

## II 관동 대지진

지진과 동시에 시내 각지의 가스관이 파열하여 가스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조선인들은 단체를 만들어 불을 지르고 다닌다. 그 때문에 시내 120여 지역에서 불이 났으며, <b>조선인들이 폭탄을 던져 더욱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또 각지의 우물에 독약을 넣고, 이재민들의 자녀에게 독약이 든 빵을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b> 『기와키타 신문』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CHAPTER

## 64

## 항일무장투쟁

## 1.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 || 만주의 독립군가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 이 나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아가세.

『광복의 메아리』

교과서 수록  
천재

## || 국내 진공 작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경 지방에서는 때때로 중국 마적이 침입했을 뿐 조선 독립군에 관련된 큰일은 없었다. 3.1운동 뒤 이 사건에 연루된 자 가운데 일부가 중국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그곳에 사는 무뢰배들과 손잡고 독립군이 되어 각종 불온 단체를 조직하고 각지에 근거지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상하이 임시 정부 등과 연계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하기 위해 늘 우리 경비 능력을 엿보다 교묘하게 국경 연안 경비망을 통과한다. 조선 내로 침입한 뒤에는 독립운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얻는다며 민가를 습격하고, 때로는 주재소, 면사무소, 기타 관공서를 습격한다. 국경 일부에서는 아직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 경찰 개요』

교과서 수록  
두산

## || 봉오동 전투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백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왕청현 봉오동을 향하여 행군하다가 뜻하지 않게 같은 곳을 향하는 적군 3백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던 홍범도, 최명록(최진동) 두 장군은 …… 적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도주하는 적을 즉시 추격하여 현재 전투 중에 있다.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금성

## || 청산리 대첩 당시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의 자유를 억탈하는 왜적 놈들을  
삼천리 강산에 열혈이 끓어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독립군  
맹세코 싸우고 또 싸우리니 성결한 전사를 하게 하소서

『기전사가』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청산리 대첩 후 서일이 임정에 보고한 내용

-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전분투하는 독립에 대한 군인 정신이 먼저 적의 사기를 압도하였다.
- 양호한 진지를 미리 차지하고, 완전한 준비를 하여 사격 성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었다.
-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 신속한 활동이 모두 적의 의표를 찔렀다.

『독립신문』

교과서 수록  
미래엔, 두산  
지학사

## || 간도 동포들의 희생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 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 주었다.

『우등불』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청산리 전투의 승리 요인

적군의 수는 우리보다 10배나 되었으며, 모두 훈련을 받아 전투에 익숙하고 각종 정예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였다면 어찌 태산이 알을 누르는 형세가 아니겠는가? 아군의 태반이 신참이고 …… 수일 동안 굶주려 피곤함과 배고픔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지한 것이라고는 겨우 소총과 기관총뿐이었다. 4회에 걸친 격전을 통해 적 천여 명을 섬멸하였으나, …… 세계에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전공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간도 참변

우리는 잿더미를 헤치고 한 노인의 시체를 보았다. 몸에는 총 맞은 곳이 두어 군데 있고 살은 벌써 타버리고 …… 방화한 지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체 타는 냄새가 났다. 각기 어린애를 업고 자기 가족의 무덤 앞에 앉아 우는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 우리들은 돌아다니며 이 참경을 사진 찍다가 살아남은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곡하면서 잿더미 속에서 불에 그슬린 …… 아직 타지 않은 것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 이때에 내 마음이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사진기를 고정할 수 없어 몇 차례나 고쳐 찍었다. 내가 알고 있는 36개 촌락에서만 140여 명이 학살되었다. 『무장독립운동비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만주 지역 한인들의 삶 : 최서해의 흥염

등진 산과 앞으로 낀 강 사이에 게딱지처럼 끼어 있는 것이 이 빼허(서간도의 가난한 촌락 이름)의 촌락이다. 통틀어서 다섯 호밖에 되지 않는 집이나마 밭을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모두 커다란 나무를 찍어다가 우물 정자로 틀을 짜 지은 집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것을 귀틀집이라 한다. 지붕은 대개 좇잡이요, 혹은 나무껍질로도 이었다. 그 꼴은 마치 우리 내지의 거름집과 같다. 심하게 말하는 이는 도야지굴과 같다고 한다. 이것이 남부여대로 서간도 산골을 찾아 들어서 사는 조선 사람들의 집들이다. 빼허의 집들은 그러한 좋은 표본이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미쓰야 협정

3. 불령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몰수하며, 무장을 해제할 것 4. 조선(총독부) 관헌이 지명하는 불령단 수령을 체포하여 조선 관헌에게 인도할 것	교과서 수록 천재
1.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2.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3.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4. 한국인의 단속 상황을 상호 통보한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비상, 지학사

## || 미쓰야 협정의 영향

미쓰야 협정을 기화로 만주 관료들이 독립군 체포에 전력하게 되니, 독립군은 물론이고 일반 농민들까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다. 수없이 많은 혁명 투사가 만주 관료에게 붙들려서 봉천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진 다음 국내로 압송되어 교수대의 이슬이 된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며,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만주 관료들 중에는 때때로 죄 없는 백의민족 농민을 잡아다가 죽이고 독립군을 잡아 왔다고 보상금을 받는 참극도 있었다. 『무장 독립운동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안창호의 대혁명당 조직 주장 :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 먼저 대혁명당이 조직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가는 김가, 이가는 이가, 각각 제 조건대로 나아가는 까닭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것을 다 총괄하여 김가든지 이가든지 일제히 대혁명당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조직적 혁명체가 되는 것이외다. …… 우리는 각각 그 정신과 주의와 장단은 따지지 말고 대혁명당을 조직하도록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각 협의한 주의와 생각은 버리고 저 민중을 끌어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한민보』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국민부 헌장

제1조 본부는 국민 정부로 칭함. 제2조 본부는 중국령에 교거하는 한국 민족으로 조직함. 제3조 본부의 주권은 주민 전체에 있고 그 행사권은 집행 위원회에 위임함. 제4조 <u>본부의 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나누고 둔, 구, 지방, 중앙의 4급으로 함. 단,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특별구를 두고 지방 측에 준하여 중앙에 직할시킴.</u>	교과서 수록 비상
---	--------------

## 2. 민족 운동 세력의 결집과 건국 준비

### 국외 무장 투쟁의 전개

#### Ⅱ 조선 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u>중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 의 원칙 아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u> 『광복』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	--------------------------

#### Ⅱ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1.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2. <u>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 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이 맡는다.</u> 3. 전시의 후방 전투 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광복』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조선 혁명군

(1932년 3월 12일) <u>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한중 연합군은 영릉가의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 하여 수 시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다. …… 영 룡가는 드디어 아군에게 점령되었다.</u> 『한국독립운동사』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영릉가 전투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성애장이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다. <u>밤 12시 정각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 려야만 했다. 양 사령</u> 은 전사들에게 소자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언 강물에 뛰어들었다. 강을 무 사히 건넌 <u>양 사령</u> 은 강행군에 거추장스런 바지를 벗어던지고 잠방이 차림으로 나섰다. 전사들은 사령을 본받아 다 잠방이만 입고 행군했으나 찬바람이 살을 에었다. 『봉화』	교과서 수록 두산, 리베르
---	-------------------

#### Ⅱ 지청천 장군 어록비

<u>대전자령의 공격은 이천만 대한 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수만 의 영혼이 보우하여 주는 피의 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라.</u>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동북 항일 연군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경 김일성파와 최현파 300여 명은 국경 대안인 혜산진에서 동북으로 2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u>보천보에 나타나</u> …… 이 급보를 접한 함남 경찰부에서는 …… 오늘밤 11시에 현장으로 출동하리라 하는 바 아직 쌍방의 자세한 사상자는 판명되지 않았다 한다.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금성
--	--------------

## II 한인 애국단 창단 배경

<p>지금 한국이 망하고 중화가 동북(만주)을 잃어버렸으니 동북을 잃고는 한국의 광복이 더욱 어렵다는 것도 명백히 증명되는 바이다. …… 오호! 대세는 분명하다. 불행히도 중화는 일본의 압제를 받게 되었으니 ……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 한국은 영원히 광복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b>우리 한국은 한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하려 해도 반드시 먼저 중국을 구해야 하고, 중국을 위해 광복을 꾀함에도 한국은 또한 중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b> 이것이 바로 내가 입이 닳도록 애원하며 우리 한중 양국 동지에게 다 같이 각성해 새 전장에 목숨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도왜실기』</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p>임시 정부에는 사람도 돈도 들어오지 아니하여 <b>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은식이 대신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쳐만 놓고 나가고,</b> 제1대 국무령으로 뽑힌 이상룡은 서간도로부터 상하이로 취임하러 왔으나 각원을 찾다가 지원자가 없어 도로 서간도로 물러가고, 다음에 홍면희(홍진)가 뽑혀 진강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한참 동안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의정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 당시 정세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을 떨치기로 보나 만보산 사건, 만주 사변 같은 것으로 우리 한인에 대해 심히 악화된 중국인의 악감정을 풀기로 보나 무슨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b>우리 임시 정부에서 회의한 결과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과 파괴 공작을 하되,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전담하고, 다만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위임을 받았다.</b></p> <p style="text-align: right;">『백범일지』</p>	<p>교과서 수록 리베르</p>

## II 이봉창의 한인 애국단 선서문

<p>나는 참된 적성(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b>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b></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II 이봉창의 말

<p>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b>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 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b></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II 민족 혁명당 강령

<p>1. 당의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이며 적인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5천 년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p> <p>2. 정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국내의 혁명 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내외의 전 민족적 혁명 전선을 결성한다.</b></li> <li>2) 국내의 무장 부대를 조직하여 총동원을 준비한다.</li> <li>3) 적의 세력에 아부하는 반동 세력을 박멸한다.</li> <li>4) 국외의 무장 부대를 확대 강화한다.</li> <li>5) 해외 우리 민족의 총 단결을 촉진한다.</li> <li>6) 우리 혁명 운동에 동정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에 대해서는 이와외의 연결을 도모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수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완성한다.</li> <li>- 봉건 세력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민주 집권제 정권을 수립한다.</li> <li>- <b>토지는 국유로 하고 농민에게 분배한다.</b></li> <li>- <b>대규모 생산 기관 및 독점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b></li> </ul>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조선 의용대 성립 선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선 혁명자들은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나아가 중국 항전을 조국 독립 쟁취의 기회로 삼기 위해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였다. .... 조선 의용대의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천백만 조선 동포의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고 이들을 조선 의용대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조선 의용대 가족의 생활

약산(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조선 의용대 대원과 그 가족들의 겸손한 어조는 허풍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 주부들은 아이를 안거나 업고 있으면서도 공동 작업장에서 맡은바 일에 열중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사용하는 식기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하여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옷소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조선 의용대 가족들의 살림집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청결함과 질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대부분 중국식과 서양식을 혼합한 것이었는데 모두가 직접 만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망일보』	교과서 수록 천재
---	--------------

## || 호가장 전투

500명 이상의 일본군 병력이 새벽에 마을을 포위하였다. 동이 트자마자 전투가 벌어졌다. 조선 의용대는 병력이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 격렬하게 저항하여 일본군 태반을 사살하고 포위망을 뚫었다. .... '옛날 이 마을에서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일본군과 싸운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요, 조선 군인들은 참 용감했소.' .... 분대장 손일봉, 29세, 중국군 중앙 군관 학교 포병과 출신. 대포를 적진에 쏘아 보는 것이 꿈이었으나 호가장에서 돌격 부대를 지휘하다 전사. .... 한청도, 26세, 낙천가였으나 호가장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을 안아 동지들을 구하고 산화 ....  『저기에 용감한 조선 군인들이 있었소』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전국 연합 전선 협회의 정치 강령

제1조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조선 민족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한다. 제2조 봉건 세력과 일체의 반혁명 세력을 숙청하고 민주 공화제를 건설한다. 제3조 국내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공사 재산과 매국적 친일파의 일체 재산은 몰수한다. 제4조 공업, 운수, 은행 및 기타 산업 부문에 있어 국가적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각 기업을 국유로 한다. 제5조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토지의 일체 매매를 금지한다. 제6조 노동 시간을 감소하고 노동에 관한 각 종업원은 보험 사업을 실시한다. 제7조 부녀의 정치, 경제, 사회상의 권리 및 지위를 남녀 같이 한다. 제8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9조 국민의 의무 교육과 직업 교육은 국가의 경비로써 실시한다. 제10조 자유, 평등, 상호 부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촉진한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3. 민족 운동 세력의 결집

### || 한국 광복군 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 광복군을 조직하고 ....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 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 이 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 우리들은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

<p>1. 한국 광복군은 우리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중국 군사 위원회에 직할 예속하여 참모 총장이 장악 운영함.</p> <p>2. 중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한국광복군과 한국 독립당 임시 정부와 관계는 고유한 명의 관계를 보류함.</p> <p>3. 중국 군사 위원회에서 한국 광복군을 원조하여 한국 내지나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을 향하여 활동하게 하여서 중국의 항전 공작과 배합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 우리 중국 전구 제1선 부근에서 군사 훈련하는 것을 준허하되, 우리 군 사령관의 절제를 받아야 함.</p>	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
---	------------------

## || 임시 정부 대일 선전 포고문

<p>우리는 삼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기타 제국의 대일 전선이 일본을 격파하게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p> <p>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p> <p>2. 1910년의 합방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p> <p>3.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p>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두산, 비상 지학사
--	-----------------------------------

## || 한국광복군이 되다 : 장준하

<p>우리는 또다시 못한 조상이 되지 않으려다. 나는 또다시 못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의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p> <p style="text-align: right;">『돌베개』</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한국광복군이 되다 : 김준엽

<p>나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 총칭으로 가는 6,000리 장정의 길에 나섰고 ..... 이범석 장군의 부관이 되어 시일에 있는 제2 지대로 찾아가서 OSS 특별 훈련을 받았다. 국내 지하 공작원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때에 투항을 맞이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장정』</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국내 상황

<p>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국내의 정황은 겉으로는 다소 평온한 듯 보이나 이는 적의 억압으로 인하여 잠시 그 침잠을 지킬 따름이요, 그 실상인즉 장차 폭발하려는 화산 같아서 어떤 동기와 기운만 성숙하면 일촉즉발할 기세를 가지고 있다. ....임시 정부가 의연히 존재하여 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과 광복군이 성립되어 방금 적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국내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 광복군의 발동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러면 모두 항응할 기세를 보일 것이며 ..... 한국인들 중에 비록 표면으로 보아 전부가 구명도생만을 위하는 듯 보이나 그중에는 수십만의 열혈 청년들도 있어서 사기를 엿보아 광복 전선에 참가하여 광복 사업에 헌신하려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임시정부 공보』</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OSS 훈련

<p>드디어 3개월간의 제1기생 50명의 OSS 특수 공작 훈련이 끝났다. 나는 무전 기술 등이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국내로 침투하여 모든 공작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을 얻었다. .... 제1기생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도 대만족하여 즉각 국내로 침투시킬 계획을 작성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장정』</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조선 민족 혁명당의 통일 전선 형성 노력 : 장건상의 회고

<p>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망하고 만다. 일본이 망하는 날 우리는 독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그 대비란 결국 해외의 우리 항일 단체들이 모두 단합해서 통일된 조직을 갖추는 것인데, 그 통일된 조직은 임시 정부가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한국 독립당 전당 대표 대회 선언문

우리 임시 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총집결하고 광복군으로 하여금 민족의 독립성을 수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전후 한국 독립과 임시 정부의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치 노력할 것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일제 항복에 대한 김구의 탄식

<p>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왜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가 간에 발언권이 박약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백범일지』</p>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리베르
--	------------------------------

## ||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가족의 생활

<p>정오가 좀 지나자 적기의 공습경보가 났다. 얼마 있다가 비행기 오십여 대가 세 편대로 나누어 중경을 향해 비행하는 것이 보이더니 약 한 시간쯤 지나서 다시 적기가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바로 기강 상공에 이르자 우박 쏟아지는 소리를 내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불꽃이 하늘에 치솟았다. 오륙 분이 채 못 되어 다시 비행기 소리가 나기에 이번엔 잠자고 있던 제시를 부둥켜안고 의복도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집을 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다시 우박 쏟아지는 소리가 나면서 몇 십 개의 작탄이 북쪽 작은 냇가 근처에 떨어지며 천지가 진동하였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순간, 품에 안은 제시의 눈과 귀를 가려 주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시의 일기』</p>	교과서 수록 천재
--	--------------

## ||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 1944년 임정이 발표한 성명서

우리는 각 혁명 단체, 각 무장 대오, 전체 전사 및 국내외 동포와 더불어 전 민족적 통일 전선을 더욱 공고히 확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결심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CHAPTER

# 65

## 실력양성운동, 노동, 농민운동, 사회적 민족운동 전개

### 1. 국내의 민족 운동

#### || 문자보급 운동

<p>오늘날 조선인에게 무엇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산업과 건강과 도덕이 다 그러하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을 들자면 지식 보급을 제외하고는 다시없을 것이다. 지식이 없이는 산업이나 건강이나 도덕이 발달할 수 없다. 문맹 앞에는 항상 밑 모를 함정이 가로 놓여 있으니, 그들이 가는 속에는 위험과 저주가 따라 다닐 뿐이다. …… 전 인구의 2할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령 아동의 3할밖에 취학할 수 없는 오늘날 조선의 상태에서 간결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민족이 가질 최대의 긴급한 일이라 하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일보』</p>	교과서 수록 천재, 리베르 지학사
---	--------------------------

<p>농민의 생활을 보라. 노동자의 생활을 보라. 그리고 부인의 생활을 보라. 그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 생활은 한층 저열하고 향상되지 못하지 않은가. 전 인구의 1000분의 20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 아동의 10분의 3밖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간단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일보』</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브나로드 운동

금주를 기하여 도시의 학생들은 각각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 <b>여러분들의 고향에는 조선 문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이가 얼마쯤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비위생적 비보건적 상태에 있는가.</b>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두산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을 초월한 것이다.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해와 고락을 희생할 것이다. 우리는 보수를 바라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을 갖는 새로운 학생들을 보라! 그들은 명예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끓는 열과 성의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회를 희생하였다 하지 않는가. 숨은 일꾼이 많아라! <b>참으로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대하라. 그리하여 민족의 계몽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b>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리베르

## CHAPTER 66 민족문화 수호운동, 국외 이주 동포 활동

### 민족문화 수호 운동과 사회의 변화

#### 1. 민족문화 수호 운동

|| '한글' 창간호

말과 글이 이렇듯 우리 인생에게 참시도 없지 못할 가장 귀중하고 요긴한 것이 된다 함은 여기에서 새삼스레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b>각기 제 나라의 말과 글이 있어 모두 여기에 대하여 끔찍이 사랑을 주는 것이다.</b>	교과서 수록 천재
--	--------------

|| 주시경 선생 유고

나라를 빼앗는 자는 그 나라의 말과 글을 없애고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전파하며, 자기 나라를 성하게 하고 자 하거나 <b>나라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의 말과 글을 먼저 닦고 백성의 지혜로움을 발달하게 하고 단합을 공고하게 한다.</b>	교과서 수록 비상
---	--------------

|| 조선사 편찬 요지

한국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 미개 민족과 달리 독서와 작문에 있어 결코 문명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서(史書)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한 새로운 저작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자는 독립 시대의 저술로 현대와의 관계는 빠져 있고 공연히 독립국의 옛 꿈에 빠지게 하는 폐가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서의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해 조선의 항배를 논하고, 또한 <b>한국통사라고 불리는 재외 한국인의 저서와 같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망설을 힘써 서술하고 있다.</b> 이들 사적이 남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해독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크다. …… 이러한 사서에 대신하여 공명 적확한 새로운 사서를 만들어 내어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첩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저할 것인즉, 여기에 바록 <b>조선 반도사의 편찬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이 유와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b>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 || 박은식의 한국통사

<p>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u>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u> 이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u>정신이 살아 있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u> …… 그러나 이 책은 갑자년(1864) 이후 50년사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족히 우리 4천년 역사 전부의 정신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여 잊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 대저 예루살렘이 비록 망하여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으나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제 2천년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의 칭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 조상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신채호의 역사 인식

<p><u>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u>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게 팔 것 없이 간단히 말하면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것을 '아'라 하고, 그 밖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무엇이든지 반드시 중심이 되는 '아'가 있으면 '아'와 대립하여 맞서는 '비아'가 있고 ……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앞길이 완성되어갈 날이 없으니, 그러므로 <u>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u></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상고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백남운의 역사 인식

<p>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u>세계사적, 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제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u> 그 발전 과정의 빠름과 느림, 각 문화의 특수한 모습의 짙고 얇음은 결코 본질적인 특수성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사회경제사』</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백남운의 유물 사관

<p><u>조선 경제사의 기도는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제 문제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u></p> <p>제1. 원시 씨족 공산제의 양태 제2. 삼국 정립 시대의 노예 경제 제3. 삼국 시대 말기경에서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적 봉건 사회의 특징 제4. 아시아적 봉건 국가의 붕괴 과정과 자본주의의 맹아 형태 제5. 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 제6.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과정</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 사회경제사 서문』</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실증사학 : 이상백

<p>그러므로 개개가 전체에 관련하는 것은 그 개개를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전체에 관련할 수가 있다. 일개의 사건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게 그 시대 전체에 관련하고, 또 국민, 민족의 전반에 관련하여 이해되고, 다시 인간 전체의 관련에 있어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또, <u>실증주의적인 사건 개개의 정밀 탐구라는 것도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탐색으로써 역사의 사실이 명백하게 되는 것은 그대로 전체 관련에서 보는 데 조금도 지장될 바가 아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문화사연구논고』</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2. 문예와 사회의 변화

### || 천도교의 제2의 3.1운동 계획

존경하는 천도교인 및 민중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섬나라 사람은 섬으로 보내고 대한 사람은 대한을 지켜야 합니다. .... 우리는 틀림없이 광복하고 말 것이니, 민중이여 안심하고 경건하게 이번의 독립 시위 운동에 참가하십시오.	교과서 수록 천재
『자주독립 선언문(1922)』	

### || 대종교에 대한 탄압

대종교의 간부인 서일이 독립군의 수령으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항전하였으니, 대종교는 곧 반동 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 단체이다. 이 단체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이를 해산해야 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쓰야 협정』	

### || 사찰령

제1조 :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	교과서 수록 비상
제3조 : 사찰의 본말 관계, 승규(僧規), 법식, 기타의 필요한 사범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 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함.	
『조선총독부 관보』	

### || 대중 문화의 유행

작금에 와서는 유행 가수에 미인 가수를 예찬하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고 마치 영화 배우의 미모가 상품 가치를 많이 갖게 하듯이 개인의 미가 유행가의 유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니 때는 바야흐로 에로티스즘의 퇴폐 시대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조광』	

유행이라는 것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염병 같은 것이니 한번 미균이 발생만 하면 어떠한 힘으로도 막으려야 막을 수 없이 일사천리의 세로 쑥 퍼지고야 마는 것이다.	교과서 수록 비상
『별건곤』	

### || 윤동주,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윤동주,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교과서 수록 비상, 미래엔
---	-------------------



## || 이육사, 절정

<p><u>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u>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p><u>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u>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노천명,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p><u>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u>  <u>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으면 나도 사나이였으면</u>  <u>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u>  <u>갑옷 떨쳐 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u>  남아의 장쾌한 기상이어든  이제/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숙원을 뽐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에랴  영문으로 들라는 우렁찬 나팔 소리  오랜만에/ 이 강산 골짜구니와 마을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p>	<p>교과서 수록 교학사, 두산 미래엔</p>
--	-----------------------------------

## || 노천명, 부인 근로대

<p><u>한 땀 두 땀 무운을 빌며/ 바늘을 옮기는 양 든든도 하다.</u>  <u>일본의 명예를 걸고 나간 이여/ 훌륭히 싸워주 공을 세워주.</u>  나라를 생각하는 누나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성은  오늘도 산만한 군복 위에 꽃으로 피었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이상, 꽃나무

<p>벌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소.근처에꽃나무가하나도없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꽃을피워가지고섰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나는막달아났소.한꽃나무를위하여그러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런흥내를내었소.</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3. 일상 생활의 변화

### || 토막민의 비참한 삶

<p><u>반쯤 쓰러진 초막에 토굴같이 컴컴한 방, 집안 세간이라고는 귀 떨어진 냄비 한 개, 깨진 항아리 한 개, 찢고 러진 양철 대야 한 개, 석유 상자 하나, 일가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오십 전도 못 될 듯하다. …… 십오세 된 손자 하나를 데리고 초막에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데, 그 손자가 양철 쓰레기통을 주워다가 그럭저럭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 간다고 한다.</u></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토막민

<p>신당리는 왕십리로 가는 큰길 연변의 불과 얼마 못 되는 초가집을 제외한 전 호수 2,700여 호의 절반 이상이 과연 이곳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가 싶은 토막들이다. …… <b>토막민의 사는 모양을 들여다보면 과연 눈으로 볼 수 없다.</b> …… 바람이 불면 한 손으로는 기둥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지붕을 누르고 섰다. 새벽이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은 채로 정한 곳이 없이 일터를 찾아간다. 그날 하루를 온종일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벌지 못한 날은 별 수 없이 굶는 것이 일상이다. 요행이 몇 십전 생긴 날은 조 한 봉지에 비지 한 덩이를 사 들고 토막을 찾아간다. 철모르는 아이와 불쌍한 아내는 조 한 봉지 사 들고 들어오는 남편과 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별건곤』</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농민의 물락

<p>우리가 농촌에서 보고 들은 것은 아무리 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 많다. …… 우리가 보고 들었던 가난한 농민의 식량을 참고로 보면 <b>잡곡이 한 홉 정도에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섞어 끓여서 먹는다.</b> 봄에는 풀의 새싹을, 겨울에는 뿌리를 채굴한다. 나무껍질은 소나무 속껍질, 아까시나무, 기타 모든 껍질을 잘게 하거나 <b>도토리 열매로 가루를 낸 후 물을 넣어 단자를 만들어 소금을 쳐서 먹는다.</b> 어떤 지방에서는 고령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그 상태는 일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비참하고 진기한 현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내외사정』</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지학사</p>
--	-----------------------------------

## || 1930년대 서울 명동의 모습

<p>남대문을 통과하여 아카시아 가로수의 보도를 따라 ‘조선은행 앞 광장’으로 향했다. …… 정면의 한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보이는데, 메이지 분위기가 강한 빨간 벽돌의 중앙 우편국(지금의 중앙 우체국)이다. …… 우측의 한 끝에는 마찬가지로 화강암 외장이 호장한 감을 주는 <b>조선 저축 은행과 고딕 르네상스 풍의 장식을 입힌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 지점이 줄을 잇고 있다.</b></p> <p style="text-align: right;">『경성명소 이야기』</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도시의 발전

<p>철근 콘크리트, 벽돌 등의 고층 건물이 날 보아라 자랑하면서 그 위대한 형체를 하루하루 쌓아 올려, 서울 시내에는 도처에 ‘강철의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조선 사람 손으로 건축되는 것만 <b>태평통의 조선일보사 오층 큰 집이 이십만 원 예산으로 착착 공사 진행되고 …… 이 밖에도 내자동에 수백 실을 가진 커다란 아파트도 건축 중이라 하니 서울 거리거리에는 갑자기 하늘까지 솟는 근대식 대건물이 명랑하게 가득 들어설 모양이라고.</b></p> <p style="text-align: right;">『삼천리』</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경성의 발전

<p>이승지 일행이 <b>종로 큰길을 나서니 화려한 상점은 좌우에 벌여있고, 거미줄 같은 전선은 공중에 얹혔으며 전차, 마차, 자전거 등은 오락가락 복잡함을 극하는지라.</b> 시골 늙은이 이승지는 정신이 현황하고 눈이 어리어 감히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데, 자동차 한 채가 뽕뽕 소리를 지르며 뒤에 섰던 김종성은 “위태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승지의 손을 이끌어 피하는데 이승지는 경겁함을 아니하고, …… “내 나이 지금 육십여 세가 되었으나 세상 구경은 처음일세. 나도 본래 경성 천지에서 성장한 사람이네. 그전 경성과 지금 경성이 ○실로 상전벽해나 다름없네.” 이승지는 감탄을 마지아니하며 ……</p> <p style="text-align: right;">『신세계』</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 거주지역의 분할

<p>경성 전체의 상가를 보면 남북의 양 촌으로 그 경계선이 너무 분명하게 된 지 오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선이 점점 북촌으로 다가감을 매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은 <b>일본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남촌 상가의 구역이 조선인 상점의 집합체인 북촌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말이다.</b> 이와 같이 남촌 상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조선 사람들의 상점은 동대문, 서대문 쪽으로 밀리며 또 그 수가 줄어들 뿐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삼천리』</p>	<p>교과서 수록 비상</p>
---	----------------------



## Ⅱ 일상생활 통제

<p>예전에 한국에서 우측통행하던 것을 내지와 같이 좌측통행으로 고치고, 이의 실시와 동시에 일대 선전을 행한 것이 겨우 2년 전의 일이다. 이것으로써 교통도덕 보급에 중요한 계기를 획득하고 교통 능률을 높였다고 단정하여 자랑하기는 곤란하다. 원래 완벽한 교통사고의 방지는 단지 시설과 단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교통 지식과公德심의 고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p>	교과서 수록 비상
---	--------------

## Ⅱ 철도 정책의 핵심

<p>조선에서의 산업 개발은 홀로 반도 2천만의 민중을 안정시키는 소이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인구, 식량 및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수입 무역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바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산업의 개발을 꾀하는 데는 철도의 보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조선 철도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조선 내의 급무일 뿐만 아니라, 실로 제국의 매우 긴요한 업무에 속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 철도 논찬』</p>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모던 걸

<p>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얇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나 빠지 않을까 보기에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쿠시(당시 유행하던 머리 모양)에다가 모자를 꼭 눌러 쓴 모양 ..... 분길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테 안경, 평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p> <p style="text-align: right;">『별건곤』</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도시 젊은이의 여가 생활

<p>오십 전만 가져도 하룻저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극장과 십 전짜리 백동전 한 푼만 있어도 브라질에서 온 커피에 겸하여 미인 웨이트리스까지 볼 수 있는 카페조차 없다면, 서울의 젊은이는 가뜩이나 고색하고 건조무미한 생활에 얼마나 더 적막을 느낄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별건곤』</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CHAPTER

# 67

## 8.15 광복

## 건국을 위한 준비

### Ⅱ 조소앙의 삼균주의

<p>독립당이 표시하는 바의 주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한 생활을 하게 하는 주위이다. 개인과 개인이 균등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의 균등화요 경제의 균등화요 교육의 균등화이다.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에의 참여를 고르게 하고 국유제를 실시하여 경제 조건을 고르게 하며 국비에 의한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여 교육 기회를 고르게 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균등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균등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 자결'을 자기 민족과 또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시킴으로써 소수 민족과 약소민족이 압박받고 통치 받는 지위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가 균등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식민 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쟁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모든 국가가 서로 침략하지 않고 국제 생활에 있어서 전혀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해일가와 세계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삼균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조소앙 선생 문집』</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조선 독립 동맹의 건국 강령

<p><b>본 동맹</b>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 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전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정권의 수립한다.</b></li> <li>2. 언론, 출판, 집회, 신앙, 사상, 태업의 자유를 확보한다.</li> <li>6.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신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li> <li>7.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여 사회의 노동을 보장한다.</li> <li>9. 국민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교학사(개조식)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임시정부 건국 강령

<p>제1장 총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보통 선거 제도를 시행하여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하고, 공비 교육으로써 학권을 균등히 하며, 국내외에 대해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깨뜨려 없앨 것이니 ……</li> </ol> <p>제3장 건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b>삼균 제도</b>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 국민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li> <li>4. 보통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거주 연수, 사회 출신, 재정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한다.</li> <li>6. 대생산 기구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 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상 기업과 성시 공업 구역의 공용적 주요 건물과 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등 기업은 사영으로 함.</li> <li>7.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 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 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교학사(개조식) 미래엔, 두산 비상, 리베르 지학사</p>
--	---

## || 조선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 일치로 일본 제국주의의 제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li> <li>2.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li> <li>3. <b>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b></li> </ol>	<p>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두산, 비상 리베르</p>
---	---

## || 이승만의 단파 방송

<p><b>나는 이승만</b>이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표원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 저 왜적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오. …… 일본이 지금 전쟁을 이긴다고 큰소리를 합니다. …… 우리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 낙망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 지금 미국과 모든 연합군이 우리와 합동 병진할 것입니다. …… 왜국의 수도에 벼락불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차차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용기를 내어 자유를 위하여 싸웁시다.</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연합국의 회담

### || 카이로 선언

3대 연합국(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치르고 있다. …… 연합국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후 일본이 빼앗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일본으로부터 되찾고, 만주, 타이완 및 펑후 군도와 같이 일본국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에서 구축될 것이다. 앞서 말한 <b>이 세 강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조선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b>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국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미래엔, 두산 리베르 지학사
--	--

### || 카이로 선언의 의미

지금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럴수록 충칭에 망명 중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b>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 해방을 약속했다.</b> 적당한 기회가 마련되면 한국인은 일제 군국주의에 마지막 결정타가 될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매년 한국에서는 일제의 지배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가 3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유능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전후 조선의 독립과 자유는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강력히 보장받았다. <b>카이로 회담 후 우리 민족과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는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증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미국, 영국 3대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b> …… 이렇게 유리한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중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국내의 반일 투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 동포들도 용감하게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교포도 임시 정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b>본 당은 조선 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여 전 민족의 총 단결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b>  『3.1절 제25주년 기념 선언』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알타 회담

소련, 미국, 영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또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 3개월 뒤에 소련이 다음 조건으로 연합국 측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가하기로 협정하였다. 제1조 외몽골(몽골 인민 공화국)의 현재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으로 침해된 러시아 제국의 옛 권리는 회복되어야 한다. 제3조 쿠릴 열도는 현 소련에게 넘겨준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	-------------------

### || 포츠담 선언

제1조 <b>우리 미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 제국 총리는 우리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해서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b> 제2조 미국, 영국, 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사방의 지원을 받아 전력을 크게 증강하여 일본에 대해 최종 타격을 가할 태세를 정비하였다. 제6조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로부터 구축될 때까지 평화, 안전 및 정의의 신질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 정복의 폭거에 나서는 과오를 범케 한 권력 및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 <b>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섬들에 한정될 것이다.</b>	교과서 수록 교학사, 금성 리베르 지학사
---	---------------------------------

##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운동

### Ⅱ 해방 직후

서울 거리는 삼시간에 해방의 감격에 완전히 흥분과 환호의 도가니로 변해 버렸다. 아침나절까지도 보았던 국민복이니 몸빼 차림이 자취를 감추고, 흰옷 입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해방 3년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광복절 노래

흠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38도선 분할에 대한 미군의 증언

사실 시간이 없었다. …… 서울을 포함시켜야 했기에 38도선을 건의하였다. …… 소련이 더 남쪽 선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했던 나는 소련이 38도선 안을 받아들였다고 들었을 때 약간 놀랐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

우리의 당면 임무는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한때 국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줄지언정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유 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모든 진보적 투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b>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통일 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우리의 건국 준비 위원회는 결성된 것이다.</b> ……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	-------------------

본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b>각층각계에 완전히 해방된 통일 전선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 기관은 아니다.</b> 왜 그런고 하면 여기에는 모든 반민주적 반동 세력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있어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적 죄악을 범하였고 금후에도 그들은 해방 전 조선과 같이 그 건설 도중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나니 이러한 반동 세력, 즉 반민주주의적 세력과 싸워 이것을 극복 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강령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b>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을 확보를 기함.</b>  『매일신보』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두산 비상
--	------------------------------------



## II 맥아더 사령관 명의 포고 1호

<p>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나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해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p> <p>제1조 <b>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된다.</b></p> <p>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 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사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b>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b></p> <p>제3조 모든 사람은 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p> <p>제4조 주민의 재산 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 업무에 종사한다.</p>	<p>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비상</p>
<p><b>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는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b> 일본국 정부가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무력 충돌은 끝나게 되었다. 일왕의 명령과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빛나는 <b>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한다. 한국인이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 독립시킬 것이라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심하며,</b> 한국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의 규정들을 이행하고, 한국인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b>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본관은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하여 군사적인 관리(군정)를 실시하고자 한다.</b></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p>

## II 붉은 군대 사령부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 포고문

<p>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오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b>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b> .....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p>	<p>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p>
---	--------------------------

## II 스탈린이 연해주 군관구 군사 위원회와 25군 사령부에 하달한 명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 영토 안에 소비에트 및 기타 소비에트 정권의 기관을 수립하지 말 것이며, 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말 것.</li> <li>2. 북한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조직의 광범한 연합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li> <li>3. <b>붉은 군대가 점령한 조선 땅에서 반일 민주 단체와 정당 결성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사업을 도와줄 것.</b></li> <li>4. 지방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홍보할 것.             <p>가) 붉은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일본 강점자의 섬멸이 목적이며 조선 영토를 탐내거나 또는 소련식 질서를 부식시키자는 것이 아님.</p> </li> </ol>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II 슈킨의 북조선 정세 보고서(1945.12)

<p>1945년 9월 21일자 <b>최고 사령부의 훈령에 언급된 북조선에서의 민주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블록에 기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결성을 겨냥한 노선이 대담하게 관철되지 못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일 민주 정당 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블록을 토대로 한 <b>북조선의 부르주아 민주 개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b></li> <li>2. <b>조선에서 소련 군대가 철수될 경우 소련의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굳건한 정치 경제적 교두보를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b> 민주주의 민족 간부가 아직 충분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현재 <b>북조선에서 인기가 높은 인사들은 공산당 지도자 김일성과 박헌영, 민주당 지도자 조만식이 있는데 조만식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b> 연해주 군관구 군사 위원회에 따르면 민주주의 단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소련의 이익을 고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4-5개월이 소요될 것이다.</li> <li>3. 최단 시일 내에 북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조선 내 정권을 중앙 집권화하여 이를 민주 활동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li> <li>4. 인민 민주주의 운동은 대지주의 토지 소유 현실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li> </ol>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안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여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될 수 있으면 속히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식을 연구, 조성하기 위해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공동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공동 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된 제안은 공동 위원회를 대표하는 두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소련, 중국,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고려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독립 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 임시 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 아래 공동 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 영, 소, 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지학사  
리베르, 두산  
비상

## || 3상 회의 결정 사항 지지

카이로 회담이 조선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준다는 것인데,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5년 이내로 규정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5년 이내에 통일되고 우리의 발전이 상당한 때에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우리의 역량 발전에 달린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의 실현에 있다. .... 하루속히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조선 민족 통일 전선을 완성함에 여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일보』

교과서 수록  
금성

## || 조선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위원회 결의서

조선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분열 때문에 자력으로서 그 길이 열리지 못하고 연합국의 원조 밑에서 국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독립의 획득에서 수다한 국제적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모스크바 회담이 조선 민족 해방에 대해 가지는 의의를 지극히 크게 평가하여 그 규정과 이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그것이 카이로, 포츠담 양 회담의 구체화라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 후의 국제 문제 해결과 조선 민족의 노력으로 이번 모스크바 회담에서 건립의 범위와 방법이 처음으로 구체적 결정을 보인 것이다. 즉, **'적당한 시기'가 '최고 5년'으로 되었고, '적당한 순서'가 '신탁 통치'를 거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소위 배신행위나 기만도 아니요, 하등의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반탁 주장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과 국제 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 신탁 관리 결의로서 수포로 돌아갔으니 .....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서로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중앙신문』

교과서 수록  
금성

이번 전쟁에 연합국이 수백만의 희생을 낸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는 곧 자유를 위함이다.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엄중히 구속하는 결정이다.**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성명서

<p>지난 연말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의라 하여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제를 시행하고 5년간의 기한부로 독립을 승인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국민은 물 끓듯 반대의 물의가 분분하며, 그 의사 표시로서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각처와 각 정당 각 단체 각 계급 각층이 같은 애국열에 한데 뭉치어 시위행진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반대함이며 무엇을 반대함이런가? 냉정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b>우리의 반대하는 의사의 내용은 외래 세력의 우리 내정 간섭에 대한 배격이다.</b> 연합국에 대해 장래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해 <b>우리나라를 즉시 독립 국가로 승인해 달라는 요구이다.</b> 신탁, 협조, 후견의 언구를 놓하여 내정 간섭에 인과적 관계를 맺으려는 3국 외상의 탈선적 호의를 반대함이다.</p>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 이승만의 정읍 발언

<p>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b>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b>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p>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리베르, 두산 비상
--	---

## || 좌우 합작의 7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b>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b></li> <li>2.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li> <li>3. 토지 개혁은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b>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적정 처리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여</b> 사회 노동 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 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시행하며,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한다.</li> <li>4. <b>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b>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게 하여 실시한다.</li> <li>5. 남북의 정치범 석방에 노력하며, <b>남북 좌우의 테러적 활동을 중지하도록</b> 노력한다.</li> <li>6.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b>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b></li> <li>7. 전국적으로 <b>언론, 집회,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가 보장되도록</b> 노력한다.</li> </ol>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교학사 리베르
---	--

## || 트루먼 독트린

<p>나는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의 도움이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력, 재정적 원조를 통해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p>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냉전 체제

<p>미국 정부 수뇌자들은 현재 치열해지고 있는 냉전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극동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산주의를 저지하려는 자유 국가들의 대응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 국가들은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강화를 도모하여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신문』</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인구 비례로 총선거 실시 결정

<p>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의 참석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A. …… (2) 공정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 전역을 여행, 감시,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는 9개국(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한다. B. (1) <b>1948년 3월 31일까지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로 총선거를 실시한다.</b></p> <p style="text-align: right;">『국제연합 총회 결의안』</p>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김구, 남북협상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조국은 분열에,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자못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 우리 거래의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 평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미군정 아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온데, 자기 세력의 연장을 위해서 민족 분단의 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온 민족을 죽음의 구렁 속에 빠뜨리는 극악무도한 짓이노라. 독립이 원칙인 이상, 그것이 당장엔 가망 없다고 해서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왜정 하에서 온 민족이 뼈저리게 인식한 바 있거니와, 지금 독립 정부의 수립이 당장에 가망 없다고 해서 단독 정부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 내 나이 73세,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국 군정 아래서 정권을 탐낼 것이냐? ……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 나는 통일 정부를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노라.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두산, 비상
---	--

## ||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 성명(1948.4)

1.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 2. 외국 군대 철수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확인 3. 전 조선 정치 회의 구성을 통한 임시 정부 수립과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 국가 수립 4. 남조선 단독 선거 절대 반대	교과서 수록 미래엔 리베르
---	----------------------

## ||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보고서』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 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 CHAPTER

## 69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Ⅱ 제헌 국회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돌아보건대 작년 5.10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성립되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선거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국회는 농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기타 재정, 경제에 관한 중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의장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사』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유엔 한국 위원단 국회 방문 연설

민주주의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들 사이의 토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각각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시련 속에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업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의 정치는 번영과 평화를 향유하기를 희망하는 나라에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조선일보(1949)』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대한민국 정부 수립가

삼천만 무궁화 새로이 피라 반만 년 이어온 단군의 피로 겨레들 모두 손을 잡으라 민족과 인류의 영원을 위해  
우리는 받들자 대한민국을! 다 같이 받들자 우리 조국!

『자료 대한민국사』

교과서 수록  
천재

## Ⅱ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민 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매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완수에 대한 민족의 의기가 철석과 같음을 국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정부를 세워서 남북 통일에 매진할 것을 삼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맹서한다.**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미래엔

## Ⅱ 초대 대통령 취임사

민주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Ⅱ 제3차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결의안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실시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이 정부는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교과서 수록  
금성

## II 제헌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천재  
금성, 지학사  
두산, 비상

## II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로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했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해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리베르, 두산  
비상



## Ⅱ 반민 특위 위원장의 국회 보고서

조사 위원회는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와 민족에게 해독을 끼친 자들을 심판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돌연 특별 경찰대의 개입으로 사무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7월에 공소 시효 단축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위원장 등이 사직하였지만 결국 반민법 공소 시효를 단축하는 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친일파 처단에 대한 반발

친일파라고 규탄되고 배척된 사람 중에는 유능하고 유용하게 쓰일 사람들이 많다. …… 국내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신민으로 그들의 요구와 지령이 전횡적이라 하여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우리의 딸들을 공장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러므로 일본 통치하에서 일본 신민으로서 어느 누구 한 소행을 비난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윤치호 일기』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이광수의 변명

이광수는 학병 강요차 도쿄까지 가게 된 동기를 “12월 8일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조선 민족이 대위기에 있음을 느끼고 일부 인사라도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줌이 민족의 목전에 임박한 위기를 모면할 길이라 생각하고 기왕 버린 몸이니 이 경우에 희생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하였고, “도쿄까지 가서 학병을 강요케 된 것은 학병을 나가지 않으면 학병을 나가서 받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할 것 같기에 나가라고 권하였다.”라고 하였다.  『반민자죄상기』	교과서 수록 두산
---	--------------

## Ⅱ 최남선의 참회

까마득하던 조국의 광복이 뜻밖에 열린 실현하여 이제 민족정기의 호령이 팽팽이 이 강산을 뒤흔드니 누가 이 앞에 숙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잘못을 하였으니 오직 공손하게 반민 특위법의 처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채찍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이 땅 이 강산에 태어난 자손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잘못을 구하며, 민족정기의 엄정한 처벌을 기다립니다.  『반민자대공판기』	교과서 수록 두산
--	--------------

## Ⅱ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제2조 정의 1.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6. <b>울사늑약, 한일 병합 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b> 7. 한일 병합의 공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10.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3. 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6. <b>고등 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 고문,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b>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농지 개혁법

-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p>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p> <p>2. 다음 농지는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p> <p>(가)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p> <p>(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서 시장, 군수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p> <p>(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p> <p>(라) 과수원, 뽕나무 밭 등 다년생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생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p> <p>제6조 다음의 농지는 본법으로 매수하지 않는다.</p> <p>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1가호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p> <p>제8조 정부는 피보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한다.</p> <p>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경작할 농가에게 다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하도록 한다.</p> <p>1.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p>	<p>교과서 수록 금성, 지학사 두산</p>
--	----------------------------------

## CHAPTER 70 6.25 전쟁

### 3. 6.25 전쟁과 전후 복구

#### Ⅱ 소련의 북한 지원

<p><u>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비, 자재, 군사 장비 등에 대한 물적 지원 요청을 수락하고, 이 물품들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다.</u></p> <p>『북한과 소련의 교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Ⅱ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p>김일성 : <u>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한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u></p> <p>스탈린 :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u>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u></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Ⅱ 마오쩌둥의 6.25 침략 계획

<p>만주에는 150만 명의 조선족이 있는데 그중 2개 사단이 최근에 구성되었다. 그중 하나는 전투 경험이 있다. 만주에서 국민당군과의 전투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 <u>우리는 북한이 요청하면 이 사단들을 언제라도 보내 줄 것이다. …… 1950년 초의 상황이 좋다면 그때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한다.</u> 물론 모스크바와 조정을 거친 후에 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p> <p>『소련 요원이 1949년 스탈린에게 전보로 보고한 내용』</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Ⅱ 애치슨 선언

<p><u>이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와 필리핀 군도에 이어진다.</u> 기타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안전 보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구라도 이 지역을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북한군의 전투 명령

<p>1. 아군(인민군 제4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적(국군)의 7사단 1연대가 방어한다.</p> <p>2. 본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 아장동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근 임무로서 마지리, 536.2 고지를 점령하고 최후 임무로는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차후로는 <b>의정부, 서울 방</b> <b>향에 지원한다.</b></p> <p>8. 제5보연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와 함께 18보연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지리, 동명천 계선에서 전치진입을 준비한다.</p> <p>9. 군단포 대대는 나의 수하 대대로 한다. 포병 준비 사격은 30분간이며, 그중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 사격으로 한다. …… <b>포사격 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 24시까지이다.</b></p> <p>14. 사단 지휘소는 협곡이며 감시소는(03.31)인바, <b>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 방향이다.</b></p> <p style="text-align: right;">『전투 명령 제1호』</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문 82호(1950.6.25)

<p>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에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적법한 의사 표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선거로 수립되었으며, <b>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와 같은 합법적 절차로 수립된 정부임을 확인한다.</b>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무장 공격은 평화를 깨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p> <p>1. <b>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당국은 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해야 한다.</b></p> <p>3. 유엔 회원국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북한 당국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문 83호(1950.6.27)

<p>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 당국이 전쟁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b>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지 않았다</b>는 것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는 데 <b>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b>된다는 유엔 한국 위원단의 보고서를 주목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목하여 <b>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b></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맥아더 사령관의 무조건 항복 권고 방송(1950.10.1)

<p>인민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 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 본관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b>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버리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b></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전란 1년지』</p>	교과서 수록 금성
---	--------------

## || 굳세어라 금순아 : 1.4 후퇴

<p>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다.</p>	교과서 수록 금성, 비상
---	------------------

## II 반공포로 석방

<p>이 대통령은 18일 상오 11시 공보처 주도하에 포로 석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네바 협정과 인권 정신에 의하여 반공 한인 포로는 벌써 다 석방하였어야 할 터인데, 유엔 당국들과 또 이 포로를 석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의 설명을 들은 분들은 동정상으로나 원칙상으로나 동감을 가진 것으로 내가 믿는 바이다. 그러나 국제상 관련으로 해서 불공평하게도 이 사람들을 너무 오래 구속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는 유엔이 공산 측과 협의한 조건이 국제적 관련을 더욱 복잡케 해서 필경은 우리 원수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오해를 주는 흉상을 일으킬 염려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흉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b>내가 책임을 지고 반공 한인 포로를 오늘 6월 18일로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b> 유엔 사령관과 또 다른 간계 당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설명치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각 도지사와 경찰 관리들에게 지시해서 이 석방된 포로들을 아무쪼록 잘 지도 보호케 할 것이니, 다 그 직책을 행할 것을 믿는 바이다. 우리 모든 민중이나 친구들이 다 협조해서 어디서든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믿는 바이다. 『조선일보』</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II 휴전 협정문

<p>1.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 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p> <p>4.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 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의 건을 감독한다.</p> <p>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기슭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을 쌍방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p>	<p>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p>
---	---------------------------

<p>51.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p> <p>    ㄴ. 양측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 포로를 군사적 통제와 수용으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 협정 부록 '중립국 송환 위원회 직원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p> <p>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한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p>쌍방의 사령관들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하도록 명령한다.</p> <p>.....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의 쌍방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II 한미 상호 방위 조약

<p>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 17. 조약문 교환 1954. 11. 18. 발효</p> <p>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 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 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p> <p>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교학사</p>
---	-----------------------------------



<p>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p> <p>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p> <p>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p> <p>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p> <p>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p> <p>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p> <p>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p> <p>대한민국을 위하여.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p>	
---	--

## II 학도 의용군 이우근의 편지

<p>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p>	교과서 수록 미래엔
<p>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드는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p>	교과서 수록 금성
<p>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님 품에 덜씩 안기고 싶습니다. ……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 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웅달쌈의 이가 시리도록 차거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p>	교과서 수록 두산

## II 전쟁의 상처

<p>밤사이 폭격 소리에 잠을 깨어 밝은 새벽 달빛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제 우리 조국은 무서운 살육과 파괴의 수라장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포가 죽고 얼마나 많은 집이 불타고 있을까?</p> <p>『역사 앞에서』</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II 피난민의 발생

<p>피난민의 상당수는 집단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자활 능력이 없는 그들은 오직 외국의 원조 구호물자에 의지하여 기아를 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기 지구 내의 월남 피난민 대부분은 식량 구호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기대할 수 없어 극도로 궁핍한 생활난에 빠져 있다.</p> <p>『자유신문』</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학도병

전쟁이 터지면서 슬픈 소식이 잇따랐다. 서울에서 열린 학도 호국단 체육 대회에 다녀오던 이규영 교장과 학무과 직원 등 11명이 경기도 마석고개에서 인민군에 붙잡혀 총살됐다고 했다. …… 그해 10월 춘천이 수복되자 뿔뿔이 흩어졌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당시 체육 교사 정봉득 씨가 “북괴가 퇴각 중이다. 학도병으로 나가 싸우고 싶은 학생만 손들어 봐.”라고 했다. 한두 명씩 손을 들더니 학교에 남아 있던 100명 남짓한 6학년생 대부분이 자원했다. …… <b>학도병은 교복 차림으로 전투에 나섰다. 군번도, 총기도 받지 못했지만 포탄, 주먹밥을 나르는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b> …… 국군엔 문맹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병사가 많았다. 학도병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빛을 발휘했다. “새로 나온 무전기 설명서가 영어로 적혀 있어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학도병이 가서 사용법을 알려 줬지.”	교과서 수록 비상
--	--------------

『나와 6.25』

## Ⅱ 산업 기반의 파괴

<b>장기화된 전쟁으로 산업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고, 국내 경제 질서는 혼란에 빠졌다. 기간산업을 위시한 생산업체는 막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b> 최근에 당국은 전쟁과 함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과 미국 역시 부흥 사업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 독립 국가로서 의식주의 기본 산업을 자급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외국 자본 및 기술과 협조 생산을 하는 데 노력하여 일관된 종합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서울신문』

## Ⅱ 남과 북의 적대감 심화 :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

그저께 마을에서 반을 통하여 한 집에 한 사람씩 성균관 앞으로 모이랴기에 나가 보았더니 청년 몇 사람을 끌어다 놓고 따발총을 멘 인민군들이 군중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반동분자요, 아니요?” 하고 물으매, 모두들 기가 질려서 아무 말이 없는데 그중의 <b>한두 사람이 “악질 반동분자요.”</b> 하고 소리치니 <b>두말없이 현장에서 총을 쏘아 죽였다.</b>	교과서 수록 비상
현철 군이 그저께 아리랑 고개에서 불심 검문을 만나 <b>“어디 갔다 오느냐?”</b> 하기에 <b>“동무 집에 놀러 갔다 온다.”</b> 하였더니 <b>“동무란 말을 쓰는 걸 보니 너 빨갱이 아니냐?”</b> 하더라고. 우리 연배면 ‘친구’라는 좋은 말도 있지만 현철이 나이 또래에는 ‘동무’라야 격에 맞을 터인데 무슨 알맞은 대용어라도 찾아내야겠다.	교과서 수록 비상

## CHAPTER

# 71

##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 자유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Ⅱ 발췌 개헌

<b>나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믿는 국회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을 부탁하는 바입니다.</b> 이 헌법 개정에 나 개인으로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나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됨으로써 영구한 평화는 보장되며 우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복리를 진보적으로 누릴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이승만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1951)』

#### Ⅱ 발췌 개헌안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b>민의원과 참의원</b> 으로써 구성한다. 제53조 <b>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b>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 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사사오입 개헌안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5조 <u>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u>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과서 수록 비상
--	--------------

## || 국가 보안법(1958년 개정)

-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통령, 국회 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보안법 파동

자유당은 야당의 국가 보안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리라 한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국민의 반공 사상은 깊이 배어 있다. 그러나 <u>지금 반공 투쟁을 내세우는 것은 야당이 국가 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u> 반공이라는 굴레를 씌워 보려는 것이다. .... 언론 통제를 위하여 반공의 굴레를 씌우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 법을 이용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거니와, 결국 이것은 자유당이 자기 몸을 움아매는 것이 될 것이다. 『경향신문』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3.15 부정 선거 :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지시 사항

지역별로 자연 기권자, 유령 유권자, 매수 유권자의 표를 4할 정도 만들어 사전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어 둘 것. 지역별로 3-9인씩 조를 편성, 조장이 조원의 표를 확인, 자유당 선거 운동원에게 보여 주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	--------------------------

## || 3.15 부정 선거

-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 표 등 총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조 또는 9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공개 투표를 하도록 하고,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 투표소 부근에 '자유당'이란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동아일보』	교과서 수록 두산, 비상
---	------------------

## || 4.19 혁명의 발생

이승만 1인 독재 체제 밑에서 참고 또 참아 오던 분노는 3.15 부정 선거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았을 때 해일처럼 터지고 만 것이다. 만주먹의 젊은 학생들이 독재의 아성을 향해 포효하며 육박하였을 때 국민이 일제히 이에 호응하였다. 『조선일보』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4.19 혁명 당시 초등학생의 시

아침 하늘이 밝아 오면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 탕 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은 오빠 언니들의 피로 물들었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한성여중 진영숙이 시위에 나선 이유

<p>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너무 조금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보』</p>	<p>교과서 수록 두산</p>
--	----------------------

##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p>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꺾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p> <p>2. 이 데모를 <u>공산당의 조정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u></p> <p>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p> <p>5. <u>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u></p>	<p>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비상</p>
--	----------------------------------

## || 서울대 문리대 학생 선언문

<p><u>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참여하여 지성과 진리, 자유의 정신을 뿌리고자 한다.</u>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는 전제 권력에 의해 사라졌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우리는 침묵의 밤에 자유의 종을 치는 역할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 두산</p>
--	---------------------------

## || 4.19 혁명 이후의 통일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p>1. <u>중립화 통일론에 대하여</u> : …… 한국이 중립화하여 자유세계와의 군사적 유대가 없을 때 중공 소련이 침략을 감행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는가.</p> <p>2. <u>남북 협상에 대하여</u> : …… 교활하고 악랄한 공산 분자와의 협상에 앞서 우선 혁명 후의 국내 정국을 안정시키고 대공 협상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국내 여러 정당 단체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4.19 혁명 10주년 기념사

<p>앞으로 전개될 모든 형태의 민족 운동, 사회 운동 및 민주 통일 운동은 다 같이 4.19를 그들의 고향으로 한다. 따라서 <u>4.19 혁명은 그 자체로서 '영구 혁명'의 출발이지 그 완성은 아니다.</u></p> <p style="text-align: right;">- 서울대 학생회 -</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4.19 혁명 20주년 기념사

<p>4.19가 있었기에 우리는 (박정희의) 유신을 거부해야 할 당위성을 찾았고, 4.19가 있었기에 우리는 필승의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 …… 4.19는 결코 5.16에 의해 말살된 것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대중 -</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4.19 혁명 30주년 기념사

<p>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이며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 4.19 정신을 계승, 완수하기 위해 중단 없는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영삼 -</p>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 || 이승만 하야 : 이승만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봉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교과서 수록  
교학사, 비상

## CHAPTER

# 72

## 박정희 정부

## || 5.16 군사 정변의 혁명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업을 성취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시사 자료 광복 30년사』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지학사  
교학사, 두산  
비상

## || 한일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두 조약 체결 당사국은 양국 상호 관계에 있어서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 상호의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지학사  
두산, 비상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브라운 각서

<p>군사 원조</p> <p>제1조 <b>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b></p> <p>제2조 월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 <b>파월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 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b></p> <p>경제 원조</p> <p>제3조 (가) 주월 대한민국 부대에 드는 보급 물자와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 군을 위한 물자 가운데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p> <p>제4조 수출 진흥의 전 부문에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p> <p>제5조 <b>1964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AID 차관에 추가하여 .....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b></p>	<p>교과서 수록 금성, 리베르 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파병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한다.</li> <li>- 베트남 주둔 한국군 지원 사업과 현지의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li> <li>- 미국은 한국에 군사 원조와 차관을 제공한다.</li> </ul>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 || 김수영, 풀

<p>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p> <p>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p> <p>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p> <p>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닉슨 독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와 같은 군사적 개입을 앞으로 피한다.</li> <li>-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의 내란에 개입하지 않는다.</li> <li>- 미국은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li> </ul>	<p>교과서 수록 미래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li> <li>-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li> <li>-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그에 대처하여야 한다.</li> </ul>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조약상의 약속을 지킨다.</li> <li>2.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li> <li>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며, <b>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방어하려는 의사를 가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b></li> </ol>	<p>교과서 수록 비상</p>

## || 유신 선언문(1972, 대통령 특별 선언)

<p>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 우리는 자유 민주 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 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p>	<p>교과서 수록 교학사</p>
---	-----------------------



## II 유신헌법

<p>제1조</p> <p>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p> <p>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p> <p>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p> <p>제39조</p> <p>① <u>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u></p> <p>제40조</p> <p>① <u>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u></p> <p>② <u>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u></p> <p>제53조</p> <p>① <u>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고, <u>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 <p>제59조 ① <u>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u></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리베르, 두산 비상</p>
--	--

## II 긴급 조치 특별 담화문

<p>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로 총화 단결하고 국론을 통일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모든 국력을 기민하고도 유효하게 총집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 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오늘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하는 바입니다.</u></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II 긴급 조치 1호

<p>1. <u>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비방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u></p> <p>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p> <p>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p> <p>4. 위의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p> <p>5. <u>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으며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비상 리베르=</p>
---	------------------------------------

## II 긴급 조치 9호

<p>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p> <p>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p> <p>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공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선전하는 행위</p> <p>다. <u>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u></p> <p>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p> <p>8. <u>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u></p>	<p>교과서 수록 금성, 두산=</p>
---	---------------------------

## || 박정희 3.1절 기념사

3. 1 정신은 자주독립과 총화 단결, 그리고 평화 의지로 집약되는 우리 민족정신의 표상입니다. <b>우리가 일찍이 국민적 슬기를 모아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것도 총화의 바탕 위에서 자주, 자립의 국력을 시급히 배양하여 민족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 나감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자는 데 그 기본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b>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3.1 민주 구국 선언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b>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b> 3.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교과서 수록 천재, 비상
--	------------------

<b>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b>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로도 민주주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b>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b>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이북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 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지만 민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첫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 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둘째, <b>유신 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b>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b>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b>	교과서 수록 비상
--	--------------

## || 서울대생 김상진의 양심선언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어라! 동지여! 우리의 송고한 피를 흘려 이 땅에 영원히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가? <b>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b> 우리는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 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사회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	교과서 수록 금성, 지학사
---	-------------------



## CHAPTER

## 73

## 전두환 정부

## 민주화의 진전과 확대

## || 계엄 사령관의 광주 사태에 대한 담화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에 의해 제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의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 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강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 || 광주 시민 궤기문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쏘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금성, 교학사  
두산, 비상

## || 조선 대학교 학생 성명서

국토 수호를 위임받은 **군인이 제 나라의 양민을 학살하고 있다. 국민의 가슴이 산산이 부서진 오늘은 참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이다. 5월 17일 밤을 기해 전두환과 그 일파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부 통치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을 체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살하였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정태춘의 5.18 노래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에 노여움으로 말하네**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전두환, 노태우 대법원 판결

**5.18 내란 행위자들이 …… 헌법 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 그 시위 진압 행위는 ……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 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 시민들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박종철 군 사망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수사관의 심문을 받기 시작, 11시 20분쯤 수사관이 수배된 선배의 소재를 물으면서 책상을 세게 두드리는 순간 의자에 앉은 채 갑자기 '욱'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는 ..... 『경향신문』	교과서 수록 천재
--	--------------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술한 고문 사례의 한 가지이지만 그것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수감자에 대한 가혹 행위, 농성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수없이 시비가 일었으나 ..... 어정쩡한 수사 태도가 급기야 박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향신문』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보도 지침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 모욕 행위'로 할 것.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 내용 불가.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6.10 국민 대회 선언문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비상
--	------------------------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 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고문 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국민 대회 행동 강령과 구호

오후 6시 국기 하기식에 맞춰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른다. 애국가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교회와 사찰은 타종합시다. 국민 대회 때 소형 태극기를 지참합시다.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 6.29 민주화 선언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을 실현한다. 둘째, 직선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를 민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셋째, 국민 화해와 대동단결을 위해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 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반국가 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넷째, 새 헌법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전면 확대하는 등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고 인권 신장에 힘쓰도록 한다. 다섯째,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 자치를 조속히 실현한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교과서 수록 천재, 금성 교학사, 비상 미래엔
---	------------------------------------

첫째, 여야 합의로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 운동, 투개표 과정 등에서 최대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 수록 리베르
--	---------------



## CHAPTER

## 74

## 6공화국

## || 지방 선거의 실시

지방 선거의 핵심은 주민들의 이해와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현안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루게 될 대역을 뽑는 과정이다. …… 34년이나 기다려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한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된 부끄러운 숨길 수 없다. …… 지각해 버린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늦게나마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자각은 6.27을 고비로 더욱 명료하게 다져져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교과서 수록  
천재

## || 금융 실명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의 부패를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 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교과서 수록  
두산

##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 경제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 유착이나 관치 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 CHAPTER

## 75

## 통일정책

## 통일을 향한 움직임

## || 조봉암의 통일론

이제는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것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 우리가 북진을 한다는 것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소련 또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있어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곧 세계 전쟁을 일으킨 후 비로소 한국의 통일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론이 되는 것이다. 『중앙정치』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남북 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남측대표 :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북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북측대표 : 우리의 공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 주시오  
남측대표 : 우리의 공식 명칭은 대한 적십자사입니다. 간단해서 외우기 좋지요.

교과서 수록  
천재

## 7.4 남북 공동 성명

<p>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p> <p>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b>자주적</b>으로 해결한다.</p> <p>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b>평화적</b>으로 실현한다.</p> <p>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b>민족적 대단결</b>을 도모한다.</p> <p>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금성 교학사, 두산 리베르, 비상</p>
---	---

## 남북 기본 합의서

<p>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제1조 <b>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b></p> <p>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p> <p>제9조 <b>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b></p> <p>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b>직통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b></p> <p>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b>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b></p> <p>제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지학사, 두산 교학사, 비상 리베르</p>
---	---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p>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p>1. <b>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b></p> <p>2. <b>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b></p> <p>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p> <p>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p> <p>5. 남과 북은 이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 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p> <p>6. 이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6.15 남북 공동 선언

<p>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b>우리 민족끼리</b>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 <p>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b>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b>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 <p>3.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b>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b>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p> <p>4. <b>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b>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p>	<p>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금성 교학사, 두산 리베르, 비상</p>
--	---



##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p>1. <b>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b></p> <p>4.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p> <p>5.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였다.</p> <p>- <b>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여</b>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p> <p>6.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 <p>- <b>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b></p> <p>-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p>	<p>교과서 수록 미래엔 교학사</p>
---	-------------------------------

## || 이산 가족 문제

<p>대한 적십자사 관계자는 16일 <b>"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 나 통일이 된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지를 제작한다."</b>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right;">『뉴스시스(2012)』</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CHAPTER

# 76

## 경제 정책

##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p><b>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b>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p>	<p>교과서 수록 천재</p>
---	----------------------

## || 한강의 기적

<p>한국인들은 서독이 제2차 세계 대전 후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과 같이, <b>서울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의 기적'</b>과 같은 빛나는 공업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근면한 나라, 한국(경향신문 기사 재인용)』</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 || 중화학 공업 발달

<p><b>정부는 포항과 같은 제2의 종합 제철 공장 건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또 대단위 기계 종합 공업 단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나 갈 것입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1973)』</p>	<p>교과서 수록 지학사</p>
--	-----------------------

<p><b>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 공업 시대'로 들어갔습니다.</b>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1973)』</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후진 민주주의와 한국 혁명의 성격과 과제 : 박정희,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p><b>민주주의라는 빛 좋은 개살구는 기아와 절망에 시달리는 국민 대중에게는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다. .... 우리와 같은 후진 민주 국가에서 실시하려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경제적 개발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b></p>	<p>교과서 수록 금성</p>
---	----------------------

## || 제2차 석유 파동

박00 씨 등 주부 100여 명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의 00주유소로 석유통 2-3개씩을 들고 몰려와 “석유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씨 등은 “석유를 사기 위해 집에서 2km나 떨어진 이곳에 왔는데 며칠째 석유를 한 방울도 못 사고 그냥 돌아갔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00주유소 옆에서 낚시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00 씨도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연3일째 석유를 못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1979)』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1979)

농민은 역사 발전의 주체요, 국가적 과제인 식량의 생산자로서 조국 방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업 우선, 수출 제일주의 경제 정책 하에서 저임금을 위한 <b>생산비도 안 되는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오늘날 농민은 더욱 심화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천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b> 『민족, 민주, 민중 선언』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농촌의 빈곤

지금 농촌은 돈에 화신이 들린 것 같다. 열대여섯 살 고사리 손들이 돈을 벌겠다고 도시로, 도시로 나간다. 식 모살이로 공장으로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제 자식 놈들 값싼 노임 받으라고 제 아버지는 농사지어 값싸게 내다 판다. 값싼 농산물로 값싼 노임 뒷받침하면 그렇잖아도 돈이 많은 기업가만 돈을 벌게 되지 않겠는가? <b>어린 자식은 돈 벌겠다고 도시로 나갔으니 일손은 모자랄 것이고 제 아버 값싼 곡가에 자식 놈 값싼 노임이니 죽어라 벌여본 들 가난할 수밖에 이래도 농민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일까? 곡가는 다른 물가에 영향이 크니 인상할 수 없고 농촌에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은 날만 새면 올라가니 또 한 번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b> 『불꽃이여 이 어둠을 밝혀라』	교과서 수록 두산
---	--------------

## || 국제 통화 기금 지원 요청 발표문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b>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b> …… IMF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대외 신인도 제고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의 해소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유동성 부족 상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과서 수록 금성
---	--------------

## || 독거노인들의 처지

의료 보호 대상자인 <b>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병으로 장기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보증인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어</b>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질병 대부분이 중풍, 암 등 난치병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한겨레 신문(1997)』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근로기준법(1961)

제42조 (근로시간) ①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b>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b> 제4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근로 시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교과서 수록 두산
---	--------------

## || 전태일의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 <b>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근로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b> …… 또한,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은 평균 연령이 15세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제이며,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 <b>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이 1주 45시간인 데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b> …… 저희들의 요구는 …… 1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시간-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b>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b> 『전태일 평전』	교과서 수록 천재, 미래엔 지학사, 두산 리베르, 비상
---	---



## 87년 노동자 대투쟁

1987년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울산에서 시작됐다. 삼시간에 태화강 둔치에 5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이면 서, 며칠 뒤 공설 운동장에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이면서, 파출소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그것이 삼 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허겁지겁 울산으로 내려간 나에게 한 노동자가 꼬깃꼬깃 접힌 유인물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구겨진 종이장에 적혀 있던 구호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명하다.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해달라!”**, **“출퇴근 시 사복 착용하게 해달라!”**, **“안전화 신고 조인트 까지 마라!”**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수만 명의 노동자 가 모여서 외쳤던 중요한 요구 사항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니.

『쓰린 가슴으로 떠올린 노동자 대투쟁』

교과서 수록  
두산

## 88만원 세대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금융 회사 사무직에 취직했고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88만원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게 88만원 세대인 건가요?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건 4시 30 분, 5시 40-50분에 나오고요, 집에서 회사까지는 두 시간 거리고 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합니다. 끝나는 건 보 통 8-9시. 정리하고 집에 가면 10시 반-11시 넘거나. 보통 엄마가 보고 있던 드라마가 끝나갈 때 들어가요. 토 요일도 일하고요, 가끔 일요일도 나오라고 그래요. 사는 지역에 일자리는 없고 자취할 형편도 안돼서 서울까지 나오는데, 월급이 133만원 들어왔어요.

교과서 수록  
지학사

## CHAPTER

# 77

## 북한의 변화

### 북한 정권의 변화

#### 8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1946)

1. 일제의 소유지 및 일제의 정권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또는 해방될 때 자기 거주지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는 몰수되어 농민 소유지로 전용된다.
2. 5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지주 및 성당, 사찰, 기타 종교 단체의 소유지와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소작시키는 모 든 토지는 몰수하여 농민의 소유로 분여한다.
3. 몰수한 토지의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히 그 소유로 분여한다.

교과서 수록  
두산

####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 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 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전집』

교과서 수록  
천재

#### 자주 노선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 다.

『로동신문』

교과서 수록  
천재

## || 김일성 우상화

북한은 김일성을 현재 우상화하다 못해 완전히 신격화하고 있다. 한 예로 김일성은 모든 재앙의 구세주로 창조되고 있다. 민청호 558호가 폭풍으로 3일간 표류하는 동안 그 선원들은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서 구원될 것을 다짐하고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적은 책자를 읽어 마침내 불사조로 귀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경향신문(1963)』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합영법(1994 개정)

제1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북한)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교포들과도 합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합영 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교포들과 하는 합영 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 기업에 대해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교과서 수록 미래엔, 금성 리베르, 두산
---	------------------------------

### CHAPTER

# 78

## 사회 문화 변화

### 사회, 문화의 발달

#### || 대중 교통의 발달

2배도 좋고 3배도 좋고 타는 데까지 쓸어 넣는다. 신경질적인 안내양에게는 눈치까지 보가며 비위를 맞춰 줘야 하는 것이 승객들의 처지다. 운전사는 정류장에서 갑자기 출발하면서 핸들을 꺾는다. 승객들을 차 안쪽으로 밀어 엮기 위해 개발한 운전법이다. 이른바 '조리질 운전'이다. 이렇게 끌리고 밀린 끝에 내리면 단추가 한두 개씩 떨어지기 일쑤다. 『서울신문』	교과서 수록 천재
--	--------------

#### || 표준 간소복

표준 간소복이란 의미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의미에서 표준이고, 종전의 펄렁펄렁한 한복 대신 활동하기에 편리한 간편복이란 의미에서 간소복이다. …… 1961년 6월 25일, 재건 운동 서울시 지부가 여성 신생활 복장을 시민에게 공개하였다. 10여 명의 유명 배우들이 간소복을 입고 모델로 나섰다.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아파트의 등장

1970년대 서울에서 준공된 한강 맨션의 평면 설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였다. 첫째, 한국 최초의 완전 입식을 대담하게 기획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앙식 온수난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진은 거기에 맞추어 입주자의 생활을 현대식으로 변화시키려 의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강 맨션은 온돌방이 전혀 없었고, 모든 공간이 입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 참신한 설계는 젊은층에는 받아들여졌으나 전체적으로 시기상조의 기획이라는 반박을 받았으며, 특히 노인층의 반대가 심하였다. 『대한 주택 공사 20년사』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도시화 : 소설 뽕이부리말 아이들

<p><b>뽕이부리말은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이다.</b> 지금 뽕이부리말이 있는 자리는 원래 땅보다 갯벌이 더 많은 바닷가였다. 그 바닷가에 '고양이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호랑이까지 살 만큼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던 고양이 섬은 바다가 메워지면서 흔적도 없어졌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은 소나무 숲 대신 공장 굴뚝과 판잣집들만 빼곡히 들어찬 공장 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고양이 섬 때문에 생긴 '뽕이부리말'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이농민들은 돈도 없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 뽕이부리말 같은 빈민 지역에 동지를 틀었다. .... 집 지을 땅이 없으면 시궁창 위에도 다락집을 짓고, 기차길 바로 옆에도 집을 지었다. 그리로 한 뽕이라도 방을 더 늘리려고 길은 사람들이 겨우 다닐 만큼만 내었다. 그래서 뽕이부리말 골목은 거미줄처럼 가늘게 엉킨 실골목이 되었다. .... <b>뽕이부리말도 점점 도로를 낸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하면서 기차길 옆의 판잣집들이 철거되었다. 시궁창이 복개되면서 시궁창 옆의 판잣집들도 사라졌다.</b> .... 뽕이부리말이 부자가 되어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 전체가 찰대로 다 차 버려 사람들이 빈민굴이라고 가기를 꺼리던 뽕이부리말 근처까지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된 것이다.</p>	교과서 수록 미래엔
--	---------------

## Ⅱ 국민교육헌장

<p><b>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b> .... 우리의 창익과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p>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금지곡 : 김민기의 아침이슬

<p>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b>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b></p>	교과서 수록 천재, 두산
---	------------------

## Ⅱ 시민 단체의 등장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1989)

<p>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b>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li> <li>- 경제적 기회 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li> <li>- <b>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 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b></li> </ul>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발기 선언문(1989)

<p>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다. 만연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손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b>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b></p>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Ⅱ 시민 단체의 등장 : 환경 운동 연합(1993)

<p><b>환경 운동 연합</b>은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p> <p>- <b>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b></p> <p>-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p>	교과서 수록 천재
---	--------------

## Ⅱ 일본과의 역사 인식 충돌

<p><b>후쇼사 교과서 최종본</b>에는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되어 있다. 그것이 조선이다. <b>조선 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배후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b>”라고 적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2001)』</p>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p>(일본이 개최한 대동아 회의에서) 각국의 자주 독립, 각국의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 인종 차별 철폐를 제창한 <b>대동아 공동 선언</b>이 발표되어 일본의 전쟁 이념이 분명해졌다.</p> <p style="text-align: right;">『후쇼사 교과서』</p>	교과서 수록 금성
---	--------------

<p><b>이러한 죄로 일본의 국가 지도자를 벌하는 것은 그대까지의 국제법의 어떤 역사에도 없었다.</b> 나아가 재판관은 전원 승전국에서 선임되고 재판의 실제 심리에도 검찰 측이 내세운 증거의 많은 부분은 그대로 채용되는 것에 반해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후쇼사 교과서』</p>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발언

<p>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시기에 잘못된 정책으로 전쟁의 길로 들어서 국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침략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인민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역사의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겸허하게 역사 교훈을 받아들여 내심으로부터 통절한 반성을 표시하며, 이 역사 과정에서 희생된 국내외의 인민을 향하여 우리들의 애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b>패전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는 심각한 반성의 입장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b></p> <p style="text-align: right;">『1995년 무라야마 수상 담화』</p>	교과서 수록 금성
--	--------------

## Ⅱ 중국과의 역사 인식 충돌 : 한중 양국 구두 양해 5개항(200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 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 측이 유념하고 있다.</li> <li>2. 양측은 향후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 공동 성명 및 1993년 7월 양국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li> <li>3. 양측은 한중 협력 관계라는 커다란 틀 아래에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동 인식을 같이 한다.</li> <li>4.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li> <li>5. 양측은 학술 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서 학술 교류와 양국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li> </ol>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Ⅱ 동북 공정에 깔린 중국의 의도 : 왕뤄린, 동북 변강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학과의 건설을 촉진한다.

<p><b>조선(북한)과 한국의 소수 학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류를 퍼뜨린다.</b> ..... 다른 마음을 품고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 중국의 동북 지방에 속한 정권을 고대 조선족의 독립 국가이며, 오늘날 중국 동북 변강이 역사상 고대 조선의 영토였음을 논증하려고 하며, ..... 이른바 <b>간도 문제로 중국 지린 옌볜 지역의 근대 조선 민족의 이민 문제를 국경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영토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b></p>	교과서 수록 금성
--	--------------



## ||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의 고구려, 발해 발언

중국, 조선 두 나라 두 민족의 역사적 관계는 발굴된 문물에 의해 증명된다. 두 나라, 두 민족 관계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중지될 때까지 3, 4천 년 이상 매우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b>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소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b> 양국 민족의 발전에 대한 과거 중국 일부 학자들의 관점은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그다지 실제로 부합하지 않았다. ....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b>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b>	교과서 수록 교학사
--	---------------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연설

우리는 유엔의 3개 기둥인 안보와 개발,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평화롭고 더 번영하고 더 정당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수록 천재
---	--------------

## || 이수현

일본 유학 중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현 씨의 10주기 추모행사가 한일 양국에서 열렸다. 201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지요다 구에서 이 씨의 부친과 모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연합뉴스』	교과서 수록 지학사
---	---------------

## || SNS의 발달

강원도 인제군은 맞춤형 <b>SNS 홍보 시스템 가동</b> 을 위해 각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군정 홍보와 정보 공유를 통해 <b>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개선하는 소통 도구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b> 『강원도민일보(2011)』	교과서 수록 지학사
---	---------------